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ISSN 2714-1187

2025년 1월 제11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SN 2714-1187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기획특집 **북한위기의 시대 이주, 노동, 그리고 공동체의 대응**

- 005 김경학 | 국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 035 박아름·강혁민 | 북한위기 시대 로컬평화의 실천양식
—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 —
- 063 이기연 | 코로나19 경험이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 현안을 중심으로 —
- 095 최대희 |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일반논문

- 127 류명옥 |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결핍과 죽음의 이면적 의미
- 153 한의송 | 玄谷 趙緯韓 漢詩 研究 - 挽詩를 중심으로
- 175 김정녀 |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휘절 양상과 의미
— <李花實傳>과 <吳後姜傳>을 중심으로 —
- 197 안서현 |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
— 이건영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

제11집 / 2025년 1월 31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편집위원장 류도향
편집위원 김청우·김형주·박미선·신선휘·이현재·정미선·최대희·한우리·한익승

- 223 김남석 | <별에서 온 그대>에 반영된 가족 제도의 혼종성과
여성 주체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 251 김 의 | 畢柳鶯의 『斷食善終』에 나타난 타이완의 단식
존엄사 논의
- 271 박영민 |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 D대학을 중심으로 －
- 295 박주희 | 만화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연결 요인
－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 －

서평

- 311 강소희 | 공동성과 취약성 위에서 '감염'을 사유하기
- 321 ■ 발간 및 투고 규정
- 325 ■ 논문 심사 규정
- 329 ■ 연구 윤리 규정
- 334 ■ 임원 명단

국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김정학**

목 차

1. 들어가는 글	4. 청년 부부의 한국 이주와 가족관계 및 이민 생활
2. 연구 대상 선정과 방법	5. 고려인 청년세대의 민족집단 내 결혼 과정
3. 구소련권 고려인의 결혼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민족집단 내 혼인’을 한 고려인 청년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만남의 과정과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민족지적(ethnographic) 자료로 삼아, 국내 고려인의 민족 내 결혼이 형성되는 미시적 수준의 개별 요인과 개인을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 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국내 일부 지역에 형성된 고려인 집거지에서 가족 단위의 일상과 종교 생활 등을 하는 고려인 청년세대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 현장 같은 육체적 노동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고려인의 이러한 삶의 환경은 청년세대가 이성 상대를 만날 기회와 배우자 선택 과정에 밀접히 관련된다. 고려인 집거지 공간, 개신교 고려인 전국 집회, 생계 활동 현장, 국내외 고려인을 연결하는 SNS 플랫폼 등은 고려인 청년이 이성을 만나게 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배우자 선택 결정에 외모 등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늘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학력과 경력 및 한국어 구사력 등의 개인의 인적 자원은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한편 고려인 민족성과 문화적 가치의 공유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1141).

** 전남대학교 교수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거시적 수준의 요인이었다. 한국 내 일부 집거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분리된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고려인 청년 세대들에게 혼인의 안정성을 민족성과 문화의 공유에서 찾는 윗세대 고려인의 답론은 한국 이주 전후에 걸쳐 청년 고려인의 민족 내 결혼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주제어: 국제 이주, 고려인 청년세대, 동일 민족집단 내 결혼, 이성의 만남, 배우자 선택, 고려인 집거지

1. 들어가는 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일부 아시아의 소위 '선진' 국가의 이주와 결혼 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들 국가의 남성과 이들을 상대로 결혼을 위해 이주하는 여성 이주자 간의 가족 형성을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이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 등으로 지칭되는 이런 결혼에는 국적, 민족, 문화 등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남녀 결합을 통한 가족 형성이란 공통성이 있다. 국내 이주자의 결혼에 관한 대부분 기존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연구는 이주여성의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남녀의 위계적인 권력관계,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 착취적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역량 강화, 이주여성의 행위성과 이를 규제하는 구조 간의 긴장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다.

한편 결혼 이주자 외에 외국국적동포와 이주노동자 등 국내에 다양한 체류 자격의 이주민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주자의 결혼 유형, 배우자 선택, 사회통합, 결혼 해체 양상 등이 더욱 다양화되는 현실이다. 특히 국내 고려인 동포처럼 정착 국가와 사회·문화적으로 소통이 원활치 않은 이주자 집단은 일부 집거지 중심으로 상대적인 고립 상태로 생활한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11만 명¹⁾의 고려인 동포가 있으며, 국내에서 결혼하는 청년세대 고려

1) 2023년 1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년 통계연감'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자 고려인 동포의 등록 이주자 수는 108,231

인들은 자신들끼리 결혼하는, 이른바 고려인 ‘민족집단 내 혼인’(co-ethnic marriage) 양상을 보인다. 소련 붕괴 후 별도의 국가가 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고려인들이 한국 이주 후 국적이 다른 고려인을 만나 하는 결혼을 ‘국제결혼’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구소련권 고려인 문화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재이주하여 현지 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국적 고려인을 만나 결혼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와 혼인 간의 관계를 다룬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연구들(Hyman et al. 2008; De Hart, B. 2013; Jeffreys & Wang, 2020; Qureshi, K. 2020)은 이주자의 결혼 통계자료를 이용한 거시적인 양적 연구를 통해,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사례를 수용 국가에 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도에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수용 국가 시민과 결혼하는 이주자 사례가 많을수록 해당 이주자 집단이 수용 국가 사회로의 통합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이주 후 고려인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결혼하는 양상은 고려인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이민 생활하는 징표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민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만, 고려인처럼 외국 국적 이주자의 결혼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결혼하는 고려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기에, 고려인 이주자 사이에 또는 고려인과 한국인 선주민 사이에 형성되는 결혼 양상에 관한 거시적 연구 수행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국내 고려인 집거지에 사는 청년 고려인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 인터뷰로 수집한 질적 자료를 이용해 고려인의 ‘민족집단 내 결혼’ 양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사실 고려인과 같은 소수집단 이주자가 정착 국가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후 그 안에서 경제·정치·종교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로 같은 민족 구성

명이다. 여기에 통계자료에 나오지 않는 타지키스탄 등 일부 국가와 등록하지 않고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수를 합친다면 11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원과 결혼하는 양상은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흔히 발견된다(Ballard, 2001; Hooghiemstra, 2001).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구소련권 국가 일대에 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의 국내 결혼 양상에 주요 관심이 있다. 사실 최근 10여 년에 걸쳐 한국으로 이주하는 고려인 수가 급증하고 국내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려인 이주자의 국내 결혼 사례의 수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국내에서 자신의 결혼을 최초로 한, 이른바 ‘초혼’을 한 고려인 청년세대들이다. 국내 고려인 이주자 가족은 소련 체제와 중앙아시아 독립 국가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노년과 중장년 세대 및 소련 붕괴 후 독립 국가 시대에 태어난 청장년과 아동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결혼한 고려인 청년세대는 소련 체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결혼 배우자 선택 등에 있어서 구소련 체제를 경험한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내 고려인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자들은 대부분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한 성인과 이들의 동반 미성년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H-2 비자 발급 나이가 만 25세 이상일 때에 한국에 입국하는 고려인 성인의 많은 수가 본국에서 결혼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2018년에 H-2 비자 발급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만 18~24세 사이의 미혼 입국자 수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한국에 이주한 성인 중 결혼했던 고려인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면, 이는 기존 결혼 관계를 해체(이혼)한 후 한국에서 새로운 이성과 결혼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10~20대에 한국에 이주하여 20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는 ‘한국계 러시아인’(러시아 고려인 동포)을 제외한, 구소련권 국가의 고려인 재외동포에 관한 국가별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2018년 이후 구소련권 출신 20대 초반의 고려인 이주자의 증가 추세는 한국계 러시아인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연구자가 2018~2023년 사이의 한국계 러시아인의 연령대별 인구수 자료를 수작업하여 확인한 결과, 2018년 20~24세 러시아 고려인 국내 체류자 수는 847명이었으나, 2019년에 1,593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1,335명(2020년), 1,320명(2021년), 1,773명(2022년), 2,178명(2023년)으로 해당 연령대의 체류자 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치에 많은 수의 고려인 이주자가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이주자 수를 합하면 해당 연령대의 구소련권 이주자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30대에 결혼한 고려인 청년세대의 '초혼' 사례에만 관심이 있다. 이는 재혼 등을 통한 고려인 남녀 결합에는 복잡한 이혼 과정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에 포함되기 일쑤여서,³⁾ 국내에서 진행된 고려인의 민족집단 내 결혼 발생 요인들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민족집단 내 혼인'을 한 고려인 청년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이성 상대의 만남 과정과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이들의 이야기를 민족지적(ethnographic) 자료로 삼아, 고려인의 민족 내 결혼이 형성되는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 요인 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평생 유대를 전제한 배우자 선택에는 외모, 성격,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기에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 학력과 경력의 인정 여부, 일상적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진입 장벽 등은 배우자 선택에 작용하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제한하거나 지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Houseworth, 2011; Gonzalez-Ferrer, 2006).

이 연구 대상인 13쌍의 청년 부부들은 10대 중후반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이주해 한국에서 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시절을 보냈거나, 20대에 들어서야 한국 가족과의 합류를 위해 입국한 청년들로서, 현재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과 건설 현장의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 집거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과 고려인 이웃과의 일상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구소련권에 흩어져 있는 가족 및 친척과도 연결을 유지하는 초국적 이주자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 청년 부부의 민족집단 내 결혼 양상 파악을 위한 배경 자료로서, 청년 당사자 26명의 한국 이주와 가족 배경 및 이민 생활 자료를 먼저 수집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주와 정착 자료를 토대로, 이 연구는 해당 고려인 청년들이 이성 상대를 만나게 한 기회 구조와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는 데에 관련한 개인적이고 구조적 요인 규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국내에서 수행된 고려인 결혼 관련 연구들(장동훈, 2013; 이은정, 2015; 황

3) 연구자는 광주 고려인 집거지에서 한국 이주 후 세 번째로 결혼하는 고려인 장년 남성과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그의 현 부인은 그 남성과 재혼인데 그는 그녀와 세 번째 결혼이다. 이 가정에는 이전 결혼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남성은 본국에 남아 있는 이전 결혼의 일부 자녀들에게 아동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혜영, 2021)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2~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결혼생활과 한국 생활 적응 상황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남성과 이주여성과의 결혼에서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연구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 고려인 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하는 이들 기존 연구는 고려인 사회와 문화라는 거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를 분석하고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국내 고려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가족의 이주와 정착 과정, 초국적 가족 형성, 가족의 돌봄 실천,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으나 이주 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고려인 결혼에 관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소비에트 시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결혼과 이혼 경관에 대해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결혼문화, 고려인 결혼 현상을 통한 다민족 관계, 고려인의 민족 간 결혼문제 등을 다룬 일부 연구들(김경학, 1999; 김계르만, 2013; 염나탈리야, 2014; 김현주 외, 2019)은 한국 내 고려인 청년 부부의 배우자 선택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는 외국 국적 동포라는 외국인 신분의 불안정한 처지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일부 집거지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인 공동체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고려인 청년세대의 결혼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선정과 연구 방법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인구수가 2023년 12월 기준 약 11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안산 ‘땃골마을’, 인천 ‘함박마을’, 광주 ‘고려인마을’, 아산 신창면 등 국내 주요 고려인 집거지를 중심으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 소련 해체 후 독립 국가들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다양한 차별 정책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청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고려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일대와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고려인 집거지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거나, 노동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고려인 집거지에 자리 잡는 청년기 고려인 수가 늘면서, 국내에서 고려인 민족집단 내에서 결혼하는 고려인 청년들도 늘어난다. 국내 고려인 청년의 고려인 집단 내 결혼이 형성되는 기제를 파악하

기 위해, 13쌍의 고려인 청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주 배경, 가족과 이민 생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 배우자 선택 등 이주와 결혼에 관한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심층 면담 주요 대상은 광주광역시 고려인 집거지에 거주하는 11쌍의 청년 부부들(아래 <표 1>의 C~M 부부)과 이들이 소개해 준 천안시(A 부부)와 인천시(B 부부)에 사는 2쌍의 부부이다.

그간 광주광역시 고려인 집거지를 중심으로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수행해 온 연구자는 일부 고려인 청년 지인들을 통해 고려인끼리 결혼한 광주 고려인 집거지의 11쌍의 청년 부부를 소개받아 이들에 대한 면대면 심층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였다. 광주 부부들과의 인터뷰는 고려인 집거지 인근 커피숍과 식당에서 개별 부부와 3~4시간 1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인천과 천안의 부부들과의 인터뷰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1회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022년 3월~11월까지 수행된 고려인 이주자의 결혼에 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은 이주 배경, 한국에서의 정착과 이주 생활, 경제활동, 초국적 가족관계 등 이주자 개인과 가족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과 결혼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터뷰에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고려인 대학원생의 통역 도움이 있었다. 연구 참여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연구 대상	결혼 연도	국적	나이	체류자격/학력	이주 연도	하는 일
A(남)	2021	카자흐스탄	25	F-4/한국 대졸	2016	식육점
A-1(여)		우크라이나	26	F-4/대졸	2018	식육점
B	2021	우즈베키스탄	27	F-4/한국 대졸	2012	온라인 어학원
B-1		카자흐스탄	29	F-4/대졸	2017	제조업 노동
C	2021	우즈베키스탄	27	F-4/기술학교	2017	건설업 노동
C-1		우크라이나	22	F-4/한국 대졸	2017	육아
D	2018	카자흐스탄	32	F-4/대졸	2015	제조업 노동
D-1		카자흐스탄	36	F-4/대졸	2016	제조업 노동
E	2021	우크라이나	32	F-4/대 중퇴	2016	요리사
E-1		우크라이나	26	F-4/대졸	2019	제조업 노동
F	2022	러시아	25	F-4/고졸	2019	제조업 노동

연구 대상	결혼 연도	국적	나이	체류자격/학력	이주 연도	하는 일
F-1	2018	우즈베키스탄	25	F-4/대졸	2017	한국어 과외
G		우즈베키스탄	28	F-4/대졸	2015	제조업 노동
G-1		우크라이나	26	F-4/한국 대졸	2013	이중언어 강사
H	2020	우즈베키스탄	34	F-4/대졸	2011	택시업
H-1		카자흐스탄	27	F-4/고졸	2019	자영업
I	2020	우즈베키스탄	32	H-2/대 중퇴	2015	제조업 노동
I-1		우즈베키스탄	33	F-4/고졸	2015	제조업 노동
J	2019	우즈베키스탄	26	H-2/기술학교	2017	건설업 노동
J-1		우즈베키스탄	27	H-2/고졸	2018	제조업 노동
K	2020	우즈베키스탄	35	H-2/기술학교	2013	제조업 노동
K-1		우즈베키스탄	24	H-2/기술학교	2018	제조업 노동
L	2020	러시아	24	F-4/한국 대졸	2016	건설업 노동
L-1		러시아	24	F-4/한국 대졸	2017	육아
M	2018	러시아	34	F-4/대졸	2017	제조업 노동
M-1		카자흐스탄	33	F-4/대졸	2016	통번역

이 연구의 13쌍의 부부는 2011~2019년 사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2022년 조사 당시 4~11년에 걸친 한국 생활을 하는 청년세대들이다. 이들의 한국 이주 시 남성의 나이는 17세~29세 걸쳐 있는데 10대 입국한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20대 중반에 입국하였다. 여성의 이주 시 나이는 17세~30세에 걸쳐 있고 10대 입국자 4명을 포함해 대부분 20대 중반에 입국하였다. 남녀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적자 순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일부 청년 부모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로 재이주하여 현지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결혼식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⁴⁾에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부부의 결혼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2살에 결혼한 2명을 포함 20대 초반에 5명, 20대 후반에 3명, 30대 초반에 5명으로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4) 13쌍 부부 중 5쌍은 양가 가족들의 상견례와 식사로 결혼을 가름하였다. 일부 개인교신자를 제외한 모든 부부는 결혼식 거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거 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가장 많다. 여성은 21-2살에 결혼한 3명을 포함해 20대에 11명이 결혼했고 남은 2명은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여성의 결혼 당시 나이는 남성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대상 중 남성 7명과 여성 10명은 대졸 학력자로서, 이 중 6명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한국어 구사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좋다. 나머지 청년들은 자국에서 고등학교나 기술 학교(일종의 실업계고)를 졸업하였다. 한국 이주 후 연구 참여 청년 부부들 가운데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소수의 한국 대학 졸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청년 부부는 학력에 무관하게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다.

3. 구소련권 고려인의 결혼

러시아 극동의 '신한촌'(新韓村)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데리고 중앙아시아로 간 강제 이주 1세대 대부분은 한민족 내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신한촌에 밀집 거주하기에 언어를 비롯한 전통적 문화 요소가 비교적 많이 간직될 수 있었다. 당시 가족생활과 배우자 선택을 포함한 결혼 유형도 한반도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드물었다.⁵⁾ 강제 이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혔으나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주 1세대에게 한반도 문화 전통의 많은 부분이 남아, 본인과 자녀의 혼인 시 타민족과의 혼인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강제 이주 1세대~2세대 고려인 대부분은 고려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주 2세대부터 타민족과의 결혼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면서 배우자 선택의 전통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 무렵 고려인의 거주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고려인 이주 2세대의 타민족과의 혼인이 증가하였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구소련권 국가로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일이 잦아 현지에서 고려인을 만나 결혼하거나, 러시아인 등 다른 민족과

5) 강제 이주 전 연해주 우수리스크 '육성촌'(六城村)에서의 생활 이야기에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축첩하는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연해주 시절에는 한반도 전통적 관습이 상당 부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송무, 『쓰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사, 1990, 14면.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1998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밀집 거주지인 우슈토베(Ushtobe) 구역에 고려인 전체 202가구의 '단니보스톡'(danibostok) 마을에서 수행된 인류학적 현장보고서(김경학, 1999)⁶⁾에 따르면, 당시 마을 전체 가구에서 고려인과 타민족과의 전체 혼인 중 71%에 해당하는 15사례가 30~40대의 고려인(강제 이주 2~3세대)에서 일어났지만, 60~80대(강제 이주 1세대와 1.5세대)에서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1940년대~196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이주 2세대들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허용된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세대로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구소련 내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후 도시 생활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었다. 특히 이 세대들은 1938년 이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중단된 이후, 러시아어로 본격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기 때문에 한국어를 거의 구사할 수 없고 러시아어만을 사용한 고려인들이다. 배우자가 반드시 고려인일 필수성이 약화한 세대들이기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타민족과 혼인하였다.

구소련권에서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양상은 농촌에 비해 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970~1980년대 고려인의 타민족과 결혼은 평균 30.83%였는데, 같은 시기 카자흐인의 타민족과의 결혼은 평균 3~4%에 불과했다. 이로 보면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율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염나탈리아, 2014). 김게르만(2013)은 1970~1980년대의 카자흐스탄 대도시 알마티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이 30~40%로 높았다고 주장한다. 염나탈리아와 김게르만의 연구 모두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은 높았으며, 상대 배우자 민족은 남녀 모두 러시아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카자흐인과 우크라이나인 순이었음을 주장한다. 김현주와 동료 연구자(2019)⁷⁾는 소련 시절 고려인, 특히 남성 고려인의 러시아인과의 결혼 비율이 크게 높았던 것은 고려인 남성이 소련 동화를 강렬히 원해 러시아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진정한 러시아 민족의 일원이

6) 김경학,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구조와 문화」, 『중앙아시아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7) 김현주 외, 「결혼문화로 본 CIS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한국언어문학』 111집, 한국언어문화회, 2019, 138면.

로 포섭되고자 하는 심리적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위구르인, 타타르인 등 무슬림과의 고려인 결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고려인이 이슬람 문화와의 차이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김경학, 1999).

고려인 3세대 중에는 소련 시대와 소련 붕괴 후 독립 국가 시대를 동시에 경험한 고려인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고려인과 결혼하였으나, 적지 않은 규모로 타민족과도 결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소련 해체 후 실시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⁸⁾에 따르면, 알마티 대도시 고려인 중 18~35세의 젊은 층은 85~90%가 민족 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설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마티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타민족과 결혼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는 고려인이 응답자의 반수를 넘고 있다. 강제 이주 3~4세 고려인은 소비에트와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로 타민족과 결혼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족 내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 해체 후 독립 국가 성립 이후에 출생한 고려인들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인과의 혼인을 선호하지만, 구소련권 국가들 내에서 상당수의 고려인은 여전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있다.

4. 청년 부부의 한국 이주와 가족관계 및 이민 생활

구소련권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연쇄 이주에는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가 작동하였다. 소련 붕괴 직후 고려인이 한국 이주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은, 한국어를 못하고 구소련권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한국 이주 후 공장 등에서 단순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투명한 전망 때문이었다.⁹⁾ 그러나

8) 김계르만, 「알마티시 고려인들의 민족 간 결혼문제」,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악원, 2013.

9) 김경학, 『초국적 가족과 돌봄 문화: ‘고려인마을’ 고려인 동포들의 이야기』,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82면.

한국 정부가 고려인 동포에 대해 2007년부터 방문취업비자를 도입하여 가족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주 정책을 도입하자, 일자리와 고임금 등의 경제적 매력에 끌려 2010년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고려인 수가 많이 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고려인 청년들은 미성년 나이에 부모 이주의 동반 자녀로 한국에 이주하거나, 20대에 독립적으로 이주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였다. 대다수 고려인 청년은 20대에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해 곧바로 공장 등 생계 활동을 하였으나, 동반 미성년 자녀나 대학생으로 입국한 일부 연구 대상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다. 교환학생으로 이주해 한국 대학을 졸업한 후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카자흐스탄 가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했던 A(남, 24)의 이야기는 고려인의 가족 연쇄 이주 사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내와 24살이던 2021년에 결혼하였다. 나는 카자흐스탄 출신인데 수도가 있는 아스타나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2016년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서울에 있는 ㅁ 사립대학으로 유학 왔다. 3~4학년 2년의 교육과정 수료 후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천안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한국 이주를 저울질하였다. 공장에서 일하던 나는 한국에서는 참고 부지런하게 일만 하면 돈을 버는 데는 어려움이 없음을 몸소 경험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 이주를 결심하게 했다. 먼저 부모님이 오셔서 내가 준비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다음으로 외할머니와 동생들이 한국에 한꺼번에 왔다. 가족들이 들어가자, 가족들 전체가 살 수 있는 방 2개짜리 개인 주택 2층을 월세로 구했고, 집안 살림하는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천안과 인근 지역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다.”

A처럼 먼저 와 가족의 연쇄 이주를 준비한 청년과는 달리, 이 연구의 대부분 청년은 노동 이주로 한국에 와 자리를 먼저 잡은 가족들에 합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청년 C(남)는 2012년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이주하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2015년에 아버지와 결합하고, C는 2017년에 기술학교를 마친 뒤에

한국 가족과 합류하였다. 입국 며칠 뒤부터 공장에 다니던 그는 그곳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청년 이주자와는 달리 17세의 미성년 나이에 한국의 부모에 합류한 L 부부(남녀, 24)는 한국어를 못해 오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의 강권으로 한국에 와서 대안학교를 다니던 중에 지금의 부인과 교제를 시작했다.

연구 대상 13쌍의 고려인 청년 부부는 L 부부처럼 일찍이 동반 미성년 청소년으로 입국했거나, A처럼 유학을 왔고, C처럼 한국 가족에 합류하여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였다. 대다수 연구 대상 청년들은 자국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성인이 되어 한국 가족과 합류하여 주로 공장에서 일하였다. 이들 청년 부부의 가족들은 정치와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한 자국에서 일부 가족이 한국으로 먼저 이주하여 생활이 안정되면서 남은 가족이 한국에 합류하는 가족 연쇄 이주 과정을 밟았다.

26명의 개별 청년 가족은 한국 이주 후에 단독 가구(남성 B)부터 형제자매 가구, 편부모와 자녀 가구, 양부모와 자녀 가구, 조모와 부모 및 자녀의 3세대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거쳤다. 부모와 모든 형제자매가 한국으로 이주한 사례도 있지만, 자국에 부모나 조부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청년 부부도 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청년 부부의 삶에는 본국에 남아 있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금전적 송금, 일상적인 SNS를 통한 정서적 연결, 만남을 위한 국경 넘기 등 가족 간의 초국가적 실천 행위가 수반된다.

광주광역시의 11쌍 청년 부부들은 고려인 집거지와 인근 지역의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공업단지 내 제조업 공장과 건축 현장에서 일한다. 천안 거주 A 부부도 천안 버스터미널 인근 주변에 형성된 고려인 집거지¹⁰⁾ 가까이에 살면서 고려인을 고객으로 하는 ‘고깃집’을 운영한다. 국내 고려인 집거지들은 2010년대부터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 수가 급증하면서 형성되었다. 광주의 고려인 집거지 경우 단독주택들이 원룸 빌딩으로 전환되고 고려인을 중심으로 구소련권 이주자가 몰리면서, 집거지 내에서 방을 구하기

10) 안산시의 땃골마을, 인천시의 함박마을, 광주시의 고려인마을은 외부에 비교적 잘 알려진 고려인 집거지이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제조공장이 밀집된 아산과 천안 및 김해 등에도 큰 규모의 고려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었다.

도 어렵고 임대료도 치솟고 있다. 11쌍의 청년 부부가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취업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가족과 친척과 가까이 살면서 자녀 육아 등의 도움을 받으며, 고려인 대상 식당과 잡화점 등 서비스 시설이 갖춰져 일상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고려인 집거지 내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정, 지원센터, 교회, 고려인 운영 각종 상가 등 고려인 삶의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어가 통용된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고 입국하는 미성년 자녀 취학을 위한 지원체계가 상당히 잘 갖추어진 초중등학교가 집거지 인근에 있어 자녀의 한국 정착과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집거지에서 사는 고려인들은 주류 사회와의 사회·문화적 접촉이 제한되거나 고립된 이주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5. 고려인 청년세대의 민족집단 내 결혼 과정

왜 국내 많은 수의 고려인 청년들은 고려인 이성 상대를 만나 결혼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고려인 청년들이 고려인 이성 상대를 만나게 되는 ‘우연’ 이상의 만남의 기회 구조가 파악되어야 한다. 일단 고려인 남녀의 만남으로 교제가 진행되면서, 동거에 들어가는지와 관계없이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에 이르려면 이성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결정 과정을 거친다. 국내 고려인 청년들끼리 하는 결혼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배우자 선택에 작용하는 외모나 학력 등 개인의 신체적 매력과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민족 내 결혼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요인 등 거시적 요인들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1) 고려인 청년 이성 만남의 기회

국내에서 고려인 청년들은 일상에서 이성 고려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 대상 부부들이 상대 이성을 만났던 기회들은 고려인 집거지 중심의 삶, 개신교 중심의 종교 생활, 이주노동자로서의 경제활동, SNS 중심

연결 네트워크 등 초국적 이주자 삶에서 제공되었다. 고려인 청년 대부분은 집거지에서 고려인 일생 의례에 참여하고, 러시아어로 한국과 구소련권의 가족과 친구와 SNS로 소통하고, 집거지 인근 고려인교회에 다니며, 인근 공단의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고려인 동료와 함께 일을 한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한국 사회와 한국 생활에 더 익숙하지만, 여전히 체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한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 주변을 맴돌다 고려인 이성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고려인 집거지 공간 및 개신교 고려인 전국 집회

연구 대상 고려인 청년들은 고려인 집거지에 살면서 한국 사회와 상당히 거리를 두는 고립적인 이주 생활을 경험했고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생활과 놀이공간,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이 고려인이 수적으로 지배적인 집거지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고려인 이성을 마주치는 기회도 이 공간에서 일어나기 십상이다. 2017년에 광주에 사는 부모와 합류하면서 광주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을 다니던 F-1(여, 25)이 2019년에 남편 F(25)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끌려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곳도 집거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농구장에서였다. 부모를 따라 17세 나이에 광주 집거지에 살게 된 우크라이나 출신 C-1(여, 22)이 2017년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현 남편 C(27)를 처음 만난 곳은 고려인지원기관의 고려인 청소년센터였다. C는 22살 때 한국에 미리 와 있는 부모와 합류한 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센터에서 주말 봉사활동 하던 중 부인 C-1을 만나 교제 끝에 결혼하였다. 고려인 집거지에 거주하던 L 부부도 대안학교 학창 시절에 시작된 교제 끝에 결혼하였다. 17세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L 부부는 그들 나이 22세에 결혼하여 16개월 된 딸을 두고 있으며, 이들 부모도 고려인 집거지의 오랜 이웃 사이이다.

전국 규모의 고려인 개신교 종교 행사(신앙인 집회)는 전국의 고려인 청년 이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된다.¹¹⁾ 연구 대상 부부 중 개신교 신자

11) 소련 체제에서는 종교적 형식 표현이 불가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종교 생활에 관한 1997~199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려인 응답자의 42.3%가 개신교 교회를 다닌다. 소련 붕괴 후 적지 않은 고려인이 한국 이주 이전 본국에서부터 기독교(개신교)를

는 4쌍 부부인데, 이들은 개신교 신앙 활동 중에 서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국내 고려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일부 조직은 개신교 목사가 운영한다. 고려인 지원기관 산하 아동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책임자도 개신교 선교사인 경우가 많다. 고려인 집거지 인근 개신교 교회는 신앙 활동 외에도 초기 이주 생활에 필요한 구직과 생활 및 이주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된다. 특히 고려인교회에 다니는 청소년 중 고려인 차세대 선교사로 육성되는 소수가 있으나, 개신교 신앙을 수용한 대다수 고려인 청소년은 전국 규모 고려인 집회에 참석한다.

청소년센터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결혼하게 된 C 부부는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차세대 선교사 육성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에 한국에 이주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C-1은 2021년 남편 될 C(27)와 함께 러시아 신학교로 파송되어 1년 신학 공부를 했다. 이들은 2022년에 귀국해 결혼식을 올리고 남은 3년의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장차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신교 목회자로 활동할 것이다.

A와 B의 부부들이 처음 만난 곳은 전국 고려인 기독교 집회였었다. 전국의 고려인 아동·청소년들은 매년 여러 차례 수도권 대형 교회에서 2~3일 진행되는 소위 '고려인 선교 축제'¹²⁾에 참여한다. 이런 집회에 전국 고려인 청소년 개신교 신자가 참여하고 전국에 흩어져 사는 청소년에게 만남의 기회를 준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천안에서 공장일 하는 A(남, 25)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진천에서 공장일 하는 A-1(여, 26)은 2019년에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목사가 이끄는 천안 교회의 고려인 신자 '대성회'에서 서로를 만났다. 서로 마음이 끌렸지만, 전화번호조차 교환하지 않은 채 헤어졌으나 고려인 인스타그램 단톡방에서 연락이 되어 교제하다가 2021년에 결혼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B 부부도 2018년 경기도 대부도의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RUSTA'라는 고려인교회 연합 수련회에서 서로를 만나 고려인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연락처를 찾게 되어 만남을 이어가다가 2021년 결혼에 이르렀다.

수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115면.

12) 2017년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2017 고려인 엑소더스 전도 축제'가 개최되어 여기에 국내 고려인 약 2천 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종교집회를 하였다.

(2) 생계 활동 현장 및 SNS 플랫폼

한국에 이주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동 가능 연령대의 고려인은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생계 활동을 한다. 고려인 청년들은 주로 3D업종 공장에서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D 부부는 2016년에 천안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자국에서 대학 졸업 후 천안의 제조업 공장에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광주로 이전한 공장을 따라 광주로 이사하면서 고려인 집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18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20년에 D-1의 어머니가 한국에 이주해 이들 부부 아이를 돌보고 있다.

한편 고려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등 SNS 단톡방은 한국과 구소련권 고려인 이성에게 만남의 기회가 되는 플랫폼이 된다. SNS 가상 공간 플랫폼은 국내 고려인 이주자처럼 오프라인에서 소통이 제한되거나,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소수자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Miller, D. & H. A. Horst, 2012). SNS 활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은 인터넷과 SNS 사용을 일상화하면서 국내외 고려인 이주자 간의 관계 유지와 정보를 습득한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직, 구인, 생활정보 등의 교환과 이성 친구도 만난다. 국내 고려인만이 참여하는 플랫폼도 있지만, 구소련권 전체를 아우르는 SNS 플랫폼도 있어 이런 고려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과 구소련권을 연결하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된다.

앞서 교회에서 만난 이성 친구를 SNS로 연락처를 찾아 관계를 지속했던 A와 B 부부도 이런 SNS 플랫폼을 이용했으며, G, H, K 부부들이 서로 처음 만나게 된 공간도 SNS 플랫폼에서였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 청년 G(남, 28)는 구소련권 출신자가 이용하는 VK(Vkontakte)라는 플랫폼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G-1(여, 28)과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SNS로 관계를 이어가다가, 타슈켄트 IT 회사원이던 G(남)가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 한국 대학 졸업 후 서울서 직장 생활하는 G-1을 만나러 한국에 입국했다. 이주 후 교제를 이어가다 2018년에 결혼하여 이들은 현재 광주 고려인 집거지에서 살고 있다.

H 부부도 광주 고려인이 주로 참여하는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만나 결혼하

였다. 카자흐스탄 국적자 H-1(여, 27)은 2019년 광주에서 진간장을 구매할 장소 정보를 구하는 문자를 단독방에 올렸다. 러시아어 택시 앱으로 주로 구 소련권 승객을 상대로 택시업에 종사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H(남, 34)가 페이스북 단독방에 문자를 남겨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택시 드라이브 연애가 시작되어 2020년에 동거를 시작하고 이들은 2021년에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혼인신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I(남)도 2015년에 한국에 이주해 경기도 광주에서 일하면서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일하는 타슈켄트 이웃이던 I-1(여)을 VK(Vkontakte)로 만나, 이들은 광주 고려인 집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해 2020년에 결혼식을 했으며 17개월 딸이 있다.

고려인 이주자들은 여전히 본국에 부모와 조부모 등의 가족원이 살고 있는 초국적 이주자들로, 한국과 본국 가족들은 다양하게 초국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국제 전화나 영상통화를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정서적 지지는 일상적이다.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 부모와 함께 광주에 정착한 카자흐스탄 출신 M(남, 34)은 카자흐스탄에 사는 외할머니의 소개로 부인 M-1(33)을 만났다. 할머니가 M-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교제를 권유하였으며, 2018년 8월에 인천에서 시작된 데이트는 같은 해 12월 결혼으로 이어졌다. M의 외할머니와 M-1의 어머니는 카자흐스탄에서 아는 사이였는데, 당시 미혼이던 두 남녀에게 교제를 권유하며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인연이었다.

2) 청년 고려인의 배우자 선택

연구 참여 고려인 청년세대 부부들은 ‘보자마자 뜨거운 감정이 들어서’, 또는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아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과 외모에 끌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신체적 매력이 배우자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함은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개인 신체적 매력은 연구 대상 청년 부부들에게 중요했다. 이들은 상대 이성의 외모와 성격에 끌려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면 결혼 배우자 선택으로 여타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상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대 개인의 학력 등의 인적 자본이 국내 청년 고려인 배우자 선택에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데는 '사랑' 외의 이유도 있다.

이주자의 결혼에 관한 일부 기존 연구(Kalmijn and Van Tubergen, 2006; Van Tubergen and Maas, 2007)는 개인의 고학력과 정착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의 우수성 및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이주자가 자기 집단을 포함하여 이를 넘어 정착 국가 선주민과의 결혼 가능성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학력자 고려인 청년은 선주민인 한국인과의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으로 이런 개인적 조건이 미비한 고려인에게는 자기 집단에서 배우자를 찾게 될 경향성이 높게 된다.

이 연구 대상에서 한국과 자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한국 대졸자 6명을 포함해 17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웃돈다. 이중 여성과 남성 각각 3명씩 전체 6명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한국어 구사 수준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 대졸 학력과 한국어 능력이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려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학원을 운영하는 1명(B, 남)과 초등학교 러시아어-한국어 이중언어 강사(G-1, 여)¹³⁾ 1명, 프리랜서로 통번역 일을 하는 1명(M-1, 여)을 제외하면, 한국 대학 졸업자들도 자국에서 고등학교, 기술학교, 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려인 청년들은 한국인 기준으로는 한국어 능력 미달의 외국인 신분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진입 경쟁이 심한 분야의 취업 시장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고학력 고려인 이주자조차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분야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쉽지 않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한국과 자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거의 모든 고려인 청년의 학력과 한국어 구사력 및 관련 분야 경력 등 개인의 인적 자본은 주류 사회인 한국의 이성과 만남의 기회에 연결되지 못하기에, 이들 배부분은 배우자를 고려인 사회에서

13) 국내 대학을 졸업한 고려인 중, 일부 여성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일자리는 고려인 집거지 인근 초중등학교의 고려인 재학생을 위해 시간제로 고용되는 이중언어 강사직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에도 국내 대학을 졸업한 많은 고려인이 지원해, 진입이 쉽지 않아서 공장에서 일하는 대졸자들이 많다.

찾는다. 이 연구 대상 고려인 청년들이 상대의 학력이나 하는 일을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데에는 고학력 고려인조차도 한국의 주류 사회 진출이 어려워 거의 모든 청년세대 고려인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이주의 기회가 열렸을 초기에 일부 고학력 고려인의 한국 이주를 망설이게 했던 것도 자국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한국의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려인 고학력자나 전문직 경력자가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진행형이다.¹⁴⁾ 이주 후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먼저 경험한 부모 세대가 학력과 직업 등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자녀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이 연구 대상 청년 중 식육점(A 부부), 어학원, 택시업(H)에 종사하는 소수의 자영업자와 러시아어-한국어 통번역 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다.

학력 등 인적 자본 및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개인적 요인이 국내 고려인 청년의 배우자 선택에 주목받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민족성과 문화적 가치의 유사성은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시적 요인이 된다. 게다가 고려인 청년들처럼 고려인 집거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온 이주자 집단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 세대 그리고 이주자 공동체의 결혼문화는 청년세대의 배우자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의 고려인 청년 모두 한민족 외모¹⁵⁾에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국적은 구소련권 나라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고려인’(고려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들 부부는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에 이르는

14) 광주광역시 하남공단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T(남, 33)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대를 졸업한 의사로서 자국 국립 병원의 낮은 월급(약 미화 300불)으로 생활이 어려워 러시아 병원으로 이직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워진 러시아 경제 상황으로 러시아 병원으로의 이직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는 2019년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

15) 러시아인 아버지를 둔 2명의 연구 대상 청년들은 이혼한 엄마와 고려인 외가 식구들과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고려인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들의 외모에는 고려인끼리 결혼한 다른 청년들과는 구분되는 유럽인 일부 특성(큰 신장, 하얀 피부, 옅은 코 안구색 등) 있다.

데에 고려인이라는 ‘민족적 배경’과 고려인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구소련권 국가에서의 어린 시절과 한국에 이주한 후에도 “고려인과 결혼해야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이 편하다.”라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강조하는 윗세대들도 소련 체제기나 독립 국가 시절에 고려인끼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타민족과 결혼하였다.¹⁶⁾ 고려인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후속 세대 고려인의 민족 내 결혼을 염원하는 것은 타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의 이유로 시작된 이혼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이혼 경험에서 비롯된 ‘굳건한’ 믿음에서이다.

총 26명 청년의 부모 결혼 가운데 사별을 제외하고 부모가 이혼한 사례는 10건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를 둔 F-1(여)과 L(남) 2건의 타민족 결혼 사례를 제외하면, 대다수 이혼사례는 고려인끼리의 결혼에 해당한다. 2건의 러시아인 아버지와 고려인 엄마와의 타민족 간 결혼의 해체는 모두 해당 청년의 어린 시절에 발생했다. 러시아인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해체된 F-1의 어머니는 유난히 딸이 고려인 남성과 혼인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러시아인 남편과의 결혼생활 중 심각한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이르게 했다는 어머니의 경험과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F-1의 러시아인 아버지는 돌잔치¹⁷⁾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어리석은’ 고려인 문화를 조롱했었다. 그는 ‘돌’도 매년 오는 일반 생일에 불과한데, 돌잔치에 그토록 많은

16) 구소련권 고려인 결혼 관련 기존 연구들(김계르만, 2013; 옴나탈리아, 2014)은 1970~1980년대 소련 시절, 특히 도시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은 약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고려인끼리 결혼한 부부나 타민족과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은 거의 유사하였기 때문에, 고려인의 높은 이혼율이 타민족과의 결혼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두 유형의 결혼 모두 초혼 유지 기간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70년대 7~9년, 80년대 5~6년으로 처음 한 결혼(초혼)의 유지 기간은 매우 짧았다.

17) 현재까지 고려인 사회에서 돌잔치, 환갑 잔치 등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지는 일생 의례이다.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고려인의 가족과 친족 유대는 일생 의례에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르기에 재정적인 지출이 적지 않으며, 한국의 고려인 이주자가 형제자매 자녀의 돌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비싼 항공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본국에 가는 일도 흔하다.

돈을 쓰는 고려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문화적 인식의 차이는 음식 습관 등 일상적 차이로 확장되었고, 이런 잦은 차이로 인한 갈등은 다름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혼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청년 부부들은 특정 집단의 민족성에 대한 윗세대의 비판적 이야기도 자주 듣고 자랐는데, 이런 윗세대의 결혼에 대한 신념과 이야기가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것 같으며, 우크라이나 출신 G(남, 2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고려인과 결혼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아마 우크라이나인과 결혼했다가 빨리 이혼했던 이모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늘 고려인에게 있는 ‘눈치’와 ‘예의’가 다른 민족, 특히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에게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들 유럽인은 예의가 없어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런데 조부모 세대는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어머니도 늘 ‘사는 방식이 비슷해야 싸움이 적다.’라며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사는 방식의 차이로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나는 다른 민족 여성과 교제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고려인을 연애 상대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것 같다.”

고려인 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작용하는 민족성과 문화적 영향 외에, 청년들은 역사적 모국인 한국에 귀환하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이와 차별도 고려인 배우자 선택 결정에 한몫했다. 한국 이주 후 한국인과의 민족성과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들 고려인 청년이 막상 한국에서 배우자감으로 한국인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존 연구(Dribe and Lundh, 2011)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정착 국가 선주민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자기 민족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주자가 정착 국가에서 자기 언어 등 기존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수용국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을 공유한다면 이주자의 자기 민족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성은 높아진다(Ballard, 2001; Jeffreys & Wang, 2020).

한국에 이주한 일부 고려인 청년은 자국에서 경제와 문화 선진국인 한국을

‘자랑스러운’ 역사적 조국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 이민 생활 중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상상된’ 소속감과 동질성에 대해 이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아동기부터 성장한 청소년 고려인이 외모, 언어, 국적 등에서 서로 조화롭지 않아,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⁸⁾ 한국에 거주한 고려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려인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연구한 김혜진(2016)¹⁹⁾은 학업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 청년층이 한국 이주 이전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내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 교류하면서 고려인에 대한 편견 섞인 시선이나 고려인을 열등시하는 태도 등의 타자화 경험 과정에서, 고려인 청년들이 자신들이 한인이 아닌 ‘외국에서 온 한인’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²⁰⁾

이 연구 대상 중 10대 중후반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중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일부 청년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서 누적된 한국인과의 차이나 한국인으로부터 차별 경험으로 고려인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고려인 집거지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L 부부는 고려인 집거지 밖에서 늘 자신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았다. 17세 입국해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L-1(여, 24)은 전체 13쌍 부부 가운데 아마도 한국어를 가장 능숙하게 하여, 연구자는 한국어로 나눈 그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해, 한때 자신도 한국인이 되어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경험해 온 작은 차이나 차별들은 그녀가 한국인이 아님을 늘 말해주었다. 그녀가 고려인 남성과 결혼하는 데는 한국인을 결혼 상대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 김경학,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24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19) 김혜진,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 정체성 변화」, 『슬라브학보』 31권 2호,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6.

20) 김혜진, 앞의 글, 63면.

“내가 대안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 광주 시내에 쇼핑하러 가끔 버스를 타고 나갔다. 우리가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면 버스 속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우릴 신기하게 쳐다본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면서 외국인 취급을 하였다. 생긴 것은 한국인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한편 이해된다. 그러나 우린 늘 그런 눈빛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버스 안에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내려서 마음껏 러시아어로 말했다. 말을 안 하면 똑같이 생겨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해보지 않았지만,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한국 집으로 시집가서 며느리가 되면 명절에 남편 집에 가서 요리도 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우리와 차이가 날 것이 뻔하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아이들은 출세해야 하므로 과외도 하고 어린 나이에 영어도 가르쳐야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고 우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남자 집에서 내가 고려인이라며 결혼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고려인 남자들 놔두고 왜 내가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편하게 고려인끼리 결혼할 수 있는데도.”

한국에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에 유학 온 인천 사는 B(남, 26)도 한국 사회에서 늘 자신은 이방인이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4년 동안 단 한 명의 한국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한국인들은 외모로는 한국인과 동일하여 외국인임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입만 열면’ 그들은 자신을 외국인 취급하였다. 그는 이게 너무 싫어서 학교에서 한국 학생과 어울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람과의 대화를 최대한 하지 않았다. 2021년 그의 결혼식에 한국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는 집에 오면 한국과 타슈켄트의 고려인 친구나 가족과 SNS로 대화하며 한국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는 함께 고등학교의 초청장학생으로 유학 온 고려인 친구 3명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구소련권 출신 고려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학원을 운영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성 친구로서 한국 여성은 아예 없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2018년 경기도 대부도 고려인 대성회에서 광주광역시 고려인 집거지에서 올라온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는 한국 생활을 알면 알수록 한국에서 사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우즈베키스탄보다 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고 생활 기반이 잘되어 있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영구 정착하고 싶어 한다.

6. 맺음말

국내에서 결혼하는 고려인 청년세대의 인구수가 점차 늘면서 고려인 집단 내부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성의 만남과 배우자 선택이 국내 고려인 집단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요인들의 규명을 통해 국내 고려인 청년세대의 민족집단 내 결혼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국내 일부 지역에 형성된 고려인 집거지에서 가족 단위의 일상과 종교 생활 등을 하는 고려인 청년세대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 현장 같은 육체적 노동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고려인의 이러한 삶의 환경은 청년세대의 이성 상대를 만날 기회와 배우자 선택 과정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고려인 집거지 공간, 개신교 고려인 전국 집회, 생계 활동 현장, 국내의 고려인을 연결하는 SNS 플랫폼 등은 주로 이성 고려인 청년을 만나게 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만남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 배우자 선택 결정에 외모 등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늘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학력과 경력 및 한국어 구사력 등은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한편 고려인 민족성과 문화적 가치의 공유는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거시적 수준의 요인이 되었다. 한국 내 일부 집거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분리된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고려인 청년 세대들에게 혼인의 안정성을 민족성과 문화의 공유에서 찾는 윗세대 고려인의 일련의 담론은 한국 이주 전후에 걸쳐 청년들의 고려인 내 결혼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 조국인 한국으로 귀환한 일부 고려인 청년들은 한국에 와서 한인 외모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구소련권 국적자라는 복합성에서 야기되는 차이와 차별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고려인의 불안정한 한국 이주 생활과 한국인의 고려인에 대한 냉소적 인식과 태도는 고려인 청년세대가 배우자를 고려

인 집단 안에서 찾게 하는 거시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내 고려인 청년들이 주로 고려인 민족집단 내에서 결혼하는 양상은 수용 국가 한국에서 고려인 이주자의 낮은 사회통합 지표의 하나로 해석된다. 일부 집거지에서 한국 사회와 상당한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는 고려인 이주자 삶의 현실이 고려인 청년세대의 이성 만남과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고립된 고려인 사회의 하위문화(subculture)의 하나로서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의 고려인 결혼문화가 앞으로도 국내 아동·청소년 세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문화화’(enculturation) 효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고려인 청년세대의 고려인 민족집단 내 결혼 양상은 여느 이민 사회 이주자 집단이 보이는 동일 민족 내 결혼 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한국 사회에 이주자를 포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고려인 이주자 집단의 결혼 양상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양한 노동 시장으로의 통합, 한국어 능력 향상,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한국인과의 사회적 유대 증가 등 이주민의 인적 및 경제적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들이 한국 사회에 조성된다면, 한국 사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결혼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주자 포용 시대에는 고려인 청년들의 동일 민족 내 결혼 양상과 더불어 이들이 한국 결혼 시장에 통합되는 양상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 참고문헌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사, 1990.
- 김게르만, 「알마티시 고려인들의 민족 간 결혼문제」, 『나는 고려 사람이다』, 국악원, 2013.
- 김경학, 「중아시아 한인의 사회구조와 문화」, 『중아시아 한인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경학,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24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61~103면.
- 김경학, 『초국적 가족과 돌봄 문화: '고려인마을' 고려인 동포들의 이야기』,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김현주·정덕준·김영미, 「결혼문화로 본 CIS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한국언어문학』 111집, 한국언어문학회, 2019, 123~150면.
- 김혜진,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 정체성 변화」, 『슬라브학보』 31권 2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6, 31~70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23.
- 염나탈리아, 「1970~8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현상을 통한 다민족 관계 발전 연구」, 『슬라브연구』 30권 1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4, 89~118면.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은정,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5, 219~249면.
- 장동훈,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네러티브연구 방법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황혜영, 「중아시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적응생애담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2권 1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305~321면.
- Ballard, R., "the impact of kinship on the economic dynamics of transnational networks: reflections on some South Asian developments", Transnational Communities Programme Working Paper, Oxford University, 2001.
- Chiswick, B.R. and Houseworth, C., "Ethnic intermarriage among immigrants: Human capital and assortative mating",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9(2), 2011, pp.149~180.

- De Hart, B., "Law in the Everyday Lives of Transnational Families: an introduction", *Onati Socio-Legal Series* 3(6), 2013, pp.991~1003.
- Dribe, M. and Lundh, C., "Cultural dissimilarity and intermarriage: A longitudinal study of immigrants in Sweden 1990~2005",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5(2), 2011, pp.297~324.
- González-Ferrer, A., *Family and labor strategies in migration: Family reunification, partner choice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in the host country*, Ph.D. thesis, Madrid: 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Juan March Institute, 2006.
- Hooghiemstra, E., "Migrant Partner, selection and integration: crossing bord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 2001, pp.601~626.
- Hyman, I, S. Gurung, & R. Mason, "The Impact of Migr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 Study of Ethiopian Immigrants in Toronto",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3), 2008, pp.149~163.
- Jeffreys, E. & P. Wang, 2020, "Chinese-international intimate relations: An Australian case study of migrant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Sociology*, 57(4). 2020, pp.898~915.
- Kalmijn, M. and Van Tubergen, F., "Ethnic intermarriage in the Netherlands: Confirmations and refutations of accepted insigh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4), 2006, pp.371~397.
- Miller, D. & H. A. Horst, "The Digital and the Human: A Prospectus for Digital Anthropology", Miller, D. & H. A. Horst(eds.) *Digital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2012.
- Qureshi, K., "Transnational divorce and remarriage between Pakistan and Britain: Intersectionality, harmful immigration rules and internal racism", *Population, Space and Place* 3(2), 2020, pp.1~11.
- Van Tubergen, F. and Maas, I., "Ethnic intermarriage among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 analysis of population data", *Social Science Research* 36(3), 2007, pp.1065~1086.

| Abstract |

Co-ethnic Marriage among Young *Koryoin* Migrants in Korea

Kim, Kyunghak

This study focuses on young *Koryoin* couples in Korea who have engaged in 'co-ethnic group' marriage and uses their stories of meeting and choosing a spouse as ethnographic data, with the main objective of identifying micro-level individual factors and structural factors beyond the individual that shape the formation of marriages. Russian-speaking *Koryoin* youth, who live in ethnic enclaves in some parts of Korea, engage in family-based daily life and religious practice, and are economically active in manual labor, primarily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ions. This living environmen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opportunities for young *Koryoins* to meet partners and the process of choosing a spouses.

Koryoin enclave spaces, religious camps of Protestant *Koryoins*,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that connect *Koryoins* at Korea and post-soviet nations have become the main channels for young *Koryoins* to meet young partners. While physical attractiveness has always been important in mate selection decisions,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work experience,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the mate selection process for young *Koryoin* migrants, as it does not lead to socio-economic status in Korea. On the other hand, shared *Koryoin* ethnicity and cultural values were important macro-level factors in the mate selection process. For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yoins* who live in highly segregated family units in some ethnic enclaves in Korea, the older generation's discourse of finding marital stability in shared ethnicity and culture has been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young *Koryoin* co-ethnic marriage decisions both before and after migration to Korea.

Key Words: International Migration, *Koryoin* Youth, Co-ethnic marriage, Meetings of *Koryoin* partners, Spouse Choice, *Koryoin* Ethnic Enclave

복합위기 시대 로컬평화의 실천양식*

—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 —

박아름·강혁민**

목 차

1. 들어가며	4. 리빙랩 기반 대학 교육
2. 지역분쟁과 기후위기의 결합	5. 나가며
3. 로컬평화: 평화형성의 지역적 실현	

■ 국문초록

오늘날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은 실패했으며, 경제, 안보, 환경이 결합된 복합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로컬평화가 부상하였다. 하지만 로컬평화의 문제의식과 지향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천양식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첫째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로컬평화의 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후 둘째, 실천적 대안으로 대학에서의 리빙랩 활동을 제안하였다.

실제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컬평화의 실천적 대안으로 효용성을 가지는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과 리빙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협업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각각 로컬평화가 추구하는 세 가지 특징,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 ‘글로벌 양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은 복합위기 시대에 부상한 로컬평화를 실현하기 위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1469)

** 박아름(제1저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 / 강혁민(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교 강사

한 하나의 실천양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로컬평화, 리빙랩, 대학, 복합위기, 평화구축

1. 들어가며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자 유엔은, 「평화를 위한 의제」에서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도래했음을 선포했다. ‘위대한 목표’란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촉진하는 것이었다.¹⁾ 그리고 약 30년이 흘렀다. ‘위대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예방 외교, 제재, 평화 유지를 비롯한 중요한 수단들이 분쟁을 예방하고, 휴전 및 평화 협정을 중재하고, 분쟁 후 복구 및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18년 세계은행도 냉전 후 평화구축에 대해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²⁾ 하지만 ‘분명한 성과는 누구에게 도달한 것일까? 1992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가 언급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이 적군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가뭄과 질병은 전쟁에서의 무기만큼 무자비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경제, 안보, 환경이 복합된 위기를 겪고 있다. 첫째, ‘더 큰 자유’로 인한 국제무역 활성화는 성장의 지체를 겪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1)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New York: United Nations, 1992.

2) 냉전 종식 후 분쟁 예방 및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 구조는 현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체계적인 수준에서 전쟁의 도구와 행위를 규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 테러,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포함한 세계적인 위협을 다루고, 포괄적인 발전 방식(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규범적,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운영상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 및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포럼을 제공했다. World Bank,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8.

무역 관련 분야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침체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며,³⁾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둘째, '사회적 진보'는 '안보화'의 뒷에 걸려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분쟁, 난민, 군비 지출은 10년 전보다 증가했다.⁴⁾ 셋째,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은 일부에서만 실현되었으며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 안보와 환경 위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피해뿐 아니라 상호작용된 피해가 집중된 곳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⁵⁾은 실패했으며,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비판으로 로컬평화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평화의 문제의식과 지향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천양식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첫째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로컬평화의 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후 둘째, 실천적 대안으로 대학에서의 리빙랩⁶⁾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 3) World Bank,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8.
 - 4) Margot Wallström,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 5) '평화구축활동'이란 긴급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이나 진행 중인 전쟁을 중단시키는 수준을 넘어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국가 제도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한 현대 국제 평화구축 활동이다. 이성용, 「제5장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 서보혁·강혁민 엮음, 『평화개념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22, 155면.
 - 6) 리빙랩(living labs)이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탐색하고 해결하는 개방형,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자 혁신과정이다. 리빙랩을 대학 교육에 적용하면 전형적인 문제해결학습(problem solving learning) 그리고 지역기반학습(community-based learning)이 된다. 학생들은 대학 수업에서 조를 이루어 학교 캠퍼스 혹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문제에 적용해 본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사실 이점이 리빙랩 수업이 기존의 문제해결학습과 다른 점 중 하나이다. 기존의 문제해결학습에서는 강사가 문제를 지정해 주지만 리빙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을 탐구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기도 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동안 국내 학계에 로컬평화와 대학 리빙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 이 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첫째 로컬 평화 관련 연구이다. 국내에서 로컬평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의 학계와 달리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로컬평화는 광범위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해왔다. 특히, 분쟁 후 재건 과정을 경험한 취약 국가들(fragile societies)을 대상으로 로컬오너십과 일상성, 그리고 혼종성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평화구축에 접합함으로써 어떻게 아래로부터의 또는 미시적인 행위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형성과 연결되는지 제시해왔다.⁷⁾ 국내에서 로컬을 매개로 한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그것을 분쟁해결이나 평화구축에 적용한 연구는 부재하다. 그나마 이론적으로 로컬평화를 소개하고 적용하려는 몇몇 연구가 이 이론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대표적으로는 로컬평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소개한 강혁민의 연구⁸⁾와 이를 평화연결의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⁹⁾ 그리고 신흥 강대국들의 비자유주의적 평화구축 규범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있다.¹⁰⁾ 이 중 강혁민의 연구와 강수정의 연구는 비판평화학의 관점에서 부상하는 주요 담론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로컬평화와 개념적으로 교환 가능한 연구들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로컬 거버넌스,¹¹⁾ 일상적 평화,¹²⁾ 평화지리¹³⁾ 등이 있다.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신상범, 「리빙랩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델: Y 대학교의 사례」, 『미래문화』 10, 2024, 7~8면.

- 7) SungYong. Lee, "Understanding Everyday Peace in Cambodia: Plurality, subtlety, and connectivity", *Journal of Peacebuilding & Development* 16(1), 2021.
- 8) 강혁민, 「로컬평화의 전망과 한계: 포스트자유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9(3), 2022.
- 9) 홍용표·모춘홍,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연결」, 『문화와 정치』 10(1), 2023.
- 10) 강수정, 「평화 구축 규범들에 대한 비서구, 비자유주의적 신흥 강대국들의 접근법: 중국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7(4), 2023.
- 11) 홍석훈·나용우,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1), 2018.
- 12) 허지영, 「일상적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통일과 평화』 13(2), 2021.
- 13) 최재현·김지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의 방향과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3), 2022.; 백일순, 「평화의 지역적 전환: 국내 평화도시 논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7(1), 2022.

이 연구들은 로컬개념의 확장성을 활용하여 어떻게 평화를 지역적으로, 일상적으로, 지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로컬과 평화의 연결을 보다 본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리빙랩 관련 연구이다. 한국에서 리빙랩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유럽과 달리 정부 주도로 확산되었던 리빙랩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과 리빙랩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에서의 리빙랩 활동이 요구 및 확산되고 있다.¹⁵⁾ 관련 연구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대학에서의 리빙랩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¹⁶⁾ 둘째, 구체적으로 리빙랩을 활용한 수업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¹⁷⁾ 셋째, 대학 리빙랩 활동에 대한 검토와 발전

14) 2009년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연구성과 총 460건(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24년 4월 17일 검색 기준)

연도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논문 수	1	3	4	9	15	26	39	61	76	86	68	72
구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 15)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목표이자 방법론으로 리빙랩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대전대, 동국대, 제주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지은 외,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4면.
- 16) 성지은·김민수, 「대학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현황과 과제」, 『공학교육연구』 21(6), 2018.; 신상범, 「기후위기와 도시의 대응: 리빙랩 사례」, 『철학과 현실』 127, 2020.; 임수경,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리빙랩 융합 비교과프로그램 사례」, 『문화와 융합』 43(12), 2021.; 신상범·조계원, 『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버니온더문, 2023.; 신상범, 「리빙랩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델: Y 대학교의 사례」, 『미래문화』 10, 2024.
- 17) 우대식,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사례 연구 - K대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3), 2021.; 권혁, 「소셜 벤처 BMC를 적용한 혁신적 교수법 만족도와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의 상관관계: J 대학교 리빙랩 사례」, 『문화와융합』 43(12), 2021.; 김용진·김성희, 「도시계획·설계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리빙랩 프로젝트 체험 교육의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4), 2021.; 변소연·김은영, 「다양성 경험의 확장과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한 리빙랩 분석: 경북대 서문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 13(2), 2023.; 하상섭, 「리빙랩(Living Labs) 방식을 활용한 통일교육: Y 대학 ‘남북한관계론’ 수업 사례」, 『기독교와 통일』 15(2), 2024.; 송해영·한송이, 「학생주도

방안 모색 연구이다.¹⁸⁾ 최근 한국의 대학 리빙랩 활동을 교육 국제화 가능성으로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였다.¹⁹⁾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에 기반 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왜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적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적 정세와 맥락을 함께 고찰하여 대학 리빙랩의 다중적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지역분쟁과 기후위기의 결합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안보화, 환경파괴는 상호 결합하면서 전 세계 불평등을 고착화·가속화 시키고 있다. 즉 오염을 더 적게 배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 구조화 되고 있다.²⁰⁾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 난민 및 강제 이주민 수도 2010년 이후에는 이전 20여 년 대비 두 배씩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약 30건 정도였던 무력 분쟁은 2010~2020년 사이 56건에 다다랐다. 난민 및 강제 이주민 역시 2010년 4,100만 명에서 2020년 8,24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분쟁과 난민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

성(Student Agency) 관점에서의 리빙랩(Living Lab) 교육 효과성 연구: A대학 사례, 『인격교육』 18(3), 2024.

- 18) 노성여, 「리빙랩 프로젝트와 연계한 대학 전공수업 교육모델 개발 연구: D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2022.; 좌현숙, 「대학의 리빙랩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4), 2024.
- 19) 이정인, 「리빙랩 수업의 국제 교류 사례를 통해 본 대학 교육의 국제화 가능성 탐색: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빙랩 수업 교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1), 2024.
- 20) 세계 인구의 하위 50%가 전 세계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상대적 소득 손실에 대한 이들의 노출 비율은 75%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배출량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이들의 부담하는 상대적 소득 손실을 3%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전세계 개인 재산의 약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즉, 오염을 더 적게 배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손실을 입을 뿐더러 적응할 자원도 더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Lucas Chancel et al,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he global South”, UNDP, 2021. 86.

로 군사비 지출을 향상시켰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00년 지출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치다. 결과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기아를 겪는 인구는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의 한축은 폭력 분쟁이고, 다른 한축은 기후변화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각국 정부, 특히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했는데,²¹⁾ 문제는 그 실패의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기후 변화로 인한 간접적 위기의 발생과 직접적 위기의 증가이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내부 군사화와 외부 개입의 증대이다.

첫째, 기후 변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지 않지만, 문제는 식량 불안정, 경제 충격, 이주와 같은 요인이 결국 폭력의 위협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²⁾ 극단적으로 기후가 섭씨 1도만 상승해도 살인과 폭력 그리고 폭동과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²³⁾ 또한 직접적으로 지구 온난화는 극심한 폭염 및 가뭄을 비롯하여 폭우 및 홍수의 기간을 늘려 왔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모두가 동등하게 겪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심각한 홍수 위협에 대한 노출 정도가 가장 큰 10개 국가 중 9개 국가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이다. 대부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저위도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할 경우 이번 세기말까지 아마존 및 아프리카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온도 변동성이 15% 증가하게 된다. 즉, 저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온도 변동성과 더 빈번한 이상 기온에 노출되어 농업 산출량에 대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입게 되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성을 겪는다.²⁴⁾ 일례로, 캐나다 및 러시아와 같은 일

21) Margot Wallström,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22) World Bank,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8.

23) 서보혁, 『군사주의: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방식』, 박영사, 2024, 321~322면.

24) Lucas Chancel et al,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부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말리, 니제르, 수단, 니카라과 및 과테말라와 같이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최대 40%에 달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체 군사화 경향과 외부개입의 증가다. 기후 위기로 발생한 식량, 자원 등의 부족은 내부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안정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탄생시키거나 유지·강화 시킨다. 또한 기후변화는 새로운 전염병을 발생할 확률이 높는데,²⁵⁾ 전염병의 강도가 높으면 보건과 복지에 대한 투자 감소, 외국인 혐오적 분위기 형성, 자원 경쟁을 통해 내전을 증가시킨다.²⁶⁾ 문제는 당사국의 불안을 주변국에서 군사화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난 재해에 취약해진 국가에는 외부의 지원이 군사적 형태로 이뤄진다. 실제 최근 강대국들이 군대를 보내 대외문제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종교, 자원에서부터 이념을 거쳐 이제는 각종 재해도 개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²⁷⁾ 통계적으로 현재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의 절반은 동시에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들이기도 하다. 이런 상관관계는 우연이 아니다.²⁸⁾

3. 로컬평화 : 평화형성의 지역적 실현

탈냉전 시기 국제사회를 이끌어 온 자유세계가 그토록 확언한 질서와 균형은 이제 21세기 복합적 도전 앞에 무기력해졌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상이 불가능한 복합위기에 낡은 유물이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 위기에 정형화된 ‘처방전’이 아닌 복합화 현상에 재빨리 대응하는 적응력과 회

in the global South”, UNDP, 2023. 46~55.

25) <https://blogs.worldbank.org/en/climatechange/fighting-infectious-diseases-connection-climate-change>(검색일: 2024. 9. 3.)

26) Kenneth Letendre et al, “Does infectious disease cause global variation in the frequency of intrastate armed conflict and civil war?”, *Biological Review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85(3), 2010. 669~683.

27) 서보혁, 『군사주의: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방식』, 박영사, 2024, 191~212면.

28) Margot Wallström,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복탄력성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고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대응방식이 아닌 '맞춤형(tailored)' 해결방식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해결방식에 조응하는 21세기 평화연구의 핵심 관점은 '로컬형localized 또는 로컬 중심의 local-centred' 갈등극복과 평화형성이다.²⁹⁾ 평화에 대한 인식론과 방법으로 서 로컬평화는 포스트자유주의(post-liberalism)를 근간으로 하는 비판평화학의 대표적 관점이다.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관점은 자유주의 사상체계가 드러낸 본질적 약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평화를 근대적 자유주의 이념으로 채색한 기존의 개념체계에서 해방시켜 보다 문맥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갈등해결과 전환의 방법을 추동하려는 것이다.³⁰⁾ 비판평화학자들은 로컬을 매개로한 평화형성이 다변화된 사회의 복합위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평화형성에서 광범위하게 외면되어 온 로컬의 경험세계와 행위주체를 갈등해결의 중심으로 부각하는 것이 국제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³¹⁾ 그리고 이것은 줄곧 평화학자들에 요청된 탈식민적이고 경합적인(agonistic) 평화구축의 실천이라고 여겨졌다.³²⁾

로컬평화가 부흥하기 시작한 배경은 탈냉전 초기 유엔의 문서에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의 「Brahmi Report(2000)」과 「In Lager Freedom(2005)」, 「Review of UN Peacebuilding Architecture(2010)」 등의 문서들은 기존의 사회발전과 평화형성의 방식은 주로 1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성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모두 의심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29) 로컬평화는 localized, locally-driven, 또는 local-centred peace로 표기되는 번역어로서 로컬에 의해 주도되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용어는 외래어와 한국어의 합성어지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이미 평화학계에서 수용되고 있는 '로컬평화'라는 용어를 수용하고자 한다.

30) Richmond, "The Problem of Peace: Understanding the 'Liberal Peace'",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6(3), 2006. 291~314.

31) Ginty and Richmond,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a critical agenda for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4(5), 2013. 763~783; Jabri, "Peacebuilding, the Local and the International: A Colonial or a Postcolonial Rationality?" *Peacebuilding* 1(1), 2013. 3~16.

32) Shinko, "Agonistic Peace: A Postmodern Reading",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6(3), 2008. 473~491.

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일제히 발전과 평화의 대상이 되는 로컬이 그러한 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로컬 중심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로컬의 문제는 로컬의 영역에서 위기와 갈등을 경험한 주체들이 외부의 행위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고트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은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 2) 관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으로 참여적인 의사결정 3) 생계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및 자금 지원 4) 적절한 경우 국제적 지원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원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청년과 여성을 지목하였다. 의사 결정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열망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포함한 여러 협약에서, 국가는 원주민과 '선의의 협력'을 진행하고,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주민의 온전성을 존중하고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나 강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³³⁾

그러나 이 문서들에서 논의되는 로컬은 여전히 자유주의 국제체제 안에서 사유된 대상으로서의 도구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로컬에 대한 해방적 사유보다는 제1세계의 대응개념으로 존재하는 다분히 형이상학적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고 로컬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차지하여 로컬을 중심으로 체제형성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초기 문서들이 보여준 로컬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평화형성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자는 국제적 인식을 담고 있다.

평화학자들이 주목한 로컬은 보다 반성적이었다.³⁴⁾ 그것은 탈냉전 초기 확

33) Margot Wallström,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34) Meera Sabaratnam, "The Liberal Peace? An Intellectual Hist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Susanna Campbell, David Chandler, and Meera Sabaratnam eds. A Liberal

산된 내전과 체제 이행을 길들이기 위한 자유주의 평화구축에 대한 반성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기존의 평화형성이 자유주의 세계가 내포한 질서와 시장,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취약국가들에 그대로 이식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드러내 평화구축을 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과 위기에 노출된 로컬 단위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적 사정을 보다 다면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분쟁 과정에서 또는 분쟁 후에 드러나는 로컬의 일상성과 행위주체성을 포착하기 시작했다.³⁵⁾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평화형성이 얼마나 서구중심주의를 강요하며 비서구권 문화와 정체성을 주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중심주의 논리로 회귀하여 하나의 중심과 주변의 시장관계에 봉사하는지를 날날이 꼬집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유적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로컬의 일상성과 주체성의 성질을 관찰하여 정의롭고 효과적인 평화형성의 기회를 엿보았다. 특히, 분쟁에 깊은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저항적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로써 평화형성이 로컬주체들의 경험과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할 때 얼마나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과정이 나타나는지 보고하기 시작했다. 로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점차 포스트-자유적인 평화형성에 대한 이론적 해방성과 경합성에서 로컬 주체들의 자기실현과 회복탄력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로컬평화를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로컬의 의미규정에 따라 로컬평화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쟁 후의 로컬의 상황이 언제나 평화지향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³⁶⁾ 보다 현실적인 관점은 분쟁 국가들 중 상당수는 장기간의 식민 지배와 연이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 자기 본래의 문화·사회적 자원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후 복구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로컬’을 중심으로 한 평화구축을 실천하려고 해도 정작 지역사회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턱

Peace?: *The Problems and Practices of Peacebuilding*. London; New York: Zed Books, 2011.

35)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6) SungYong Lee, "Reflection on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Practitioners' Views", *Journal of Human Security Studies* 9(2), 2020. 25~38.

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분쟁 지역 로컬행위자들이 평화구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지식과 자원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 중 상당수가 “권력 비대칭, 가부장제 및 특권”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인 상황에서 이런 엘리트들은 그 사회의 전쟁을 촉발시켰던 여러 구조적·문화적 억압 기제를 유지해 왔고, 로컬의 방법에 따라 평화구축을 설계할 경우 그동안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의 희생을 오히려 연장하는 데 기여할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로컬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비판평화학자들은 혼종적(hybrid)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로컬을 평화형성 과정의 중심으로 두되 로컬 행위자들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역량을 외부의 관여 및 중재와 융합하여 극복하고자 한다.³⁷⁾ 혼종적 접근은 로컬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침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외부의 관여를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차적으로는 일상의 삶과 토착적 문화로부터 추동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에 주목하지만 더 나아가 그것을 외부 세계 특히, 글로벌의 차원의 평화형성과 융합하는 글로벌의 양식을 받아들인다.

1)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첫째, 로컬 평화는 무엇보다도 일상적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상적 삶의 경험이란 장기간에 걸쳐 개인과 공동체적 삶에 뿌리 내린 농축된 지혜를 뜻한다.³⁸⁾ 로컬의 일상은 분쟁과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대응 기제로 점철되어 있다. 일상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 한편으론 깨지기 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탄력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농축된 삶의 지혜이므로 일상적 삶을 회복하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해결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³⁹⁾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은 단기적이기 보

37) Roberto Belloni, “Hybrid Peace Governance: Its Emergence and Significance”, *Global Governance* 18(1), 2012. 21~38.

38) Brewer et a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Peacebuilding*,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39) Michel De Certeau (Trans),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다 장기적이고 일회적이기 보다 다중적이다.

2)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

둘째, 로컬 평화는 토착 문화(inculturation)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이다. 자유주의 평화가 서구적 문제해결 방식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이해하여 비서구적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로컬 평화는 그러한 낡은 방식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규탄한다.⁴⁰⁾ 문화적 수용은 로컬 평화가 추구하는 방식이며 로컬 특유의 토착 문화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토착 문화를 통해 보편이라는 근대적 사고를 해체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경합적인 해결 방식을 찾는다. 그로써 분쟁과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추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3) 글로컬 양식의 문제해결 방식

마지막으로 로컬 평화는 글로컬 양식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로컬의 주체와 행위양식이 평화형성에 주요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탈경계의 글로벌 사회에서 순수한 로컬의 양식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개인은 더 이상 고립된 주체일 수 없으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정체성을 담지한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로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컬 양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제안하는 혼종성은 글로벌과 로컬의 문제해결 방식을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창조하려는 복합적 시도인 것이다.

4. 리빙랩 기반 대학 교육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기구나 국제조약 혹은 국가들의 협력이 글로벌 문제들을 잘 해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과도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40) abri, "Peacebuilding, the Local and the International: A Colonial or a Postcolonial Rationality?" *Peacebuilding* 1(1), 2013. 3~16.

것이 리빙랩 활동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이다.⁴¹⁾ 리빙랩은 지역사회
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를 혁신활동에
주체로 참여시키는 하나의 운동이자 도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문제 해
결의 시작과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⁴²⁾ 리빙랩이 지향하는
로컬 오너십과 자율성은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방식이다. 하
지만 이에 대한 소개와 접근경로 제공, 무엇보다 선두그룹의 형성이 요구되
는데, 이 역할은 최근 대학이 요구받고 있는 변화와 밀접하다.

최근 국내의 대학은 일방향의 지식전달이 아닌 사회 및 학습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지식을 공동창조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연구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³⁾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대학에서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에서
리빙랩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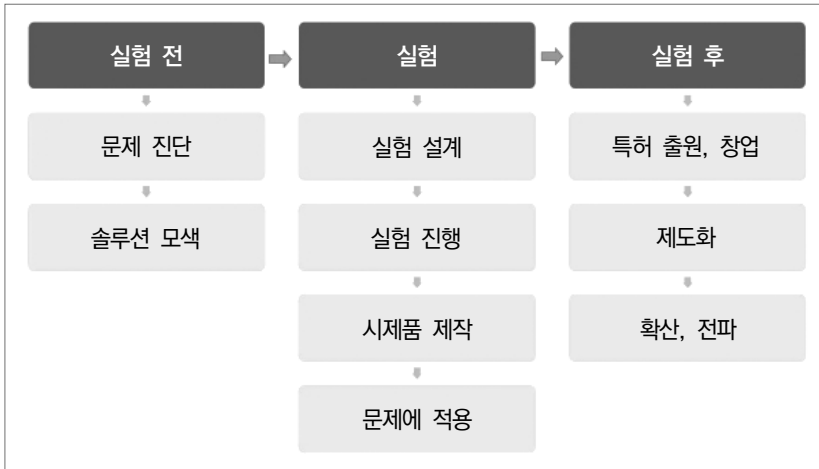
대학생은 지역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동료와의 협업활
동을 통해 ‘혼종적(hybrid) 접근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리빙랩 활동에
서 지역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진 농축된 삶의 지혜’를
선별 및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통해 ‘로컬
특유의 토착 문화’를 발굴 및 선전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역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글로벌과 로컬의 문제해결 방식을 융합’한 전형적인
글로벌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 대학의 강의는 학생들이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지역혁신방식을 직접 실행해 보는 전형적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면서 지역 기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그림 1>에 해당하는 3단
계를 걸쳐 완성되지만, 대학에서는 수업기간의 한계로 인해 실험을 가정한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41) 신상범·조계원, 『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버니온더문, 2023, 157면.

42) 노성여, 「리빙랩 프로젝트와 연계한 대학 전공수업 교육모델 개발 연구: D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쟁학회지』 6(3), 2022, 87면.

43) 성지은·김민수, 「대학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현황과 과제」, 『공학교육연구』 21(6), 2018, 118~119면.



출처: 신상범·조계원, 『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버니온더문, 2023, 26면.

〈그림 1〉 리빙랩의 3단계

실험 전 문제 진단과 솔루션 모색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교류와 활동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조로 제공하고 해당 전문가를 매칭 해 주는 역할을 한다.⁴⁴⁾

- 44) 리빙랩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담당 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설계·집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공동 창조(cocreation)의 과정을 주도합니다. 리빙랩은 이렇게 지역공동체에서 실험을 통해 기술기반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민 청원이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과도 다릅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가 출원되거나 취·창업 기회가 만들어지는 등 가치가 창출되는 혁신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리빙랩이라는 현상을 정치학 그리고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실제 학교가 소재한 원주지역의 문제를 찾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상범, 「정치학 혁신 수업 소개 (신상범 연세대학교)」,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소식 46(1), 2022년 3월 31일자.

www.kpsa.or.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2002&cid=22033110153019(검색일: 2024년 10월 31일)

실제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S대학 사례는 로컬 평화 활동의 실천양식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9년 2학기부터 S대학에서는 <리빙랩과 사회혁신>, <자원환경과 국제관계>,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무역과 환경>, <국제개발협력>, <국제정치경제의 최신쟁점>, <남북한 관계론>, <국제지역 비교연구> 등의 과목에서 리빙랩 활동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각각의 과목에서 학생들은 ‘기후 위기’, ‘빈곤’, ‘다문화’, ‘이주’, ‘음식물 쓰레기’, ‘교육’, ‘안보’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선정하여 리빙랩 활동을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 조별 성과가 여러 공모전 진출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상품으로 개발되어 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있다.⁴⁵⁾

2024년 1학기에는 <국제정치경제의 최신쟁점>, <남북한 관계론>, <국제지역 비교연구>란 세 개의 과목에서 리빙랩 활동을 도구로 전공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7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강의를 수강한 7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에서 리빙랩 활동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영역의 역량 범주는 ‘협업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역량’, ‘전공인식(일반)’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6, 6, 6, 8, 4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중심화 경향을 피하기 위하여 4지선다로 구성하였다. 측정결과 각 역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글로벌방식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직접 체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2024년 1학기 S 대학 리빙랩 방식 강의명과 수강인원

강의명	수강인원	응답인원
국제지역비교연구	23	23
국제정치경제의 최신 쟁점	22	22
남북한관계론	26	26
합계	71	71

45) 신상범·조계원, 『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버니온더문, 2023, 114~140면.

〈표 2〉 사전·사후검사 측정 영역

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기본 정보	학번, 성별, 입학년도, 강의 수강 이유, 강의를 통해 얻고 싶은 것,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리빙랩에 대한 이해정도	
역량	협업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역량	세계시민역량
	전공인식(일반)	전공인식(일반)
		만족도
		의미
		전공이해(일반)
		전공이해(리빙랩)
		전공이해(지역 및 국제관계)
		리빙랩 이해

〈표 3〉 협업능력

연번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	설문 문항
1	나는 다른 학생들과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한다.	사전 2.73	0.91	1.65	8번
		사후 3.01	0.91		
2	나는 다른 학생들과 서로 도와가며 수업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사전 3.09	0.79	3.00**	9번
		사후 3.46	0.67		
3	나는 다른 학생들과 수업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사전 3.07	0.88	3.17**	10번
		사후 3.49	0.70		
4	나는 다른 학생들과 SNS 또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 관련 토론을 하거나 자료를 공유한다.	사전 2.79	0.98	2.07*	11번
		사후 3.13	0.99		
5	나는 다른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공부하는 것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사전 2.68	0.87	2.27*	12번
		사후 3.01	0.89		
6	나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종종 많이 배운다.	사전 3.25	0.70	1.27	13번
		사후 3.40	0.73		

† p<.10, *p<.05, **p<.01, ***p<.001

‘협업능력’ 부분의 9~12번 문항에서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응답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향상된 문항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라는 항목(연번 3번)이었으며, 다른 학생들과 서로 도와가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문항(연번 2번)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능력’은 공동체 결속에 절대적 요소이며 로컬평화의 첫 번째 특징인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의 실천 동력이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공감과 소통의 영역으로 협업의 시작단계이다. 학생들은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각각의 일상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참여하게 된다.

〈표 4〉 문제해결능력

연번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	설문 문항
1	나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사전	3.11	0.53	1.44	20번
		사후	3.24	0.62		
2	나는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사전	3.21	0.57	1.68	21번
		사후	3.39	0.69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전	3.26	0.60	1.44	22번
		사후	3.41	0.67		
4	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다.	사전	3.20	0.77	1.67	23번
		사후	3.40	0.69		
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종합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	3.17	0.66	1.70	24번
		사후	3.36	0.66		
6	기준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사전	3.25	0.57	2.57*	25번
		사후	3.50	0.61		

† p<.10, *p<.05, **p<.01, ***p<.001

〈표 5〉 전공인식(일반)

연번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	설문 문항
1	나는 내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사전	2.59	0.79	2.99**	34번
		사후	2.94	0.61		
2	나는 내가 배운 전공을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	사전	2.68	0.77	2.72**	35번
		사후	3.01	0.69		
3	나는 내 전공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사전	3.39	0.59	1.16	36번
		사후	3.51	0.65		
4	전공은 나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전	3.45	0.62	0.44	37번
		사후	3.40	0.69		

† p<.10, *p<.05, **p<.01, ***p<.001

‘문제해결능력’ 부분의 25번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항(연번 6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인식(일반)’ 부분의 34번과 35번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연번 1번)과 내가 배운 전공을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연번 2번)는 응답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로컬평화의 두번째 특징인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리빙랩 활동은 문제의 발견과 실험설계까지 교수자가 보조자의 역할에 머무른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내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도 직접 설계한다. 이때 학생들은 각자가 보유한 지식 또는 접근가능한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공유하는 과정을 겪는다. 교수자가 문제나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바로 포스트자유주의자들이 비판했던 강대국 주도의 ‘근대’로 포장한 획일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리빙랩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지식을 최대한 존중하며 최소한의 개입만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존 수업보다 다원적이고 경합적인 해결 방식을 찾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표 6〉 창의력

연번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	설문 문항
1	나는 필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사전	3.08	0.61	1.34	14번
		사후	3.23	0.75		
2	내가 낸 아이디어는 대체로 유용 하게 쓰인다.	사전	2.96	0.64	1.82	15번
		사후	3.17	0.76		
3	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	사전	2.89	0.67	1.32	16번
		사후	3.06	0.81		
4	나는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사전	3.38	0.63	2.28*	17번
		사후	3.61	0.60		
5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사전	3.05	0.75	2.34*	18번
		사후	3.33	0.68		
6	나는 창의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사전	2.79	0.81	2.51*	19번
		사후	3.11	0.75		

† p<.10, *p<.05, **p<.01, ***p<.001

‘창의력’ 부분의 17~19번에서 점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창의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연번 6번)과 어떠한 상황에 창의성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연번 5번)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후검사 전공이해(지역 및 국제관계)

연번	문항내용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설문 문항
1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사는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3.29	0.84	53번
2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증가하였다.	3.30	0.81	54번
3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다른 나라의 지역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3.30	0.83	55번
4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다른 나라의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증가하였다.	3.16	0.88	56번
5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글로벌 문제해결방식(*글로벌 문제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3.49	0.74	57번

사후검사 추가문항의 ‘전공이해(지역 및 국제관계)’ 범주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글로벌 문제해결방식(*글로벌 문제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응답은 평균 3.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증가하였다’와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다른 나라의 지역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였다’라는 응답도 평균 3.3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의력은 로컬평화의 세번째 특징인 ‘글로벌 양식의 문제해결 방식’이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우리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거란 열린 접근은 창의력을 통해 촉진되기 때문이다. 리빙랩 활동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글로벌 문제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로벌문제해결방식을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도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단위의 리빙랩은 전공인식을 확장하여 ‘협업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수업도구로 로컬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며

고위도 국가들은 역사적 산출량 이득 측면에서 인위적 기후 변화로부터 혜택을 누렸고, 저위도 국가, 즉 평균 기온이 최적 온도보다 높은 국가는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다시 말해, 남반구의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오늘날 그들 대부분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인위적 기후 변화가 만약 없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와 빈곤은 분쟁으로부터 평화 구축을 시도했던 나라들에게 다시 군사화를 선물하고 있다. 현재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데 핵심은 안보 위기와 환경 위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교육적 개입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46) Lucas Chancel et al,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he global South”, UNDP, 2023. 66.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⁴⁷⁾

이러한 비판과 해결책에 조용하는 것이 바로 로컬을 대개로하는 평화형성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로컬평화는 위로부터 전개되는 경직된 평화형성을 비판하는 전통적 비판에 서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층적 복합위기를 겪어내는 미시적 주체들의 일상이 얼마나 저항적이며 해방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성이 어떻게 평화의 관점에서 더 적법하며 지속가능한지 더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복합위기가 일상의 전반을 잠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만 희구될 때, 로컬평화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할 셈법을 구상할 수 있는 틀로 받아들여진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할 로컬평화의 한 방법으로 대학 리빙랩을 제안했다. 리빙랩은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위기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대학 리빙랩은 그것의 논의 주체를 대학생으로 확장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시민적인 문제해결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 리빙랩을 통해 로컬차원의 평화형성을 위한 교육적 개입을 촉진시켜 복합위기에 노출된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과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발견된 것처럼, 대학생들이 강의에서 리빙랩 활동을 통해,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로컬평화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각각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협업능력’은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의 실천 동력이 되며, 리빙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창의력’과 ‘전공이해’ 심화는 로컬평화의 세번째 특징인 ‘글로벌 양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수용하도록 돕는다. 대학생들은 리빙랩 활동을 통해 선도그룹으로 양성되며, 지역문제에 접근하고 지역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진 농축된 삶의 지혜’를 마주하고, ‘로컬 특유의 토착 문화’를 대면한다. 따

47) Margot Wallström,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라서 대학 리빙랩은 해당 지역의 회복탄력성과 평화를 구축할 뿐 아니라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실현하려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도와준다.

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장려하는 대학의 리빙랩 활동은 지역 문제해결에 중요한 자원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의미를 넘어,⁴⁸⁾ 예상이 불가능한 복합위기 시대에 로컬단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양식이 될 수 있다.

48) 좌현숙, 「대학의 리빙랩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4), 2024, 362~363면.

■ 참고문헌

- 강수정, 「평화 구축 규범들에 대한 비서구, 비자유주의적 신흥 강대국들의 접근법: 중국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7(4), 2023, 157~189면.
- 강혁민, 「로컬평화의 전망과 한계: 포스트자유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9(3), 2022, 25~67면.
- 권혁, 「소셜 벤처 BMC를 적용한 혁신적 교수법 만족도와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의 상관관계: J 대학교 리빙랩 사례」, 『문화와융합』 43(12), 2021, 53~72면.
- 김용진·김성희, 「도시계획·설계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리빙랩 프로젝트 체험 교육의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4), 2021, 378~385면.
- 노성여, 「리빙랩 프로젝트와 연계한 대학 전공수업 교육모델 개발 연구: D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쟁학회지』 6(3), 2022, 85~110면.
- 백일순, 「평화의 지역적 전환: 국내 평화도시 논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7(1), 2022, 19~36면.
- 변소연·김은영, 「다양성 경험의 확장과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한 리빙랩 분석: 경북대 서문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2), 2023, 47~72면.
- 서보혁, 『군사주의: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방식』, 박영사, 2024.
- 성지은 외,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성지은·김민수, 「대학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현황과 과제」, 『공학교육연구』 21(6), 2018, 118~127면.
- 송해영·한송이,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 관점에서의 리빙랩(Living Lab) 교육 효과성 연구: A대학 사례」, 『인격교육』 18(3), 2024, 79~102면.
- 신상범, 「기후위기와 도시의 대응: 리빙랩 사례」, 『철학과 현실』 127, 2020, 127~143면.
- 신상범, 「리빙랩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델: Y 대학교의 사례」, 『미래문화』 10, 2024, 6~33면.
- 신상범·조계원, 『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버니온더문, 2023.
- 우대식,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사례 연구 - K대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3), 2021, 117~131면.
- 이성용, 「제5장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 서보혁·강혁민 엮음, 『평화개념 연구』, 모시

는 사람들, 2022.

이정인, 「리빙랩 수업의 국제 교류 사례를 통해 본 대학 교육의 국제화 가능성 탐색: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빙랩 수업 교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1), 2024, 327~347면.

임수경,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리빙랩 융합 비교과프로그램 사례」, 『문화와 융합』 43(12), 2021, 21~40면.

좌현숙, 「대학의 리빙랩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4), 2024, 359~369면.

최재현·김지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의 방향과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3), 2022, 1~11면.

하상섭, 「리빙랩(Living Labs) 방식을 활용한 통일교육: Y 대학 ‘남북한관계론’ 수업 사례」, 『기독교와 통일』 15(2), 2024, 41~82면.

허지영, 「일상적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통일과 평화』 13(2), 2021, 79~114면.

홍석훈·나용우,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1), 2018, 179~201면.

홍용표·모춘홍,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연결」, 『문화와 정치』 10(1), 2023, 5~27면.

Belloni, Roberto. "Hybrid Peace Governance: Its Emergence and Significance", *Global Governance* 18(1), 2012, pp.21~38.

Boutros-Ghali, Boutros.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New York: United Nations, 1992.

Brewer, John D., et a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Peacebuilding*,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Chancel, Lucas., Bothe, Philipp., and Voituriez, Tancrede.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he global South", UNDP, 2021.

De Certeau, Michel. and Steven Rendall. (Trans).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Jabri, Vivienne. "Peacebuilding, the Local and the International: A Colonial or a

- Postcolonial Rationality?" *Peacebuilding* 1(1), 2013, pp.3~16.
- Lee, SungYong. "Reflection on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Practitioners' Views", *Journal of Human Security Studies* 9(2), 2020, pp.25~38.
- Lee, SungYong. "Understanding Everyday Peace in Cambodia: Plurality, subtlety, and connectivity", *Journal of Peacebuilding & Development* 16(1), 2021, pp. 24~38.
- Letendre, Kenneth, Corey L Fincher, and Randy Thornhill. "Does infectious disease cause global variation in the frequency of intrastate armed conflict and civil war?", *Biological Review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85(3), 2010, pp.669~683.
- Mac Ginty, Roger.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Mac Ginty, Roger., and Richmond, Oliver P.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a critical agenda for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4(5), 2013, pp.763~783.
- Richmond, Oliver P. "The Problem of Peace: Understanding the 'Liberal Peace'",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6(3), 2006, pp.291~314.
- Sabaratnam, Meera. "The Liberal Peace? An Intellectual Hist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Susanna Campbell, David Chandler, and Meera Sabaratnam eds. *A Liberal Peace?: The Problems and Practices of Peacebuilding*. London; New York: Zed Books, 2011, pp.1~26.
- Shinko, Rosemary E. "Agonistic Peace: A Postmodern Reading",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6(3), 2008, pp.473~491.
- Wallström, Margot.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IPRI: Sweden, 2022.
- World Bank.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8.

기타 자료

<https://blogs.worldbank.org/en/climatechange/fighting-infectious-diseases-connection-climate-change>

신상범, 「정치학 혁신 수업 소개 (신상범 연세대학교)」, 『한국정치학회
회소식 46(1), 2022년 3월 31일자.

www.kpsa.or.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2002&cid=22033110153019 (검색일: 2024년 10월 31일)

| Abstract |

The practice of local peace in the era of complex crises

— University Living Lab —

Park, Ahreum · Kang, Hyukmin

Today, the UN's peace-building activities have failed, and a complex crisis combining economy, security, and environment is intensifying. Local peace has emerged as a criticism of this. However, despite the agreement on the problem awareness and direction of local peace, no clear alternative has been found for its practical form.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peace, which emerged as a criticism of liberal peace, and second, proposes living lab activities at universities as a practical alternative. We conducted a pre- and post-survey targeting students who actually experienced living lab-based university education to examine whether it is useful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local peace. As a result, student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collaboration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and creativity through living lab activities, which were confirmed as factors promoting the three characteristics pursued by local peace: 'problem-solving methods based on everyday life experiences', 'problem-solving methods based on indigenous culture', and 'problem-solving methods in a global style'. Therefore, living lab-based university education shows the potential to function as a practical method for realizing local peace in an era of complex crises.

Key Words: local peace, living lab, university, complex crisis, peacebuilding

코로나19 경험의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 현안을 중심으로 —

이기연**

목 차

1. 서론	4.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 그 이후 삶의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이동성
3. 인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경험	5. 결론 : 정착과 재이주의 딜레마 속에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도의 코로나19 경험이 지속가능한 임금노동과 결부되는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이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전후 임금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역이주 경험에 주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귀환이주민의 재이주 현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델리권역 도시의 하나인 구루그람(Gurugram) 슬럼 주민에 대한 2009~2019년 민족지적 자료와 2020~2023년 문헌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68일간 이어진 전국 봉쇄와 이후 2년여 간의 코로나19 대유행은 도시에서 임금노동 하던 국내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삶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다. 구루그람에서는 일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와 우버 기사 등의 경제·사회적 고립이 두드러졌다. 경제적 압박감, 심리적 고통 및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도시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역이주를 야기하였다. 귀환이주민은 사회적 네트워크 부재, 농촌의 한정된 일자리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5487).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경쟁으로 고향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되거나 귀환이주민의 도시 재이주 과정에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 새로운 이주유형에 맞는 이동성 보장 부재의 현안들이 남았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경제-법-사회적 문제를 재난과 이주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도 도시이주, 코로나19 경험, 지속가능한 임금노동, 이동성, 귀환과 재이주

1. 서론

인도에서는 모디(Modi) 2기 정부가 목표 삼은 ‘전 지역의 도시화’를 진행하던 중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였다.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전염병 예방 조치로 인도 전역에 대한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락다운(lockdown)을 발령했다. 정부의 봉쇄발표 4시간 뒤 전국의 대중교통은 폐쇄되었고 특별 허가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정부의 봉쇄 명령으로 인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부는 2020년 5월 12일 약 75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대중교통으로 귀향하였다고 발표했다.¹⁾ 이들 대부분은 재이주하여 다시 직업을 구해야 하는 도시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이다. 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인도의 도시개발 붐으로 고향을 떠난 수많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어떠한 경제·사회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에서 비롯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는 예외 없이 전 세계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보는 일은 중요해졌다. 인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주목받던 2021년부터 비대면 사회로

1) Mookerjee, Devalina, Sujoy Chakravarty, Shubhabrata Roy, Anirudh Tagat and Shagata Mukherjee, "A Culture-Centered Approach to Experience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Lockdown Among Internal Migrants in Ind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5(10), 2021, p.1428.

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²⁾ 이는 재택근무 기반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공유경제 기반 노동시장의 축소를 수반하였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고향으로 귀환한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노동 환경에도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비대면 노동환경으로의 전환은 도시로 재이주하려는 이주노동자의 임금노동을 제한하는 일이 아닌지?

코로나19 유행 동안 인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상은 국내 이주노동자이다. 인도는 2020년까지 약 6억 명이 국내이주민으로 추산될 정도로 인구 절반 정도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는데 이 가운데 1/3은 장거리 이주노동자이다.³⁾ 인도에서는 1분에 약 30명씩 도시로 이주하는데 이는 모디정부의 도시화 정책과 결부된다. 도시 이주노동자의 80% 이상은 임금 가사노동, 건설현장, 릭샤(Rickshaw), 식당같이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으로 흡수된다. 인도는 2021년 백신 접종자 수가 천만 명을 넘기며 국내 이주노동자의 재이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비대면 노동환경으로의 전환은 이들의 도시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공간이나 계급을 망라하여 넓은 범주에서 인간 삶의 이동성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코로나19와 이주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이다. 그동안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임금노동 단절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강조해 왔다.⁴⁾ 이 연구들은 재난 이후 송금 흐름, 임금노동 환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주민의 정신건강 상태, 이주민의 재이주 가능성까지 다양한 범주에 주목하였다.

2) 임은유, 「인도 코로나19확진자폭증...하루만에 40만명」, 『아시아경제』, 2021년 5월 1일자.

3) Rajan, S. Irudaya, P. Sivakumar and Aditya Srinivasan, "The COVID-19 Pandemic and Internal Labour Migration in India: A 'Crisis of Mobility'", *The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63, 2020, p.1022.

4) Agarwalla, Astha and Errol D'Souza, "The Economic Imperative: Cities Need Migrants",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p.377~391; Khanna, Anoop, "Impact of Migration of Labour Force due to Global COVID-19 Pandemic with Reference to India", *Journal of Health Management*, 22(2), 2020, pp.181~191; Reja, Md Selim and Bhaswati Das, "Remittance arrangements within India and COVID-19: Kerala's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from West Bengal", *South Asia Research*, 41(1), 2021, pp.22~34.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도 도시에서 비공식 노동에 집중해 있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이동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내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이동성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도 국내이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필요가 있으나 아직 논의가 미흡하다. 소수의 역이주민에 초점을 둔 연구⁵⁾가 있으나 이 역시 이주노동자의 재이주와 결부된 내용은 빠져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결부해서 국내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 문제를 이주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다.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역이주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도시로의 재이주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나? 본 연구는 위의 문제제기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전후 임금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이동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인도정부의 이동금지 통제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를 어떤 식으로 강제하는지, 비대면 노동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이주경험에 어떤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노동 지속성과 결부되는 이동성 문제를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재난과 이주라는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코로나19와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는 노동, 이주, 정책, 거버넌스, 건강, 보건, 경제, 소비, 교육, 젠더, 소외, 사회구조, 도시슬럼 그리고 비공식 부문 노동이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들 가운데 노동이주와 젠더에 초점을 둔 비공식 부문 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많다.

5) Maiti, Susobhan, Disha Sharma and Tanushree Gupta, "Unfol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Reverse Migrants in Uttar Pradesh",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9(1), 2022, pp.292~306.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관련 연구는 행정학, 지리학, 법학, 국제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같은 분과학문에서 전염병 확산 과정 및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출레일과 뿌뜨란은 공동체 내 전염병 대응문제, 코놀리 외는 도시생태와 전염병 대응 관련성을 연구하였다.⁶⁾ 또 카리압빠 외는 전염병이 인도 농촌의 경제, 소비패턴, 사회·경제·정서적 혼란과의 상관성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였다.⁷⁾ 초창기 연구들은 문헌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각성시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코로나19와 노동 및 이주의 문제는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관심이 많았으며 코로나19와 노동이주는 사회과학 내 모든 분과학문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와 이주에 관한 사회과학 내에서의 연구는 최근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사회적 결과에 집중해 있다. 경제적 결과는 고용과 실업, 소득, 소비, 송금 및 노동시장과 결부되어 있다. 실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해서 베검 외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 상황이 고용불안을 어떤 식으로 높이는지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업무 및 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고용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사회적 결과는 불평등, 소외, 공동체 내의 적응과 부적응, 법적 권리, 심리적 불안 및 정신건강에 주목한다. 이는 봉쇄 기간 지역사회 내의 적응과 부적응 문제연구⁹⁾, 고용 및 감염과 결부된 불안에 초점을 둔 연구¹⁰⁾, 불평등과 소외에 초점을

-
- 6) Choolayil, Anoop C. and Laximi Putran, "COVID-19, The Local and the Global: Lessons from Kerala", *South Asia Research*, 2020, 41(1), 2020, pp.7~21; Connolly, Creighton, S Harris Ali and Roger Kei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 and extended urbanization",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0(2), 2020, pp.213~216.
 - 7) Cariappa, AG Adeeth, Kamlesh Kumar Acharya, Chaitanya Ashok Adhav, R Sendhil and P Ramasundaram, "Impact of COVID-19 on the Indian agricultural system: A 10-point strategy for post-pandemic recovery", *Outlook on Agriculture*, 50(1), 2021, pp.26~33.
 - 8) Begum, Asma, Mathew Shafaghi and Ayesha Adeel, "Impact of Job Insecurity on Work-Life Balance during COVID-19 in India", *Vision*, 2022, p.18.
 - 9) Sharma, Sahiba and Anubrata Paul, "COVID-19 India: An insight into the impact of lockdown and community behavioural response", *International Social Work*, 63(6), 2020, pp.717~729.
 - 10) Begum et al., 2022; Irshad, S. Mohammed and Vimal Raj, "Employability and 'Marginal Efficiency' of Labour I Post-COVID Economy", *Journal of Social Inclusion Studies*, 8(1), 2022, pp.51~63.

둔 연구¹¹⁾, 법적 권리에 초점을 둔 연구¹²⁾, 심리·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¹³⁾ 등으로 소개되었다. 사회적 영향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에 관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가르왈라와 디소우자는 코로나19가 도시에서 대규모 역이민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취약성이 노출된 결과, 이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¹⁴⁾ 또 미슈라 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로의 재이주 과정에서 이주민이 도시에 수용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¹⁵⁾ 기존의 연구는 공통으로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열악함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천착해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와 이주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거버넌스의 역할, 치안, 이주민 거주에 대한 법제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임금노동에 집중되어 있다.¹⁶⁾ 이 연구들은 전례 없는 전염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거시적 연구에서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시각에서 코로나19 경험에 초점을 둔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연구는 사회적 재난 시 거버넌스의 역할을 조망해 본다

- 11) Jamil, Raihan and Uttaran Dutta, "Centering the Margins: The Precarity of Bangladeshi Low-Income Migrant Workers During the Time of COVID-19",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5(10), 2021, pp.1384~1405.
- 12) Rajput, Kuldeepsingh and S. Irudaya Rajan, "Visibilising Invisible Population: e-Shram Portal and Essentiality of Internal Migration Database in India", *Journal of Social Inclusion Studies*, 9(1), 2023, pp.82~94.
- 13) Sharma, Jeevan R., Anurag Sharma and Anuj Kapilasharmi, "COVID-19 and the Precarity of Low-income Migrant Workers in Indian Cities", *Society and Culture in South Asia*, 7(1), 2021, pp.48~62.
- 14) Agarwalla and D'Souza, 2021, p.377.
- 15) Mishra, Umesh Chandra, Satyaki Sarkar and Aditi Nag, "Measuring Social Acceptance of Resettlement Colonies for the Post COVID-affected Migrants in India",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urvey of India*, 71(1), 2022, pp.105~124.
- 16) 김경하, 「감염병과 '이슬람포비아': 인도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COVID-19의 정치화」, 『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2020, 1~34면; 노윤재·조승진, 「코로나19의 인도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세계지역전략연구』 21-13, 2022, 1~81면; 박효민·김현정·최윤철, 「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일감법학』 49권, 2021, 29~56면; 이태정,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산업노동연구』 제26권 3호, 2020, 35~62면; 프라마바타차리아·데반잔바네르지, 「내재된 두려움: COVID-19와 인도의 사회적 낙인·타자화」,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5권, 2020, 23~36면.

는 의의가 있으나 재난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이동성과 결부된 삶의 경험이 간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들의 임금노동 경험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가 여전히 재난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둔 정책제언적인 연구나 양적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인도에서 코로나19와 이주에 관한 연구는 2022년까지 문헌연구나 양적연구에 치중해 있었다. 소수 심층인터뷰에 기반하여 전국 봉쇄 기간 위기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와 전화인터뷰 및 설문조사 혹은 디지털 민족지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¹⁷⁾ 국내 노동이주와 관련해서는 주로 비공식 부문 이주노동자의 실업과 귀환, 고향에서의 재취업 문제에 관심이 많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민이자 사회적 소외 대상으로 다룬다.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임금노동과 결부되는 이주노동자의 고향 정착 및 재이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다. 초창기 연구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에 다른 시각의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일례로 라즈뿌트와 라잔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한다. 유사하게 야다브와 뿌리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의료시스템의 수혜자로 포함시켜 이들의 사회적, 법적, 직업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샤르마 역시 코로나19 봉쇄 기간 이민자와 결부되는 집단적 분노, 죄책감, 동정심, 집단행동 및 지지 표현은 코로나19의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¹⁸⁾

17) Jamil and Dutta, 2021; Kumar, Navin, Hyacinth Uдах, Abraham Francis, Sanchita Singh and Anica Wilson, "Indian Migrant Workers' Exper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ationwide Lockdow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7(5), 2022, pp.911~931; Mezzadri, Alessandra and Kaustav Banerjee, "When the Lewisan Dream Sours: Industrial Aspirations and Reverse Labour Migration",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3), 2022, pp.297~326.

18) Rajput and Rajan, 2023, p.82; Sharma, Dr. Neelam, "Digital Moral Outrage, Collective Guilt, And Collective Action: An Examination of How Twitter Users Expressed Their Anguish During India's Covid-19 Related Migrant Crisis",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코로나19와 노동이주에 관한 인도에서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제언적 논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연구는 사실상 비공식 부문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소외와 제도 개선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게다가 이주의 미시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이주노동자가 경험해 온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들은 코로나19가 노동이주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하여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억압 정도를 규명하였다.¹⁹⁾ 기존연구들은 귀환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임금노동과 결부된 고향에서의 정착과 도시로의 재이주 문제를 별개로 보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와 결부되는 이주 정책, 이주민의 심리 그리고 경제·사회적 문제를 이주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하여 기존연구들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경험과 결부해서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삶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탐구한 것이다. 여기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농촌-도시 간 이주노동자의 이주경험을 임금 노동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에 놓인 현안을 토대로 기존논의가 지닌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문헌연구와 함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델리권역(Delhi National Capital Region) 도시인 구루그람(Gurugram)의 슬럼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이주노동자 257명(남성 93명, 여성 164명)에 대한 질적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

47(1), 2023, p.39; Yadav, Sangeeta and Kumar Ravi Priya, "Migrant Workers and COVID-19: Listening to the Unheard Voices of Invisible India", *Journal of Anthropological Survey of India*, 70(1), 2021, p.69.

19) Mezzadri and Banerjee, 2022; Mishra et al., 2022; Mookerjee et al., 2021; Naik, Mukta, 2020, "State-society Interactions and Bordering Practices in Gurugram's Pandemic Response", *Urbanisation*, 5(2), 2020, pp.181~190.

상은 우버(Uber) 같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임금 가사노동 부문에 속하는 여성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지 변동이 심한 점, 이주여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낮아 모바일 메신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현지조사가 불가능해 추적조사가 불가능했던 점으로 인해 기수집된 질적자료를 문헌자료에 대입해 보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민족지학적 자료는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도시 이주노동자의 이주배경, 정착과정 및 임금노동 환경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전후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토대로 삼았다. 도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경험, 귀환 과정에 관한 문헌자료는 전국 봉쇄 이후 구루그람 이주노동자의 거주 문제, 임금노동 및 귀환과 고향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었다. 2차 자료 분석의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학술논문, 인도정부의 발표, 국가통계 및 NGO 보고서, 신문기사, 잡지 및 미디어에 기반하였다. 이들 자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및 이후 이주남성과 여성의 임금노동 환경, 도시 체류, 귀환, 고향 재정착 과정 그리고 재이주의 현안에 대한 논의의 토대로 삼았다.

3. 인도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 경험

1) 전국 봉쇄와 임금노동의 단절

인도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남부인 케랄라(Kerala) 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그해 9월 아시아에서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3월 초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면서 건강주의보를 발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양성확진자 14일 격리를 이행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의 통제가 늦어 감염 확산 통제가 지연되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²⁰⁾ 인도정부는 3월부터 곳곳에서 대규모 종교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 코로나19를 공식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동 통제에 들어갔

20) Sharma and Paul, 2020, p.725.

다. 총리는 2020년 3월 24일 밤 8시 TV에 나와 4시간 뒤부터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21일간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전면 제한 및 국민에 대한 이동금지였다. 사전 예고나 지침 없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하루아침에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래 <표 1>과 같이 처음 발표와는 달리 봉쇄 기간이 세 차례 더 연장되면서 68일 간의 완전 봉쇄로 이어졌다.

<표 1> 코로나19 1차 유행 중 단계별 전국 봉쇄 기간

봉쇄단계	날짜	일수
1	2020년 3월 25일 ~ 4월 14일	21일
2	2020년 4월 15일 ~ 5월 03일	19일
3	2020년 5월 04일 ~ 5월 17일	14일
4	2020년 5월 18일 ~ 5월 31일	14일
전체		68일

출처: 알록 외²¹⁾ 참조

예상치 못한 봉쇄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도시에서 임금노동 중이던 농촌 출신의 국내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주로 릭샤, 택시, 임금 가사노동, 일용직 및 건설 노동같이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인도의 급격한 도시화 추세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도시 간 장거리 노동이주를 증가시켜 왔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수는 1억 명에 육박하며 비공식적인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수는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 델리는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목적지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수도라는 이점 외에 델리권역 도시 확장 과정에서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델리권역 도시에서 가장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의 쏠

21) Alok, V.N., Madhulika Jatoliya and Animesh Pareek, "Governance and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Indian Federation",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461.
 22) Sumalatha, B. S., Lekha D. Bhat and K. P. Chitra, "Impact of Covid-19 on Informal Sector: A Study of Women Domestic Workers in India",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442.

림 현상을 보인 곳은 구루그람이다.

구루그람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중산층 가구 증가 및 건설업 붐으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와 임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증가했다. 이 도시의 경우 2001년 대비 2011년 인구증가율이 300%를 넘었는데 모두 이주노동자의 유입에서 비롯하였다. 이들은 주로 서벵골(West Bengal), 비하르(Bihar), 오디샤(Odisha), 우따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마디아 프라데쉬(Madya Pradesh) 및 라자스탄(Rajasthan) 농촌 출신이었다. 이주노동자는 일당별이를 하면서 슬럼에 임시 체류 중이었다. 전국 봉쇄의 여파는 구루그람에 체류 중이던 이주남성과 여성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구루그람 신도시에서는 전국 봉쇄 초기 단계부터 주민복지협회(Resident Welfare Associations, RWA)가 질병 확산 방지에 직접 관여하였다. 협회는 도시 전역에 슬럼 지역 250군데를 표시하고 이 지역 주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동 가능 구간의 세분화로 인하여 수 킬로미터 이내의 출근조차 금지되었다.²³⁾ 엄격한 이동성의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임금 노동을 단절시키면서 이주가정의 벌이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차 전국 봉쇄 기간 1억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²⁴⁾ 하지만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된 수치이며 비공식 부문 노동자 90%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봉쇄 시작부터 도시에 체류 중이던 이주가정 대부분이 실업 상태였다. 봉쇄 초기에는 주민복지협회와 민간단체 및 구루그람 주정부에서 이주가정에 음식과 마스크를 지원했으나 받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았다. 정부는 고용주에게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약 91%가 봉쇄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다.²⁵⁾ 이 기간에는 임금 가사노동 부문에서의 불평등과 소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 부문 노동의 여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주여성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여성 노동의 무가치성으로 인하여 전국 봉쇄 기간 가장 안전하지 않은 대상이었다.

23) Naik, 2020, p.185.

24) Jha, Praveen and Manish Kumar, "Labour in India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8(3), 2021, p.426.

25) Yadav, Vinita and Sherin Jacob, "Impact of the Lockdown on Women Domestic Workers",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306.

코로나19 격리센터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사망 및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²⁶⁾ 사실상 인도 도시 노동이주 부문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손실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고립

전국 봉쇄 기간은 그동안 인도에 만연하던 사회적 불평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 기간에 대하여 바르헤이트 외는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하였다고 했다.²⁷⁾ 엄격한 전국 봉쇄는 2020년 7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도시마다 그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여기에 전국 봉쇄가 종료된 이후 코로나19가 대유행기로 전환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의 봉쇄는 2021년 4월과 2022년 1월에 한 차례씩 더 발령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봉쇄는 부분 봉쇄여서 일상생활이 수월했으나 슬럼 지역 주민에 대한 통제는 첫 번째와 다를 바 없이 엄격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행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이 현격히 줄어 빈민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²⁸⁾

인도 전역에 걸친 완전 봉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면서 감염병의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이는 전국 봉쇄 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면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경제적 문제의 첫 번째는 임금노동 단절과 결부되었다. 코로나19가 재난으로 선포된 즉시 택시와 리샤에 대한 운행 중단이 결정되었고 임금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해고 되었다. 레인즈에 따르면 2020년 연말까지 슬럼 주민은 저축과 빌린 돈을 모두 고갈시켰다고 한다.²⁹⁾ 하지만 이

26) Rajan et al., 2020, p.1029.

27) Barhate, Bhagyashree, Malar Hirudayaraj, Noeline Gunasekara, Ghassan Ibrahim, Anim Alizadeh and Mehrangiz Abadi, "Crisis Within a Crisis: Migrant Workers' Predicament During COVID-19 Lockdown and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India", *Indi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1), 2021, p.151.

28) Rains, Emily, "An Evolving threat to Life and Livelihoods: Comparing the Health,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irst Two Waves of COVID-19 in Bengaluru and Patna Slums", *Environment & Urbanization*, 34(2), 2022, p.476.

내용은 구루그람 슬럼의 이주남성과 여성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구루그람 슬럼 이주가정 대부분은 번 돈의 일부를 고향으로 송금하고 남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쓴다. 이 돈은 고향집을 짓거나 고향에 남은 가족원의 생활비로 사용된다. 송금하고 남은 돈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월세인데 소득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하지만 이주 초기에는 높은 월세 부담으로 고향으로의 송금이 어렵다. 구루그람에서 송금은 개인 이주한 남성이 공동생활로 월세 부담이 없거나 미혼여성이 입주 가사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들은 월세와 자녀 교육비를 뺀 나머지를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도시에서 사실상 저축할 여유가 없다. 이주노동자의 높은 현금의존도는 2018년 화폐개혁 당시 구루그람 이주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은 경험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 예측컨대 구루그람 슬럼 주민의 경제적 문제는 전국 봉쇄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봉쇄는 곧바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손실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직결되어 경제적인 고립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문제의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 밖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위치성과 결부되었다. 인도에서 국내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실업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국가표본조사기관(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NSSO)의 2007~2008년 자료가 전부이다.³⁰⁾ 이 수치는 2000년대 이후 농촌-도시 간 이주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텔리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최우선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이주노동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는 점만으로도 전국 봉쇄 기간 도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문서 밖에 놓인 많은 이주노동자가 봉쇄 기간 정부의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경제적 고립감을 넘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전국 봉쇄 기간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신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에는

29) Ibid., p.474.

30) Rajan, S. Irudaya and Anand P. Cherian, "COVID-19: Urban Vulnerability and the Need for Transformations",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ASIA*, 12(2), 2021, p.317.

31) Deshingkar, Priya, "Structural Violence and Normalising Human Suffering: Labour Migration During the COVID Pandemic in India",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1), 2022, p.137.

왓츠앱(WhatsApp) 전화인터뷰에 기반한 사례가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 없는 대다수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대변하지 못하나 스마트폰이 필수인 우버 택시 기사의 경험이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안나바라뿌는 우버 기사들이 느낀 공통 감정을 ‘대중으로부터의 단절’에서 비롯하는 고립감과 무력감이라고 주장한다.³²⁾ 우버 차량은 인도가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던 2016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구루그람 신도시에서는 2017년부터 우버 택시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우버와 올라 택시는 빠른 성장 속에서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남성들 사이에 새로운 직업으로 선호되었다. 우버 기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차량 소유였다. 예비 기사는 회사를 담보로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회사 정책으로 인하여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우버 회사의 차량 구매 대출 시스템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남성에게 적은 자본금으로 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국 봉쇄로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에 앉은 신세로 전락했다.

대도시에서는 2020년 6월부터 우버와 올라 택시의 운행이 재개되었으나 문제는 전국 봉쇄 기간을 거치면서 만연해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이 택시를 사방이 뚫린 리샤보다 폐쇄적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피하면서 이들의 임금노동 환경은 코로나19 발생 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³³⁾ 기사들은 매달 일정 금액씩의 대출금을 갚으면 택시를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주기사들의 대출금 상환을 힘들게 만들었다. 우버 택시 기사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안나바라뿌가 주장하는 일이 없음에 대한 무료함이나 고립감이 아닌 사실상 우버 차량 대출금 상환일에 대한 압박감과 관련된성이 컸다고 하겠다.

간헐된 느낌을 받는 것은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도 마찬가지였다. 테브 외는 고용 및 소득 상실과 결부해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³⁴⁾ 이는 도시 슬럼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이

32) Annavarapu, Sneha, “The Weight of Waiting: Suspended Mobility and Deferred Aspirations Amongst Cab Drivers in Hyderabad”, *Social Change*, 52(2), 2022, p.187.

33) Ibid., p.197.

34) Dev, Pritha, Jeemol Unni and Akshaya Vijayalakshmi, “Employment and Income Shock During COVID-19 Lockdown in a Metropolitan city in India”, *The Indian Economic Journal*, 71(2),

가사노동이나 일용직같이 저임금, 비공식 노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여성을 결혼이주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다. 2008년 임금 가사노동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의 임금노동은 여전히 고용주에 좌우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겨진다. 구루그람에서 이주여성은 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서 일한다. 고용주가 집에 있는 휴일에는 임금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다. 전국 봉쇄 기간 고용주가 재택근무나 실직으로 집에 머물면서 이주여성의 임금노동도 줄어들었다.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대면 기피는 제한적인 가사노동 서비스 요구로 이어졌다. 아샤(Asha, 2019년 당시 27세, 서벵골 출신, 가족이주)는 아침 8시에 첫 집을 시작으로 밤 7시까지 종일제 가사노동을 제공해 왔다. 그녀는 매일 다섯 가정에 대하여 오전에 두 집, 오후에 세 집에서 일을 했다. 12시부터 오후 2시,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르는 것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이 비는 시간에만 가사노동 서비스를 받겠다는 고용주의 요구는 아샤 같이 시간대별로 여러 가정에서 임금 가사노동을 하던 여성이 선택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020년 말까지 중산층 가정에서 여성 고용주의 대부분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실업과 일감 축소 기간도 연장되었다.

이주여성의 우울감은 고용가정에 접근할 수 없는 데서 비롯하는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자신을 오염원으로 보는 시선과도 결부되어 있었다. 도시에서 고립된 경험을 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당신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³⁵⁾ 임시 거주지나 슬럼 일대는 코로나 19 진원지로 묘사되면서 불안감을 높여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³⁶⁾ 인도에서는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형성한 곳이 도시 슬럼 지역이었다는 역설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의 피해는 임금손실이나 경제적 빈곤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 경험이었다고 하겠다.

2023, p.321.

35) Kumar et al., 2022, p.917.

36) Jamil and Dutta, 2021, p.1400.

4.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 그 이후 삶의 이동성

1) 고향으로의 역이주 과정

국내 이주노동자는 이주지에서 사회적 권리가 없고 주택 및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로 소외, 차별, 낙인,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어느 도시에서도 전국에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도시에서 이주노동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확산되며 이주노동자의 고립감을 극대화하였다. 이주민은 언제 바이러스를 퍼뜨릴지 모를 대상으로 치부되면서 더는 도시에 머물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반복적인 봉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이주민의 자발적인 귀향을 부추겨 대규모 역이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마이티 외는 1947년 분리독립 때의 국민 대이동 이후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대규모 탈출로 묘사하였다.³⁷⁾ 이주노동자의 귀향은 1차 전국 봉쇄발표 직후를 기점으로 이후 2021년과 2022년 주정부의 봉쇄에 걸쳐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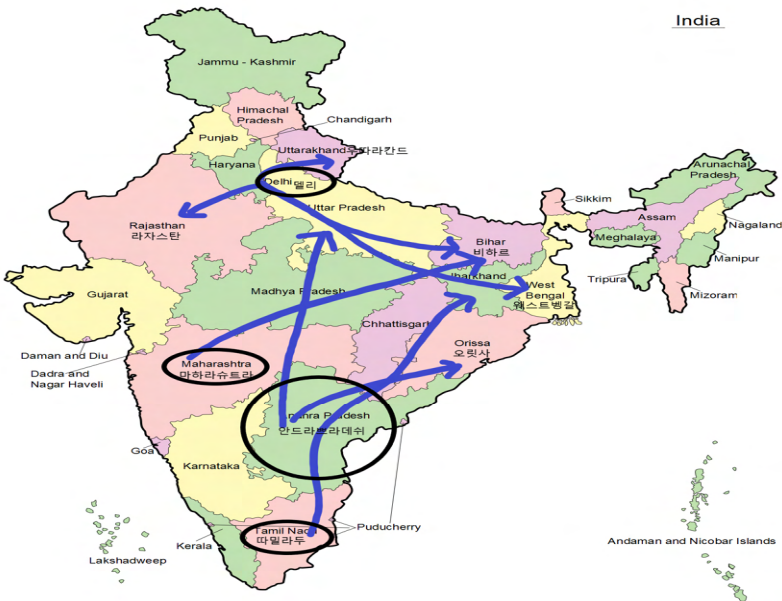
1차 전국 봉쇄발표 직후 사상 최대의 역이주가 발생하였다. 인도정부는 2020년 5월 해외에 머물던 인도인을 모두 피신시키기 위해서 “반데 바라트 미션”(Vande Bharat Mission)을 시행하였다.³⁸⁾ 하지만 그때까지 도시에 발이 묶인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주노동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수백 킬로의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로 귀향하기 시작했다(아래 <그림 1> 참조). 다스와 프리빠티는 당시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를 굶주림, 황폐함, 피로, 걷는 남녀와 아이들로 떠올렸다.³⁹⁾ 뉴스에서는 버스정류장과 기차역을 가득 메운 이주노동자와 도로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연일 보도했다. 노동부는 2020년

37) Maiti et al., 2022, p.2.

38) Alok et al., 2021, pp.461~462.

39) Das, Chhandita and Priyanka Tripathi, “Through the Lens of Gender: Makeover of ‘Aatmanirbhar Bharat’, Labour Migration and Covid-19 Pandemic”,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485.

9월까지 귀향한 이주노동자 수를 약 천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버스와 기차를 이용한 사람들에 한정된 수이다. 도보로 간 사람을 포함한 귀향 인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자와 꾸마르는 전국 봉쇄 기간 교통 사고 사망자가 29,41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도보로 귀향길에 오른 이주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⁴⁰⁾



출처: 바르헤이트 외⁴¹⁾에서 연구자 편집.

〈그림 1〉 전국 봉쇄 기간 역이주 경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두 번째 귀향은 2021년 3월에서 5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1차 전국 봉쇄 기간 도시에 머물던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귀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재확산 시기에는 역이주민 수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40) Jha and Kumar, 2021, p.427.

41) Barhate et al., 2021, p.153.

정부가 역이주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⁴²⁾ 첫 번째 전국 봉쇄발표 직후에는 많은 우버 기사가 도시에 머물렀다. 하지만 봉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귀향을 재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이주노동자의 두 번째 역이주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좀 더 적은 수가 역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 명이 귀향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첫 번째 시기 역이주민의 수는 4,410만 명, 두 번째 시기에 1,210만 명 정도이다.⁴³⁾ 수천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역이주 과정에는 지역 주민이 임시 거처지를 폐쇄하는 등 폭력과 불평등이 난무했다. 이르샤드와 라즈는 전국 봉쇄 당시 고향으로 걸어가던 도중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요인이 기아, 교통사고, 자살, 의료부족, 격리센터에서의 사망, 범죄, 피로, 알코올 금단증세 및 경찰의 만행이었다고 한다.⁴⁴⁾

도시 이주노동자는 실직,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고향을 택했으나 여기서도 고립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감염 위험이 큰 대상으로 낙인찍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쉼과 자에 의하면 귀환이주민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가 지속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⁴⁵⁾ 귀환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농촌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이들에 대한 시선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주로 청년 이탈이 심한 오디샤주에서는 첫 번째 봉쇄 기간의 역이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⁴⁶⁾ 하지만 송금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한

42) Nizam, Arif, P. Sivakumar and S. Irudaya Rajan, "Interstate Migration in Ind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Analysis Based on Mobile Visitor Location Register and Roaming Data",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3), 2022, p.273.

43) Ibid., pp.284~285.

44) Irshad and Raj, 2022, p.60.

45) Sengupta, Sohini and Manish K. Jha, "Social Policy, COVID-19 and Impoverished Migrant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Locked Down Ind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2(2), 2020, p.160.

46) Saha, Debdulal and Anamitra Roychowdhury, "Indian Labour Market in the Time of COVID-19 Pandemic: Issues, Experience and Policy",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372.

귀환으로 주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주민은 귀향 이후 반복되는 역이주 흐름에서 사실상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위치에 처해있었다. 델리에서 역이주한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전국 봉쇄가 끝난 즉시 델리로 돌아왔다는 메흐타의 연구에서는 당시 귀환이주민의 위치성이 잘 드러난다.⁴⁷⁾

2) 고향에서 지속가능한 임금노동과 재이주의 현안들

인도 내무부는 2020년 5월 23일 75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귀향하였다고 발표했다.⁴⁸⁾ 첫 번째 봉쇄 기간에 역이주한 이들은 곧바로 이주지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세 번째 부분 봉쇄 기간이 끝나도록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귀향 직후 이주민은 시간적 여유로움, 휴식, 고향에서의 안정감으로 인하여 이 시기를 재충전의 기회로 여겼다.⁴⁹⁾ 하지만 고향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귀환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 봉쇄 기간에 돌아온 이주민은 오래 일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한정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귀환이주민이 직업을 찾는 과정에는 카스트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발사 카스트는 귀향 이후 바로 임금노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농촌에서 할 일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메자드리와 바네르지는 계급, 카스트 공동체, 토지소유 여부가 역이주민의 재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⁵⁰⁾ 특히 도시에서 임금 가사노동자로 있던 여성의 경우 농촌에서 유사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귀환이주민은 새로운 임시 노동자로 고용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도시에서보다 더 큰 제약이 따랐다. 귀환이주민 내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지면서

47) Mehta, Balwant Singh, "Migration and COVID-19 Pandemic: A Study of Uttarakhand Migrants in Delhi", *Indi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3), 2022, p.476.

48) Mookerjee et al., 2021, p.1428.

49) Ibid., p.1440.

50) Mezzadri and Banerjee, 2022, pp.319~320.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들은 농업과 건설업에 국한된 일당벌이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작업장으로 가는 트럭을 탈 수 있기를 기다렸다.⁵¹⁾ 또한 고향에서의 임금노동은 도시와 비교해서 일당 차이가 컸다. 귀환이주민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채, 빈곤함, 소외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귀환이주민은 고향에 정착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임금노동을 찾아 도시로 재이주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도 국내 노동이주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에서 신분이 모호한 상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텔리나 뭄바이(Mumbai) 같은 대도시 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경비나 지인을 통해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발품을 팔아 진입하는 임금노동의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다. 이들의 임금노동은 유연하고 유동적이므로 필연적으로 이동성이 잦았다. 이처럼 대도시로의 이주과정에는 임금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귀환이주민은 이러한 도시 임금노동 환경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도시로의 재이주 결정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가르왈은 사회복지시스템이 이주노동자의 이동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⁵²⁾ 이들이 도시로의 재이주를 결정하는 일은 고향에서의 정착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상 귀환이주민은 고향에서나 도시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임금노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겠다.

귀환이주민의 재이주와 결부해서는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들 사이에 만연해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와 관련 있다. 이는 코로나19 경험이 도시 이주노동자에게 남긴 일종의 트라우마이다. 슬럼에서의 경제·사회적 고립의 경험, 역이주 과정에서 생존과 소외와 결부된 불안감의 경험, 특히 건강 위기에 대한 경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의 이동성에 중요한 고려의

51) Mookerjee et al., 2021, p.1434.

52) Agarwal, Pankhuri, "State-Migrant Relations in India: Internal Migration, Welfare Rights and COVID-19", *Social Change*, 52(2), 2022, p.240.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비공식 부문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계탈라 주정부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구자라뜨(Gujarat) 주보다 성공적인 대응 과정을 보이는 결과로 입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인도 정부가 가장 비판받은 부분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이다. 부적절한 이주데이터는 코로나19 경험에서 보듯이 이주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낙인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⁵³⁾

두 번째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 라잔 외에 따르면 역이주는 인도경제를 15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한다.⁵⁴⁾ 도시 이주노동자의 비공식 부문 노동은 인도에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건설을 위한 핵심 노동력이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 전환과 결부되는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는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노동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노동은 임금 가사노동 부문이다. 전국 봉쇄 이후에도 여성이 남성과 달리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브 외⁵⁵⁾의 지적처럼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젠더차별과 관련 있다. 여성의 직장 복귀가 늦어지거나 재택근무로 돌봄 노동 공백이 줄어들은 곧바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일감 축소와 결부되는 문제이다. 사실상 이주여성은 도시로의 재이주가 두려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구루그람 신도시에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대부분이 고용주를 직접 찾아 다닌다. 여성은 이주초기 한 가정에서의 일을 시작으로 점차 일의 양을 늘려 간다. 이주여성의 임금 가사노동은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된 일이다. 이주여성의 시급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방 개수, 집 평수와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임금 가사노동 부문 노동은 유연하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임금노동 과정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다. 귀환한 이주여성은 전국 봉쇄 기간 고용주로부터 시급이 깎이거나 불규칙한 임금노동을 경험했다. 여성은 재이주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도시의 임금

53) Rajput and Rajan, 2023, p.89.

54) Rajan et al., 2020, p.1024.

55) Dev et al., 2023, p.340.

가사노동 부문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사실상 인도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여성이 도시로의 이주과정에서 고용주를 찾는 과정에 더 큰 장애가 되었다. 이들은 고용주의 부재시간에 임금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노동방식을 새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하와 로이췌드리는 이주여성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소외되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코로나19 경험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⁵⁶⁾ 전국 봉쇄 기간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이동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결부된다고 하겠다.

우버 택시 역시 노동 축소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노동이다.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대면 노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실물경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우버는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인도의 디지털 정책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남성이 우버 택시 기사로 직업전향을 하였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공유경제가 기피되면서 이주남성들 역시 도시로의 재이주가 성공적인 삶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인하여 공유 플랫폼으로 대표되던 우버 택시 이용률이 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도시로 재이주를 해야 하는 이주남성의 임금노동과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이주유형에 맞는 이동성 보장의 부재이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인도에서 주를 넘는 장거리 이주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이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고향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루그람 슬럼 이주민 역시 고향에 가족원을 남기지 않고 이주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이주의 흐름은 가족원이 모두 이동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메흐파는 영구가족이주가 뉴노멀 시대 국내이주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였다.⁵⁷⁾ 새로운 이주유형은 코로나19 대유행 기

56) Saha and Roychowdhury, 2021, p.372.

간 대다수 이주민이 출신지와 이주지 신분증을 함께 소지하여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에서 모두 배제된 경험에서 기인한다. 영구가족이주는 고향 살림을 정리하고 가족원 전체가 도시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구가족이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행할 것으로 주목되나 고비용이 드는 도시에서 초기 정착 기간을 보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영구가족이주 가정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이러한 유형이 확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국내 비공식 부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인 이-슈람 포털(e-Shram Portal)을 채택하였다.⁵⁸⁾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내 이주노동자의 두드러진 차별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정부가 반응한 것이다. 정부는 이-슈람 포털을 통해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및 안전 문제를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공식적으로는 도시로 재이주를 희망하는 귀환이주민에 대한 경제·법·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의 실효성은 인도정부의 관료주의적 태도, 농촌의 인프라 실태 및 전국 이주노동자의 등록 가능성 면에서 회의적이다. 2019년까지 구루그람 슬럼에서 이주여성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미미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온라인 등록이 필요한 이-슈람 포털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사실상 이-슈람 포털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성 경로를 통제한다는 정부의 대안에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이주여성의 문제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5. 결론: 정착과 재이주의 딜레마 속에서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은 미래로 예측되던 인간 삶의 방식을 현실로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 사회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인도 역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디지털 부문

57) Mehta, 2022, p.476.

58) Rajput and Rajan, 2023, p.85.

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모디정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에서는 당분간 디지털 평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전후 인도 도시의 임금노동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도시 이주노동자의 이주와 재이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지속가능한 임금노동과 결부된 이동성에 내재하는 현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2020년 3월 14일 코로나19를 공식 재난으로 선포하고 3월 24일 전염병 예방 조치로 인구이동에 대한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21일간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전면 금지였다. 전국 봉쇄는 예상과 달리 세 차례 더 연장되어 68일 간의 완전 봉쇄로 이어졌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더 부분 봉쇄가 시행되었다. 사전 예고나 지침도 없는 봉쇄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도시에서 임금노동 중이던 농촌 출신 국내 이주노동자였다. 델리권역 도시인 구루그람 등지에서는 슬럼 주민에 대한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전국 봉쇄의 여파가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삶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도시에서 임금 가사노동자로 있던 이주여성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무기력, 사회적 낙인, 상실감, 편견, 현지 주민과의 마찰 및 과잉 공권력에서 비롯되는 폭행은 전국 봉쇄 기간 도시 이주노동자가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었다.

전국 봉쇄는 그동안 인도에 만연하던 사회적 불평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구루그람에서는 전국 봉쇄가 종료된 이후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못하고 코로나19 대유행기로 이어지면서 여성경제와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와 우버 기사인 이주남성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들의 경제적 문제는 임금노동 단절에서 비롯되는 빈곤, 이주노동자의 위치성에서 기인하는 정부의 무관심과 결부되었다. 이는 우버 차량 대출금 상환일에 대한 압박감과 관련된 이주남성의 압박감, 임금노동 축소와 고용주의 편견에서 비롯하는 이주여성의 심리적 고통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

도시의 원주민은 이주민이 언제 바이러스를 퍼뜨릴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였다. 게다가 전염병의 장기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도시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역이주를 촉발시켰다. 도시 이주노동자의 역이주는 전국 봉쇄발표 직후에 시작되어 2001년과 2022년 주정부의 봉쇄에 걸쳐 지속되었다. 2020년 3월 첫 번째 전국 봉쇄발표 직후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역이주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역이주는 정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귀향길을 제시하지 않자 도시에 흩어져 있던 이주노동자가 수백 킬로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로 귀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이주 과정에는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위를 걷는 남녀와 아이들 모습이 전 세계에 공유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역이주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견디지 못한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도시 이주노동자의 역이주 과정에는 지역 주민이 임시 거처지를 폐쇄하거나 폭력 및 불평등이 난무했다.

도시 이주노동자는 실직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안전한 피난처로 고향을 선택했으나 감염원으로 낙인찍혀 고향에서도 배제되었다. 게다가 농촌에서는 귀환이주민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두-세 번째 역이주민이 합류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발사 같이 특정 카스트를 제외하고 도시에서 일하던 다수의 이주민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농촌에서의 임시 노동은 불규칙적이었으며 도시와 비교해서 일당 차이가 컸다. 귀환이주민은 고향에서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채와 빈곤함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귀환이주민은 2023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고향에 정착하거나 지속 가능한 임금노동을 찾아 도시로 재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였다. 사실상 이들의 재이주는 도시로의 진입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서 고향에서의 정착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귀환이주민의 도시 재이주와 결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 새로운 이주유형에 맞는 이동성 보장의 부재 같은 세 가지 현안이 있었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은 인도 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 현황에 관한 데이터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내내 국내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경제·사회적 소외의 경험에서 비롯하였다. 다음으로 대면 노동시장의 축소는 귀환이주민의 도시 재이주 결정을 방

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인도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공유경제의 축소 및 재택근무로의 노동방식 전환은 이들의 이동성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유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영구가족이주 유형은 고비용이 드는 도시에서 초기 정착 기간을 보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8월 정부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안전과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이-슈람 포털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슈람 포털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용화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자국의 백신 수급과 해외 인도인에 대한 자국 이송 과정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손색없을 정도로 노련했으나 국내 이주노동자 통제와 관련해서는 혹평을 받았다. 도시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역이주 당시 보인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국내 노동이주 부문에서의 제도적인 허점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였다. 도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언론과 학계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는 고립의 문제는 여전히 간과되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적인 임금노동과 결부되는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이동성 문제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소외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경학, 「감염병과 ‘이슬람포비아’: 인도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COVID-19의 정치화」, 『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인도연구소, 2020, 1~34면.
- 노윤재·조승진, 「코로나19의 인도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세계지역전략연구』 2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1~81면.
- 박효민·김현정·최윤철, 「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일감법학』 49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29~56면.
- 이태정,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산업노동연구』 제26권 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35~62면.
- 임은유, 「인도 코로나19확진자폭증...하루만에 40만명」, 『아시아경제』 2021년 5월 1일자.
- 프라마바타차리아·데반잔바네르지, 「내재된 두려움: COVID-19와 인도의 사회적 낙인·타자화」,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3~36면.
- Agarwal, Pankhuri, "State-Migrant Relations in India: Internal Migration, Welfare Rights and COVID-19", *Social Change*, 52(2), 2022, pp.239~256.
- Agarwalla, Astha and Errol D'Souza, "The Economic Imperative: Cities Need Migrants",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p.377~391.
- Alok, V.N., Madhulika Jatoliya and Animesh Pareek, "Governance and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Indian Federation",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p.452~469.
- Annavarapu, Sneha, "The Weight of Waiting: Suspended Mobility and Deferred Aspirations Amongst Cab Drivers in Hyderabad", *Social Change*, 52(2), 2022, pp.187~202.
- Barhate, Bhagyashree, Malar Hirudayaraj, Noeline Gunasekara, Ghassan Ibrahim, Anim Alizadeh and Mehrangiz Abadi, "Crisis Within a Crisis: Migrant Workers' Predicament During COVID-19 Lockdown and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India", *Indi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1), 2021, pp.151~164.
- Begum, Asma, Mathew Shafaghi and Ayesha Adeel, "Impact of Job Insecurity on Work-Life Balance during COVID-19 in India", *Vision*, 2022, pp.1~22.
- Cariappa, AG Adeeth, Kamlesh Kumar Acharya, Chaitanya Ashok Adhav, R Sendhil and P Ramasundaram, "Impact of COVID-19 on the Indian agricultural system: A 10-point strategy for post-pandemic recovery", *Outlook on Agriculture*, 50(1), 2021, pp.26~33.

- Choolayil, Anoop C. and Laximi Putran, "COVID-19, The Local and the Global: Lessons from Kerala", *South Asia Research*, 2020, 41(1), 2020, pp.7~21.
- Connolly, Creighton, S Harris Ali and Roger Kei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 and extended urbanization",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0(2), 2020, pp.213~216.
- Das, Chhandita and Priyanka Tripathi, 2021, "Through the Lens of Gender: Makeover of 'Aatmanirbhar Bharat', Labour Migration and Covid-19 Pandemic",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p.484~491.
- Deshingkar, Priya, "Structural Violence and Normalising Human Suffering: Labour Migration During the COVID Pandemic in India",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1), 2022, pp.134~140.
- Dev, Pritha, Jeemol Unni and Akshaya Vijayalakshmi, "Employment and Income Shock During COVID-19 Lockdown in a Metropolitan city in India", *The Indian Economic Journal*, 71(2), 2023, pp.321~346.
- Irshad, S. Mohammed and Vimal Raj, "Employability and 'Marginal Efficiency' of Labour I Post-COVID Economy", *Journal of Social Inclusion Studies*, 8(1), 2022, pp.51~63.
- Jamil, Raihan and Uttaran Dutta, "Centering the Margins: The Precarity of Bangladeshi Low-Income Migrant Workers During the Time of COVID-19",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5(10), 2021, pp.1384~1405.
- Jha, Praveen and Manish Kumar, "Labour in India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8(3), 2021, pp.417~437.
- Khanna, Anoop, "Impact of Migration of Labour Force due to Global COVID-19 Pandemic with Reference to India", *Journal of Health Management*, 22(2), 2020, pp.181~191.
- Kumar, Navin, Hyacinth Udah, Abraham Francis, Sanchita Singh and Anica Wilson, "Indian Migrant Workers' Exper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ationwide Lockdow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7(5), 2022, pp.911~931.
- Maiti, Susobhan, Disha Sharma and Tanushree Gupta, "Unfol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Reverse Migrants in Uttar Pradesh",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9(1), 2022, pp.292~306.
- Mehta, Balwant Singh, "Migration and COVID-19 Pandemic: A Study of Uttarakhand

- Migrants in Delhi”, *Indi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3), 2022, pp.468~478.
- Mezzadri, Alessandra and Kaustav Banerjee, “When the Lewisian Dream Sours: Industrial Aspirations and Reverse Labour Migration”,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3), 2022, pp.297~326.
- Mishra, Umesh Chandra, Satyaki Sarkar and Aditi Nag, “Measuring Social Acceptance of Resettlement Colonies for the Post COVID-affected Migrants in India”,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urvey of India*, 71(1), 2022, pp.105~124.
- Mookerjee, Devalina, Sujoy Chakravarty, Shubhabrata Roy, Anirudh Tagat and Shagata Mukherjee, “A Culture-Centered Approach to Experience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Lockdown Among Internal Migrants in Ind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5(10), 2021, pp.1426~1444.
- Naik, Mukta, 2020, “State-society Interactions and Bordering Practices in Gurugram’s Pandemic Response”, *Urbanisation*, 5(2), 2020, pp.181~190.
- Nizam, Arif, P. Sivakumar and S. Irudaya Rajan, “Interstate Migration in Ind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Analysis Based on Mobile Visitor Location Register and Roaming Data”,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17(3), 2022, pp.271~296.
- Rains, Emily, “An Evolving threat to Life and Livelihoods: Comparing the Health,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irst Two Waves of COVID-19 in Bengaluru and Patna Slums”, *Environment & Urbanization*, 34(2), 2022, pp.467~480.
- Rajan, S. Irudaya and Anand P. Cherian, “COVID-19: Urban Vulnerability and the Need for Transformations”,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ASIA*, 12(2), 2021, pp.310~322.
- Rajan, S. Irudaya, P. Sivakumar and Aditya Srinivasan, “The COVID-19 Pandemic and Internal Labour Migration in India: A ‘Crisis of Mobility’”, *The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63, 2020, pp.1021~1039.
- Rajput, Kuldeepsingh and S. Irudaya Rajan, “Visibilising Invisible Population: e-Shram Portal and Essentiality of Internal Migration Database in India”, *Journal of Social Inclusion Studies*, 9(1), 2023, pp.82~94.
- Reja, Md Selim and Bhaswati Das, “Remittance arrangements within India and COVID-19: Kerala’s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from West Bengal”,

- South Asia Research*, 41(1), 2021, pp.22~34.
- Saha, Debdulal and Anamitra Roychowdhury, "Indian Labour Market in the Time of COVID-19 Pandemic: Issues, Experience and Policy",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p.369~376.
- Sengupta, Sohini and Manish K. Jha, "Social Policy, COVID-19 and Impoverished Migrant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Locked Down Ind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2(2), 2020, pp.152~172.
- Sharma, Dr. Neelam, "Digital Moral Outrage, Collective Guilt, And Collective Action: An Examination of How Twitter Users Expressed Their Anguish During India's Covid-19 Related Migrant Crisis,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47(1), 2023, pp.26~45.
- Sharma, Jeevan R., Anurag Sharma and Anuj Kapilasharmi, "COVID-19 and the Precarity of Low-income Migrant Workers in Indian Cities", *Society and Culture in South Asia*, 7(1), 2021, pp.48~62.
- Sharma, Sahiba and Anubrata Paul, "COVID-19 India: An insight into the impact of lockdown and community behavioural response", *International Social Work*, 63(6), 2020, pp.717~729.
- Sumalatha, B. S., Lekha D. Bhat and K. P. Chitra, "Impact of Covid-19 on Informal Sector: A Study of Women Domestic Workers in India", *The Indian Economic Journal*, 69(3), 2021, pp.441~461.
- Yadav, Sangeeta and Kumar Ravi Priya, "Migrant Workers and COVID-19: Listening to the Unheard Voices of Invisible India", *Journal of Anthropological Survey of India*, 70(1), 2021, pp.62~71.
- Yadav, Vinita and Sherin Jacob, "Impact of the Lockdown on Women Domestic Workers", *Ind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3), 2021, pp.300~313.

| Abstract |

The Impact of COVID-19 Experience on the Return and Re-Migration of Urban Migrant Workers in India

— Focusing on Migration Issues in the Post-COVID Era —

Lee, Kiyou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dia's COVID-19 experience on mobility linked to sustainable wage labor in the context of internal migration. The researcher focuses on the reverse migration experiences of urban migrant workers in India due to changes in the wage labor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aiming to identify key issues surrounding the re-migration of returnee migrants in the post-COVID era.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bined ethnographic data on slum residents in urban areas of the Delhi National Capital Region from 2009 to 2019 with an analysis of literature from 2020 to 2023.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a's nationwide lockdown, which lasted 68 days in 2020, and the subsequent three years of the COVID-19 pandemic severely impacted the economic and social lives of rural-origin internal migrant workers engaged in wage labor in urban areas. Economic pressures,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government's lukewarm response triggered mass reverse migration of urban migrant workers. Returnee migrants faced difficulties settling in their rural hometowns due to the absence of social networks and limited job opportunities in a highly competitive labor market. Although COVID-19 had stabilized by 2023, the urban re-migration process for returnee migrants remained fraught with challenges, including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s, the contraction of face-to-face labor markets, and the absence of mobility support tailored to new migration patterns.

Key Words: Urban Migration in India, COVID-19 Experience, Sustainable Wage Labor, Mobility, Return and Re-Migration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최대희**

목 차

1. 머리말	3. 커뮤니티 그리고 권력, 조직 및
2.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알린스키의 태도	4. 맺음말

■ 국문초록

알린스키는 미국 사회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는 사회변혁 방법론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그는 사회 제도의 파괴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알린스키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대한 핵심 세력은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교회였다.

본 연구는 첫째, 알린스키의 노동조합 및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노선의 비폭력성, 비이념성 그리고 실용주의적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의 해법을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알린스키의 주장이 가톨릭의 사회교리인 보조성 원리에 기초해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알린스키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입파워먼트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음에 주목하면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라보는, 그리하여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복지적 접근과 달리,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그들을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주제어: 사울 알린스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복지 식민주의, 보조성 원리, 사회주의 노동운동

1. 머리말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 중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Community Organizing 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집단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 탄생한 미국에서조차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입에 자주 올리는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용어를 자신들에게 친숙한 유권자 동원 voter mobilization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사울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 1929~1972)는 물론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끊임없이 혁명적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연동시키기에 바쁘다.¹⁾ 그러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전통은, 그것의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혁명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혁주의적이었다. 알린스키는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는 사회변혁 방법론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사회 제도의 파괴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물론 알린스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고, 그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은유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비폭력적이었다. 실제로 알린스키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1) Schutz, Aaron and Sand, Marie G.,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An Introduction to Community Organizing, Palgrave Macmillan, New York, NY, 2011, p.1.

1960년대에 웨더맨과 같이 폭력을 일삼는 분파 단체들에 혐오감을 느꼈다.²⁾ 알린스키는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회피했으며, 실용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일생의 과제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서 찾았다. 사회 변화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와 같은 접근은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다른 참여 형태와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알린스키는 사회 변화를 위한 조직가로서의 활동을 노동조합에서 시작했다. 알린스키는 개별 노동조합의 상위 단체였던 산업조직회의에서 활동하면서, 멘토였던 존 루이스John L. Louis에게서 조직 활동을 위한 정치적 전술과 전략을 배웠다. 그는 그에게서 대규모 모임을 기획하는 법과 회원 모집 방법도 익혔다.³⁾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알린스키가 루이스의 정치적 비전도 함께 공유했다는 점이다. 당시 루이스는 급진주의자로 여겨졌고, 심지어 공산주의자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 오거나이징에 대한 루이스의 핵심 목표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포럼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불만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린스키는 루이스의 노동자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 원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알린스키가 추후 발전시킨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노동자 기반 자기조직화 원리를 커뮤니티 기반 자기조직화로 이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조직화로 요약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대한 핵심 세력은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교회였다. 그는 특히 가톨릭교회의 여러 성직자 및 신학자들과 평생 동안 교류했다. 그는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많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이니셔티브를 발주했고, 그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가난

2) *ibid.*, p.2.

3) 최대회,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제10집, 2024, pp.19~27.

한 자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다.

본 연구는 첫째, 알린스키의 노동조합 및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노선의 비폭력성, 비이념성 그리고 실용주의적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때 그의 사고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각인되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가톨릭 사회교리인 보조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문제의 해법을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알린스키의 주장을 보조성 원리와 연관시킬 것이다. 알린스키는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국가의 복지 시스템 외부에 위치시키고, 오로지 독립적인 시민의 힘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본 연구는 알린스키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일반인,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입파워먼트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음에 주목한다. 그는 그들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권력과 갈등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해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를 ‘풀뿌리 민주주의자’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그의 이해는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민주주의의 핵심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는 우선 그의 커뮤니티 개념을 살펴보면서,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방적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구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과 사회복지적 접근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바라보는, 그리하여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복지적 접근과 달리,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그들을 자신의 삶의 상황을 개선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2.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

1) 노동운동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와 사회주의 비판

알린스키가 미국 노동운동에 발을 담글 때 그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조직은 산업조직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였다. 당시 노동운동가 존 루이스는 산업조직회의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노동운동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산업조직회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인 직능별로 나뉘어져 독립적이었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루이스가 '조직들의 조직'으로서 산업조직회의를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였다.⁴⁾ 알린스키는 루이스의 이러한 조직화의 성공 사례를 학습했다. 또한 그는 산업조직회의에서 활동할 당시, 루이스의 정치적 비전을 공유했다. 루이스의 노동자 오거나이징의 정치적 목표는 1937년 산업조직회의 창설의 동기를 설명한 '노동과 국가'라는 연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나서는 이유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포럼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희망을 표현할 자유를" 확보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⁵⁾ 알린스키 역시 백오브더야드 지역에서 첫 조직화 작업에 나서면서, 산업지역재단(Industrial Area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러한 명칭은 루이스의 산업조직회의를 연상시키는데, 루이스가 산업과 조직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였다면, 알린스키는 산업과 지역이라는 단어를 조합했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단어의 조합을 통해, 문제의 본질이 해당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산업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루이스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알린스키는 오거나이징의 대상을 노동자층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원, 즉 지역주민들이었다는 점이다.

4)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des Community Organizing bei Saul D. Alinsky (1909-1972). Eine Rekonstruktion*, Bremen: Akademie für Arbeit und Politik der Universität Bremen, 2005. pp.51~52.

5)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 Eine Geistesgeschichte",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p.42~43.

알린스키가 산업조직회의에서 활동할 당시, 미국 노동운동에는 두 가지 진영이 존재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좌파 진영으로 알린스키가 보다 큰 공감을 느낀 쪽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진영으로 노동운동 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당시 알린스키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전투적이고 대결적인 전술을 많이 학습했다. 그러나 당에 대한 그들의 이념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알린스키는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전선을 펼쳤는데, 그것은 그가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반파시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린스키는 백오브더야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주의적 노동조합 지도자인 허브 마치Herb March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와 나는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같은 기차에 탔다. 너희는 파시즘에 맞서 단결된 전선으로 움직였지. 내가 관심 있는 전체 운동은 반동에 맞서 단결된 전선의 형태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⁶⁾

알린스키는 사회주의를 사회변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그들과 연대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가 추구한 것은 폭력을 통한 권력 추구보다는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알린스키가 선호한 방식은 사회주의적 혁명보다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였다. 또한 알린스키가 보기에, 사회주의의 한 변형인 스탈린주의를 파시즘과 동일한 형태의 ‘반동’reaction이었다.⁷⁾ 그는 스탈린주의든 파시즘이든 모두 인간의 자결권에 대한 반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백오브더야드 프로젝트를 이리한 형태의 전체주의적 반동에 맞서는 민주적인 보루로 간주했다.

“이 조직은 공동체 내 모든 조직을 결합하여 (...)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인종, 피부색,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6)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57.

7) *ibid.*

사람들이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건강, 행복, 안전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⁸⁾

알린스키는 민주주의를 개별 인간의 가치와 다층적인 충성심을 가장 완벽하게 고려하고 승인하는 정부 시스템이자 경제 및 사회 조직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그가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충성심이 고려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 개인은 “교회, 노동조합, 협회, 사회 집단, 민족 집단, 스포츠 동호회, 정당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양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⁹⁾ 알린스키가 사회주의적 오거나이저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였다. 그가 생각한 오거나이저의 진정한 역할은, “우리 모두가 - 민주주의에 소속된 자유로운 시민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 책임과 권력 그리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감정을 퍼트리는 데”에 있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임무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조직함으로 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알린스키가 사회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요소는 사회주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들을 도구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사회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한 이유를 우리는 존 스타인벡 John Steinbeck의 『의심스러운 전투에서』 *In Dubious Battle*라는 소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36년에 작성된 이 소설은 캘리포니아 계곡에서 발생한 사과 추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집단적 유기체에 완전히 종속된 개인이 자율성을 상실하는 과정과 사람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는 과정을 선명하게 묘사한다. 저자는 한편으로 이념에 종속되어 자율성을 상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구화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어떤 식으로 방해받는지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당원이 아닌 인물 의사 도크 버튼 Doc Burton을 등장시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람

8) Alinsky, Saul D., *Reveille for Radic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p.221.

9) *ibid.* pp.69~70, p.111.

10) *ibid.* p.73.

들을 이용하거나 공상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에 복종시키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알린스키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가진 우려는 바로 이 소설의 저자와 같은 것이었다.¹¹⁾ 알린스키는 사회주의를 노예화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말하자면 알린스키는 사회주의에서 무조건적인 정치적 충성을 요구하지만,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의 핵심 원리라고 그가 생각하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허용하지 않는 비민주적 경향성을 확인한 것이다.¹²⁾

또한 알린스키는 이념이나 ‘조직 우선주의’는 변화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거나이저의 역할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조직은 자체적인 권력 강화나 “위계적인 구조 강화” 대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사회주의자와 대비되는 알린스키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¹³⁾ 알린스키는 사회주의자는 일반인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갈등은 오로지 계급투쟁이거나, 여러 이익집단 간의 필연적인 갈등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고는 계급에 기반 해 있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이익이 부유한 자들의 이익과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알린스키는 사회주의자들과 전략적 협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느꼈으며 이념보다 일반인들의 실제적인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해결책을 중시했다.¹⁴⁾

2) 분파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서 ‘정체성 정치’와 ‘커뮤니티 정치’

알린스키의 주된 관심사는 계급갈등과 정치혁명에 주목하는 사회주의자와는 달리 점진적 사회변화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강력한 정부나 국가 통제보다는, 지역 사회에서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사람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

11)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p.44.

12) *ibid.*, p.45.

13) Alinsky, Saul D., *Reveille for Radicals*, pp.51~53.

14) *ibid.*, p.56.

회 변화를 이루는 방안을 꿈꾸었다. 그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공정성을 토대로 추구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¹⁵⁾ 이것이 바로 그가 조직화된 노동계를 비판한 이유인데, 그들이 분파적 이익 집단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알린스키는 이익 집단으로서 노동운동에서 미국 사회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정체성identity 정치를 발견하였다.¹⁶⁾ 정체성 정치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 등 특정 사회적, 문화적 집단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정치'를 일컫는다. 이 구상은 한 집단의 '특수한 경험과 차별'에 맞춰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알린스키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 정치'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알린스키가 정체성 정치 대신 추구한 것은 일종의 커뮤니티 community 정치였다.¹⁷⁾ 그는 특정 이해관계나 '공동체 우월주의'에 얽매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목표는 보다 포괄적이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사회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적인 힘을 가진 조직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알린스키가 처음으로 그러한 목표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곳이 바로 백오브더야드 프로젝트였다.

알린스키가 백오브더야드 지역에서 오거나이저로서 최초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부딪힌 가장 큰 난관은 이 지역에 깊게 뿌리박혀 있던 다양한 민족 집단들 간의 깊은 적대감과 상호 불신이었다. 백오브더야드 지역이 시카고의 가장 큰 이민자 거주지였던 만큼, 정말 다양한 갈래의 민족 집단과 종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 이를테면 무신론자인 러시아계 유대인, 아마도 반유대인주의자이며 동시에 독실한 가톨릭신자인 폴란드인, 그 외에도 리투아니아인, 슬로바키아인 및 아일랜드인 등이 함께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알린스키의 목표는 다양한 민족 교회, 노동조합, 스포츠클럽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을 단합시켜, 생활 임금과 공정한 노동조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권력을 창출하고 또 통제하는 백오브더야드 마을협

15)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46.

16) *ibid.*, 44.

17) *ibid.*, 46.

의회(Back of the Yards Neighborhood Council, BYNC)를 구성했다.¹⁸⁾ 그는 바로 이 조직에서 커뮤니티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발전했다. 이 조직의 목표는 “공동의 문제”, 이를테면 “사회적 불평등, 노동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에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서로 협력”하여 “공통된 목표”를 추구해야 했다.¹⁹⁾ 알린스키에 따르면, 민족공동체는 이민자통합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광범위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인 요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²⁰⁾ 이것이 바로 알린스키가 구현하고자 한 커뮤니티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였다.

나아가 알린스키가 산업지역재단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오거나이저를 충분히 모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흑인의 대표성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알린스키가 중시한 것은 백인 공동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는 사회는 인종이든, 여성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들만의 이익으로 구축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 추구가 가능한 공동체여야 했다. 루크 브레더튼은 알린스키의 이러한 사고에 깔려 있는 메시지를 ‘정체성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Beziehung- aber- keine- Identifikation*’ 구상으로 요약한 바 있다. 요컨대 각각의 집단들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성 집단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 사회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개별 정체성 집단들의 이익 정치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기반의 조직”을 구축하지 않고는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다.²¹⁾

18) Norden, Eric, “Empowering people, not elites; interview with Saul Alinsky”, *Playboy* 19 no.3(1972).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19)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58.

20) *ibid.*, pp.11~12.

알린스키는 미국 노동운동에서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발견했다. 그런 만큼 그가 노동운동에서 “모든 것을 경제적 복지의 필요성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그것의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는 미국 노동운동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철학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노동운동은 자기 자신을 특정 산업에서 독립적인 손작업을 수행하는, 미국 국민의 독립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노동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파괴적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한, 미국 시민의 조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임금과 더 짧은 노동시간’을 위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외침은 점점 더 다양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호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²²⁾

미국 노동조합은 기존의 경제적 요구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더 넓은 문제 해결과 사회 정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정한 삶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1960년대의 급진적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 정치 비판의 관점에서였다. 그가 종교집단의 분파 정치와 블랙 파워 운동을 비판한 것도 같은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3) 알린스키의 가톨릭교회와의 관계와 ‘보조성 원리’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가들과 알린스키를 구분하는 또 다른 지점은 전통과 제도에 대한 평가이다. 알린스키는 전통과 제도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무엇보다 그는 시카고의 유대교적 공동체에서 성장했으며 그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사상에 기대어 전통을 진보를 가로막는 거대한 억제로 보았다. 그들에게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는 프롤

21)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s, p.46.

22) Alinsky, Saul D., *Reveille for Radicals*, pp.59~60.

레타리아트의 형성과 의식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이에 비해 알린스키는 민중의 가치와 전통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가치와 전통과 함께 일하고자 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관계의 유지 그리고 정치 및 경제로의 종속 방지를 위해서는 도덕적 전통과 제도가 필수적이었다.²³⁾ 알린스키는 노동조합에서의 오거나이징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사람들만이 조직화된 자본의 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와 장소적 유대를 파괴해야만 자유와 정치적 행위성이 가능하다고 본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알린스키의 태도는 그가 전통과 제도의 대명사로 여겨질 수 있는 교회와 친밀성을 보일 수 있었던 바탕을 형성한다.

알린스키가 최초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활동한 백오브더야드 마을협의회에서 이미 그의 교회를 중시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직의 창설 선언문에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보다는 “기존 지역 기구들, 무엇보다 전통 공동체의 도덕과 감정이 체화되어 있는 교회”와 같은 자연적 사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⁴⁾ 알린스키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행동을 위한 도덕적 기반과 정치적, 경제적 이기심을 넘어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한 곳은 바로 교회였다.

“미국에서 정의, 품위, 평등을 위해 싸우는 유일무이한 중요한 제도는 바로 교회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 그들은 현상 유지의 일부가 되었다.”²⁵⁾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알린스키에게 끼친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알린스키의 주요 대화 상대는 세일 주교와 같은 성직자이거나 자크 마리탱과 같은 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내내 알린스키의 오거나이징 작업에 가장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매우 다양

23)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p.47.

24) *ibid.*, p.39.

25) *ibid.*, p.47에서 재인용.

한 종파의 교회들이었다. 백오브더야드 프로젝트는 알린스키가 가톨릭교회의 지원을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시카고 백오브더야드 지역의 육가공 산업 노동자들은 주로 동유럽 가톨릭국가 출신이었다. 그는 산업지역 재단을 통해 이 지역의 가톨릭 노동자들을 조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다.²⁶⁾ 이때부터 시작된 알린스키와 시카고 가톨릭교구의 협력관계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특히 셰일 주교²⁷⁾는 산업지역재단 이사회에서 직접 일하며, 알린스키가 산업지역재단 및 그가 관리하는 오거나이징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자를 소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가톨릭교회는 산업지역재단과의 협력을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 활동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했다. 또한 그들은 이 지역에서의 성공을 다른 산업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²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알린스키는 시카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자라났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분권적 조직 형태가 그들의 오랜 전통이라는 일반적 평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알린스키는 이러한 분권적 전통에 기대지 않았다. 그는 교회 및 기타 종교 공동체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의 좁은 경계를 벗어났다. 그는 국가적 구조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교파를 초월한 매개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와 국가의 지배적인 세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상황 변화를 위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3의 힘'을 구축하려고 했다. 알린스키가 시카고 백오브더야드 지역을 벗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다수 인구를 점하고 있던 지역에서 오거나이징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점차적으로 개신교 단체들과도 협력하게 되었다. 알린스키는 또한 유대인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²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기독교적 교리나 독단

26) *ibid.*, pp.47~48.

27) 버나드 셰일 주교(Bernard J. Sheil, 1886~1969)는 자유주의적이고 노동조합 친화적인 시카고의 가톨릭 성직자로, 그의 지도 아래 시카고 대교구는 미국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곳 중 하나가 되었다.

28)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31.

29) *ibid.*, pp.32~33.

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신의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알린스키는 가톨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신학자 자크 마리탱³⁰⁾과의 만남은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과 그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알린스키와 평생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와 기독교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견해를 공유했다. 마리탱은 자신과 알린스키의 정치적 비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알린스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저서 『급진주의자들의 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책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 길은 사회적 공동체에 향한 인간의 갈증이 발전되고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한 길은 쇠퇴한 시대의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³¹⁾

마리탱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로 간주하면서, 자선과 복지 온정주의를 넘어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이 바로 자신의 그러한 믿음과 합치되는 것으로 확신했다. 마리탱과 알린스키의 서신교환을 편집한 되링은 알린스키와 마리탱은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개인의 존엄성’ 및 ‘공동체적 이익의 존중’ 그리고 ‘보조성 원리’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지적한다.³²⁾

보조성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윤리 원칙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Quadragesimo Anno, 1931)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원칙은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보조적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30) 자크 마리탱(Jacques Martin, 1882~1973)은 신토마스주의의 대표자로 오랫동안 캐나다와 미국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바티칸 주재 프랑스 대사로 재직한 적도 있다. 유엔 인권선언문 작성에도 참여했다.

31)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p.48에서 재인용.

32) ibid.

핵심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 등 소규모 단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책임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보다 큰 규모의 조직(국가, 정부, 교회 등)은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이며,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르노 와슈쿤Arno Waschkuhn은 반권위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를 보조성 원리의 특징으로 지적하면서, 사회 전체 또는 국가의 책임은 “소규모 연대 공동체”가 어떤 과제에 대처할 수 없을 때에만 작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와슈쿤은 “장기간에 걸친 무능력한 보호 또는 치료적 가부장주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보았다.³³⁾ 알린스키는 바로 이 원칙에 의거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 원칙이 실패할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⁴⁾

알린스키는 가톨릭 사회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보조성 원리를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을 인용하며, 그는 정부가 “일상적인 작은 일들”에 대해 세부적인 규제를 두는 것은 일종의 “폭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사회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이러한 알린스키의 견해는 그가 일종의 가부장적 제도로서 ‘복지 식민주의’welfare colonialism라고 비난했던 사회복지 사업과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보조성 원리에 따르면, 문제의 해법은 국가로부터, 다시 말해 외부나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시 말해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따라서 그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의식적으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 외부에 위치시키고, 오로지 독립적인 시민의 힘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33) Waschkuhn, Arno: *Was ist Subsidiarität? Ein sozialphilosophisches Ordnungsprinzip: Von Thomas von Aquin bis „Civil Society*,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95, p.9.

34)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Eine „neue“ Möglichkeit zur Vitalisierung Lokaler Demokratie?*,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0, pp.17~18.

35)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32.

36) Mohrlök, Marion et al., *Let's Organize - Gemeinwesenarbeit und Community Organization im Vergleich*, München; AG SPAK, 1993, p.8.

시간이 흐르면서 알린스키는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배려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가부장적 사회복지 관행과 점점 더 날카롭게 구별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조직한 사회복지사업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일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³⁷⁾ 일부 사회복지 조직들은 자신이 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실제에서는 현재의 구조적 장치들을 영속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의심했다. 이러한 알린스키의 의심은 일부 사회복지 관행이 “현상 유지와 결을 같이 하는 지배 관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억압적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도미넬리Dominelli의 지적과 합치한다.³⁸⁾ 알린스키는 자신이 구상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 국가를 위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의 국가의 간섭주의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알린스키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 원리에 토대를 두고 국가와 시장의 월경에 맞서, 피통치자 중심의 시민사회를 갱신하고 재구성하고자 했다.

3. 커뮤니티 그리고 권력, 조직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1) 커뮤니티 개념과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방적 민주사회로의 전환

미국의 ‘커뮤니티’community라는 용어는 독일의 ‘공동체’Gemeinschaft라는 용어만큼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갖고 있지는 않다. 독일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낭만적이고 때로는 반진보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특히 국가와 개인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하는 나치즘의 ‘국민공동체’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고 있다.³⁹⁾ 알린스키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커

37) Stiftung Mitarbeit (Hrsg.), *Handbuch Community Organizing: Theorie und Praxis in Deutschland* in Kooperation mit DICO - Deutsches Institut für Community Organizing, Verlag Stiftung Mitarbeit, Bonn 2014, pp.116~117.

38) Dominelli, L., *Anti-oppressive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2, p.28.

뮤니티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공동체 내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커뮤니티를 조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등대 불”로 “개인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는 “인종, 종교, 신념 또는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선언했다.⁴⁰⁾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커뮤니티라는 용어에 묻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려고 했다.

알린스키는 퇴니에스Ferdinand Tönnies의 사회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자신의 커뮤니티 개념을 설명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퇴니에스에 따르면, 공동체Gemeinschaft는 원초적이며 감정적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사회Gesellschaft는 이성적 계산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알린스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와 같이 낯선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커뮤니티Community를 전통적인 공동체Gemeinschaft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도 그러한 해석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community를 근대화 과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는, 정적이거나 또는 유산으로 상속되는 사회 구조로 보는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동체에서 사회로의 자동적 이행을 주장하는 근대화론자의 견해에 맞서, 공동체의 사회화 기능을 인정했다. 알린스키는 공동체를 사회의 한 기능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다. 알린스키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을 사회화 시켰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알린스키가 정의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뿌리내리고 있다는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프로젝트였다.⁴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알린스키가 공동체community에 사회Gesellschaft와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한 아니었다. 그는 이익 커뮤니티community of interest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이 어려서 직접 경험한, 윤리적 또는 종

39)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155.

40) Alinsky, Saul D., *Rules for Radicals -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New York: Random House, 1971, p.122.

41)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p.32.

교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성장하면서, 인구의 이동성 증가, 산업 및 경제 환경의 변화를 직접 목도했다. 시카고는 사방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오대호 중 하나에 위치한 편리한 위치 덕분에,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로 발전했다. 19세기 말부터 이미 유럽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이민자들로 인해 시카고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집단과 다채로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용광로’가 되었다.⁴²⁾ 그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이민자들이 이상화된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전통적인 공동체 규칙에 의지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요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만큼 공동체는 이제 이익 커뮤니티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그런 만큼, 알린스키는 미국 사회가 전통적인 공동체 Gemeinschaft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Gesellschaft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⁴³⁾

알린스키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에서 수학했다. 이 시기 그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의 커뮤니티 및 도시 개념을 학습하였고, 그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미국 커뮤니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시카고 여러 지역에서 현장 분석을 직접 수행하였고⁴⁴⁾,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커뮤니티 개념은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다. 특히 토마스와 지아니에츠키의 ‘유럽과 미국의 폴란드 농민’(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THOMAS/ZNANIECKI 1918~1920)이라는 연구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의 커뮤니티 개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저자들은 폴란드 농민들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수용국가에서 협동조합, 상호부조 단체 및 이익 단체를 만들어, 이것을 이민자 조직과 동포 단체로 발전시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커뮤니티를

42) Szyu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Ein Weg zu mehr Beteiligung*, Berlin: Friedrich-Ebert-Stiftung, 2011, p.7.

43)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155.

44) 최대희, 124~125쪽.

일정한 가치관, 규범 그리고 신념을 공유하며, 상호 부조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파크Robert E. Park와 버지스Ernest W. Burgess와 같은 저명한 사회학자들은 도시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도시 환경이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와 갈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⁴⁵⁾ 이러한 커뮤니티 개념은 시카고대학 시절 이들로부터 수학한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이해를 각인했다. 알린스키는 커뮤니티를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관계, 조직, 제도의 총체로 파악한다. 그리고 알린스키는 커뮤니티의 사회화 기능을 인지하고, 커뮤니티가 도시 전체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시카고대학 사회학파의 도시생태학적 이해를 수용했다.⁴⁶⁾

그러나 알린스키가 시카고대학의 자신의 스승들과 다른 견해를 보인 곳에 주목해야 한다. 알린스키는 빈곤의 책임 문제를 다룰 때, 도시가 성장하면 가난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필수적인 결과라는 도시생태학적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카고대학 사회학파의 파크와 버지스는 도시생태학의 발전 도식에 의거, 도시 개발을 도시 확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프레임에 따르면, 저렴한 노동력과 빈민가라는 주거 양식 그리고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분석의 바탕에는 산업의 확장과 변영이 오히려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변영보다 우선시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자연스러운' 또는 '불가피한' 진화 과정의 결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그러기에 가진 자들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알린스키는 빈곤과 범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서로 연관된 두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곤과 범죄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노동운동을 거쳐 블랙오브더야드 지역에서 최초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으로 나아가게

45) Szyu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p.143~150.

46) *ibid.*, pp.150~156.

한 이유였다. 그것은 사회 해체를 초래한 경제적 과정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함이었다.⁴⁷⁾

앞서 알린스키는 전통적 공동체는 개방적인 민주적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바로 이러한 전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의 성격을 부여했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고치 속에서 자라는 나비의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이러한 문화적 고치 속에서 한동안 성장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의 태도와 지식을 축적하고, 주머니에 미국의 돈을 쌓은 후에 그들은 날개를 달고 비민족적인 미국 사회로 여행을 떠난다.”⁴⁸⁾

알린스키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바로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방적 민주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때 오거나이징은 공동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자연발생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알린스키는 오거나이징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을 관찰시키려는 일종의 ‘동사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사람들은 도래하는 개방적 민주사회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커뮤니티 만들기에 직접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참여는 특히 봉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 출신의 이민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커뮤니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활기차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건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을 관찰시킬 수 있는가이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알린스키는 권력에서의 참여 여부를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핵심 사안으로 보았다.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존재 이유는 권력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조직이고, 사람들을 조직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조직을 통해 처음에는 개인적인

47)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pp.37~40.

48) Szyu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p.8에서 재인용.

문제로 인식되던 것이 공동의 대의로 바뀐다. 물론 조직이 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직 내 의사소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주제를 논의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능력 중 어느 것도 전통적인 공동체Gemeinschaft에서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이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⁴⁹⁾

요컨대 알린스키는 전통적 공동체가 민주적 열린사회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와 도시생태학적 견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도시의 피폐한 상황이 자연스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들과 차이를 보였다. 알린스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야 하며,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그러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알린스키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목표를 낭만적 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동체 Gemeinschaft의 경계를 넘어서서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회Gessellschaft로의 전환으로 보았다.⁵⁰⁾

2) 권력,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해

알린스키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정의하면서, 권력, 조직, 민주주의와 같은 주제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알린스키는 자신을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자로 간주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자결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의거하여, 사람들은 영구적인 공동 결정권Mitbestimmung을 부여받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린스키의 사고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인 '이익의 균형'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이를 활용할 때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알린스키는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대부분 내면적으로 체념하고 있고 조

49) ibid.

50)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p.30.

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바꾸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창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권력 기반을 개발하는 것이다.⁵¹⁾ 이때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서 권력이란 용어는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알린스키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한다.

“권력을 제대로 이해하면, 권력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은 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도 필요하다.”⁵²⁾

알린스키는 킹 목사의 말을 빌려, 권력을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사람들은 권력에로의 참여를 통해서만 변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조직이 권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 필연이다. 알린스키에게 권력은 ‘자본 권력’과 ‘시민 권력’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자본의 권력은 금융엘리트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에서 확인된다면, 시민의 권력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서로 결집하여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권력이다. 권력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러한 이해는 미국 현실에 대한 진단과 맞물려 있다. 그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하향식 *top-down*이다. 그것은 부자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린스키의 민주주의 이해이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권력을 시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현실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체념하고 있고, 스스로를 충분히 조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알린스키가 규정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반대로 뒤집는,

51) Mohrllok, Marion et al., *Let's Organize*, p.68.

52) Szyu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p.16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⁵³⁾

이것이 바로 알린스키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의 무기력한 시민들을 일깨우는 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그는 생활 조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삶은 끊임없는 갈등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다루고 해결해야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려는 시민의 의지에 따라 확립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린스키에 따르면, 시민의 참여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⁵⁴⁾ 민주주의에 대한 알린스키의 개략적인 이해는 그가 시민 단체를 갈등의 당사자로 규정한 이유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민은 존엄한 삶을 옹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⁵⁵⁾ 알린스키의 이해에 따르면, 시민 조직은 “어떤 자선을 위한 놀이공간이나 사회적인 잡동사니”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그것의 설립과 활동은 커뮤니티의 새로운 권력 요소와 같은 것으로서, “기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자동적인 개입과 위협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상 유지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⁵⁶⁾

알린스키가 생각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⁵⁷⁾ 그는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논쟁을 “민주주의라는 증기 보일러 아래에서 타고 있는 불”⁵⁸⁾로 정의했다. 더 많은 사람과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민주주의의 기능은 더욱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알린스키는 무한적인 갈등과 대결

53) Frey, Marianne, *Saul David Alinsky: Eine amerikanische Theorie der Praxis; Konfliktstrategien im Kampf gegen die Armut*. Studien zur Politikwissenschaft Bd.4. Münster: LITverlag, 1985, p.53.

54) *ibid.*, p.54.

55) Alinsky, Saul D., “Anleitung zum Mächtigsein”, in: *Ausgewählte Schriften*, Göttingen: Lamuv Verlag, 1999, p.128.

56) *ibid.*

57) Szy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p.114.

58) Alinsky, Saul D., “Anleitung zum Mächtigsein”, p.31.

을 능사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대결에는 항상 타협이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록 최대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타협에 도달하면 목표에 더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그는 타협할 줄 아는 능력을 자유롭게 개방적인 사회의 토대로 간주했다. 알린스키는 갈등과 타협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사회에서 공존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대중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게, 집단적으로 형성”하려는 실제적인 민주주의 활동인 것이다.⁵⁹⁾ 이때 참여와 오거나이징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과 함께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자기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에게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자기 이익을 토대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다.⁶⁰⁾ 앞서 지적했듯이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목적은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커뮤니티 정치의 구현이다.

3)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서비스

알린스키는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구분하려고 평생 동안 노력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란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신앙 기반 조직이나 풀뿌리 단체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시스템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알린스키는 그가 ‘선행자’라고 명명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종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이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과 구분되는 지점은 후자에는 독특한 임파

59) Mohrllok, Marion et al., *Let's Organize*, p.9.

60)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pp.37~38.

위먼트와 변화를 위한 방향성이 뚜렷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폰 호프만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가 "설치류를 향한 개의 반응과 거의 같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¹⁾ 그것은 알린스키가 사회복지사들을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의존을 조장하는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알린스키가 자주 입에 올린 우화를 소개하겠다. 알린스키는 '상류'로 가서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작업과 '하류'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사이의 차이점을 이 우화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했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오후, 다섯 명의 친구들이 숲 속 작은 강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통나무 위에 둘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명이 울부짖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강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일행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은 "아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라고 걱정하면서 아기를 돌봤다. 그러던 중 일행 중 또 다른 한 명이 "아이가 또 있어요!"라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친구들도 연이어 떠내려 오는 아이들을 강물에서 건져 올렸다. 물속에서 아기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일행은 정신없이 강을 들락날락하며 아기들을 건져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건져내지 못한 아기들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강둑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아기들로 가득 찼고, 어떤 아기들은 마치 죽은 듯 움직임조차 없었다. 하지만 일행은 아이들을 제대로 살펴 볼 여유조차 없었다. 물속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마침내 일행 중 한 명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서 있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친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누가 이 아기들을 계속 강에 던지는지

61) Fehren, Oliver, "Community Organizing und Soziale Arbeit – eine Annäherung an ein ambivalentes Verhältnis", in: Stiftung Mitarbeit (Hrsg.), *Handbuch Community Organizing : Theorie und Praxis in Deutschland* in Kooperation mit DICO – Deutsches Institut für Community Organizing, Verlag Stiftung Mitarbeit, Bonn 2014, p.60.

알아내야겠어!”라고 외치며 강 위쪽을 향해 달렸다.⁶²⁾

알린스키는 이 우화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성이 바로 ‘오거나이저’처럼 사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끝없이 쏟아지는 익사하는 아기들을 구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았고, 애초에 아기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알린스키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못마땅해 한 것은 그들이 ‘하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뿐, ‘상류’를 바라보면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린스키가 인용한 이 우화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적절한 비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오거나이저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기’가 아니다. 불평등의 당사자들은 적절한 도구와 자원이 제공되고 잠재력이 개발된다면,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거나이징 작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⁶³⁾

전통적으로 정립된 모든 사회 활동은 사회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가들은 억압받는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확인한다. 그러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들은 그와는 반대로 그들에게서 피해자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를 확인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배운다면, 오거나이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데 기여하는 전략을 개발한다.⁶⁴⁾ 미국과 독일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활동한 레오 펜타는 사회복지 국가의 전통에서는 사회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 Für-andere-Tuns라는 형식을 따르고, 도움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무기력함과 의존성을 초래하는 사

62) Schutz, Aaron and Sand, Marie G.,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An Introduction to Community Organizing*, Palgrave Macmillan, New York, NY, 2011, p.19.

63) *ibid.*, pp.21~22.

64) *ibid.*, p.24.

회정책적 문법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펜타는 이러한 문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Mit-anderen-für-sich-etwas-Tuns”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문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때 전문가적 도움 제공자들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았다.⁶⁵⁾

4. 맺음말

1930년대와 1940년대 미국 노동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한 사회적 정의’나 ‘평등’이라는 이상주의적 목표를 추구했다. 시카고대학 사회학과 재학 중 노동운동에 발을 디딘 알린스키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는 실용주의적이고 독특한 사회변혁 방법론을 구상하였다. 그는 특히 가톨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권력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때 알린스키는 신학자 마리탱의 가난한 자들의 조직과 가톨릭의 보조성 원리를 토대로,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원리를 형성하였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알린스키 구상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사회적 ‘갈등’을 ‘변화의 동력’으로 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강력한 정부나 국가의 통제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가 목표로 한 것은 권력의 재분배였고, 실제적인 사회적 평등의 진전을 통한 미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다.

알린스키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것을 민주주의로 이해했다. 권력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자로서 그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력이 강화되는가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과 사회복

65) Penta, Leo, “Von Ohnmacht zur Hoffnung”,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88.

지 서비스를 구분했다. 그는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권력에 대항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으로 정의했다. 관건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였다. 알린스키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신해 주지 말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의 연대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⁶⁶⁾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위기, 환경위기, 양극화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등 각종 사회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가? 그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기존의 정치 사회 세력은 그 힘을 상실하고 있다.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시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더욱 극단화되고 있으며, 종교와 노동조합 등 기존의 사회조직들은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및 탈통합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론에서 지적했듯이,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은 시민을 주체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변혁 논의들과 구분된다.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변혁적 활동가들이 마치 주술처럼 시민의 참여를 불러내는 오늘날,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이러한 시민의 참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는데 작은 기여가 될 것이다.

66) Pyles, Loretta, *Progressive community organizing: transformative prac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NY: Routledge, 2021, p.23.

■ 참고문헌

- 최대희,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제10집, 2024.
- Alinsky, Saul D., "Anleitung zum Mächtigsein", in: Ausgewählte Schriften, Göttingen: Lamuv Verlag, 1999.
- Alinsky, Saul D., Reveille for Radicals. Chicago: University of Chiocago Press, 1946.
- Alinsky, Saul D., Rules for Radicals -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New York: Random House, 1971.
-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s : Eine Geistesgeschichte",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 Dominelli, L., Anti-oppressive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2.
- Fehren, Oliver, "Community Organizing und Soziale Arbeit — eine Annäherung an ein ambivalentes Verhältnis", in: Stiftung Mitarbeit (Hrsg.), Handbuch Community Organizing : Theorie und Praxis in Deutschland in Kooperation mit DICO — Deutsches Institut für Community Organizing, Verlag Stiftung Mitarbeit, Bonn 2014.
- Freyth, Marianne, Saul David Alinsky: Eine amerikanische Theorie der Praxis; Konfliktstrategien im Kampf gegen die Armut. Studien zur Politikwissenschaft Bd.4. Münster: LITverlag, 1985.
-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 Eine „neue“ Möglichkeit zur Vitalisierung Lokaler Demokratie?,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0.
- Mohrlok, Marion et al., Let's Organize - Gemeinwesenarbeit und Community Organization im Vergleich, München; AG SPAK, 1993.
- Norden, Eric, "Empowering people, not elites; interview with Saul Alinsky", Playboy 19 no.3(1972).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 Penta, Leo, "Von Ohnmacht zur Hoffnung",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 Pyles, Loretta, Progressive community organizing: transformative prac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NY: Routledge, 2021.
- Schutz, Aaron and Sand, Marie G.,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An Introduction to Community Organizing, Palgrave Macmillan, New York, NY, 2011.
- Stiftung Mitarbeit (Hrsg.), Handbuch Community Organizing : Theorie und Praxis in Deutschland in Kooperation mit DICO – Deutsches Institut für Community Organizing, Verlag Stiftung Mitarbeit, Bonn 2014.
- Szyn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Ein Weg zu mehr Beteiligung, Berlin: Friedrich-Ebert-Stiftung, 2011.
- Szynka, Peter,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des Community Organizing bei Saul D. Alinsky (1909~1972). Eine Rekonstruktion, Bremen: Akademie für Arbeit und Politik der Universität Bremen, 2005.
- Waschkuhn, Arno: Was ist Subsidiarität? Ein sozialphilosophisches Ordnungsprinzip: Von Thomas von Aquin bis „Civil Society“,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95.

| Abstract |

Alinsky's Approach to the Labor Movement and the Church and his "Community Organizing"

Choi, Daehee

Saul Alinsky is known for conceptualizing and practicing "community organizing" as a theory of social change within American society. His goal was not to destroy the existing social system, but to influence it in ways that c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lives of marginalized people. Rather than aligning with socialist labor activists, Alinsky chose the church as the primary ally for implementing community organizing.

First, this study highlights the non-violent, non-ideological, and practical nature of Alinsky's approach by analyzing his relationship with labor unions and socialism. Alinsky argued that solutions to societal problems should not come from the top down, but from the bottom up,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This emphasis on grassroots involvement is closely aligned with the subsidiarity principle found in Catholic social doctrine.

Second, the study examines how Alinsky sought to empower "those who don't have it" by advocating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contrast to the social-welfare approach, which views disadvantaged groups as passive victims in need of care and aid, Alinsky's community organizing treats these groups as active subjects capable of improving their own conditions. This distinction represents a key difference in Alinsky's approach to social change.

Key Words: Saul D. Alinsky, Community Organizing, Principle of Subsidiarity, Welfare Colonialism, Socialist Labor Movement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결핍과 죽음의 이면적 의미

류명옥*

목 차

-
1. 들어가며	3. 죽음에 내재된 폭력성과 혐오의 시선
2. 설화에 나타난 애정 결핍의 양상	4. 나오며
-

■ 국문초록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특히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별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남녀 사이에 애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서로의 애정이 어긋나서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설화에서도 비극적으로 사랑이 끝나는 상사뱀 유형 설화가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는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경우와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누어진다.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해서 동물인 뱀으로 변하는 인간의 지극한 감정을 보여주는 상사뱀 설화에서는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대상 역시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상사뱀에 걸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남녀 간의 관계에서 소통 불가능 또는 정서적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소통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를 위해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도록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폭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존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특히 상사병 유형 설화에서 상사병으로 변한 존재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존재가 모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원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일회적인 감정으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소통과 정서적 공감이가 가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서로가 주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원한이 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억지로 마음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사병 설화의 소통 불가능한 상황과 감정의 공유가 되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남녀 간의 폭력성과 범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방적인 애정과 감정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됨으로써 죽음이라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상사병 설화와 비슷하다. 여기에는 물론 젠더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감정 공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소통과 감정의 공유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사병 설화에서 말하는 폭력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상사병, 상사병, 일방적 사랑, 소통, 감정 공유, 폭력성, 범죄

1. 들어가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삶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남녀 사이에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추억과 아픔을 떠올리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사랑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서로 소통 가능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서로의 애정과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비극적인 사랑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의 사랑이 좌절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병을 ‘상사병’이라 한다. 상사병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스스로 자책하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애정이 좌절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죽음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애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

여주는 아픔과 고통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설화에서도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애정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설화도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거나 사랑이 좌절되는 설화도 함께 전승되고 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애정이 좌절 또는 비극으로 끝나는 설화가 전승된다는 것을 보면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복하게 끝나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좌절과 아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설화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화로 <상사뱀> 유형 설화가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는 첫눈에 반한 남성 또는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상사뱀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이다. <상사뱀> 유형 설화의 경우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경우,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성별에 따라 상사뱀이 걸리는 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상사뱀> 유형 설화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애정의 관계 중에서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는 상사뱀에 걸린 남성 또는 여성이 뱀이라는 동물로 변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상사뱀> 유형 설화의 초기 연구는 <상사뱀> 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¹⁾ 이러한 연구는 <상사뱀> 유형 설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혀서 <상사뱀> 유형 설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 <상사뱀> 유형 설화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상사뱀> 유형 설화에 등장하는 상사뱀의 의미가 무

1) 김용덕, 「상사뱀 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0.

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으며²⁾,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상사뱀> 유형 설화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 또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남성 인물이 상사뱀에 걸린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남성의 훌륭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설화도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전승되는 <상사뱀> 유형 설화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⁴⁾

이처럼 <상사뱀> 유형 설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젠더와 욕망에 대한 논의이다.⁵⁾ <상사뱀> 유형 설화가 남성 상사뱀과 여성 상사뱀으로 나누어지는 내용적 특징으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상사뱀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과 욕망의 실현과 좌절의 문제를 다루면서 <상사뱀>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폭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설화 내용을 보면 <상사뱀> 설화에서 폭력성과 욕망 실현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사뱀> 유형 설화가 이러한 폭력성과 젠더, 욕망 실현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연구는 한편으로 이분법적인 연구 경향을 보이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사뱀> 유형 설화가 남성 상사뱀과 여성 상사뱀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서 구분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사뱀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에서 물음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이 지나치면 동물로까지 변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흥밋거리의

2) 강성숙, 「성 정치로 본 상사뱀 설화」, 『고전문학연구』 제39호, 한국고전문학회, 2011.

3) 한양하·장시광,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65집,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류경자, 「이순신장군 구비전승 설화의 성격과 민간의식」, 『한국민족문화』 6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4) 송영숙,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6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14.

5) 강성숙,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 『이화여문논집』 제53집, 이화여문학회, 2021,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0, 이지영,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한유진, 「<남성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특성과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6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등이 있다.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사뱀이라는 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욕망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젠더의 문제와 욕망을 문제로 한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사뱀’이라는 이름에서 ‘상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해서 생기는 질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사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질병 이야기들을 보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 몸에 종기와 같은 상처가 나서 치료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설화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이다.

하지만 상사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며,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사병 관련 대부분의 설화들을 보면 상사병은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할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서 상사병의 치료가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는 생기는 병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반이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사병의 원인은 결국 남녀 간의 소통과 공감의 문제에서 발생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남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소통과 공감이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관계 여부가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상사뱀> 유형 설화 역시 상사병에 걸리는 것은 남녀 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흔히 <상사뱀> 유형 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존재 또는 상사뱀으로 변하는 대상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상사병 또는 짝사랑의 감정이 모두 긍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사뱀으로 변할 만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사병에 걸린 대상을 치유하기 위해 일부러 소통과 공감의 감정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폭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와 상사뱀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존재 사이에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⁶⁾

그리고 상사뱀의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상사뱀> 유형 몇몇 설화에서 상사뱀의 원한이 해결되는 해원의 결말의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겉으로 남녀 간의 소통과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해결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사뱀> 유형 설화가 처음부터 소통과 공감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소통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사뱀을 치유하는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설화에 나타난 애정 결핍의 양상

<상사뱀> 유형 설화는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이야기와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설화 자료의 특성으로 <상사뱀> 유형 설화는 주로 변신 주체의 성별에 따라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남성 상사뱀> 유형과 <여성 상사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남성 상사뱀>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 이야기와 여성이 남성 상사뱀을 물리치는 이야기이다. 각각의 기본 서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떤 하층 남성이 아름다운 상층 여성을 사모하게 된다.

- 6) 상사뱀은 타인과 접속,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가 옹호하는 규범으로부터 분리, 배제되었기 때문에 죽었고, 비인간적인 존재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였다.(강성숙,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 『이화어문논집』 제53집, 이화어문학회, 2021, p.83.) 상사뱀이 타인과 접속,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옹호하는 규범으로부터 분리, 배제되는 현상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도 유형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 ②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남성은 상사뱀에 걸려 죽게 된다.
- ③ 사모하는 마음이 큰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여성을 찾아와 몸을 감는다.
- ④ 상사뱀에게 몸이 감겨 버린 여성은 상사풀이를 한다.
- ⑤ 남성 상사뱀의 원한은 결국 풀리지 못하고 여성도 죽게 된다.

위의 내용은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 중에서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자신이 사모하던 여성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 설화에서 뱀으로 변한 남성은 자신이 사모하던 여성을 찾아와 자신의 몸을 여성에게 밀착시켜 여성의 몸을 감는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점점 병들어 간다. 여성은 자신의 병이 자신을 사모하던 남성의 원한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다. 남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주로 굿이나 상사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원한은 풀리지 않고, 결국 여성도 죽게 된다.

다음으로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 중에서 여성이 남성 상사뱀을 물리치는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전승되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

- ①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반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상사뱀이 된다.
- ②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것을 여성이 목격하게 된다.
- ③ 아름다웠던 여성은 일부러 추한 모습으로 위장한다.
- ④ 추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남성 상사뱀은 실망하고 돌아간다.
- ⑤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위의 내용은 <남성 상사뱀> 설화 중에서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을 물리치고 돌려보내는 이야기이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반한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이야기는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특이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사뱀을 비교적 쉽게 물리치는 유일한 설화이다. <상사뱀> 유형 설화의 경우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뱀으로 변하는 인간의 지극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설화이기 때문에 상사뱀을 물리치는 유형 설화는 널리 전승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유형 설화에서 여성은 자신을 사모하던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재치 또는 위장술로 아주 추하고 못생긴 여성의 모습으로 바꾸어 상사뱀을 퇴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남성 상사뱀> 설화의 경우 남성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 이야기와 상사뱀을 물리치는 여성의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남성이 자신이 사모하는 여성에게 애정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상사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의 상사뱀 변화는 일방적인 짝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소통 불가능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통 불가능 또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는 죽음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위장술을 발휘하여 해결하고 있다. 먼저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설화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은 자신이 사모하던 여성을 찾아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뱀이 되어서 여성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여성의 몸을 감아 밀착시키고 칭칭 감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성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모하던 여성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면 남성의 원한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원한은 풀리지 않아 결국 여성까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래서 동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배암을 두드리 패가지고 불에 꺼 실렀는 모양이래요. 꺼실려서 이래 직이났는데 그날 저녁부터 온 동네 불이 나고 우마도 죽어뿌리고 농사도 안되고, 어 아무 무당을, 굿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창녕군 성산면 대산이라 카는 동네로 이전을 했더랍니다.⁷⁾

위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몸에 감겨 있는 상사뱀을 떼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굿을 하는 상사풀이를 통해 상사뱀을 물리치려 하지

7) <파평 윤씨와 상사뱀>,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3.

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처럼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남성의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는 설화들이 많다는 것은 남성이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 유형 설화가 남녀 간에 서로 소통 불가능 또는 공감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소통 불가능한 상황으로 끝나는 이유는 남성의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남성이 원하는 것은 사모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모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의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상사 풀이 또는 굿으로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한다.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이 여성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여성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된다. 뚜렷한 병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주로 굿이나 신적인 존재를 통해 병을 치유하는 의례가 설화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죽은 남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상사 풀이를 통해 맺힌 원한을 달래면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굿이나 상사 풀이와 같은 의례적인 방법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전통 시대에 많이 행해진 의례이다.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상사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예전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설화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유형 설화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유형에서 남성 상사뱀은 굿 또는 상사 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설화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의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인간의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원한이 해결되지 않는 설화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성 상사뱀은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성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 상사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사 풀이나 굿보다 더 확실한 해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 설화에서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결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남성 상사뱀이 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결국 소통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다.⁸⁾

두 번째로 남성 상사뱀이 자신의 몸에 감겨 병을 앓던 여성의 입장에서 이 설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은 주로 남성 상사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여성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또는 알지도 못하는 남성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몇몇 설화에서는 결국 여성도 견디지 못하고 남성 상사뱀과 함께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 설화에서 여성은 남성의 일방적인 애정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여성은 자신이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남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짝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린 남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결국 남성 상사뱀의 애정 결핍을 통한 폭력성을 겪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남성의 애정 결핍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는지와 해소의 방법이 남성이 원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설화를 이해하는 우리는 진정한 해소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사병을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남성 상사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뱀 남성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폭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 상사뱀에 의해 고통 받는 여성에게 찾아볼 수 있는 폭력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 중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설화는 유일하게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부분만 같지만, 남성 상사뱀의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

8) 상사뱀은 흔히 원령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상사를 풀어주지 못했을 때 대상을 죽게 만드는 개인적인 차원의 재앙이 대부분이지만, 가문 또는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상사뱀은 신분 차별에 의한 비인격적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을 찾아와 괴롭히는 것이라 보는 연구가 있다.(김용덕, 「상사뱀 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이러한 연구는 신분 계층으로 발생하는 차이로 원한을 가진 남성 상사뱀에 주목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논의이지만, 남성 상사뱀이 원한을 풀지 못하는 원인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 이 유형 설화에서 남성 상사뱀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 앞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을 사모하는 남성의 마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는 충동적인 남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참 어느 마을에 처녀가 좋았는기라. 조그마한 가는 거시이가(지렁이가) 한 마리 살살 나가더라는기라. 그래 보이 지 딸 방으로 갈라꼬 자꾸 그 오논디 보이, 자꾸 몸이 커지더라는기라. (중략) 자기 딸을 저 벤소에 다 딱 앉차놓고, 바지를 딱 꺼구리 돌려 씌고 앉았으므로 그 상사 막음이 된다. (중략) 벤소로 가더마는 딱 돌리보고는 그 구리가 돌아서더래. “아 이구! 한 숨 실컨 잘 잤다. 이 나라의 정승의 딸이 천하 미인이라하더마는 참말로 더럽고 썩썩더라.”⁹⁾

위의 이야기 역시 아름다운 여성을 본 남성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상사뱀으로 변하는 설화이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해서 여성에게 일부터 접근한다는 것을 여성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앞의 유형과 차이점이다. 여성과 여성의 가족은 상사뱀으로 변하는 남성을 물리치기 위해 더러운 화장실에서 가장 추한 모습을 남성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은 추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버린다.

<남성 상사뱀>의 이 유형에서 남성은 추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남성 상사뱀을 물리친 것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설화 역시 남녀 간의 소통 불가능 또는 공감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끝나고 있다.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사뱀으로 변한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설화의 경우 앞의 설화와 차이를 보인다. 앞의 설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성의 깊은 원한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설화에서는 여성을 사모하는 감정이 충동적이고 일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모했다가 추한 모습으로 변장한 여성의 모습을

9) <상사뱀 이야기(2)>,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보고 도망간다. 여성의 성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접근하려던 남성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소통 불가능한 관계에서 시작되어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소통 불가능의 상황으로 끝난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을 물리쳤다는 긍정적인 결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의 설화와 차이를 보인다.¹⁰⁾

이 유형 설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 외모를 보고 상사뻘으로 변했으나, 추하게 변장한 여성의 지략으로 남성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화 편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상사뻘 설화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유형 설화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이 지략을 발휘해서 남성을 물리쳤다는 긍정적인 결말만을 보면 다른 상사뻘 유형 설화에 비해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하게 생긴 여성을 보고 남성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떠나버리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하게 생긴 여성은 남성들에게 여성성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화할 수 있다. 물론 아름다운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여성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 설화를 지략을 발휘해서 상사뻘을 물리친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름답지 못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위협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략을 발휘해서 남성을 물리친 여성의 모습 속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폭력성이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 설화 역시 다른 <상사뻘> 유형 설화와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상사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 상사뻘>의 유형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성 상사뻘>의 유형에서는 여성이 기혼이나 미혼이냐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기본 서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여성의 '외모를 서열화'함으로써 '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은 성적 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편견과 함께 남성의 성적 욕망이 '여성의 외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통해 성적 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남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한다.(한유진, 「<남성 상사뻘> 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특성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6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p.92.

먼저 여성 상사뱀이 기혼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멀리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병이 든다.
- ② 아내는 병이 깊어 상사뱀이 된다.
- ③ 시부모가 상자에 담아 남편에게 보낸다.
- ④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는 남편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 ⑤ 결국 남편도 함께 죽게 된다.

위의 <여성 상사뱀> 유형 설화를 보면, 결혼한 남편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혼자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린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아내 혼자서 시댁 식구들과 살아가다가 원한이 맺힌 아내는 결국 상사뱀이 된다. 이 유형 설화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원한이 맺혀 상사뱀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유형 설화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서로 소통 불가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의 경우 서로 소통 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쉬울 것 같지만 이 설화에서는 소통 불가능한 관계로 끝난다.

보내데 저걸 안 찾으면 꽤않는데, 해필 그 집에 가가 고걸 찾았는기라.
 찾아 가지고 고거로 끼랴단 말이야. 끼라이계네 뱀이가 탁 나오는기라.
 그래가자고 그 뱀이가 신랑을 딱 만네가지고 가슴에 딱 붙어, 어데서 불
 노 가면 상사 맺힌 뱀이는 가슴에 닥 붙어가¹¹⁾

위의 설화를 보면, 남편에게 보내진 상자를 열어보다가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를 발견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연자는 '저걸 안 찾으면 꽤않는데, 해필 고걸 찾았는기라' 라고 하면서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의 상자를 찾은 남편을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다.

11) <상사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결국 이 유형에서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의 전송 의식을 보면,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 유형 설화의 경우 구연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 구연자는 남편의 안타까운 시점에서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으며, 여성은 원한 품은 아내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구연한다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긋난 모습을 볼 수 있다.¹²⁾ 소통 불가능한 상황으로 끝이 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상사뱀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으로 <여성 상사뱀> 유형 중에서 여성이 미혼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하층의 여성이 상층의 남성을 사모하게 된다.
- ② 남성은 자신을 사모하는 여성을 거부한다.
- ③ 여성은 슬픔에 빠져 상사뱀이 된다.
- ④ 남자의 신위를 감는다(월천), 남자의 제자가 뱀을 없앤다.(정인홍)

<여성 상사뱀> 유형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며, 다른 유형과 달리 여기에서는 상사뱀으로 변한 여성만 죽게 된다. 이 유형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사모하는 감정을 남성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은 자신을 사모하는 여성의 마음을 알면서도 거부한다. 거부당한 여성은 결국 원한이 맺혀 상사뱀이 된다. 이 유형 설화는 남성에게 처절하게 거부당하는 여성의 처절함이 다른 유형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 설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자신을 사모하는 여성이 거부당하여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성은 더욱 가혹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유형 설화의 특징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남성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업적이 뛰어난 이순신 장군이나 학문적으로 잘 알려진 월천, 남명과 정인홍과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학문

12) 이인경,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p210.

적으로 훌륭한 인물은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러한 남성들의 능력에 반해 사모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등장은 남성이 여성을 거부하는 명분을 마련해 준다. 예의 규범을 지켜야 하거나, 선비 또는 학자로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거부한다.

이 유형 설화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서로 소통 불가능한 상황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소통 불가능한 상황은 여성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여기서 보여주는 소통 불가능한 모습은 예의 규범이나 규율, 의로움 등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성의 애정이 충족되지 못한다. 앞에서 살펴본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애정의 결핍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을 사모하는 여성 또는 여성을 사모하는 남성과 남성을 사모하지 않는 여성 또는 여성을 사모하지 않는 남성의 어긋난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애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소통 불가능한 원인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이 유형 설화에서 애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제시하는 명분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성의 죽음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¹³⁾

지금까지 <상사뱀> 유형 설화를 <남성 상사뱀> 유형 설화와 <여성 상사뱀> 유형 설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애정의 결핍 때문이다. 물론 상사뱀이라는 병이 자신이 사모하는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 결핍의 원인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정 결핍이라는 큰 범주에서 <상사뱀> 유형 설화를 살펴본다면 이 설화는 사랑받지 못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애정 결핍의 양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소통 불가능한 상황 다양한 상황을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상사뱀으로 변

13)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구애에 대한 반응 태도가 감성적 측면보다는 윤리적이고 계층적인 측면에 보다 깊이 연루되고 있는 이 같은 사실은, 이야기 문화를 산출한 사회적 배경과 관습적 가치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p.117.)

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통 불가능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상사뱀으로 변하는 여성 또는 남성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뱀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 또는 남성에도 주목하여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사뱀> 유형 설화를 통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죽음에 내재된 폭력성과 혐오의 시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나타나는 남성 또는 여성들은 자신의 애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애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애정의 결핍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삶,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이 원한을 풀지 못해서 여성과 함께 죽는 유형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남편과 함께 죽는 유형, 뛰어난 역사적 인물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유형을 보면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사뱀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편의 설화에서는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과 여성이 사모했던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사뱀> 유형 설화를 보면, 상사뱀의 치유 방법은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사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사뱀> 설화가 전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사뱀> 설화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소통 불가능으로 인한 잘못된 애정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와 스토키 등의 다양한 현대 범죄들은 <상사뱀> 설화가 말하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역시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죽음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의 경우 <남성 상사뱀> 중에서 상사뱀을 퇴치하는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상사뱀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상사뱀으로 변한 존재 때문에 고통받고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가 또는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상사뱀> 유형 설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상사뱀>의 경우 남성이 마음에 들어 사모하는 여성이 있지만, 당사자인 여성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을 사모하다가 상사뱀이 된 남성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긍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모두 긍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소통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실현은 절제와 제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이 상사뱀이 되어 원한을 풀지 못해 여성과 함께 죽는 유형 설화는 절제되지 못하는 남성의 잘못된 애정관으로 인해 여성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기혼 여성의 경우, 일본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성은 원한을 품게 되고 결국 여성은 남편을 만나 남편과 함께 죽게 된다. 이 유형에서 남성과 여성 구연자에 따라 시점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원한을 품게 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이 유형의 설화 내용을 보면 상사뱀으로 변한 자신을 시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

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시어머니는 밥술에 들어온 뱀을 보고 없애려고 몇 번이나 태웠지만 여전히 뱀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며느리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유형 설화는 일본으로 건너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있지만 그보다 시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며느리의 시댁에 대한 원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일본으로 떠난 남편의 무심함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시댁에 대한 원망은 며느리가 상사뱀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앞서 이 유형 설화를 구연하는 남성 구연자들이 상사뱀으로 변한 아내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주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심함이 당연하다는 암묵의 공정을 남성 화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관습에 익숙해 있는 남성의 무심함과 남편을 기다리며 인정받기를 위해서 아내의 소통 불가능한 상황은 죽음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여성 상사뱀> 유형에서 미혼형에 해당하는 설화의 경우, 역사적 또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남성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남성의 등장으로 이 유형 설화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명분과 윤리 규범으로 자신의 감정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여성은 죽음의 삶을 보여주는 세 유형 중에서 여성이 가장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거절하는 남성을 보면서 어떠한 변명과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유형 설화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를 가지는가는 신분, 나이를 떠나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설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여성을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여성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이순신 장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성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상사뱀이 된다. 이순신 장군 외에 남명, 정인홍 등 잘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여 여성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이순신 장군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성과의 약속을 저버린 상황에 대한 변명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 권력의 기준에서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국가의 업적을 쌓는 사람에게 국가의 일이 먼저라는 충이라는 가치관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유형 설화의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서 자신과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남성이 실천해야 하는 규범과 원리 원칙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은 여성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에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유형의 소통 불가능한 모습은 처음부터 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다.¹⁴⁾

여성 상사뱀의 이 유형 설화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남성의 젠더 우위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남성 인물을 등장시켜 여성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뛰어난 역사적 인물은 남성의 경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뱀에 걸린 여성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 또는 학문적 인물이 자신의 신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인물의 특성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남녀 관계의 갈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이러한 규범과 이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격의 차이, 환경의 차이 등은 남녀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된다. 따라

14) 여성형 상사뱀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 전하지 못하는 사연은 개인의 성격과 계층적 위치를 넘어서 여성 전반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강성숙, 「성 정치로 본 상사뱀 설화」, 『고전문학연구』 제39호, 한국고전문학회, 2011, p.174.

서 설화를 이해하는 외연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상사뱀> 유형 설화는 여성 상사뱀과 남성 상사뱀으로 분류한다. 상사라는 소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되어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상사뱀의 경우 여성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성에게 반해 상사뱀에 걸리는 남성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여성이 상사뱀에 걸리는 이유는 물론 남성의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설화에서는 겉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높은 학식과 뛰어난 영웅적 능력, 인품을 설화 구연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설화 결말과도 연결된다. 자신을 만나지 못해 원한이 맺힌 여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덕성이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의 외모는 다른 유형 설화에 비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여 남성을 사모하는 경우 남명 조식, 월천 조목, 내암 정인홍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학식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적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애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유형 설화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성이 남성에게 애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외모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외에도 남성이 가진 지식과 뛰어난 인품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그리고 이러한 남성의 지적 우위성은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순신 장군 또는 남명 조식 등과 같이 역사적,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여성과의 사사로운 애정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념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설화를 구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다.

15) 한양하,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20.

결국 여성 상사뱀 유형의 경우, 남성을 사모하여 상사병에 걸린 여성의 죽음이라는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상사뱀 유형과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적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또 다른 폭력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 우위성에서 여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은 여성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이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나타나는 남성 또는 여성들은 자신의 애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애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애정의 결핍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삶,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이 원한을 풀지 못해서 여성과 함께 죽는 유형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남편과 함께 죽는 유형, 뛰어난 역사적 인물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유형을 보면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사뱀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편의 설화에서는 상사뱀으로 변한 남성과 여성이 사모했던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사뱀> 유형 설화를 보면, 상사병의 치유 방법은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사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사뱀> 설화가 전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사뱀> 설화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소통 불가능으로 인한 잘못된 애정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문지마 범죄와 같은 성범죄와 스토키 등의 다양한 현대 범죄들은 <상사뱀> 설화가 말하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

숫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역시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때서야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죽음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애정의 결핍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현대 우리 사회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이제 찾아야 할 것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상사 풀이, 굿과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정의 결핍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남녀 관계와 갈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사뱀> 유형 설화를 남녀 간의 결핍을 통한 소통 가능성과 감정의 공유, 그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사뱀이라는 병의 원인이 소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소통 불가능함을 소통 가능함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 상사뱀> 유형에서 남성 상사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던 여성의 모습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 확대되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통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음을 말해준다.

<상사뱀> 유형 설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젠더의 문제, 욕망 실현의 양상, 폭력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소통의 관점에서 설화를 이해한다면 소통을 위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력해 나가야 하는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폭력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한다는 것을 설화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4. 나오며

<상사뱀> 유형 설화는 남성 또는 여성 상사뱀이 원한을 품어 동물로 변하는 이야기이다. 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 불가능한 상황에

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통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의 질병 또는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통 불가능의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관습적 인식, 권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사뱀> 유형 설화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소통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소통 불가능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79~1990.
- 강성숙, 「성 정치로 본 상사뱀 설화」, 『고전문학연구』 39호, 한국고전문학회, 2011, 161~194면.
- 강성숙,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 『이화어문논집』 제53집, 이화어문학회, 2021, 79~118면.
-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5~148면.
- 김용덕, 「상사뱀 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351~381면.
- 송영숙,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4, 289~313면.
- 이지영,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93~222면.
- 한양하,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20.
- 한유진, 「<남성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특성과 그 의미」, 『문학치료 연구』 제6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75~107면.

| Abstract |

He Hidden Meaning of Deficiency and Death in the Sangsa Snake Tales

Ryu, Myeongok

We live by meeting people and breaking up in various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the experience of love and separation can be said to be a special experience. If you can sympathize with the affection between men and women, it ends in a happy ending, but sometimes it ends in a tragic love because each other's affection is different. In the story, there is also the Sangsa Snake type tales that tragically ends love.

The tales of the type of the Sangsa Snake is divided into cases where men turn into the Sangsa Snake and cases where women turn into the Sangsa Snake. In the tales of a the Sangsa Snake, which shows the extreme emotions of a human being who misses someone deeply and turns into an animal snake, the existence that has turned into the Sangsa Snake is important. However, the object that the person who has turned into the Sangsa Snake misses cannot be accepted unconditionally just because he likes himself. Having a lovesickness starts from the beginning when there is no communication or emotional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such a situation where communication is impossible, forcing one to convey one's feelings for a being who has turned into the Sangsa Snake is another violenc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both the existence that turned into the Sangsa Snake and the existence that I missed sadly end up dead in the tales of the Sangsa Snake type shows that I don't want to solve my grudg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empathy between men and women should be possible, not just one-time emotions, which should be recognized by each other on their own. However, human emotions are not solved by forcing your mind to do so.

Therefore, we can think of violence and crime between men and women today through the impossible situation of the Sangsa Snake tales and various aspects of not being able to share emotions. It is similar to the story of the Sangsa Snake that

unilateral affection and emotions are solved in the wrong way and end in death. There may be gender issues here, of course, but more importantly, the issue of communication and emotional sharing is more important. Being able to control and reflect on one's emotions while reflecting on the issues of communication and sharing emotions can be a way to solve the violence described in the Sangsa Snake tales.

Key Words: lovesickness, the Sangsa Snake, a one-sided love, Communication, Emotional sharing, violence, crime

玄谷 趙緯韓 漢詩 研究 - 挽詩를 중심으로*

한의승**

목 차

1. 머리말	3. 趙緯韓 挽詩에 나타난 관계성의 양상
2. 『玄谷集』 수록 挽詩의 현황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현곡 조위한의 『玄谷集』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일단을 살펴본 것에 해당된다. 현곡은 한시 창작에 있어 당대에 인정을 받았으며 권필, 이안눌 등과 깊은 교유를 맺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현곡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현곡의 한시에 주목하였다. 현곡의 한시는 450제 정도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만시와 차운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본고는 애도의 정서가 함축된 만시와 회역시 등을 중심으로 현곡의 한시에 노정된 감성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곡의 한시는 현곡의 생애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곡은 83세의 수를 누릴 만큼 장수했으나 실제 삶의 행로는 다사다난했다. 삶의 여정은 임진왜란,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 국내외 각종 사건을 관통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 형제, 처자식과 이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견인된 복잡다단한 감정은 시문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처자식의 죽음과 관련하여 회한의 정서가 노정되고 있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감성의 양상이 특기되고 있다.

한편 현곡은 관직과 학연 등 공적,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대한 정서를 한시를 통해 다수 표출하고 있다. 임병양란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만시를 통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인물 형상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학적으로 교유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인물의 특징적 국면을 중심으로 서로의 친교가 구축될 수 있는 기제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로 구현하였다.

현곡의 한시는 삶의 굴곡을 통해 배태된 정서가 노정된 양상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그렇다보니 정서적 표출에 있어 슬픔, 회한, 고독 등으로 연상되는 우울한 내면이 토로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현곡 한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다룬 한시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된다.

본고는 현곡 한시에 대한 성향을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현곡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최적전>을 통해 작가 조위한으로 연결되는 편향된 연구에서 벗어나 문집을 중심으로 한문학사에서 그 위상을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곡집』의 번역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고는 한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추후 이를 바탕으로 산문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위한, 『玄谷集』, 한시, 만시, 관계성, 감정 표현, 슬픔, 애도

1. 머리말

조선 중기의 문학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穆陵盛世 문단을 중심으로 한문4대가에 해당되는 月象溪澤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동아시아 전쟁으로 인해 피폐한 조선의 참상과 그로 인해 야기된 다기한 인간군상이 노정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관통하던 조선 중기 사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삶의 질곡을 온몸으로 부딪쳐야 했던 고난의 증인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삶의 시련은 玄谷 趙緯韓(1567~1649) 또한 예외가 아니었는데, 현곡은 전쟁의 참상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의 이산을 <崔陟傳>이라는

한문소설을 통해 곡진하게 드러내었고, 이 작품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명편으로 주목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척전>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 하지만 이는 현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玄谷集』이라는 문집보다 <최척전>이라는 비주류 양식인 한문소설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곡은 단지 17세기를 대표하는 한문소설 작가로서만 인정되는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현곡은 당대에 저명한 인사인 許筠(1569~1618), 權輶(1569~1612), 李安訥(1571~1637)과 막역하게 교유한 사이였다. 조위한의 문명에 대해서는 일찍이 허균이 『惺所覆瓿藁』에서 ‘前五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한 것에서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²⁾ 이는 현곡의 문명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당대의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곡에 대한 연구는 방향을 달리하여 한문학 작가로서 현곡 문학의 특징과 위상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게 요청된다.

물론 조위한이라는 작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작가론의 측면에서 연보, 행장, 묘지 등과 같은 묘도문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 연구를 통해 생애와 문학의 전반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바 있다.³⁾ 하지만 조위한의 문집인 『현곡집』을 중심으로 문학적 성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으며, 최근에 조위한·조찬한 형제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조위한의 한시와 산문, 그리고 조찬한의 <의우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바 있다.⁴⁾

- 1) <최척전>에 대한 연구는 박희병, 「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 <최척전> 연구 -」,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을 필두로 정명기, 민영대에 의해 연구사가 정리된 바 있다. 작품론으로 주목되는 성과는 양승민, 「<崔陟傳>의 창작 동인과 소통 과정」,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엄태식, 「<崔陟傳>의 창작 배경과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이대형, 「<최척전>의 이본(異本)」, 『삼국기봉(三國奇逢)』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신상필 「<최척전>의 형성과정과 17세기 서사 환경에의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83,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참조.
- 2) 안순태, 「玄谷 趙緯韓의 삶과 문학」, 『韓國漢詩作家研究』 8, 한국한시학회, 2003, 각주 1번 참고.
- 3) 민영대, 『趙緯韓과 崔陟傳』, 아세아문화사, 1993 참조.
- 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학술대회, 『조위한·조찬한 형제의 삶과 문

본고는 선행 연구를 의식하되,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조위한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펼치는 목적에서 현곡의 한시를 주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⁵⁾ 이는 기본적으로 조위한의 문집인 『현곡집』이 현전하며, 이에 대한 번역 또한 이뤄졌기 때문이다.⁶⁾ 즉 현곡을 중심으로 한 작품론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곡의 한시에 접근하고자 한다. 현곡의 한시는 『현곡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挽詩’ 계열 작품과 ‘次韻詩’ 계열 작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확인된다. 이는 현곡의 한시가 혈연 및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수창된 경향이 다분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곡의 한시 가운데 먼저 위의 두 계열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먼저 ‘만시’ 계열 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만시’ 계열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곡의 삶을 살펴보면 개인사에 있어서 여러 질곡이 노정되는데, 특히 가족을 비롯하여 친우들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한시를 통해 표출되는 게 주요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2. 『玄谷集』 수록 挽詩의 현황

현곡의 문집인 『현곡집』을 살펴보면 漢詩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산문과 비교했을 때 바로 포착되는 양상으로 현곡의 한시는 450제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적지 않고 종류 또한 五七言 絕句, 律詩, 排律, 雜體 등에 이르기까

학 세계』, 2024년 12월

- 5)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3편 가운데 조위한의 한시에 대한 것은 양양부사 재임시절시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이기에 본고와는 방향을 달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용건, 「현곡 조위한의 강원 지역 문학 활동의 양상과 그 의미; 양양부사 재임기를 중심으로」, 『조위한·조찬한 형제의 삶과 문학 세계』, 2024년 12월 참조.
- 6) 조위한의 문집인 『현곡집』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이 공역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후 본고의 원전 및 번역은 조위한 지음, 이덕현 옮김, 『현곡집』1, 경인문화사, 2020을 기본으로 필자가 가감하였음을 밝혀둔다.

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⁷⁾ 이렇듯 다양한 시체에 걸쳐 창작된 현곡의 한시는 삶을 노정하는 양식으로 주목된다. 그 이유는 현곡은 83세의 수를 누릴 만큼 장수하였으나, 수를 누린 것에 비해 이력은 다사다난한 질곡으로 점철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의 편폭이 시를 통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시 가운데 주목되는 양식으로 만시가 눈에 띈다. 만시는 죽은 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부모, 형제, 친구, 제자 등이 죽은 이를 애도하여 지은 글을 말하는데, 세부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悼亡詩’,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애도한 ‘哭子詩’, 동기간의 죽음을 애도한 ‘哭兄弟詩’, 친구의 죽음을 애도한 ‘悼朋詩’ 등이 있다. 이들 계열은 작품 제목에 挽, 哭, 悼, 哀 등과 같은 글자를 애도 대상과 함께 명시하여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⁸⁾ 이와 함께 현곡의 한시는 인물과의 관계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回憶詩 또한 다수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보면 현곡의 한시는 ‘정감’의 표출을 주된 정서로 담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현곡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감정의 유로를 짚진하게 묘사한 ‘만시’ 계열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곡집』에 수록된 만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玄谷集』 소재 挽詩 현황

권	작품명
2	<哭芝川黃相公>, <哭任寬甫>, <挽李之茂>, <挽權汝明>, <挽李贊成>, <哭東岳李子敏>, <挽石洲內子>, <挽韓三嘉>
3	<悼亡>, <哀亡女>, <哀宅俊>, <哀趙重峯>, <哀高霽峯>, <哀宋東萊>, <哀金倡義>, <哀金義州>, <哀金將軍>, <哀劉僉樞>, <哀黃兵使>, <哀申巡邊>, <哀靈圭>, <哭習靜林子中>, <挽奇同福>, <挽鄭監司夢與>, <挽金永興>, <挽松湖白善鳴>, <挽竹西沈士敬>, <挽晉昌君姜仁卿>, <挽元同知夫人>, <挽遲川崔相國夫人>, <挽李都事>

7) 현곡의 한시 시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곡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잡체’를 중심으로 제출된 바 있다. 이희경, 「趙緯韓의 雜體詩 研究」,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8) 황위주, 『한시란 무엇인가』, 지성인, 2018, 86~87면.

권	작품명
4	<挽吳監司肅羽>, <挽李判書尙古>
5	<悼亡>, <挽金參判>, <哀金倡義>, <哀金義州>, <哀金將軍>,
6	<哭白沙李相國>, <挽房同知>, <挽李大中>, <哭黃存畏>, <挽金英振>, <哭石溪崔處士汝允>, <挽巡相柳子有>, <挽許伯懼>
7	<挽龍溪李處士子善>, <挽洪監司樂夫>, <挽玄軒申相國>, <挽趙知事守初>
8	<挽具都事>, <挽芝峯>, <穆陵遷葬挽詞>, <挽李同知尙中>, <挽藥峯徐判書>, <挽宋監司聖求>, <挽申留守明遠>, <挽李尙古大夫人>, <挽李同知>, <挽五峯李相公>, <挽吳校理敬甫>, <挽錦溪君朴子龍>, <挽月沙李相國>, <挽梨川李相國>, <挽鄭左尹浩而>, <挽朴參贊子粹>, <挽東岳少婦>, <挽睦參判禹卿>, <挽閔慶州子善>, <挽綾城府院君具公>, <挽李承旨磐甫>, <挽韓平君李仲集>, <挽趙青松>, <挽成君則>, <仁穆王后挽詞>, <挽李監司立之>, <挽谿谷張相國>
9	<挽李尙古從兄>, <挽李文伯妻母>, <挽崔誠元>, <挽曹僉知>, <挽光山令>, <挽黃生員>

〈표 2〉 『玄谷集』 소재 回憶詩 현황

권	작품명
3	<憶任寬甫>, <憶權汝章>, <憶梁子漸>, <憶林子定>
5	<憶權汝章>, <憶女兒>, <憶伯兄>, <憶仲兄>, <憶舍弟>, <憶權汝章>, <憶李子敏>, <憶車復元>
6	<憶亡友權汝章>

현곡 한시는 450제 정도 되는데,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만시에 해당되는 작품은 96제 정도로 약 20%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차운시의 경우도 110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어 이 또한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즉 만시와 차운시를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곡 한시의 성향을 일정부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곡 한시의 경향에 대해서는 『현곡집』 서문에서 여러 문인의 평을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 ㉠ 나중에 선생이 압도에 가서 풀베기를 감독하던 날에 시를 지어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그 시의 풍아한 운치를 사랑하였다.”⁹⁾

- ㉔ 시는 개원과 천보 연간의 대가가 아니면 눈에 두지 않았다. (중략)
사부는 위로 사마상여를 본받고 아래로 중선을 따랐다.¹⁰⁾

㉔는 이정석이 쓴 <玄谷集序>로 현곡의 시에 평하고 있으며, ㉔는 용주 조경이 평한 것에 해당된다. 이정석은 현곡 시의 풍격을 ‘풍아[風雅]’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곡은 시에 특장을 인정받아 당대 일류 문사들과 교류하였고 특히 석주 권필, 동악 이안눌, 오산 차천로 등과는 시사를 결성하여 뜻을 함께하였다.

월정·동고·계원 등 여러 노선생께서 나이를 접어두고 어린 벗으로 인정해 주었고, 석주·동악·오산 차씨는 시에 능하다는 명성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웅과 시사를 결성하여 절차탁마하고 벗어들었으니 한가로이 즐기는 것과 희롱하여 웃고 성내어 꾸짖는 것이 모두 웅의 기를 기르고 웅의 명성을 드날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¹¹⁾

이처럼 현곡은 당대에 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현곡집』에 수록된 작품이 산문보다 한시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현곡의 문학사적 위상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문장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나, 정작 현존하는 『현곡집』을 통해서는 문장가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문집이 자편고를 중심으로 수습하여 편찬한 것이기에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교열과 삭간이 발생하면서 야기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 그러나 문집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간취되지는 않는 것 같다. 때문에 현곡의 문장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현전 편찬 문집의 실제 양상 사이의 거리에

9) 李景奭, <玄谷集序>,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73, “及屬就鴨島觀, 銓艾日治詩於吾, 愛其風雅韻致.”

10) 趙綱, <玄谷集序>,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73, “詩非開天大家數, 不眼之也. (中略) 詞賦, 上規相如, 下襲仲宣.”

11) 趙綱, <玄谷集序>,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73, “汀臯溪院諸老先生, 折輩行許以少友, 石洲·東嶽·五山車氏以能詩聲, 最鳴於世, 而與翁結爲詩社, 磨礪浸灌, 婆娑娛嬉, 戲笑怒罵, 無非養翁之氣而揚翁名也.”

12) 이에 대해서는 조위한 지음, 이덕현 옮김, 『현곡집』 1, 경인문화사, 2020, 33~37면 참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이 남는다.¹³⁾

그렇다면 현전 편찬 문집인 『현곡집』으로 돌아가서 작품의 실제 양상을 통해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시와 산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됨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시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현곡 시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趙緯韓 挽詩에 나타난 관계성의 양상

『현곡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만시는 혈연을 비롯한 가족을 대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작가와 생전에 교유한 인물을 대상으로 지은 것도 있다. 이때 교유 인물에게 쓴 것들은 사적 관계의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이 작동되기도 한다. 즉 만시는 혈연, 학맥 등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창작되는 특수성을 띠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성에 의해 비롯된 의례성의 측면 또한 담지한다는 점에서 다층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시는 가족과 교유 인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家族 : 재난이라는 돌봄 부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취약성 노출

앞서 『현곡집』에 수록된 한시의 양상에 대해 살펴봤을 때, 만시와 차운시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시는 주로 애도의 정서가 핵심인 관계로 죽은 대상에 대해 집중하여 읊게 된다. 현곡의 만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대상으로

13) 이러한 측면에서 현전하는 조위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남대 도서관에 소장된 『趙玄谷詩帖』이라는 필자본 자료를 발굴하였다. 『조현곡시첩』에는 『현곡집』에 수록된 것과 같은 제명이나 자구를 달리하는 작품도 있고,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도 확인된다. 아울러 『조현곡시첩』의 유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해당 자료가 전남대 문리과대학 초대 학장인 춘전 이혁 교수가 기증한 것인데, 춘전의 증조부가 노사기정진의 제자인 석전 이최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곡 관련 자료는 조금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발굴한 『조현곡시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은 만시가 있고, 관직이나 학연 등 교유 관계로 엮힌 학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만시가 있다. 이 가운데 가족을 중심으로 지은 만시는 권3에 수록된 <悼亡>, <哀亡女>, <哀宅俊> 3편과 권5에 수록된 <悼亡>이 있다.

이들 작품은 아내와 자식을 대상으로 지은 것들로 주된 내용은 ‘죽음’으로 인해 생사를 달리하면서 기억과 추억을 바탕으로 한 애도의 정서가 핵심이다. 이는 현곡의 생애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부모와 처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감정이 시로 절절히 노정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아임의 죽음을 생각하니.	可念阿任死,
그리움에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네.	思來淚迸河.
세월이 흘러 환갑이 지나도록,	使年推六甲,
양갈래 머리 땅는 걸 배우지 못했네.	學母畫雙鴉.
길가에 아이 묻은 반악이 슬프고,	坎路哀潘岳,
충봉역에서 여나를 통곡했네.	層峯哭女挈.
지금까지 아버지됨이 부끄러우니,	至今爲父愧,
백골이 산기슭에 드러나 있네.	白骨露山坡. ¹⁴⁾

위의 시는 첫째 부인인 남양 홍씨 사이에서 낳은 딸을 애도하여 지은 것이다. 현곡의 삶에 질곡은 가족을 잃은 뒤 이를 애도하는 시에서 잘 보이는데, 위의 시는 “나는 기축년에 처음으로 딸아이를 낳았는데 임진왜란을 만나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살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 길가에 묻었다.”¹⁵⁾라는 기록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참화 속에서 딸아이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길가에 묻어야만 했던 급박한 상황을 기억하며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딸아이를 묻은 상황을 「서정부」에서 반악이 2개월 된 딸이 요절하자 길가에 무덤을 썼던 이야기와 충봉역에서 딸이 병사한 한유의 일을 끌어와 현곡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읊음으로써 처절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14) 趙緯韓, <哀亡女>, 『玄谷集』 권 3, 『韓國文集叢刊』 73

15) 趙緯韓, <祭亡子倚文>, 『玄谷集』 권 13, 『韓國文集叢刊』 73, “余於己丑之歲, 始生女子, 而遭壬辰之亂, 奔竄山中, 凍餒而死, 瘞於路側.”

전쟁이라는 극도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길가에 묻어야 했던 현곡의 심정이 반악과 한유의 고사를 통해 절절하게 배가되어 노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 딸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첫째 부인인 남양 홍씨마저 잃게 된다는 점이다.

풀 베고 묘소 마련한 다음,	斬草開玄宅,
배 띄우고 아내 그리워하네.	浮舟憶細君.
계수 말라 서글퍼 열매 못 맺고,	桂枯哀不實,
꽃은 떨어져 결국 말이 없네.	花落竟無言.
삼생의 계획은 영 끊어져,	契闊三生計,
넉 자의 봉분만 황량하네.	荒涼四尺墳.
가을 밤만 길어 마음에 걸리니,	關心秋夜永,
꿈 속에 들어오는 외로운 혼만 있네.	入夢有孤魂. ¹⁶⁾

위의 시는 현곡의 첫째 부인인 남양 홍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것이다. 현곡은 앞서 임진왜란의 혼란한 시기에 딸아이를 잃었는데, 그 슬픔이 지워질 새도 없이 정유재란 때 현곡은 아내마저 잃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곡의 슬픔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으며, ‘不實’, ‘無言’, ‘荒涼’, ‘孤魂’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게 확인된다. 특히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고통을 함께 겪었던 사이이기에 회한의 정서는 남다른 수밖에 없었는지, 현곡은 다 음과 같이 아내를 회상하는 시를 남기기도 한다.

인간 세상 꽃이 잔물결 동쪽에 떨어지니,	人間花落尺波東,
해로하자던 맹세 세상 마치며 식어졌네.	偕老盟寒世事終.
<u>가치의 새 노래 조택이 애통해하고,</u>	異鵲新歌哀趙澤,
<u>애끓는 곡조에 공동이 슬퍼하네.</u>	結腸遺操怨空同.
줄 끊기 거문고 가을 먼지가 쌓이고,	玉琴絃絕秋塵積,
향 꺼진 금압에 밤 휘장이 공허하네.	金鴨香銷夜帳空.
십삼년 세월이 마치 꿈결만 같으니,	一十三年如夢覺,
누구와 함께 난리 중에 고생겪었나.	共誰辛苦亂離中. ¹⁷⁾

16) 趙緯韓, <悼亡>, 『玄谷集』 권3, 『韓國文集叢刊』 73.

위의 시는 남양 홍씨와 13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로하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현곡의 감정은 밑줄 친 3, 4구와 같이 명나라 문인 이몽양의 지인인 조택이 그의 아내가 죽자 <異鵲歌>와 <悼亡詩>를 지어 아내를 위로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남양 홍씨에 대한 감정을 빗대어 서술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현곡은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애도시를 통해 절절히 그려냄으로써 가족을 상실한 아픔을 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곡 시에 노정된 정서는 상대적으로 현곡이 가족들과 유리되어 이산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을 추억하거나 회상하는 시에서 편린이 노출된다. 예를 들어 권 5에 수록된 <憶女兒>, <憶伯兄>, <憶仲兄>, <憶舍弟> 등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데, 현곡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시로 읊으면서 감정의 유로를 서술한다.

아비 잃은 뒤 만형을 우러르고,	失怙年來仰伯兄,
서로 기대어 목숨 삼아 여생 보내네.	相依爲命送餘生.
종전에 모이면 항상 이불 함께 했는데,	從前會舍衾常共,
늙어서 헤어지니 눈물이 절로 흐르네.	垂老分離涕自橫.
가식을 오래 마련해 삼년을 고생하더니,	家食久拚三載苦,
뜻밖에 조복 얻어 한 관직 영화롭네.	朝衣倘得一官榮.
장차 밤마다 등잔 불뚝으로 점치니,	唯將夜夜燈花卜,
형의 오마 행차를 몰래 축원하네.	暗祝哥哥五馬行. ¹⁸⁾

위의 시는 조위한의 만형인 조계한(趙繼韓, 1553~1622)을 생각하며 쓴 시로, 부모를 잃은 뒤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인 만형을 따르면서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며 쓴 것이다. 현곡은 만형이 관직에 오르지 못해 오랜 기간 가식(家食)으로 고생했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다가 만형이 관직에 나가게 되자 이를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로 읊고 있다. 이 시를 필두로 현곡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시로 읊어낸다.

17) 趙緯韓, <悼亡>, 『玄谷集』 권 5, 『韓國文集叢刊』 73.

18) 趙緯韓, <憶伯兄>, 『玄谷集』 권 5, 『韓國文集叢刊』 73.

남쪽 고을 한 읍은 반석처럼 작으니,	南州一邑小如盤,
우리 형에게 이 관직 자리 부합되지 않네.	不合吾兄莅此官.
그릇은 용납이 어렵게 커 자벌레처럼 굽혔고,	器大難容從蠅屈,
때가 어긋나고 명이 없어 봉새처럼 날지 못했네.	時乖無命先鵬搏.
다만 과음으로 인하여 병이 많은지라,	只緣過飲嬰多病,
매번 몸 상할까 염려해 만단을 경계했네.	每念傷生戒萬端.
천리 밖에서 그리워도 오히려 한이 있거늘,	千里相思猶有恨,
하물며 지금 행역을 나가 장안에 있음에랴.	況今行役在長安. ¹⁹⁾

위의 시는 현곡의 둘째 형인 조유한(趙維韓, 1558~1616)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현곡과 조유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祭亡子倚文>에서 “이미 부모를 여의고 처자식도 없어 인간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 장차 세속을 벗어나 유람할 뜻을 지녔다. 마침 명나라의 수병이 강가에 와서 정박하자 절강성 사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 그들과 함께 동오로 들어가 소주와 항주 사이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기로 약속했는데, 둘째 형이 울면서 만류하는 바람에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²⁰⁾라고 하거나, “계축년 여름에 나는 예기치 못한 재앙에 걸렸다. 마침 고양으로 나갔다가 한밤중에 체포되어 오는데 행주에 이르러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려고 했다. 둘째 형이 뒤에서 저지하며 말하길 ‘네가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니, 어찌 태평한 시대에 죄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겠느냐?’하며 거듭 나를 꾸짖었다.”²¹⁾라는 서술들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조유한은 만형과는 달리 관직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시기와 운명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능력을 발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현곡은 토로하고 있다. 특히 조유한

19) 趙緯韓, <憶仲兄>, 『玄谷集』 권 5, 『韓國文集叢刊』 73

20) 趙緯韓, <祭亡子倚文>, 『玄谷集』 권 13, 『韓國文集叢刊』 73, “既無父母, 又無妻子, 不樂於人世, 將有出塵遠遊之志. 適遇天朝水兵之來泊于江上, 得與浙人相善, 約與之偕入東吳, 浪迹於蘇·杭之間, 而爲仲氏泣挽, 不得遂願.”

21) 趙緯韓, <祭亡子倚文>, 『玄谷集』 권 13, 『韓國文集叢刊』 73, “至癸丑之夏, 余罹不測之禍. 適出高陽, 夜半被拿而來, 行到幸州, 欲投河自決, 而仲氏自後止之曰, ‘汝若乃爾, 人必疑之, 豈有聖世無辜而枉死者乎.’ 申申其罰余.”

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위의 시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둘째 형에 대한 현곡의 심정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젊은 날 함께 문단에 오르면,	少日同登翰墨壇,
연벽이 함께 다닌다고 사람이 칭했네.	人稱聯壁共追攀.
나는 기운의 성대한 명예 더하기 어려우나,	機雲盛譽吾難忝,
너는 거창의 꽃다운 명성 짝되기에 족하네.	瓊瑤芳名爾可班.
매번 껌껌의 도움 기대어 위세 빌렸고,	借勢每憑鸛鵒助,
형제 사이에 스스로 지음으로 허여하였네.	知音自許弟兄間.
나이 들어 이별해 지난 해 돌아보니,	衰年作別還經歲,
아득한 변방은 온갖 산으로 막혀있네.	關塞茫茫隔萬山. ²²⁾

위의 시는 현곡의 아우인 조찬한(趙縝韓, 1572~1631)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조찬한은 형인 현곡과 함께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했다. 위의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형, 중형과는 달리 현주에 대해서는 문명에 대한 내외의 인정을 발신하면서 현곡 자신과知音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마음을 함께하는 동지로 의지하고자 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현곡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형제 가운데 현곡과 가장 많은 시를 주고 받은 이가 조찬한이며, 차운시가 10수 실려 있다.

2) 交遊 : 同類意識으로 연결된 연대의 관계성 표출

현곡은 1601년(선조 34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뒤, 1609년(광해군 1)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을 역임하다가 낙향하고, 이후 인조반정 때 재등용되었다가 양양부사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며, 명나라 사신 원접사의 제술관으로 뽑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관력을 가진 바 있다. 때문에 공적 관계를 바탕으로 임진왜란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 대한 만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흔적은 권3에 <哀趙重峯>, <哀高霽峯>, <哀宋東萊>, <哀金倡義>, <哀金義州>, <哀金將軍>, <哀劉僉樞>, <哀黃兵使>, <哀申巡邊>, <哀

22) 趙緯韓, <憶舍弟>, 『玄谷集』 권 5, 『韓國文集叢刊』 73.

靈圭> 등이 실려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뿐만아니라 관직을 통해 교분을 맺은 사람을 대상으로 쓴 만시 또한 확인되는데, 권6과 권8에 다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현곡은 당대에 학적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명고 임진, 석주 권필, 동악 이안눌, 오산 차천로 등과 교유를 맺으면서 주고 받은 차운시가 있고 이들과의 기억과 추억을 회상하며 쓴 다수의 회억시가 있다.

하지만 인물과의 정서적 관계는 해당 인물들과 나눈 교분을 추억하며 쓴 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순절한 인물에 대한 만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장을 올렸다가 북해에 갇히고,	封章囚北海,
의병 일으켜 임금의 은혜에 보답했네.	舉義答君恩.
큰 절개는 백이, 숙제와 같고,	大節同孤竹,
순수한 충정은 굴원을 넘어섰네.	精忠邁屈原.
쉬파리떼가 조문객이 되었으나,	青蠅爲弔客,
백우선으로도 초혼할 수 없었네.	白羽未招魂.
경제제민이 평생의 뜻이나,	經濟平生志,
학과 원숭이로 모두 사라졌네.	銷沈付鶴猿. ²³⁾

남쪽에서 명성이 드높았고,	南斗聲名重,
문장은 한양을 흔들었네.	文章動帝城.
왜구를 꺾어 의병을 모으고,	鳩兵嘗海盜,
진영을 청해 의병장을 세웠네.	立長請陳嬰.
긴 격문 여러 영웅이 눈물 흘리고,	丈檄群雄泣,
외로운 충정 온 나라가 놀라네.	孤忠舉國驚.
슬프구나, 두 아들이 죽으니,	哀哀二子死,
충성과 효도는 따를 자가 없네.	忠孝莫之京. ²⁴⁾

위의 시 2수는 중봉 조헌(趙憲, 1544~1592)과 제봉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애도하며 지은 것이다. 두 인물 모두 임진왜란에서 순절한 의병장

23) 趙緯韓, <哀趙重峯>, 『玄谷集』 권 3, 『韓國文集叢刊』 73.

24) 趙緯韓, <哀高霽峯>, 『玄谷集』 권 3, 『韓國文集叢刊』 73.

으로 이들을 애도하는 만시는 무엇보다 인물을 특기할만한 형상을 포착하는 게 핵심이다. <哀趙重峯>의 경우 굵치지 않는 '절개'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죽국의 두 인물인 백이와 숙제, 그리고 굴원을 끌어와 중봉의 형상을 비견하고 있다. 반면 <哀高霽峯>의 경우 학식과 명망이 있는 고정명이 의병장으로 천거된 것을 포착하되, 가문을 잇는 두 아들 또한 의병으로 순절한 것을 강조하여 충과 효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권3에 수록된 여타 인물의 만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현곡은 해당 인물의 특징적 국면을 포착하여 이를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만시를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곡과 학연으로 교유한 인물에게 쓴 만시 또한 확인되는데, <哭任寬甫>, <挽李之茂>, <挽權汝明>, <挽李贊成>, <哭東岳李子敏>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현곡은 학적으로 교유한 인물에 대해서는 회억시의 형태로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권3 <憶任寬甫>, <憶權汝章>, <憶梁子漸>, <憶林子定>이나 권5 <憶權汝章>, <憶權汝章>, <憶李子敏>, <憶車復元>, 권6 <憶亡友權汝章>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인물은 바로 권필이다.

현곡은 석주와 관련한 시로 <憶權汝章> 3편을 비롯하여 <憶亡友權汝章>, <監刈自嘲, 寄東臯崔令公 岺, 仍示石洲權汝章 驪>, <挽石洲內子>, <與汝章阻雨玄石村, 聞牛溪訃音>, <同汝章, 子漸舟遊龍湖>, <與子敏飲, 還家見汝章書, 志喜>, <余寓居龍山, 與善述, 汝章, 子敏, 寬甫, 留連十餘日, 有文酒之會, 將散, 以五言近體, 別汝章>, <客心寄石洲>, <訪子漸城東寓舍, 與汝章次主人韻>, <次汝章韻, 題僧軸>, <夢見石洲有感>, <臯蘭寺, 次石洲韻>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이들 작품은 현곡이 석주를 각별한 벗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해당된다. 작품들은 단순히 석주를 생각하고 지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꿈에 나오거나, 이별을 하거나, 벗들과 모임을 하던 도중에 지은 것들도 있다. 이는 현곡과 석주의 관계가 특별하였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가운데 <憶權汝章>이란 제명의 3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㉔ 무리에서 뛰어난 영가자,
활발한 세상의 영웅이네.

倜儻永嘉子,
翩翩間世雄.

부침은 세속의 욕을 따라,	浮沈從俗罵,
쓸쓸히 시궁에 앉아있네.	蕭瑟坐詩窮.
완적의 백안 사람들이 싫어하고,	籍眼人憎白,
유령의 술동이는 빈 적이 없네.	伶樽酒不空.
평생 응낙하던 뜻이었으나,	平生然諾意,
난리 중에 낙척하게 되었네.	落拓亂離中. ²⁵⁾

㉔ 지혜로운 권공 일 처리는 더디더니,	有智權公見事遲,
어찌하여 만리 남쪽을 도모하였나.	如何萬里久南爲.
전쟁에 가로막혀 소식이 없으니,	干戈阻絕無消息,
가족은 동서로 흩어져 이별을 원망하네.	骨肉東西怨別離.
창해에 외딴 배로 며칠이나 보냈나,	滄海孤舟經幾日,
황산에서 굶고 다닌 때가 또한 많았네.	荒山飢走亦多時.
어느덧 육년간 계서를 어겼나니,	居然六載違鷄黍,
강위가 아득하니 꿈속에서 그리워하네.	江渭迢迢費夢思. ²⁶⁾

㉕ 화산에 권석주를 몹시 생각해 보니,	苦憶花山權石洲,
평생 천유를 얻었다 스스로 일컬었네.	平生自謂得天遊.
백 년 인생 한 잔 술에 부치고,	百年身付一杯酒,
천 수의 시 높은 벼슬 경시했지.	千首詩輕萬戶侯.
재능이 속세에 닿는 건 본성이 아니고,	局趣塵埃非素性,
강해를 소요하며 풍류를 숭상하네.	婆婆江海尙風流.
<u>가련한 호걸 끝내 어디에 쓰이려나,</u>	可憐豪傑終何用,
<u>천지는 무정하고 흰 머리만 바뀔 뿐.</u>	天地無情易白頭. ²⁷⁾

위의 3수는 권필을 생각하며 지은 것에 해당된다. 현곡의 시각에서 석주를 떠올릴 때 핵심적으로 가닿는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㉔는 뛰어난 인물이 난리 중에 낙척한 형상에, ㉕는 전쟁 통에 이산을 겪게 된 것에, ㉕는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본성에 초점을 맞추어 석주의

25) 趙緯韓, <憶權汝章>, 『玄谷集』 권3, 『韓國文集叢刊』 73.

26) 趙緯韓, <憶權汝章>, 『玄谷集』 권5, 『韓國文集叢刊』 73.

27) 趙緯韓, <憶權汝章>, 『玄谷集』 권5, 『韓國文集叢刊』 73.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절곡의 삶을 살아온 현곡의 시점에서 석주의 능력과 인물됨이 세상과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포착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㉔의 밑줄 친 마지막 두 구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영웅호걸의 능력을 품고 있음에도 때와 맞지 않으면 시간만 정처 없이 흘러 늙어버리게 되는 세월의 무상함을 엿볼 수 있다.

석주에 대한 현곡의 안타까움은 석주의 죽음 이후 그를 그리는 시에서 더욱 절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득한 저승길 따라갈 수 없어서,	泉路茫茫不可攀,
매번 들보에 뜬 달 기대 얼굴을 보네.	每憑梁月見容顏.
지난날 따라 돌던 일 떠올리니,	追思往日從遊慣,
늙어서 흐르는 눈물 어찌 참으리오.	何忍窮年涕淚漣.
좌중을 놀래키던 청담 회복되지 않고,	無復清談驚座上,
인간 가득한데 멋진 시구만 공연히 남았네.	空留佳句滿人間.
공허하고 적막한 천지에 지음이 끊겼으니,	寥寥宇宙知音斷,
누가 정책으로 나의 완악함을 깨워주려나.	警策誰能激我頑. ²⁸⁾

오늘은 무단히 영가가 생각나서,	此日無端憶永嘉,
슬픈 노래 한 곡조에 눈물이 비껴 흐르네.	悲歌一曲淚橫斜.
이제 보니 세상길에 비구를 많거늘,	卽看世路多雲雨,
누가 알겠나, 인심이 막아와 비슷한 것을.	誰識人心似鎔鉏.
만사가 결국 상해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데,	萬事終傷難自保,
한 몸 쇠하고 병드니 다시 무엇을 자랑할까.	一身衰病更何誇.
적적한 산하에 석양도 다 기울어 가는데,	山河寂寂斜陽盡,
형문에 홀로 기대 저물녘 까마귀만 헤아리네.	獨倚衡門數暮鴉. ²⁹⁾

위의 시는 꿈에서 석주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짓거나, 돌아간 벗인 석주를 추억하며 지은 것이다.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석주가 세상을 뜬 다음 현곡이 불현듯 석주가 생각나서 쓴 것인데, 시의 정서가 앞서 <憶權汝章>에

28) 趙緯韓, <夢見石洲有感>, 『玄谷集』 권6, 『韓國文集叢刊』 73.

29) 趙緯韓, <憶亡友權汝章>, 『玄谷集』 권6, 『韓國文集叢刊』 73.

서 형상화되던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아득한 저승길 따라갈 수 없다[泉路茫茫不可攀]”거나, “오늘은 무단히 영가가 생각난다[此日無端憶永嘉]” 등의 표현을 통해 현세와 내세로 나뉜 현실에 대한 회한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떠난 자보다 남은 자의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현곡은 지난날 석주가 남긴 강렬한 인상을 추억하면서 ‘淸談’, ‘佳句’라는 시어로 석주를 형상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석주는 ‘警策’으로 현곡의 완악함을 일깨워준 ‘知音’이었기에, 현곡은 석주에 대한 복잡다단한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여 둘 사이의 관계성을 특별하게 기억하고자 했다.

앞서 제시한 현곡과 석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를 통해 우리는 현곡의 한시가 지닌 경향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현곡 한시에서 주정적 색채를 띤 唐詩의 경향이 간취된다는 점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현곡의 한시가 주로 망자를 애도하거나 망자와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시 계열이기에 감정의 유로가 일반적인 시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곡이 교유한 인물들의 시세계를 살펴보면 권필, 이안눌 등은 韓愈를 바탕으로 杜詩를 학습하여 성당시풍을 구축한 일군의 문인이었다.³⁰⁾ 따라서 현곡의 한시에서 발현되는 애도의 정서는 만시라는 형식에서 유로된 측면과 함께 현곡과 밀접하게 교유한 인물들과의 학적 관계 속에서 구축된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현곡 조위한의 『玄谷集』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일단을 살펴본 것에 해당된다. 현곡은 한시 창작에 있어 당대에 인정을 받았으며 권필, 이안눌 등과 깊은 교류를 맺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현곡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현곡의 한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현곡의 한시는 450제 정도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만시와 차운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본고는 애도의 정서가 함축된 만시와 회억

30) 韓海血, 「權韓 漢詩 研究 -杜甫 詩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74~178면 참조.

시 등을 중심으로 현곡의 한시에 노정된 감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곡의 한시는 현곡의 생애와 맞닿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곡은 83세의 수를 누릴 만큼 장수했으나 실제 삶의 행로는 다사다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현곡은 임진왜란,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 국내외 각종 사건을 관통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 형제, 처자식과 이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견인된 감정은 시문으로 토로되었다. 특히 처자식의 죽음과 관련하여 회한의 정서가 노정되고 있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감성의 양상이 특징되고 있었다. 반면 관직과 학연 등의 공적,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한 정서의 표출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병양란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만시를 통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인물 형상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학적으로 교유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인물의 특징적 국면을 중심으로 서로의 친교가 구축될 수 있는 기제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로 구현하였다.

현곡의 한시는 삶의 굴곡을 통해 배태된 정서가 노정된 양상이 두드러지는 편에 해당된다. 그렇다보니 정서적 표출에 있어 슬픔, 회한, 고독 등으로 연상되는 우울한 내면이 토로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현곡 한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다룬 한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현곡 한시의 성향을 대략적으로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곡 한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최척전>을 중심으로 편향된 연구에서 벗어나, 현곡의 문집을 중심으로 한문학사에서 그 위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곡집』의 번역으로 인해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본고는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를 바탕으로 산문으로 확장되어 조위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趙緯韓,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73, 한국고전번역원.
『趙玄谷詩帖』, 전남대학교 도서관본.
조위한 지음, 이덕현 옮김, 『현곡집』 1, 경인문화사, 2020.
조위한 지음, 안동교 옮김, 『현곡집』 2, 경인문화사, 2020.
민영대, 『趙緯韓과 崔陟傳』, 아세아문화사, 1993.
박희병, 「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최척전> 연구-」,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신상필, 「<최척전>의 형성과정과 17세기 서사 환경에의 재론」, 『민족문화사연구』 83, 민족문화사연구소, 2023.
안순태, 「玄谷 趙緯韓의 삶과 문학」, 『韓國漢詩作家研究』 8, 한국한시학회, 2003.
양승민, 「<崔陟傳>의 창작 동인과 소통 과정」,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엄태식, 「<崔陟傳>의 창작 배경과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이대형, 「<최척전>의 이본(異本)」, 『삼국기봉(三國奇逢)』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이희경, 「趙緯韓의 雜體詩 研究」,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학술대회, 『조위한·조찬한 형제의 삶과 문학세계』, 2024년 12월.
韓海血, 「權輿 漢詩 研究 -杜甫 詩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74~178면.
황위주, 『한시란 무엇인가』, 지성인, 2018, 86~87면.

| Abstract |

A Study on Chinese Poems by Hyun-gok Jo Wihan — Focusing on Manshi

Han, Euisoong

The present article is a survey of the Chinese poems in 『Hyun-gok-jip(玄谷集)』. Hyun-gok was recognized in his time for his creation of Chinese poems, and he was in deep communication with Kwon Pil and Yi An-nul. However, despite his fame,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yun-gok's Chinese poems, and this book focuses on them from a critical perspective. Hyun-gok's Chinese poems number about 450, of which Manshi and Chaunshi account for about half.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motional aspects of Hyun-gok's Chinese poems, focusing on Manshi and reminiscence poems, which contain mourning sentiments.

Hyun-gok's Chinese poems need to be examined closely in relation to his life. Hyun-gok lived to be 83 years old, but his actual life path was eventful. Hyun-gok's life passed through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Imjin War, Injobanjeong, and Byeongja-Horan, and h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his parents, siblings, and in-laws. The complex emotions triggered by these life events are expressed in the poems. In particular, the sentiment of regret is expressed in relation to the deaths of wives and children, and the relative emotions of siblings are characterized.

on the other hand, Hyun-gok expresses his feelings about his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public and private life, such as officials and academic associates, in many Chinese poems. For those who died in the Imbyeongyangran, Hyun-gok sought to build a figure that could be remembered through Manshi, and for those with whom he interacted academically, he embodied their relationships in Chinese poems by describing the mechanisms by which mutual friendship could be built around their characteristic phases.

Hyun-gok's Chinese poems are characterized by the emotions that have been cultivated through the bends of life. As a result, the emotional expression of the poems is characterized by a melancholy interiority that is associated with sadness, regret, and loneliness. Of course, this needs to be tracked more closely through a

study of Hyun-gok Chinese poetry as a whole, but it is confirmed that it is relatively prominent in the Chinese poems studied in this paper.

This paper is only an overview of the tendency toward Hyun-gok's Chinese poetry. It also points to the need for a full-scale study of Hyun-gok Chinese poetry to begin. In the meantim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biased research that connects the author Jo Wihan through <Choi-Cheok-jeon(崔陟傳)> and discuss its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detail, centering on the collection. This is largely due to the translation of the 『Hyun-gok-jip(玄谷集)』, and although the present study centers on Chinese poems, it is hoped that the study can be expanded and deepened to include prose in the future.

Key Words: Jo Wihan, 『Hyun-gok-jip(玄谷集)』, Chinese poetry, Manshi,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sadness, condolences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회절 양상과 의미

— <李花實傳> 과 <吳後姜傳> 을 중심으로 —

김정녀*

목 차

1. 머리말	3. 공모와 속임수를 통한 여성의 회절 중용
2. 회절 여성에 대한 통제와 욕망의 좌절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한문소설 <李花實傳> 과 <吳後姜傳> 을 중심으로 여성 회절의 양상과 의미를 살핀 것이다. 이를 통해 정절 이데올로기에 일어난 균열과 윤리 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19세기 한문소설에는 성적 욕망에 솔직하고 성적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성의 회절은 懲治와 죽음 등 부정적으로 서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19세기에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회절 여성뿐만 아니라 공모와 속임수에 의해 회절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징치나 죽음이 아닌 改嫁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윤리 의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화실전> 을 비롯한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대개의 회절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정절 윤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대개 그 욕망이 좌절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를 옹호 내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오후강전>의 경우는 정절 윤리를 고수하려는 여성 인물을 주변인들이 공모하여 결국 회절하게 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차별된다.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휘절 여성의 형상화는 여성 교육의 확산과 유교 윤리의 내면화로 일반화할 수 없는 19세기 여성들의 이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절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해체의 징후를 이들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가족 윤리, 정절 윤리, 여성 휘절, 이화실전, 오후강전

1. 머리말

조선 후기 사회는 烈女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性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다. 강명관에 따르면 17세기 이후 『內範』, 『閨範』 등 여성 교육서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보급되었으며, 문인 남성들은 앞다투어 열행을 실천한 여성의 傳記, 旌閭記, 事蹟記 등을 지어 유교 윤리를 내면화한 여성들을 칭송하였다. 조선 후기의 열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조·정조 시기에 비해 『순조실록』이 약 2.5배 정도의 기사를 더 싣고 있어 19세기에 들어 그 수가 계속 팽창,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녀 이데올로기는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유교적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기능하였음을 이 연구는 보여 준다.¹⁾

그런데 열녀의 팽창과 확산으로 19세기 여성들이 이전 시기 여성들보다 더 도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와 양반 남성이 열녀를 표창, 칭송하면서 정절 윤리를 팽창, 확산하려 한 것과 달리 19세기 한문소설에는 성적 욕망에 솔직하고 성적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특히 성적 종속성을 거부한 휘절 여성의 등장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불온한 여성들을 형상화한 19세기 한문소설의 존재는 여성 교육의 확산과 유교 윤리의 내면화로 일반화할 수 없는 19세기 여성들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李花實傳>과 <吳後姜傳>을 중심으로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휘절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에 일어난 균

1)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371~419면; 460~469면; 485~495면 참조.

열과 윤리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²⁾ 성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성에 대한 관심이 문화 전반에 드러나던 19세기에 여성의 휘절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본고의 관심사이다.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휘절의 양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여성 휘절’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논의의 대상을 특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여성 휘절’을 ‘一夫從事의 뜻을 꺾고 남편에 대한 節과 烈을 실행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한다. 1)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가져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경우, 2)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성이 改嫁한 경우를 모두 휘절로 보고 논의의 대상에 포함한다. 1)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은 <李花實傳>의 봉옥이 대표적이다. <折花奇談>의 순매, <布衣交集>의 초옥, <吳後姜傳>의 계월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2)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은 <吳後姜傳>의 주인공 오후강이 대표적이다. <鰥夢寡記>의 청상과부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³⁾

2. 휘절 여성에 대한 통제와 욕망의 좌절

<이화실전>⁴⁾의 봉옥은 상층 여성으로 정식으로 혼인한 남편 이화실을

-
- 2) 그동안 ‘휘절’이란 용어는 경직된 규범과 인습에 사로잡힌 한 남성에게 대한 풍자를 주된 골자로 하는 ‘세태소설’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201~230면). 전통적 가치 규범들이 현실성을 상실하면서 급속히 붕괴되고 있었던 조선후기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일군의 작품을 ‘남성휘절서사’로 분류하여 다뤘다(이원수, 「남성휘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69~94면). 본고에서는 정절 윤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열녀’의 반대항으로 ‘휘절 여성’을 설정하고, 작가가 여성의 휘절을 어떤 시선으로 포착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三韓拾遺>의 향랑은 집안의 改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결함으로써 義烈女로 칭송된다. 그러나 환생 후 기존 남편이 아닌 효령과 再嫁하는 등 일반적인 열녀와는 달라 작품 내에서도 무수한 논쟁을 일으킨다. 향랑은 환생 후 개가를 하지만 전생에서는 절의를 지켜 열녀로 죽었으므로 본고에서 논의하는 휘절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저버리고 기꺼이 자신을 납치한 대려국 왕의 첩이 된 휘절 여성이다. 19세기 한문소설 중 남편에게 특별한 불만이 없는데도 유부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휘절한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문제의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여주인공 봉옥은 侍婢 막례와 대비되는 인물이다.⁵⁾ 시비 막례는 끝까지 정절을 지킨 반면 그 주인인 봉옥은 휘절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남편은 정절을 지키지 않은 봉옥의 죄를 낱날이 드러낸 뒤 단죄한다. 이런 까닭에 19세기 한문소설의 보수적 경향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⁶⁾ 본고에서는 봉옥의 휘절 형상화에 초점을 맞춰 여성 정조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대려국 왕은 본래 음란함을 탐하여 천하 미색을 곳곳에서 잡아들이고, 오래되면 곧 싫증을 내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수하인 太史에게 물어 매번 새로운 미색을 찾았는데, 마침 천하 미색 봉옥이 태사의 점괘에 들어온다. 봉옥 또한 음란하고 사특하여 부처의 노여움을 산 인물로 그려져 있다.⁷⁾ 화실과 혼인 후 화실의 본가가 있는 교남부로 가던 중에 대려국 왕의 명을 받은 太史가 봉옥과 막례를 대려국으로 잡아오면서 봉옥은 왕의 첩이 된다. 대려국에 온 직후 봉옥의 자세한 심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막례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봉옥이 왜 남편을 배신하고 대려국 왕의 첩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이화실전>은 이대형이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대형, 「<李花實傳>의 특징과 의의」,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455~479면.

5) 한의승,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1; 이해경, 「李花實傳의 人物性格과 主題意識」, 경북대 석사논문, 2012.

6) 한의승, 「<李花實傳>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33-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7~27면.

7) 이대형 외, 『要覽: 19세기 독서인의 잡학 요람』, 보고서, 2012. <李花實傳>의 원문 및 번역은 이 책을 참고하되 일부 표현을 다듬었다. 이하 작품의 인용 면수만을 적는다. <李花實傳>, 251면. “西原大礪國王, 性本貧[sic貪]淫, 天下姿色, 處處偷來, 而久則厭之, 每與太史占得姿色所在之處矣. 此時太史占之曰, 天下姿色鳳玉, 與其婢莫禮, 行在於大明國西原府路中, 而此則喬南府青崗寺第三佛所點子李花實之妻也. 其佛怒於李家之勸肉, 憎於鳳玉之淫惡, 使張氏見厄, 而金女見慘, 此可以取來.”

봉옥이 돌연 얼굴색이 변하여 말하였다. “나의 황제께서는 천고의 뛰어난 성인으로 땅이 천 리나 되며 궁에 미인을 두었는데도 나를 첩으로 삼으셨다. 나의 일신이 영화롭고 부귀한데, 네가 감히 몸단장 여부를 묻는 것이냐?”

막례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저는 유독 『내서內書』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규중의 발걸음은 중문을 나서지 않아야 하며, 눈길은 낮은 담장도 넘지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먼 길을 나서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임금을 섬기고 두 지아비를 섬기다니 이것을 차마 볼 수 있으며 차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옛 주인은 어디 계시고 이상공은 어디 가셨는지요? 차라리 죽어서 보지 않는 것이 통쾌하겠습니다.”⁸⁾

위 인용문은 대려국에 잡혀 온 봉옥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몸단장을 하고 있자 놀란 막례가 그 이유를 묻고 봉옥이 답한 내용이다. 봉옥은 대려국에 오자마자 왕을 ‘나의 황제’라 칭하며 그 황제가 천 리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궁에 미인이 많음에도 자신을 첩으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꿈꾸며 왕을 위해 치장을 한 것인데, 막례가 나무라듯 묻자 봉옥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인 것이다. 남편 이화실과 봉옥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음에도 봉옥은 자신의 미색을 탐하는 대려국 왕이 자신에게 선사할 더 큰 부귀영화를 바라고 궤절을 선택한다. 막례는 여성 교훈서 『內書』의 가르침을 거론하며 두 지아비를 섬기는 일은 차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봉옥의 음란한 욕망 앞에서는 가문도, 지아비도, 여성 교훈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화실전>의 작가는 봉옥의 궤절에 대해 ‘음란하고 사특하다’며 반복적으로 비난한다. 특히 어려서부터 봉옥의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종 막례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쥐어줌으로써 봉옥의 궤절이 부모와 지아비를 모두 배신한 부도덕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8) <李花實傳>, 253면. “鳳玉勃然變色曰, 吾之皇上, 以千古明聖, 地有千里, 宮置一色, 以我爲妾. 一身榮貴, 汝敢問艷粧與否乎? 莫禮嘆曰, 小姐獨不見內書乎? 珪[sic閨]中之步, 不出中門, 秋波莫送短牆, 況女子遠行, 不啻夢理[sic裏]之外, 二君之事, 二夫之事, 是可忍見, 是可忍聞? 故卿何在? 李相公安去? 寧死而不見, 爲快也.”

(막례가) 혼자 말하기를, ‘오륜의 시작은 즉 천지를 가리켜 정하는 것이다. 저는 명가의 외동딸로 부모의 명을 받들어 이씨 가문에 몸을 맡겼거늘, 지금 하룻밤 사이에 비록 간교한 술책에 빠진 것이기는 하나, 잠깐 그 말을 들어보니 그 죄가 무겁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천명을 어긴 것이며, 이생을 까맣게 잊었으니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다. 지아비를 저버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거늘, 하물며 또한 치마를 걷어 올렸으니, 개와 돼지의 음탕함에 비하겠는가?’⁹⁾

명문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난 봉옥은 혼인 전부터 남녀 간의 즐거움을 입에 올리는 등 정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명을 받들어 이씨 가문에 시집을 갔으니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 상층 여성인 봉옥이 감당해야 할 윤리였다. 막례는 봉옥이 왕의 간교한 술책에 빠졌다고 해도 지금 봉옥의 언행은 그 부모와 지아비를 모두 저버린 것이기에 천명을 어긴 것이요, 사람의 도리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봉옥은 지아비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대려국 왕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렸으니 ‘개와 돼지의 음탕함’[狗彘之淫]에 비길 바가 아니라며 통탄한다. 막례의 생각은 여성 교혼서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良家の 딸이었던 막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문제는 교육을 받은 상층 여성 봉옥이 이에 위배되는 행절을 했다는 점이다.

막례는 봉옥의 행절을 비난하지만, 봉옥은 대려국 왕과의 음란·방탕함을 ‘천상의 즐거움’[生外之樂]이라 말하며 막례에게도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려 대려국 왕에게 막례를 천거하기까지 한다.¹⁰⁾ 결국 막례는 이런 봉옥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봉옥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기에 이른다.¹¹⁾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주인의 뺨을 때린 막례의 행동은 綱常을 범한 것으로, 여성의 정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면 남

9) <李花實傳>, 253~254면. “(莫禮)自語曰, 五倫之始, 卽指天地而定矣. 渠以名家獨女, 奉命於父母, 許身於李家, 今至一夜之間, 雖爲奸術之所陷, 乍聞其言, 則其罪不重, 不顧父母, 天命違矣, 頓忘李生, 人理絕矣, 背夫猶難, 況又褻褻於狗彘之淫耶?”

10) <李花實傳>, 267면. “莫禮冷笑曰, 一夜間, 大感之樂, 何欲分人耶? 鳳玉全昧其意, 而答曰, 我則已爲適人, 汝則尚在平髮, 故使汝欲見生外之樂, 而然矣.”

11) <李花實傳>, 268면. “莫禮不勝其憤, 以手猛打鳳玉之頰.”

특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수 있다.¹²⁾ 정절을 목숨처럼 여긴 막례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했기에 상층 여성 봉옥에 대한 처벌을 작가가 허락한 것이다.

스스로 궤절을 선택한 봉옥은 남편 이화실의 손에 죽는다. 작품 후반부 대려국 왕이 화실의 칼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봉옥의 욕망은 갈 곳을 잃어버렸으며, 지아비를 배반한 궤절 부인은 천지간에 용납될 곳이 없음을 작가는 다시금 강조한다.

이생이 준엄한 목소리로 죄를 들어 말하였다. “네가 당초 흥노에게 속아 이곳에 왔다고는 하나 지아비의 중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곧바로 개 같은 음란함에 몸을 허한 것이 첫 번째 죄이다. 막례가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고 간절히 경계하여 일렀는데, 너는 흥노의 강포함을 과장하여 막례의 빙옥 같은 몸으로 네 아첨을 더하고자 거의 옥석이 모두 불타는 지경에 이르도록 꺾은 것이 두 번째 죄이다. 개 같은 음란함에 빠져 부모의 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과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 그 밖에 사소한 죄들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너는 여자의 몸으로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고서 오히려 천지간에 용납되기를 바라느냐?”¹³⁾

화실은 봉옥의 첫 번째 죄로 궤절을 꼽는다. 지아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개 같은 음란함’에 몸을 허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죄는 막례가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고 간절히 경계하여 고하였음에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대려국 왕에게 막례를 천거하여 욕보이려 계획한 것

12) <이화실전>에서 막례는 화실을 ‘상궁’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주인이 아닌 지아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죽기 전에 절개를 지켜 화실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화실에 대한 막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막례가 봉옥의 뺨을 때린 것은 단순히 봉옥의 궤절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정절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 <李花實傳>, 269면. “生乃厲聲數罪曰, 汝當初爲凶奴之所譖, 雖爲來此, 而頓忘小[sic 所]天之重, 而卽地許身於犬羊之淫, 其罪一也. 莫禮以不事二夫之說, 丁寧告戒, 則汝以凶奴之強暴, 自能誇張, 以莫禮冰玉之身, 欲逞汝媚, 幾至於玉石俱焚之計者, 其罪二也. 惑於犬羊之淫, 不顧父母之命, 欲殺無辜之人, 其罪三也. 其他些少各罪, 不勝彈舉, 而汝以女子之身, 負此三大罪, 而尙欲生容於天地間乎?”

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개 같은 음란함’에 빠져 부모의 命을 돌아보지 않은 것과 남편인 자신마저도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죄만으로도 봉옥은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인물로 규정되고, 결국 남편의 칼에 정치되고 만다.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화실전>은 상층 여성을 淫女로 형상화하고, 하층 여성을 통해 상층 여성의 성적 욕망을 강하게 경계, 통제하고자 한 작품이다.¹⁴⁾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 교훈서의 폭발적 보급에도 불구하고 정절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은 상층 여성을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봉옥은 막례와 대비되어 끝없이 추락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봉옥과 같은 상층 휘절 여성의 존재를 상상하고 구현해낸 것은 이 시기 정절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한문소설 중에는 <이화실전>의 봉옥과 같이 정절 윤리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이는 휘절 여성이 더 있다. <절화기담>의 순매는 봉옥과 같이 남편을 완전히 저버린 여성은 아니지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육체 관계를 가진 휘절 여성이다. 순매가 휘절하게 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순매의 남편에 대해 졸렬하고 사납다[夫之拙, 悍夫]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이생의 경우 준수한 외모와 빼어난 풍채뿐 아니라 詩文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서술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순매는 남편과 달리 고상하게 시문을 읊으며 자신에게 지극정성을 보이는 양반 남성을 향한 성적인 끌림으로 인해 휘절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매는 자신을 향한 이생의 구애와 그 구애에 대한 화답을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한다. 이생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신에게도 남편이 있지만, 이생과 자신의 만남을 탁문군과 사마상여의 만남에 비의하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한다.¹⁵⁾ 물론 사나운 남편이 알게 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14) 김정녀,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성 담론의 양상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16~17면.

15)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절화기담>과 <포의교집> 원문 및 번역은 이 책을 참고하였다. 이하 작품의 인용 면수만을 적는다. <折花奇談>, 49~50면. “然郎君自有婦, 賤妾亦有夫. 羅數自靖之節, 恨不

의 눈에 뵈까 두려워하지만, 순매는 한 번 이생의 사랑을 받은 뒤로는 오로지 이생만을 섬기고 싶을 뿐 용렬한 남편을 섬길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며 醜絶 의사를 드러낸다.¹⁶⁾ 이생과의 만남이 자꾸 어긋나 정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열 번의 만남 중 아홉 번째의 만남 단 한 번뿐이지만, 순매의 醜絶은 진작부터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순매는 결국 남편을 떠나지 못한다. 남편에 대한 신의나 정절 윤리 때문이 아니라 순매와 이생의 관계가 들통나 주변 사람들의 감시와 경계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염탐하고 막는 자들’, ‘담장의 엇듣는 귀’로 인해 움 짝달씩할 수 없는 형국이 되자,¹⁷⁾ 순매는 결국 자신의 기박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포악한 남편에게 돌아간다.

봉옥과 달리 순매의 醜絶은 남편에 의해 징치되지 않는다. 주변 인물들의 감시와 경계가 심해진 탓에 남편에게 들리기 전 이생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순매에 대한 징벌적 처벌로 볼 만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생을 만나기 전 수많은 남성들의 유혹을 물리쳤던 순매가 자신의 욕망에 눈을 뜨고 급기야 선택한 사랑을 끊어내야 했던 심정을 헤아려 보자면 <절화기담>의 결말을 해피 엔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사나운 남편의 처벌이 두려워서이든 주변의 시선 때문이든 간에 욕망의 좌절로 결말을 구성한 것은 정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포의교집>의 초옥 역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진 醜絶 여성이다. 초옥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知己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醜絶을 선택한다. 詩才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초옥이 이생에게 끌린 것

相守, 文君自媒之行, 固所甘心以思切.”

16) <折花奇談>, 57~58면. “一自見愛郎君之後, 惟有事齊之誠, 頓無事楚之心. 遇事無心, 見食忘飯. 一身一念, 都注於郎君身上.”

17) <折花奇談>, 82면. “今欲斷恩割情, 棄舊從新. 而廉防有守, 垣牆有耳, 眞所謂寸心之難馭者也.”

18) 南華山人이 쓴 ‘折花奇談序’의 마지막 발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折花奇談>, 35면 “애석하다, 만남을 가지기 전에 매섭게 끊어버리는 것이 나았을 것을! 그러나 한 번 만난 뒤에라도 스스로 관계를 끊었으니 다행스럽다 하겠다(惜乎, 莫如痛斷於未遇之前, 然猶幸自絕於一見之後也).”

은 그가 기개 있는 진정한 사대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초옥은 자신을 유혹 하던 못 사내들과 이생은 다르다 생각하고 그와의 布衣之交를 욕망한다. 초 옥은 이생을 伯玉과 子夏와 같은 군자로 여기며, 이생이 자신의 어쭈름을 사랑 할 뿐 욕체를 탐하지 않는 진정한 군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와의 포의 지교를 희망하는 자신은 천지신명에게도 옛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¹⁹⁾ 그러나 초옥은 이내 이생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知己인 이생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절개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탁문군이 사 마상여를 만나려고 北堂에서 도망 나올 때 몸을 정결히 지키려는 마음이 어 찌 있었겠느냐며,²⁰⁾ 자신도 같은 마음임을 표현하고 휘절한다.

그러나 <포의교집>의 이생은 초옥의 생각과 다르게 백옥과 자하 같은 詩 才도 없었으며, 초옥의 욕체에 초연한 군자도 아니었다. 그런 이생의 실체를 모르고 초옥은 이생과의 布衣之交를 꿈꿨던 것이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 유 의지에 의한 휘절이었으나 초옥은 이생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칼부림이라는 폭력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으며, 몇 번의 자진을 시도하기까지 한다.²¹⁾ 그리고 목숨까지 걸었던 이생이 진정한 군자도, 믿을 만한 知己도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초옥과 이생의 관계는 끝이 난다.

이상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순매와 초옥의 욕망은 주변 사람들과 남편의 방해로 인해 좌절된다. 순매의 경우는 봉옥처럼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초옥처럼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지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진 것을 보면 휘절 여성의 일탈을 묵인할 수만은 없는 작가의 경계의 시선을 읽

19) <布衣交集>, 152면. “今郎君不愛妾之色, 而能愛妾之賢, 推此可知. 妾何福, 能見伯玉子夏似之君子, 於今世之上乎? 眞妾之所願從遊也. 然後, 能無愧乎天地, 無愧乎神明, 亦無愧乎古今. 夫, 鳳飛千仞, 飢不啄粟. 丈夫之氣槩. 郎君豈不誠大丈夫哉?”

20) <布衣交集>, 156면. “妾爲郎君, 死且不避, 卮酒安足辭? 卓文君之走北堂也, 豈有欲潔其身之意耶?”

21)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에 주목한 선행 연구에서는 초옥의 자진을 ‘초옥의 사회적 자아가 가한 자기 처벌의 일종’이라고 보았다(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15~243면). 초옥이 전통 윤리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라는 논자의 해석은 본고의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초옥이 정절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윤리를 세우려 한 인물이라면 자진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모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을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봉옥, 순매, 초옥과 같은 여성들의 횡절 행위를 작가가 징치하거나 그 욕망이 좌절되도록 구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절 이데올로기의 옹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와 신분제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욕망의 절제와 정절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횡절을 선택한 것은 견고한 정절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공모와 속임수를 통한 여성의 횡절 종용

<오후강전>²²⁾에도 두 명의 횡절 여성이 등장한다. 지아비가 있음에도 情夫를 두어 몰래 정을 통하고, 情夫 역시 성에 차지 않자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계월이 있고, 지아비가 죽자 수절을 결심했으나 그녀를 흡모하는 남성과 주변 인물들의 공모에 의해 횡절, 改嫁하는 오후강이 있다. 계월은 앞 장에서 살펴본 봉옥, 순매, 초옥 등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좇아 자발적으로 횡절한 여성이지만 <오후강전>은 계월의 욕망을 통제하거나 횡절에 대한 징치를 가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소설과 차별되며, 후강의 개가에 대한 시선 역시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성 횡절에 대한 기존의 윤리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오후강전>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작품이지만 서사구조와 주제,²³⁾ 서사 방식과 인물 형상,²⁴⁾ 여성 인물의 욕망²⁵⁾과 변심,²⁶⁾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과 서사적 활용²⁷⁾ 전고의 운용²⁸⁾

22) <오후강전>은 정병호가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정병호, 「<吳後姜傳> 解題 및 原文 標點」,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361~396면). 이후 한의승에 의해 19세기 중단편한문소설의 특징이 밝혀졌다(한의승, 「19세기 漢文小說에 나타난 ‘忠·孝·烈’의 구현양상 연구」,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133~151면).

23) 이선영, 「「吳後姜傳」의 敘述構造와 主題」, 경북대 석사논문, 2012.

24) 한의승, 「<吳後姜傳>의 서사방식과 인물 형상 연구」,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2, 353~382면.

25) 진건화,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020, 69~103면.

26) 이서희,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변심과 그 의미」, 『동남어문논집』 58, 동남어문학회, 2024, 271~289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두 여성의 휘절 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계월의 휘절 형상을 살펴보자. 계월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수심이 가득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 까닭은 남편 정근채가 3년이나 침계월의 집에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계월은 새들도 짝을 지어 나란히 날아가고, 초목과 금수도 짝이 있는데, 자신은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헛되이 청춘을 버리고 있는 신세라며 한탄한다.²⁹⁾ 그렇게 흘러가는 청춘이 아까워 계월은 남편 몰래 염숙을 情夫로 둔다. 1차 휘절의 원인은 남녀 간의 情을 그리워해서였다. 남편은 계월의 휘절을 알고 계월을 집에서 내쫓는다.³⁰⁾ 그러나 계월은 情夫가 아닌 주인공 해갑을 따라간다. 만약 해갑을 만나지 못했다면 염숙이 비록 간사하고 악독한 인물일지언정 그와의 인연을 한동안 더 이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갑을 만난 뒤 2차 휘절을 하기에 이른다. 아래 인용문은 염숙을 버리고 해갑을 따르겠다는 계월의 제안이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군요. 무릇 사람을 살펴보는 법에 ‘거처할 때는 그 친한 바를 보고, 궁할 때는 그 행하지 않는 바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염숙을 자세히 보니 행하는 바는 간사하고 비방하는 일과 악독하고 사나운 일을 일삼고, 친한 이들은 모두 음란하고 괴팍하며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를 배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그의 용모가 비록 冠玉과 같고 지혜가 子房과 같다

27) 유해인, 「<오후강전>에 나타난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과 그 성격」, 『고전과 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23, 397~433면.

28) 이길환, 「19세기 중·장편한문소설의 전고 운용에 대한 시론적 고찰-〈오후강전〉·「유생전」·「효열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53, 영주어문학회, 2023, 249~277면.

29) <吳後姜傳>의 원문은 정병호(2010)의 표점본을 참고하였다. <吳後姜傳>, 3면. “天定生物, 各稟陰陽之氣, 至於棲鳥兩眠, 乳燕雙飛, 草有合歡, 木有連理, 無知草木至微禽獸, 莫不有伉儷, -(中略)- 而牢鎖深室, 有若籠鳥, 聞黃鸝而歎息, 對綠楊而歎歎, 春花秋月, 伴燈消魂, 虛拋青春, 是果天之命我者乎?”

30) 계월의 남편은 염숙과 계월의 불貞을 알게 된 뒤 계월을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이미 3년이나 자신을 찾지 않은 남편의 축출을 계월이 오히려 반긴다는 점에서 이는 징치로 볼 수 없다. 징치는 욕망을 통제하려는 의도인데, 계월은 이를 2차 휘절의 기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할지라도 재앙이 필히 뒤따를 것이니 어찌 제 마음에 달갑겠습니까? 만약 저와 더불어 六禮를 갖추었다면 이미 어찌할 수 없지만, 제 뜻대로 스스로 몸을 맡길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사람을 따르겠습니다.³¹⁾

계월은 자신이 염숙을 배신하는 이유를 당당히 밝힌다. 염숙은 평소 행실이 악독하고 사나운 일을 일삼는 사람이고, 또 그가 어울리는 무리들이 음란하고 괴팍하며,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자들이라서 필시 재앙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 이유이다. 한마디로 계월은 염숙이 평생을 의탁할 만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계월은 염숙과 육례를 갖추어 혼례를 올린 사이가 아니기에 자신의 뜻대로 몸을 맡길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이러한 계월의 발화는 그녀의 신분인 기녀 출신의 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당대의 윤리 기준에서 쉽게 용납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관습일 뿐 아니라 법과 제도로 장려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정절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상층 여성뿐만 아니라 하층 여성까지도 정절 관념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오후강이 바로 보편적 정절 관념을 보여 주는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계월은 정절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넘어 해체를 예고하는 인물로 보인다. 상황이 如意치 않거나 여의한 경우에 따라 휘절과 정절을 임의로 선택하는 인물이 계월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은 가부장제의 근간인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온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행실로 보자면 <사씨남정기>의 교씨와 흡사하다. 남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情夫까지 배신하는 계월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하고, 작품에서도 부정적으로 그려질 법하다. 그러나 계월은 해갑에게 자신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후강의 개가를 돕겠노라 약속하고, 후강의 수절 의지를 꺾어 휘절을 야기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해갑의 첩이 되어 후강과 끝까지 해로하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긍정이요, 여성의 휘절에 대한 윤리 의식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

31) <吳後姜傳>, 5면. “君知一未知二，夫觀人之法，居視其所親，窮視其所不爲。余觀廉叔，所爲邪訐惡悍之事，所親者皆淫悞奸悖之人，故余欲背之者，此也。其兒雖如冠王，智如子房，禍必相隨，余何甘心哉？若與俱六禮，則已無及矣。任意自託，則從吾所願。”

으로 볼 수 있다.³²⁾

여주인공 오후강의 휘절 과정은 더욱 흥미롭다. 후강의 개가는 자신의 자유 의지가 아닌 주변 인물들의 적극적인 공모에 의해 기획되고, 몇 차례의 속임수를 거친 후에야 마침내 성사되기 때문이다. 수절 과부인 오후강의 개가를 다수의 인물들이 중용할 뿐만 아니라 정절 윤리에 대한 작가의 다채로운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후강전>의 휘절 형상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오후강은 본래 상층 여성이고, 집안의 몰락으로 기생이 된 인물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왕상서의 첩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상서가 죽어 과부가 된다. 왕상서가 죽은 후 후강은 열녀의 행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 기녀 옥창은 후강을 한 번 만나게 해달라는 해갑에게 후강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세고, 위엄은 서릿발 같은’ ‘열녀’라 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다.³³⁾ 해갑이 아무리 열렬한 마음을 지녔다고 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녀의 뜻을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봄에 영월루에서 열리는 詩宴이 아니면 규방을 나서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단속하는 인물이며, 일 년에 한 번 시연에 참석할 때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소복차림으로 나가 자신이 수절 과부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후강이 자신과의 백년가약을 원하는 해갑의 편지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정조를 굽힐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음이 감지된다.

(1)저는 본래 吳尙書의 장녀이자 王尙書의 첩입니다. 태어나 5~6세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제게 곧고 굳센 지조를 가르쳐 갖추게 하였고, 『烈女傳』과 『五倫行實』을 간곡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출가하여 남편을 따른 뒤로 이제껏 단 하루도 그 간절한 가르침을 잊은 적 없이 온순히 따르고 경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2)

32) 물론 계월과 같이 경제력이 없는 하층 여성의 개가는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고, 성적 방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오후강전>에서 계월이 휘절하는 이유는 생존이 아닌 성적 욕망 때문이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휘절을 반복하고 속임수까지 동원함에도 윤리적 평가 대상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33) <吳後姜傳>, 2~3면. “玉牕冷笑曰, 後姜烈女也, 其心如石, 其威如霜, 不可以錢幣, 傾其心志矣.”

그런데 하늘이 참혹한 화를 내리시어 남편이 죽는 변고를 당했으니 애통하고 절박한 사정은 이미 어찌할 수 없습니다. 텅 빈 규방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화장하고 머리 빗는 일도 영영 버려두어 귀신같은 형상이 된 지 벌써 3~4년째입니다. (3)쑥대머리와 거친 눈썹은 다시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먼지 낀 얼굴과 때 묻은 몸은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으니, 비록 제가 절개를 꺾고 굽혀 따르더라도 그대는 필시 제 더러움을 꺼리고 추함을 미워할 것이니 다시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한스러우나 내세의 인연이 이어져 배필이 된다면 이는 기꺼이 받들겠습니다.³⁴⁾

(1)은 후강의 본래 출신이 양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현재 첩이 된 몸이지만 후강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끈고 굳센 지조를 갖춘 여성의 몸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열녀전』과 『오륜행실』 등에 등장하는 열녀의 행실을 간곡히 일러주신 덕분에 시집을 간 뒤에도 그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온순히 따르고 경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지냈다고 말한다. 비록 첩의 신분으로 떨어졌으나 양반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여성임을 자부하고 있다. (2)는 남편이 죽은 뒤 교훈서의 가르침대로 규방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귀신 같은 몰골로 지내왔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열녀 오후강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임을 보인 것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3)의 내용이다. 지금 자신은 지난날의 용모도 남아 있지 않고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기에 ‘절개를 꺾고 굽혀 따르더라도’ 해갑이 자신의 모습을 꺼리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한스러우나’ 현생에서는 해갑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오후강의 입장이다. 醜絶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강이 결단을 내리기엔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정절 이데올로기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34) <吳後姜傳>, 7면. “妾本吳尙書之長女, 而王尙書之副室也. 生孩五六, 父母以妾有貞烈之操敎之, 而烈女傳及五倫行實, 諄諄敎誨, 尙尔耳邊, 及出家從人, 未嘗一日, 忘其丁寧之敎訓, 溫溫兢兢矣. 天降酷禍, 所天崩矣, 痛迫之私, 已無及矣. 深鎖空閨, 永棄粧鬢, 以作鬼形者, 以至三四載矣. 蓬首荒眉, 無復昔日之容, 塵面垢形, 宛然尸餘之人, 雖毀已枉從, 君必避其穢, 惡其醜, 復何言哉? 嗟一生之虛過, 續來緣之作配, 是所甘心.”

수 있다.

계월은 이러한 오후강을 궤절하도록 만들어야 해갑의 곁에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든 후강의 뜻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강은 장복평의 겁탈 위협에도 자신의 자리를 꺾듯이 지켜내며 처신에 조심에 조심을 하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계월은 賈女를 고용하여 후강에게 보내 해갑과 맺어질 운명이라는 점술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해강이 속지 않자 죽은 후강의 남편 형상을 한 木偶人을 후강의 집으로 들여보내 후강이 해갑을 따라 떠나야 남편이 冥府에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목우인이 사라지지 않고 못 귀신들과 후강의 거처를 훼손하는 등 못살게 굴자 후강은 다시 賈女를 불러 목우인을 사라지게 해달라 간청한다. 賈女는 술수로 목우인과 귀신을 없애고, 다시 후강에게 개가를 종용하지만, 후강은 ‘열녀가 뜻을 꺾고 二夫從事하는 것’은 ‘하늘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종사에도 부끄러운 일’³⁵⁾이라며 죽을 뜻을 비춘다.

그날 밤 오후강은 자결을 시도하지만 小妹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계월은 목숨을 건진 후강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자 환형술로 남편 왕상서가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을 군대로 조직하여 이끌고 찾아가 ‘해갑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죄며, 비명에 죽는 것도 죄’라며, 자신이 귀신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늘이 정한 인연을 따라가라고 겁박한다.³⁶⁾ 후강이 해갑을 죽여 인연을 끊고 열녀로 살겠다고 대응하자 계월[가짜 왕상서]은 일세의 영웅인 해갑을 죽이면 천지에 대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회유한다. 후강이 귀신에게 곤욕을 치르는 동안 소매가 다시 賈女에게 급히 달려가고, 계월과 모의한 賈女는 거짓으로 주문을 외워 왕상서[계월]를 비롯한 수백의 귀신들을 물러가게 한다. 賈女는 거듭된 환란을 겪은 후강에게 해갑과 인연을 맺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또다시 개유한다.

수절하고자 했던 오후강은 계월과 해갑의 공모, 계월이 부린 술수와 속임수, 賈女의 거듭된 개가 종용 끝에 마침내 개가를 수락한다. 그리고 賈女가

35) <吳後姜傳>, 12면. “心若不遂, 則當一死而已. 豈可以一身事二夫, 上愧皇天, 下愧禮宗哉?”

36) <吳後姜傳>, 12면. “桂月曰, 尔之生於此地, 亦我罪也, 死於非命, 亦我罪也. 願尔避我家, 而追尔緣河北, 尔有將來之榮, 吾有進班之路矣.”

인도해온 해갑을 후강은 기쁘게 맞이한다.

후강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은 마치 봄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것과 같아서 혹은 주름을 늘어뜨린 비단 방석 위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측간의 진흙탕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는 비단 방석에 놓인 꽃으로서 진흙탕에 떨어져 섞여 있는 나를 구하셨습니다. 객사에서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게 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단서에 정신을 수고롭게 하였으니 허물을 저버린 것이 실로 많음에도 스스로 속죄할 말이 없습니다.”³⁷⁾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가문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다. 운이 좋아 비단 방석 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흙탕물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후강은 해갑에게 진흙탕에 떨어져 자취도 찾지 못할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후강의 발화는 여성의 개가 및 훼손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훼손한 두 여성 인물은 해갑의 임신양명을 돕고, 전란을 함께 극복한 뒤 해갑과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다 한낱한시에 죽는다.

19세기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대개의 훼손 여성들은 정절 윤리에서 벗어나 각자의 욕망을 추구한 인물들이기에 그 욕망은 좌절되고, <이화실전>의 봉옥과 같이 훼손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했던 인물도 있었다. 특히 <鰥夢寡記>에 등장하는 청상과부는 개가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홀아비의 우격다짐에 의해 개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억지로 술을 마시라 권한 뒤 그것을 합환주라 우기고, 첫날밤부터 과도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 이를 저지하는 청상과부를 원통하게 죽게 만든 이가 홀아비이다. 작품에서 청상과부의 죽음은 홀아비의 과도한 성적 탐닉에 대한 경계로 읽히지만,³⁸⁾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상과부의 죽음 역시 이 시기 여성 훼손에 대한 작가 인식의 일단으로

37) <吳後姜傳>, 14면. “後姜欣迎曰, 人之生於世, 若春花之散落於風前, 或落於珠簾繡茵之上, 或落於溷廁泥塗之中. 今君以繡茵之花, 求我泥滓之溷, 虛費時月於逆旅之中, 勞精神於思人之端, 負辜實多, 無辭可自贖也.”

38) 김정녀, 앞의 논문, 17~26면.

볼 수 있다.

<오후강전>은 이 시기 여타의 소설과 차별된다. 성적 욕망을 외면하고, 열녀로서 한평생을 살고자 했던 오후강은 주변인들의 공모와 속임수에 의해 마침내 훼손하고, 계월은 그런 오후강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계책을 시행한 끝에야 후강의 개가 결심을 얻어낸다. 스스로 훼손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열절을 실천하려는 여성을 결국 훼손하게 만든 계월을 통해 정절 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징후를, 내심 개가를 원하면서도 일부종사를 고집했던 후강이 훼손 후 해감을 자신의 구원자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엿볼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화실전>과 <오후강전>을 중심으로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훼손의 양상을 살피고, 정절 이데올로기에 일어난 균열과 윤리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세기 한문소설에는 성적 욕망에 솔직하고 성적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성의 훼손은 경계와 통제의 대상이거나 징치되는 등 부정적으로 서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19세기 소설 중에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훼손 여성뿐만 아니라 공모와 속임수에 의해 훼손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징치되거나 죽음을 맞지 않고 개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윤리 의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이화실전>을 비롯한 19세기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대개의 훼손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정절 윤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 욕망이 좌절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를 옹호 내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절 이데올로기에 분명한 균열을 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강전>의 경우는 정절 윤리를 고수하려는 여성 인물을 주변 인물들이 공모하여 결국 훼손하게 함으로써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이는 이 시기 가족 윤리 의식이나 정절 윤리 의식의 균열과

해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성립된 17세기 이후 여성의 정절은 가문과 국가를 지탱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그것은 평상시나 전란 중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절 이데올로기는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팽창, 확산되어 상층 여성뿐만 하층의 시비, 기녀에게도 내면화되었다. 그런데 19세기 한문소설에는 성적 욕망에 솔직하고 성적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특히 지아비를 배신하는 상층 궤절 여성의 등장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온하다. 이 불온한 여성들을 형상화한 19세기 한문소설의 존재는 여성 교육의 확산과 유교 윤리의 내면화로 일반화할 수 없는 19세기 여성들의 또 다른 면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절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해체의 징후를 이들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궤절을 통해 드러난 정절 윤리의 균열과 해체 징후가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이대형 외, 『要覽: 19세기 독서인의 잡학 요람』, 보고사, 2012.
정병호, 「<吳後姜傳> 解題 및 原文 標點」,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361~396면.

2. 논저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15~243면.
김정녀,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성 담론의 양상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7~33면.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201~230면.
유해인, 「<오후강전>에 나타난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과 그 성격」, 『고전과 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 2023, 397~433면.
이길환, 「19세기 중·장편 한문소설의 전고 운용에 대한 시론적 고찰-<오후강전>·「유생전」·「효열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53, 영주어문학회, 2023, 249~277면.
이서희,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변심과 그 의미」, 『동남어문논집』 58, 동남어문학회, 2024, 271~289면.
이선영, 「「吳後姜傳」의 敘述構造와 主題」, 경북대 석사논문, 2012.
이원수, 「남성웹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69~94면.
이혜경, 「「李花實傳」의 人物性格과 主題意識」, 경북대 석사논문, 2012.
조혜란, 「<포의교집> 여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189~223면.
진건화,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020, 69~103면.
한의승, 「<李花實傳>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33-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7~27면.

한의승, 「<吳後姜傳>의 서사방식과 인물 형상 연구」,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2, 353~382면.

한의승, 「19세기 漢文小說에 나타난 '忠·孝·烈'의 구현양상 연구」, 『동악어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133~151면.

한의승,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1.

| Abstract |

The aspect and meaning of women's loosing chastity in the 19th century Sino-Korean Novel

— Focusing on “Ihwasiljeon”(李花實傳) and
“Ohugangjeon”(吳後姜傳) —

Kim, Jeongnyeo

This study researched the aspects and meanings of women's loosing chastity in 19th-century Sino-Korean Novel with “Ihwasiljeon” and “Ohugangjeon”. Through this,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cracks and changes in ethical consciousness that occurred in the chastity ideology. In 19th-century Sino-Korean Novel, a number of female characters who are honest with their sexual desires and actively realize sexual subjectivity appear. However, apart from this, it is common for women's loosing chastity to be negatively narrated, such as punishment and death. On the other hand, in the 19th-century Sino-Korean Novel features not only voluntary and subjective loosing chastity women but also female characters who break up by conspiracy and deception appear. They can be seen as deviating from the existing ethical consciousness in that they do not receive punishment or death, but form a new family through a new marriage and enjoy a rich and happy life.

Female characters loosing chastity in 19th-century Sino-Korean Novels, including “Ihwasiljeon” try to break away from the chastity ethics of oppressing themselves, but as their desires are frustrated, they have contributed to advocating or strengthening the chastity ideology. But in the case of “Ohugangjeon”, it is revealed the fictitious nature of the chastity ideology, as people around female characters conspire to destroy female characters who want to adhere to the chastity ethics. The imagery of women's loosing chastity in 19th-century Sino-Korean Novels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s the backside of women in the 19th century who cannot be generalized due to the spread of women's education and the internalization of Confucian ethics. This is because signs of cracking and dismantling of chastity ideology can be found in these novels.

Key Words: Family ethics, passionate ethics, women's loosing chastity, Ihwasiljeon (李花實傳), Ohugangjeon(吳後姜傳)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

— 이건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

안서현**

목 차

1. 머리말	4. 장애와 질병의 미래성 박탈
2. 유전 공포와 결혼 회피의 서사	5. 맺음말
3. 가족 우생 관념의 적응과 내면화	

■ 국문초록

우생학은 흔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또는 해방 이후의 한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1960년대 국민우생법 제정을 둘러싼 담론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20세기 후반 한국에서도 우생학이 실효적인 통치술이었으며, 우생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간단히 종결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1960년대 우생학의 대중적 내면화 양상을 보여주는 이건의 『회전목마』(1966)은 인기 신문연재소설이자 베스트셀러로 대중에게 화제를 불러 모은 작품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신장애가 유전된다는 가설이 놓여 있고, 정신질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물들의 강력한 유전 공포와 결혼 회피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 가족 우생의 관념을 내면화한 이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악성 유전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재생산으로부터 배제하는 우생 관리의 실천을 통해 장래의 가족을 적정 가족으로 기획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을 제약하고자 하는 신념과 욕망을 통해 소수자의 시간성을 박탈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회전목마』의 분석적 독해를 통해,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우생적 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당대 담론과 현실을 확인하고 1960년대 한국의 대중적 (무)의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주제어: 우생학, 유전 공포, 결혼 금지, 가족 우생, 우생 관리, 우생학적 시간성, 미래 박탈, 이진영, 『회전목마』

1. 머리말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죽지 않는다』는 우생학이 과학의 얼굴을 한 채 나타난 지난 세기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한다.¹⁾ 이 책은 우생학적 신념을 지닌 한 생물학자의 시선을 통해, 1907년 인디애나 주를 시작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강제 불임화법이 제정되는 등 전국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이 전개된 과정을 비판적으로 추적한다. 수많은 사람을 ‘부적합자’의 몸으로 낙인찍고 그들의 삶을 타자화하였던 우생학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그 폭력성을 비판 받고, 또 갱신된 과학적 지식에 의해 그 기반이 약화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 이야기가 새삼 강조하는 것은 나치스 이전에 이미 광범위한 우생학의 법제화가 있었다는 사실, 즉 우생학이 “나치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²⁾ 여러 국가에서 우생학이 정부에 의한 통치 프로그램과 연동되었다.³⁾ 1960~70년대에 나치의 우생학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우생학의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처럼 우생학은 학문이자 이데올로기였으며,⁴⁾ 제도의 차원에서 운용된 통치술로서 그 힘

1) 우생학은 “정신과 육체의 양면에 있어 차세대 인류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작용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사회적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으로, 1883년 프랜시스 골턴에 의하여 창안되었다. Francis Galton,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Dent and Sons, 1908, p.17, 엄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2022, 21면에서 재인용.

2) 위의 책, 13면.

3) 김호연,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 2019, 274면.

4) 김호연은 우생학을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경계하며, 우생학이

을 발휘하였으므로, 우생학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생각보다 간단히 종결될 수 없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생학의 지식과 정책의 기원을 일제강점기 우생학 운동에서 찾았다.⁵⁾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국민 우생’이라는 목표하에 우량한 국민의 재생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⁶⁾ 여기에는 과거 우생학과 남한의 각종 제도에 영향을 미친 미국 우생학의 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린다.⁷⁾ 1961년 가족계획사업은 산아제한의 필요성 등 우생학 적용에 유력한 근거와 동력을 제공하였다.⁸⁾ 의학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민우생법을 모델로 삼아 꾸준히 우생법 도입을 논의하였고,⁹⁾ 이에 따라 1964년에 국민우생법이 발의되었다.¹⁰⁾

“다양한 함의와 포괄적 형태의 실천”으로 설명되는 과학이자 이념으로서 다층적 위상과 다단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재검토, 1890년대-1940년대」, 『미국사연구』 26, 2007, 65~66면.

- 5) 일제강점기 조선우생협회는 해방 이후 한국민족우생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지속하였다.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1930년대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의사학』 15, 2006, 137면.
- 6) 박지영·현재환은 역사적으로 ‘국민우생’이 재생산을 통제하고 유전적 요소를 관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박지영·현재환, 「한국우생학의 역사와 오늘」, 『사회와 역사』 136, 2022, 7~8면.
- 7) 김대현은 해방 이후 소개된 미국 우생학이 한국의 소년범죄 담론과 제도 형성에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음을 밝히면서, 1950년대 한국의 통치에는 식민 잔재로서의 일본 우생학과 이후 수용된 미국의 연성화된 우생학이 동시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김대현,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49, 2022.
- 8) 1961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고, 같은 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중심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홍보하였다. 박정우, 「“죽음의 문화”로서의 우생 사상과 우생학」, 『가톨릭신학』 19, 2011, 49~50면.
- 9) 현재환, 앞의 글, 71~82면.
- 10) 일본에서는 국민우생법이 1940년 공포되었고, 여기에는 정신병, 알코올 의존증, 한센병 등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종(斷種) 정책도 포함되었다. 이지형,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일 한센병 소설-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역사적 신체의 문화표상」, 『비교일본학』 39, 2017, 290면. 이처럼 국민우생법이 통과된 일본에서도 우생학적 사고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헌치백』은 이와 같은 우생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소설로 쓴 것으로, 장애인의 임신 중절이라는 모티프를 중심에 놓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존재는 우생학의 영향이 길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주시시킨다.

그리고 논란 끝에 결국 이 법의 내용을 일부 포함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1973년 모자보건법 공포를 전후한 시기를 두 번째 우생학의 전성기로서 “우생학의 재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¹¹⁾ 이 법을 근거로 강제불임시술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¹²⁾ 이 시기 국가는 가족 제도 중심 우생학의 영향에 힘입어 국민의 신체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통치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재생산 중심 우생학은 가족이라는 ‘작은’ 영역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종 우생학에 비해 덜 파괴적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이른바 ‘부적합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우생학’을 일상화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더욱 크다.¹³⁾

문학 영역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의 제 양상을 우생학의 관점에서 다시 살핀 연구가 있었으나,¹⁴⁾ 해방 이후 서사물을 비롯한 각종 텍스트에 나타난 우생학적 사고의 양상을 살핀 연구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¹⁵⁾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우생학의 생명 정치가 다양한 영역에서 관철되었음을 고려할 때,¹⁶⁾

11) 소현숙,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시술」, 『역사비평』 132, 2020, 283~284면. 사실 1965년에 이미 국민우생법안을 모자보건법안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생학의 재림”에 대해 말할 때 1960년대와의 연속선상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모자보건법 성안 保社部」, 『조선일보』, 1965. 10. 24 등 참조.

12) 현재환, 앞의 글, 56~58면.

13) 서종희에 따르면 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이혼제도의 개혁과 혼인법 개정을 중심으로 우생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종희,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3), 2010 참조. 이 재생산 중심 우생학은 인종주의와 결합한 나치 우생학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반대로 생각하기 쉬우나, 네거티브 우생학을 정당화하고 내면하는 기제로서 가족 우생학이 인종 말살 정책에 미친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관해서는 앞의 글, 349~351면 참조.

14)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 2002; 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 2004.

15) 한하운의 자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병의 치유에 대한 우생학적 사고와 제국의 시선에서 자신의 몸을 식민지화하는 표현을 발견한다. 이는 질병에 대한 낙인의 구조가 식민 지배기 우생학에서 기원하였음을 드러낸다. 한순미, 「『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自傳)」, 『사회와 역사』 94, 2012.

16) 이형선, 「일제말, 해방공간 우생학과 소년수(少年囚)를 통해 본 “착한/불량국가”-거세, 단종법, 격리, 정신병」,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013; 민병웅, 「적합한 몸의 선별과

또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통용된 우생학의 언어와 대중소설·영화 등 대중문화의 담론 역시 재생산을 관리하는 통치술과 효과적으로 결합, 대중의 의식·무의식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가정할 때, 이 연구 영역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텍스트는 이건의 장편소설 『회전목마』다.¹⁷⁾ 혈족 간 결혼이 질병 소질의 유전으로 이어졌다는 가설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한 이 소설은,¹⁸⁾ 1966년 한국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장편소설 모집 당선작으로, 우선은 높은 고료와 젊은 나이에 당선된 작가의 신상과 관련하여 화제를 모았다.¹⁹⁾ 이후 이 작품은 1967년 9월 19일부터 1968년 6월 16일까지 『한국일보』 지상에 연재된 후 196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²⁰⁾ 이듬해에는 유현목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²¹⁾ 1974년 서울신문연구소

집단 사이의 위계화-1950~60년대 한미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혼혈아의 몸에 대한 지식 생산과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5, 2022.

- 17) 송인화는 이 소설에서 정신병을 가진 인물들의 경로가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소설의 서사가 당대의 젠더화된 정신병리 지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송인화,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적 지식과 성애화된 '내면」, 『여성문화연구』, 2020.
- 18) 박경리는 당시 『회전목마』를 한국일보 당선작으로 결정한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회전목마』에 대해 제한적인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남긴 바 있다. “「回轉木馬」는 한마디로 말해서 魅力이 있었다. 단숨에 읽고 난 뒤의 어두운 氣分, 鮮명한 畫面처럼 넘어가는 描寫, 豐饒한 知識과 詩感, 그러나 그것이 결함으로도 느껴지는 모순은 무슨 까닭일까. 피, 卽 原罪意識의 執念은 어두운 終末을 가져오는데 그 피의 意識은 多分히 圖式化되어 自然스런 흐름을 잃었으며 鮮明함은 그 解明함으로 인하여 斷絶된 한 「커트」의 연속같이 묻어나는 여운을 잃었고 풍요한 知識과 詩感은 설자리가 좁아 거북했다. 이같이 長點이 短點으로도 볼 수 있는 混亂속에 當選으로 된 것은 마치 이 作品의 催眠術에 걸린 結果같기도 하다.” (박경리, 「최면술 같은 頭腦產物」, 『한국일보』, 1966. 8. 16.) 이러한 심사평은 소설에 지식과 담론이 승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 19) 「스케치 解放동이 百萬원 長篇當選」, 『동아일보』, 1966.8.18.
- 20) 「邦畫界 가쁜 숨통 틀 「文藝」 畚 試圖」, 『동아일보』, 1970.5.20.
- 21) 단행본으로 출간된 『회전목마』가 7~8주 연속 베스트셀러였다는 작가의 인터뷰를 찾아볼 수 있다. 「文靑의 꿈 찾아 인생 2모작 시작해요」, 『서울신문』, 2009.7.21.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090721029021> (최종접속일자: 2024.12.31.)

의 독자 대상 조사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문연재소설로 꼽히기도 한 것을 보아, 이 소설의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런데 이 소설의 서사를 분석해 보면, 당대에 통용되던 우생학적 지식과 편견을 적극 설파하고 있음은 물론, 유전에 따라 인물들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행로를 결정하는 우생학적 시간 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작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영우 네 남매는 병의 유전이 의심되거나 미래의 이상 소질 발현에 대한 유전 공포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미래를 차압 당한다.

본 연구는 우생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학의 시선을 참고하고자 한다.²³⁾ 장애학은 불구의 시간을 재현하는 비장애중심주의의 시선을 문제 삼는다.²⁴⁾ 재생산을 통해 다가올 ‘건전한’ 국가의 미래를 상상하는 우생학의 관점은 장애와 질병에 대한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이들의 미래를 박탈한다.²⁵⁾ 이상화된 기준에 맞지 않는

하지만 1960년대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1975년 3월 11일 국내 소설 5위, 3월 25일 국내 소설 4위, 1975년 4월 15일 국내 소설 3위라는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 「수週の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5.3.11.; 1975.3.25.; 1975.4.15.

- 22) 서울신문연구소에서 간행한 월간 『신문평론』 1974년 7월호에 실린 「신문소설 얼마나 읽히나」라는 글에서 대학교수, 회사원,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문연재소설을 읽는 동기에 대한 응답은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를 대변한다”(134명)가 “인간의 본성과 심층을 탐구해 준다”(118명), “역사와 시대상을 알 수 있다”(114명), “현대의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대변해 준다”(100명)보다 많았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소설을 써 달라는 질문에 전년까지 연재된 『별들의 고향』을 꼽은 사람이 68명으로 많았으나, 연재가 끝난 지 7년이 지난 『회전목마』를 꼽은 사람도 3명 있었다. 편집부, 「신문소설 얼마나 읽히나」, 『신문평론』, 1974.7, 57~62면.
- 23) 실제로 1957년 민법수정안 논의가 있었을 때 근친혼 금지 명문화에 대해 우생학적 관점에서의 찬반이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태영, 「同姓同本の結婚 (上), (下)」, 1957.4.10.~4.11.; 백대현, 「近親結婚과 遺傳 (上), (下)」, 『동아일보』, 1957.11.27.~11.28 등이 있다. 신민법은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1958년 공포, 1959년 시행되었다. 이때 민족 우생 등 사용된 용어와 논조는 일제강점기 단종법 논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제22권 2호, 2013, 541면 참조.
- 24) 불구자(cripple)라는 말에서 파생된 cripp은 퀴어(queer)와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비하적 통념을 자궁심의 원천으로 전유한 용어로서 1980년대 이후 전복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엘리슨 케이퍼,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 봄, 2023, 31면.
- 25) 최애순은 1960년대 사회적 억압이 개인의 죄의식의 차원으로 잠재함으로써 문화적

개체를 미래에 도래할 결핍과 위협, 즉 개인의 결핍이자 공동체의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그러한 개체를 몰아낸다.²⁶⁾ 이러한 시간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이 작품의 작가와 당대 독자 공동체가 공유한 우생학적 (무)의식의 한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2. 유전 공포와 결혼 회피의 서사

우생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랜시스 골턴이 소설 『캔트세이웨어 우생 대학(The Eugenic College of Kantsaywhere)』에서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⁷⁾ 우생학은 단일한 관념이라기보다는 시간성의 상상과 재현을 통해 그 핵심이 포착될 수 있는 사상이기에 서사의 형태로 설파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우생학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체의 이야기다. ‘어디에도 없는’ 씨(Mr. Neverwas)의 기부로 만들어진 이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Kantsaywhere)’ 공동체에서는 대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구성원들의 재생산을 관리한다. 교육보다 평가에 중점을 두는 이 대학은 다양한 부문에서 입학생들의 신체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만 결혼 후보자가 된다. 부부는 남녀 점수의 합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 자녀의 수가 결정

표상 공간에서 정신질환자가 공포의 코드로 포착되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 시기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인 것과 착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 - 이청춘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2019.

26) 위의 책, 같은 면 참조. 이 장에서 저자는 불구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와 질병의 미래성을 상상하며 시간을 정의하고 재현하는 규범적인 방식에 저항하고자 한다.

27) 염운옥, 앞의 책, 10~11쪽. 이 책에는 골턴의 소설 제목이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제목은 소설 원문을 보고 수정하였다. 또 내용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새로 정리하였다. 런던 켈리지 대학 도서관의 아카이브 소장 판본과 이 판본의 연필 메모를 적용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된 영문 판본을 참고하였다. Francis Galton, *The Eugenic College of Kantsaywhere*, University College London, Golton Collection, 1910; Francis Galton and Lyman Tower Sargent, “The Eugenic College of Kantsaywhere”, *Utopian Studies*, Vol.12, no.2, 2001.

된다.²⁸⁾ 이 이야기는 우량한 유전자의 보존과 부적합한 유전자의 도태라는 우생학의 이념이 실현된 가상적 공동체를 보여준다.²⁹⁾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때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지만, 결혼만은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노동 구역에 보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의 삶은 허용되는 대신, 결혼과 출산을 통한 재생산 즉 미래로의 연결은 완강하게 금지되는 것이다.

우생학적 서사의 또 다른 예로 꼽히는 선전 영화 <인간의 유전(heredity in man)>(1937)에서도 우생학적 시간성이 두드러진다.³⁰⁾ 이 영화는 열일곱 남매 중 일곱 명이 정신장애인인 한 가족의 가계도와 그들의 현재 모습을 찍는다. 그리고 이들의 가계도를 분석하여 정신장애가 없는 부모에게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대를 뛰어넘는 유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카메라는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진행자는 그들이 시설에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나 그들과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결과는 그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이 건전한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인종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끝난다.³¹⁾ 장애인들의 현재를 시설화하는 한편 미래를 장애가 근절된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캔트세이웨어 우생 대학』과도 유사하다. 현재가 유전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철저한 유전자 결정론은 개인과 삶의 가치를 유전의 문제로 환원한다.

28) 이야기는 이민자인 화자와 결혼 상대자인 ‘모든 면에서 훌륭한’ 양(Miss. Allfancy)이 후보자를 우생학적으로 구별하는 시험 과정을 들려준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화자는 통과 점수를 받는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원본이 공개되기 전 후손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알려져 있다.

29) 골턴의 이러한 상상은 결혼 전 진단 제도 도입 논의로 이어졌으나, 도입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서종희,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4권 3호, 2011, 337~338면.

30) 염운옥, 앞의 책, 10~11면.

31) 이 영화는 다음의 주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si=P44nmFYETLL87Js&v=IPzyMzFLngA&feature=youtu.be>. 최종접속일자 : 2024.5.15.

『회전목마』의 「作意」에서 작가 이진영은 “여기 원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군(一群)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유전(遺傳), 즉 자기의 탓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의……, 결국은 아담과 이브라는 조상을 가진 탓으로 피(血)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무거운 철쇠에 얽매어 살아야 한다.”라고 썼다. 근친혼의 결과로 질병이 유전된다는 통념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다. 그리고 “근친혼의 경우 악질 유전병의 발생빈도가 크다”고 명시하고 있다.³²⁾ 작품 안에서도 “근친간의 결혼일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열성(劣性) 유전자가 빈번히 나타난다”(257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열성 유전에 공포는 서사의 중핵을 차지한다. 이 공포의 감정 속에서 근친혼의 과거는 무거운 업보로, 그들의 후손의 미래는 예견된 비극으로 재단된다.

이 이야기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 다시 말해 『회전목마』는 사춘 간에 결혼한 형준과 은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 영학, 영우, 경아, 송아 남매, 즉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설 첫머리에 형준과 은미의 연애담은 삽화로서만 제시된다. 근친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았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면서 우생학적 사상에 기반을 둔 1958년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질문하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³³⁾ 그러나 『회전목마』는 이들의 자녀 세대의 삶을 그린다. “다음은 누구일까? 나나 형, 경아, 아

32) 이상 이진영, 「作意」, 『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6~7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기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일보』 신문연재본 및 삼성출판사본(이진영, 『회전목마 (I), (II)』, 삼성출판사, 1975) 등 다른 판본을 함께 참고하였으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인용은 초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33) 소현숙에 따르면 1960년대 신민법 공포(1958) 이후 금지된 동성동본 혼인에 대한 재론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가시화로 다시 금혼 규정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성동본금혼은 전통에 대한 옹호만이 아니라 우생학적 두려움의 환기에 의해 신민법(1958)에서 하나의 규정으로 입법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전통적 규범의 해체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가시화로 거듭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그 신민법의 근거가 되었던 우생 사상도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환기되었다. 소현숙,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1950~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51호, 2016, 207면; 209~213면. 이 소설에서도 형준과 은미의 이야기를 통해 입법 이전의 혼인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니면 그 밑의 자손에서 뜻하지 않은 순간에 번뜩 번뜩 나타나겠지.”(79쪽)라는 영우의 생각이 바로 이런 공포를 드러낸다. 송아에게는 은미와 동일한 질병이 발현되는데, 나머지 인물들 역시 자신 또는 자녀에게 질병이 유전되리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 제목 ‘회전목마’는 발병이나 유전 공포 때문에 타인과 거리를 두는 인물들의 심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회전목마』는 이처럼 자녀 세대의 인물들 어린 송아를 제외한 영학, 영우, 경아 삼 남매가 모두 극도의 질병 유전 공포를 겪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의 악성 유전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이러한 유전에 대한 공포를 애정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자신의 결혼을 금기로 삼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나간다. 영학은 수정과 애정 없이 체념적인 동거 생활을 한다. 영우는 유주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용할 의지를 보이는 소라의 진실한 애정도 거부한다. 경아는 어머니와 송아의 발병 이후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애정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상만의 애정을 거부하고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선택한다. 세 사람 모두 유전 공포를 애정에 대한 거부로 연결한다는 점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가 폐쇄되는 한정된 시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설에서 이들의 유전 공포가 애정 관계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이유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시대의 중요한 징후다. 이들은 서로 이유를 알려주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다. 제목인 ‘회전목마’의 이미지, 즉 영우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유주의 서로를 향해 애정을 부인하는 동심원을 그리는 “평생을 돌아야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을 회전운동”(282면)은 이러한 애정의 거부에 대한 테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저 산소에 잠들어 계신 어머니는 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질투망상이라는 정신병을 앓으시다 말예요. 그리고 끝의 동생은 백천데 거기에 정신병까지 겹쳐서 지금 청량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흐르는 숨길 수 없는 피-이것이 지금도 전 가족의 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누구의 탓도 아니면서 가족 개개인을 철쇄로 얹매

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철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죠. 죽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을 강하게 드러난 원죄의 업보라고 봅니다.”

(중략)

“피, 유전……, 무서운 일입니다.”

영우는 다짐하듯 중얼거리고 나서, 흩어진 상념을 한 곳으로 모아 짐중시키며 소라에게로 뺨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바로 유주의 절교장을 받고 나서도 그 이유를 캐내려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109~110면)

이처럼 영우는 어머니의 발병 이후 유주에 대한 애정을 포기했다고 선언한다. 질병의 유전 가능성은 간단하게 암시되는 데 그친다. 소라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진다고 위로하자, 이런 그녀의 태연한 반응은 “아직 내 핏줄 속에 붉은 피가 아니라 탁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111면)이라고 영우는 생각한다. 그녀 역시 자신과의 연애에 커다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유주의 아버지 범익도 그녀에게 결혼 금지를 명령한 이유를 영우에게 추상적으로 전달한다. “그런데 자네를 사랑하게 된 거야. 무척 고민하더군. 그래 내가 교제를 중지하라고 타일렀네. 개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 자네를 위해 비켜선 거지. 독일루 간 건 일종의 도피야.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280면)라는 설명에는 범익이 교제 중지를 권유한 까닭과 유주가 애정을 단념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처럼 영우와 유주, 그리고 소라를 비롯한 이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비극을 연출하는데, 이 비극이 필연적인 것이 되는 배경에는 우생학적 사고에서 출발한 결혼 금지 원칙 이외에 다른 것이 놓여 있기 어렵다. 그러나 소설은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³⁴⁾ 이 생략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은 이 정도의 암시로 당시 독자가 이 소설적 정황을 이해할 수 있었

34) 소현숙은 우생학적 상식과 우생결혼에 대한 관심이 1960~70년대에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소현숙,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 132, 2020, 268면.

다는 사실이 곧 우생 결혼에 대한 대중적 통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물의 유전 공포가 결혼 금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데는 우생 결혼이라는 관념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회전목마』는 근친혼을 한 부모의 자녀 세대와 그들이 겪는 유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악성 유전의 가능성에 의해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제한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우생학적 시간성을 서사에 도입하고 있다. 개별적 신체의 다층적 시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한 규범적 시간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3. 가족 우생 관념의 적층과 내면화

『회전목마』에서, 네 자녀들은 은미의 정신분열증 발병 이후 그 질병의 유전 가능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부모의 근친혼 사실을 알기 전부터 자신에게 정신장애가 유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달린다. 이처럼 유전이 질병을 결정하는 원인이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우생학적 사고와 결합하기 쉽다. 여기에 근친혼이 악성 유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통념이 더해진다면 더욱 공포가 강력해지는 것이다.³⁵⁾

이 소설은 상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유전만큼이나 성장과정과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미국식 우생학을 통해 절대적인 유전의 영향을 지지하는 영우의 관점과 충돌시키고 있다. 「작가의 말」에 “정신병은 구미의학계에서는 유전이라 단정하고, 미국의학계에서는 인격형성 과정상의 결함으로 보고 있으나 유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힌 통념”(6~7면)이라고 밝혀둔 것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당대 한국의 대중에게 여러 차원의 우생학 지식이 적층되어 내면화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청량리뇌병원 의사인 상만은 미국에서 정신과를 수학

35) 다른 질병보다 정신장애를 문제 삼은 것은 1960년대 한국에 확산하던 가족 우생학 담론과 연관된다. 우생 결혼의 관점에서 정신장애는 중요한 문제였다. 영국에서는 1937년 정신장애를 유전 질병으로 보아 정신질환자를 이혼 사유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 여러 주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자의 혼인과 출산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서종희, 앞의 글, 337~349면 참조.

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³⁶⁾ 문제는, 이 소설에서 상만의 정신의학적 지식은 영우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어머니의 정신병이 유전되어 자신에게도 그 소질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영우에게, 정신병이 반드시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우는 정신병을 유전과 필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각을 고집한다.

나흘 후 병원을 찾아갔을 때 상만은 그에게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을 가르쳐 주었다.

“질투망상이야.”

“음-. 질투망상…….”

“흔한 병은 아니지.”

“유전이겠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젖은 옷에서 맡았던 심상치 않은 냄새, 그것은 피의 냄새였다. 어머니와 송아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자신.

어쩔 수 없는 피의 의식이 강하게 안겨왔다.

“정신병이라구 모두 유전은 아닐세.”

“송아, 송아를 보게.”

“지나친 비약을 하는군. 정신병은 지금 구라파에선 유전적 소질을 중요시 하구 있지만 미국에선 성격형성과 정상의 결함을 중요시하구 있네. 어느 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야. 더구나 송아는 정신박약이니까 꼭 연관시

36) 1962년에 발간된 미국 유학 출신 청량리뇌병원 의사 최신헤 박사의 수필집 『심야의 해바라기』(정음사)는 3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공교롭게도 『회전목마』 속 의사가 자칭 대통령에게 문교부장관감으로 지목 받는 이야기는 『심야의 해바라기』에서 최 박사가 조선천황을 자칭하는 환자에게 보건의대신 사령장을 받은 에피소드와도 유사하다. 최신헤, 위의 책, 30쪽. 따라서 이견영이 『회전목마』를 쓸 당시 이 책을 읽고 일부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환에 따르면 최신헤 박사는 중등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우생학을 건전한 국가 발전의 필수 학문으로 소개하였던 인물이다(현재환, 앞의 글, 62면). 이 책 역시 유전 결정론을 견지하는 대신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미국식 환경론적 우생학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 책의 존재는, 미국 우생학이 의학적 지식의 형태로 국내에 수용되어 대중화된 보건 교양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미국 우생학의 환경론적 특징에 관해서는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137~145면 참조.

킬 순 없어.”

“하지만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질만은 유전되는 것 아닌가?”

영우의 눈초리가 강하게 상만을 쏘아 보았다. 동정하지 말라는 듯이.

“그것마저 부정하진 않겠네 그렇다고 그런 일에 강하게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모든 걸 간단히 흘려 버리는 법을 배워.” (68~69면)

위 장면에서처럼 상만은 정신장애와 성격 형성 과정 사이에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영우는 정신장애와 유전의 절대적 관계에 대한 신념을 고집한다.

또 상만은 또 다른 환자인, 약혼자의 어머니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장차 자기의 아이들에게도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내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다. 사내는 이러한 가족력을 “무거운 짐”이나 “불행의 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은 반드시 유전이라구 할 수는 없습니다. 가설에 불과하죠. 가설의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구 있습니다.”

단언하듯 말하면서, 상만은 이것이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하여튼 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구 인생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러 불행의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상만은 앞에 앉은 사내에게 야릇한 분노를 느꼈다.

입에 문 담배의 필터를 지그시 깨물었다. 무심히 시선이 가 머무른 책상 위의 글라디올러스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파혼하십시오.” (132면)

상만은 결국 사내에게 본인이나 약혼자를 위해 파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말해버린다. 이 에피소드 역시 유전에 대한 강력한 통념으로 인해 지식이 무력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³⁷⁾ 상만은 유전 결정론 앞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상만

37) 위 장면은 4장에서 논의할 결혼 금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영우를 비롯한 인물들이 애정으로부터 도피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이 장면으로 대신하고 있다.

은 자신의 연정의 대상인 경아도 설득하지 못한다. 경아 역시 유전에 의한 발병 공포 때문에 스스로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며, 상만의 애정도 거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우생학적인 것이다. 따라서 상만과 다른 이들의 생각의 차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오랜 시기에 걸쳐 적층된 복수적인 우생 관념의 지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영우는 또 한 사람의 영향으로 미국 우생학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전상건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는 대중 우생학, 즉 과학보다 신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운동으로서의 우생학이다. 영우는 『미술시대』 기자로서 인터뷰 상대인 유전성 난청을 앓는 조각가 상건을 만나게 된다.

“전 선생님은 왜 여지껏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우가 물었다.

“전 우생학적으로 보아서도 저같은 二 세를 탄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죄악일 겁니다. 그래 전 아예 단종수술을 받았죠.”

전 상건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과거 二차대전때 나치는 ‘유전병자손방지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구 정신병자에게 강제루 단종수술을 실시하구 그들의 일부를 안락사(安樂死)시킨 적이 있습니다. 안 형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는 순간 술기가 확 깨었다. 무언가 가슴에 와 쿵 부딪치며 바스라졌다. 그 파편들은 가시를 돋우며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어머니와 송아의 얼굴이 퍼뜻퍼뜻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이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대범하게 털어놓는 전 상건씨가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정신병은 유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고 하던 상만의 말이 믿고 올라왔다.

“그건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영우는 자신의 들끓는 내부와는 달리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죠. 과학의 발달이 이젠 인간까지 규격에 맞도록 찍어 내겠다는 아이러닙니다. 허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일면이 있거든요.”

“.....”

“미국 뉴욕주의 아다주크 가계(家系)가 정신병적인 악(惡)의 씨로 유명한데 그의 많은 자손 거의 전부가 정신박약자, 매춘부, 범죄인이 되어

미국 사회를 괴롭힌 적이 있었죠. 그 밖에 비슷한 예루 카리카그의 가계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들을 따져 보면 우생학이란 건 필요한 도덕이나 종교일지도 몰라요.” (152면)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주크나 칼리카그 가계에 관한 이야기는 더그데일(Richard L. Dugdale)의 『주크 가: 범죄, 빈곤, 질병, 그리고 유전 연구』(1877)와 고다드(Henry H. Goddard)의 『칼리카그 가』(1923)이라는 두 권의 책에 소개된 것이다. 이 두 권의 책은 각각 악성 형질의 유전이 근친혼이나 또 다른 악성 형질의 소유자와의 결합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에서 대븐포트와 같은 학자를 대표로 한 우생학의 대중화 시대를 이끈 중요한 저서들이었다.³⁸⁾ 이 두 권의 책에 소개된 것처럼 통계학적이고 실증적인 사례와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과, 우생학을 지식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대중 교육과 입법화 추진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 대븐포트 우생학의 특징이다.³⁹⁾ 미국에서 유전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대븐포트 계열의 우생학은 1959년 범죄의 유전을 다룬 논쟁적인 영화 『악의 종자』가 개봉되어 화제를 불러 모으면서 국내에도 조명되었다.⁴⁰⁾ 그의 우생학을 국내에 소개한 글 역시 범죄나 빈곤이라는 사회적 특질도 유전된다는 신념을 표명하면서도, 범죄자가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죄자의 자손이 유전적 소질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범죄적

38)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는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단비, 2020, 145~152면 참조.

39) 김호연, 앞의 책, 148면.

40) 이 이야기들이 국내에 소개된 계기는 1959년 미국 영화 <악의 종자(Bad Seed)>가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 것이었다. 범죄자의 피를 물려받은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범죄가 유전된다는 관념을 서사화한 이 영화는 현재는 범죄 관련 영화의 고전 반열에 들어 있으며, 국내 소개된 당시에도 대중의 큰 관심을 촉발하였다. 관련 기사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緻密한 演出設計」, 『조선일보』, 1959.3.17.; 「本能的인 母性愛의 盲點」, 『동아일보』, 1959.3.24.; 「遺傳問題를 假定『惡(악)의 種子(종자)』」, 『동아일보』, 1959.3.25.; 「血族結婚과 遺傳」, 『동아일보』, 1959.3.26.; 「惡의씨와 遺傳(上), (下)」(『조선일보』, 1959.3.26.~3.27. 이 밖에도 영화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우생학적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 「인간개조론」이 총 5회에 걸쳐 실리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59.7.8~7.12.

영향에 쉽게 지배될 수는 있다는 견해를 펼침으로써 표면상의 중립성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⁴¹⁾ 그러나 강력한 근거와 사회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대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다. 이 무렵 국내 여성지에서도 교양과 상식의 차원에서 우생학의 지식이 소개되곤 하였는데, 1972년 『신여원』의 ‘우생학 리포트’에서도 두 가계 조사의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우생 결혼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⁴²⁾

이처럼 『회전목마』는 미국의 우생학과 그 영향을 받은 나치스의 극단적 우생학 정책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⁴³⁾ 상건은 두 가계의 사례를 들고, 이어 나치스의 우생학 정책까지 거론함으로써 네거티브 우생학, 즉 생명의 선별을 통해 유전적으로 부적합한 개체를 도태시킨다는 적극적인 우생학의 신념을 설파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이 신념에 기반하여 스스로 단종수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가족 우생 관리에 대한 영우의 생각을 자극한다. 영우가 상건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을 앓는 송아를 떠올리는 것은 그가 상건의 절손에 관한 신념을 자신의 개인적 맥락과 연결, 구체적인 가족 우생을 기획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생학을 내면화한 인물, 즉 우생주의자 인물을 통해 『회전목마』는 영국에서 발원하여 미국에서 대중화하고 독일로 옮겨온 우생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데올로기이자 통치술의 대변자로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의 우생학적 관념은 여러 영향원으로부터 중층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개인에게 내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 모종의 우생학 프로그램의 실천을 구상하기에 이르는 중심인물의 내면은, 당대 가족 우생의 관념이 지식과 교양의 차원에서만 통용된 것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41) 「惡의씨」와 遺傳 (上), (下)」(『조선일보』, 1959.3.26.~27.

42) 최형길, 「근친결혼」, 『신여원』, 1972년 2월호, 126~129면.

43) 이와 같은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김호연, 앞의 책, 163~164면 참조.

44) 네거티브 우생학과 포지티브 우생학에 대해서는 앤 커·톰 셰익스피어 공저, 『장애와 유전자 정치』, 그린비, 2021, 29면 참조.

4. 장애와 질병의 미래성 박탈

질병과 장애는 시간적인 용어와 함께 개념화되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후천적’, ‘예후/진단’, ‘발병·손상 이전/이후’, ‘(정상적인)발달/지연’, ‘만성적/일시적’ 등의 말은 기준이 되는 시간성 바깥에 놓이는 조건을 일컫는다.⁴⁵⁾ 그들의 미래는 치유를 향해 나아갈 때만 의미를 갖는 치유적 시간의 틀 속에서 이해된다. 현재는 긴급해지고, 과거는 현재의 질병을 야기한 원인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며, 미래는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서만 의미를 갖는다.⁴⁶⁾ 그들의 미래성(futurity) 즉 “어떤 존재 및 집단에 내재된 미래에 대한 충동, 또는 그들이 지향하거나 희망하는 미래의 성격 및 속성”은 이처럼 정상성을 중심으로 장애를 해석하는 틀 안에서 제약된다.⁴⁷⁾ 이러한 시간성에 저항하는 장애학에서는 장애가 근절되고 장애인인 사라진 미래를 지향하는 문화와 “장애가 있는 미래는 아무도 원치 않는 미래”라는 인식에 저항하여 다양하고 개방적인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상상을 기획한다.⁴⁸⁾

『회전목마』는 이와 같은 관점의 반대편에서 특정 주체들의 미래성을 제약된 것으로 재현하고 집단의 미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 소설에서 송아에 대한 서술은 그녀의 삶을 비극적으로 그리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몇 가지 시간적 특징을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이즈음 송아의 정신상태가 이상해져 간 것은 별로 기이하거나 급작스런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송아에 있어 묵직하고 견고한 마음의 기둥이었다. 송아의 미숙한 의식과정은 오직 어머니란 매개체를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자신의 깨이지 못한 머리를 기댔 아무 것도 없었다.

포근히 감싸 주는 사랑과 인도(引導)를 잃어버린 정신박약아는 조종자를 잃어버린 피에로와 같은 것이다. 결국 송아의 가슴에 스산한 냉기가

45) 엘리스 케이퍼, 앞의 책, 81~82면.

46) 위의 책, 110면.

47) 같은 책, 31면.

48) 같은 책, 32면.

스며들고, 그녀는 황량하기만 한 벌판에 홀로 서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불안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송아의 변화는 소리없이 다가왔다.

나사못이 빠져 버린 기계처럼 허전한 그녀의 머리에 어머니에 대한 갈증의식은 환각(幻覺)과 환청(幻聽)이란 분열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77면)

위에서 송아의 변화는 그녀의 ‘미숙’의 양상이자 그녀가 의존하던 대상을 ‘상실’한 결과로 표현된다. 그녀의 시간은 ‘황량’하고 ‘불안’한 것으로 간주된다.⁴⁹⁾ 이처럼 그녀의 현재를 결핍으로 보는 인식은 그녀의 미래를 비판하고 그녀를 집단, 즉 영우 가족의 미래를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데로 나아간다.

소설 속 서사의 절정에는 송아가 영화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적 살해 사건이 놓인다. 송아는 스스로 체념과 도피를 선택하는 남매들과 달리 타의에 의해 삶의 가능성이 차단된다. 영화는 “송아같은 구차한 삶을 더 유지해서 무얼 하는가?”(238면)라는 질문과 함께 그녀의 삶을 끝맺는 친족 살해의 비극을 저지른다. <인간의 유전> 속 이야기에서처럼, 질병이 있으면 불행한 삶이라는 우생학의 전제가 답습되고 있다.

소금을 공급치 않아 포로들을 말려 죽인 나치스, 안락사(安樂死)란 명목 하에 정신병자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은 나치스, 동생의 목을 조른 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송아의 죽음을 기도하던 자신-이것들 사이엔 도대체 얼마만한 거리가 있는 것일까? (264쪽)

영우는 위와 같이 탄식하며, 송아를 죽인 영화에게 공범자 의식을 느낀다. 그가 송아의 정신분열증 발병 이후 “이젠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송아, 그 다음 누군가가 또 따르겠죠. (중략)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돌아가시

49) 우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범주 중 하나가 바로 정신박약이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족력이 추적되고, 시설화되고, 동료 시민들로부터 분리되고, 불임을 강요 받고, 입국이 금지되는 등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했다. 앨리스 케이 퍼, 앞의 책, 92~93면.

구, 동생이 정신병으로 입원을 해도 형님은 아예 집안 사정을 외면한 채 시험 관만 흔들고 계십니다. 형님은 장남입니다. 집안 비극을 몸소 짊어지거 거두어 들여야 할 몸입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집안 일에서 한 걸음 비켜서려구 하십니다.”(82~83면) 하고 영학을 자극했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영우는 영학이 송아를 사랑했으며, 그러한 까닭으로 살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검사에게 항변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위의 질문은 상건이 그에게 했던 것, 나치스의 정책에 부정할 수 없는 일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과도 같다. 처음 상건의 말을 영우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 나치스의 반인륜적 범죄의 원천과도 동일한, 삶에 대한 위계적 판단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실제로 그는 송아를 보면서 “저런 순진 무구한 아이들을 나치스는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것이다”(173쪽) 하고 탄식한 적도 있다. 결국 그는 송아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아의 삶을 불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삶에서 미래성을 박탈한 것이다. 이는 혈통에 의해 인간의 가치와 행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우생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각각 집안의 장남과 차남인 영학과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우생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권 의식과도 관련되어 있다.⁵⁰⁾ 앞서 상건의 불임수술과 단종법에 대한 말을 듣고 영우가 어머니와 송아를 떠올린 장면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우생의 결과가 어머니에게서 딸로 유전되고, 부권은 이 유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 소설의 설정과 전제는 가부장이 가족의 우생을 관리한다는, 우생적 사고와 부권적 통치(무)의식의 결합을 보여준다. 당시 국민우생법안이 악성 유전병의 근절을 위한 임신 중절 합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떠올릴 때,⁵¹⁾ 이 시기에 활성화되었던 가족 우생 관리의 상상력에 이 서사의 창작과 향유 역시 기대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⁵²⁾

50) 이러한 남매의 불행이 형준과 은미의 근친혼으로 비롯된 것이라 여긴 형준은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을 택한다. 음주 후의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자기의 한쪽 팔을 못 쓰게 만든다. 이러한 서사적 징벌은 근친혼을 죄로 여기는 신념을 표현한다.

51) 「可否 임신중절 국민우생법안 지상 공청」, 『동아일보』, 1964. 3. 11.

52) 일본의 국민우생법 역시 통과 당시에도 우생학적 혼인 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일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영우는 자신의 피가 다른 이들과 같은 붉은색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면서도 송아의 삶에 대해 다시 질문하지는 않는다.⁵³⁾ 이러한 결말은 영우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우생적 사고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의 시대적 한계를 드러낸다.⁵⁴⁾

5. 맺음말

우생학적 관념과 그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의 중요성은 지난 세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간 이후 에야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국민우생법은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김호연, 앞의 글, 287면.

- 53) 영우가 독일에서 유주의 묘소 앞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고는 비로소 자신의 피가 붉은 색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회화 작품 <회색의 피>의 완성된 형태를 떠올림으로써 피로 상징되는 유전이라는 관념적인 주제에 천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하게 될 것으로 암시된다.
- 54) 이 무렵 박경리의 『파시』(1964) 역시 결혼 금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이후 『죄인들의 숙제』(1969)에서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이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모계 혈통에서 나타나는 유전병이 부권적 가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제과 결혼 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이견영의 『회전목마』와는 많이 다르다. 『죄인들의 숙제』의 강은식도 절손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영우와 유사하다. 그는 후손을 낳지 않기 위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결혼할 마음이 없다. 일본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애정의 상대였던 윤희련과도 자연스레 결별한다. 희련은 “우린 서로 무한히 찾았음에도, 찾다가 서로 만났음에도 손이 닿질 못했다. 우린 꼭 같은 존재, 꼭 같은 분신 영원히 궤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의 유성이다”라고 독백한다. 이러한 줄거리는 『회전목마』와도 유사하지만, 이견영이 절손을 고독한 운명을 예비한 천형으로 보는 것과 달리 박경리는 이러한 결말을 이끈 은식을 ‘죄인’이라 부르는 은애의 일갈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대 잇기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남성적인 질서이다. 그러한 집착에서 비롯된 애정의 금기는 결국 희련의 소외를 낳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몇 년 안팎으로 쓰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시각의 변화를 통해, 이 시기가 문학적 서사에 대한 우생학적 통념의 재현과 극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박경리의 『토지』 서사에서 우생학의 극복 논리를 살핀 연구로 정실비, 「반우생학적 서사의 창안과 연민의 능력-『토지』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22, 2021가 있다.

의 동상이 철거되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서야 우생학의 역사는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과학자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었던 것처럼, 우생학의 관념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과 “우생학의 재립”까지 이어졌는지 살피고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1960년대에 우생학이 통념이자 교양, 그리고 캠페인의 차원으로서 존재하였으며, 가족 우생의 관념이 대중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당시 인기 신문연재소설인 이견영의 『회전목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당시의 독서 대중은 유전적 질병과 애정의 금기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였고, 작가 역시 정신분열증을 앓는 인물의 서사적 운명을 통해 그녀의 미래성을 박탈하는 선택을 통해 통념적 차원의 인식을 드러냈다. 『회전목마』는 이처럼 대중의 통념에 기대었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치명적인 선택을 감수하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담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시간성을 다루는 서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우생학의 관념이 통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해방 이후 한국문학에서 또 다른 문제작의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가족 우생학을 비롯한 일상화된 우생학 통치가 서사와 결합한 방식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오늘날 경쟁 논리나 능력주의 담론, 혐오 문화의 근저에 여전히 생명의 위계에 기반한 우생의 관념이 놓여 있으며, 자유주의 우생학의 등장은 또 다른 위협으로서 생명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다양한 시간성의 상상력 박탈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⁵⁵⁾ 따라서 ‘1960년대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우생학과 문학의 관계를 재구하는 비판적 계보학의 연구는 ‘박탈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학문적 실천으로서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55) 오늘날 자유주의 우생학은 생명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체들이 끊임없이 각자의 신체를 관리하고 능력의 향상을 꾀하도록 하는 자본의 통치술로 작용한다. 자유주의 우생학에 관해서는 황지성, 「'불능'이 되는 몸」, 『젠더와 문화』 10권 2호, 2017, 260~262면. 국가 정책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욕망의 내면화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우생학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2019, 155면.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단행본

이건영, 『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이건영, 『회전목마 (Ⅰ), (Ⅱ)』, 삼성출판사, 1975.

최신해, 『심야의 해바라기』, 정음사, 1962.

Galton, Francis, *The Eugenic College of Kantsaywhere*, University College London, Golton Collection, 1910.

• 기명 기사

박경리, 「최면술같은 頭腦產物」, 『한국일보』, 1966.8.16.

백대현, 「近親結婚과 遺傳 (上), (下)」, 『동아일보』, 1957.11.27.~11.28.

이태영, 「同姓同本の 結婚 (上), (下)」, 1957.4.10.~4.11.

최형길, 「근친결혼」, 『신여원』, 1972.2.

편집부, 「신문소설 얼마나 읽히나」, 『신문평론』, 1974.7.

• 무기명 기사

「緻密한 演出設計」, 『조선일보』, 1959.3.17.

「本能的인 母性愛의 盲點」, 『동아일보』, 1959.3.24.

「遺傳問題를 假定 『惡(악)의 種子(종자)』」, 『동아일보』, 1959.3.25.

「血族結婚과 遺傳」, 『동아일보』, 1959.3.26.

「惡의씨」와 遺傳 (上), (下)」(『조선일보』, 1959.3.26.~3.27.

「인간개조론」 (1)~(5), 『동아일보』, 1959.7.8.~7.12.

「可否 임신중절 국민우생법안 지상 공청」, 『동아일보』, 1964.3.11.

「모자보건법 성안 保社部」, 『조선일보』, 1965.10.24.

「스케치 解放동이 百萬원 長篇當選」, 『동아일보』, 1966.8.18.

「邦畫界 가쁜 숨통 틀 「文藝」 봄 試圖」, 『동아일보』, 1970.5.20.

「今週의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5.3.11.; 1975.3.25.; 1975.4.15.

• 웹사이트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090721029021>

<https://www.youtube.com/watch?si=P44nmFYETTLL87Js&v=IPzyMzFLngA&feature=youtu.be>

2. 참고자료

• 단행본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2019.
-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단비, 2020.
-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2022.
- Kafer, Alison,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전자책), 오월의 봄, 2023.
- Kerr, Anne, & Tom Shakespears, 『장애와 유전자 정치』, 그린비, 2021.

• 논문류

-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 2002.
- _____,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 2004.
- 김대현,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 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49, 2022.
-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재검토, 1890년대-1940년대」, 『미국사연구』 26, 2007.
- _____,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 2019.
- 민병웅, 「적합한 몸의 선별과 집단 사이의 위계화-1950~60년대 한미 해외입양 과정에서 혼혈아의 몸에 대한 지식 생산과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5, 2022.
- 박정우, 「“죽음의 문화”로서의 우생 사상과 우생학」, 『가톨릭신학』 19, 2011.
- 박지영·현재환, 「한국우생학의 역사와 오늘」, 『사회와 역사』 136, 2022.
- 서종희,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3), 2010.
- 소현숙,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1950~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51호, 2016.
- _____,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 132, 2020.
- 송인화,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에화된 ‘내면」, 『여성문학연구』, 2020.
-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1930년대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의사학』 15, 2006.
-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제22권 2호, 2013.

- 이남희, 「행복추구의 조건: 2차 세계대전과 건강한 시민 만들기」, 『서양사론』 145, 2020.
- 이지형,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일 한센병 소설-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역사적 신체의 문학표상」, 『비교일본학』 39, 2017.
- 이행선, 「일제말, 해방공간 우생학과 소년수(少年囚)를 통해 본 “착한/불량국가”-거세, 단종법, 격리, 정신병」,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013.
- 정실비, 「반우생학적 서사의 창안과 연민의 능력 -『토지』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22, 2021.
-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이청준 소설의 ‘정신 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2019.
- 한순미, 「『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自傳)」, 『사회와 역사』 94, 2012.
- 현재환, 「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우생’론과 의과학자들 1945~1964」, 『사회와 역사』 136, 2022.
- Galton Francis & Lyman Tower Sargent, “The Eugenic College of Kantsaywhere,” *Utopian Studies*, Vol.12, no.2, 2001.

| Abstract |

Family eugenics and Eugenistic Temporality Represented in 1960s novel

Ahn, Seohyun

Eugenics is often misunderstood as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 post-World War II world or post-liberation Korea. However,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Eugenics Act in the 1960s and the enact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1973 reveal that eugenics was a part of governmentality in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us historical reflection on eugenics cannot be simply ended. Lee Kun-young's *Carousel*(1966), which shows the popular internalization of eugenics in the 1960s, is a popular newspaper-serialized novel and best-selling book that has drawn attention to the public. At the center of this story lies the hypothesis that mental disorders are inherited, and the strong genetic fear and avoidance of marriage of characters born to mentally ill parents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tory. They internalize the idea of family eugenics and plan the future family as an appropriate family through the practice of eugenics management that excludes families with possible malignant genetics, including themselves, from reproduction. They reveal the limits of depriving minorities of their time through their beliefs and desires to limit their present and future time. The popularity of this novel confirms popular belief that characters accept without resistance not only the prohibi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but also the deprivation of the future. The *Carousel* is an important example in that it critically examines Korea's popular (un)consciousness in the 1960s by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contemporary discourse and reality, which were never free from eugenic thinking.

Key Word: Eugenics, Genetic Fear, Marriage Ban, Family Eugenics, Eugenics Management, Eugenics Temporality, Future Deprivation, Lee Kun-young, *Carousel*

〈별에서 온 그대〉에 반영된 가족 제도의 혼종성과 여성 주체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김남석*

목 차

1. 신한류의 중심으로 〈별에서 온 그대〉와 새로운 시각	3. 여인의 자각, 동등한 가치: 남성의 변화, 가치의 변화
2. 가족 구도의 다양성과 가족 제도의 혼종성	4.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서 '압축적 근대성'
	5. 결론을 곁하여: 문화적 혼종 현상으로서 가족과 여성의 풍경

■ 국문초록

<별에서 온 그대>에는 다양한 가족 제도의 실상이 노출되어 있고, 가족 제도의 한계와 피해가 제시되어 그 문제점이 폭로되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동시대에 공존하는 가족 제도의 희생자로 설정되었으며, 도민준은 1인 가족 제도의 피해자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별에서 온 그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 제도의 설정과 그 모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희생자에서 여성 주체로 변모하는 인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 제도 혼종 현상과 여성 주체의 변화 과정은 압축적 근대성의 소산에 해당한다.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의 시간적 흐름을 통해 동아시아 제반 국가가 경험한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공존 현상을 서사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고, 이러한 공존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족과 여성의 모습에 대해 천착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심정적 동조와 인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동일한 문화적,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 국가의 시청자들이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감대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가족 제도, 여성 주제, 문화적 혼종성, 압축적 근대성, 희생자

1. 신한류의 중심으로서 <별에서 온 그대>와 새로운 시각

흔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 신한류 붐을 일으킨 텔레비전드라마로 규정되고 있다.¹⁾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 수출되어 무려 20억 뷰를 돌파하는 인기를 얻은 바 있었고,²⁾ 이 작품이 방영되는 기간에 중국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마력을 선보인 바 있었다.³⁾

이러한 당시 풍조와 인기에 대해 기존 연구 역시 동의하고 있다. 김윤미는 <별에서 온 그대>가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고루 활용하여 한류 드라마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⁴⁾ 또한 이 작품을 고전 작품류와 관련하여 해석한 시각이 도출된 바 있고,⁵⁾ 그런가 하면 중국인의 관점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분석하여 그 인기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제기된 바 있다.⁶⁾

- 1) 「중국 팬만 62만명!...<별 그대> 김수현 한류 신흥강자」, 『동아일보』, 2014년 1월 8일; 「중국 치맥 열풍, 신(新) 한류 문화... “이게 다 <별 그대> 덕분!”」, 『동아일보』, 2014년 3월 3일.
- 2) 「역시 김수현...<별그대> 중서 20억뷰 돌파」, 『동아일보』, 2014년 4월 9일.
- 3) 「별에서 온 드라마·K팝, 중국인의 일상이 되다」, 『동아일보』, 2014년 3월 24일.
- 4) 김윤미, 「한류드라마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53), 한국드라마학회, 2017, 71~98면.
- 5) 김현희, 「한류드라마로 이어진 고전 캐릭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판소리계소설 <춘향전>을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9),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41~71면; 송성욱, 「고전소설의 이원적 구조와 TV드라마 -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3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99~327면; 최상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전기성(傳奇性) 연구」, 『동아인문학』(65), 동아인문학회, 2023, 237~266면.
- 6) 강필임·이귀옥·손승혜, 「중국의 한국드라마 연구와 수용 - <별에서 온 그대> 관련 중국학술논문 내용분석」, 『중국학보』(74), 한국중국학회, 2015, 205~227면; 김공숙,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난 중국 애정서사의 원형(原型)과 변용」, 『한국학연구』

하지만 기존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에서 온 그대>가 일으킨 신한류 붐 현상과 그 이유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인) 관점과 고소설 관점에서 시행된 분석만으로는 신한류로서의 작품성이나, 인기 텔레비전드라마로서 특징과 매력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별에서 온 그대>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나는 문화적 혼종 양상을 주목해서 살펴보기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에는 400년 전 조선 시대의 문화상과 함께, 근대 도입기 조선과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 그리고 21세기 한국 문화와 도시적 양태가 혼종적으로 담겨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을 살필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었고, 이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에서 구현되는 전근대성과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이 동시에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체감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 혹은 근대적 압축성은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난 다양한 상황과 서사적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출동 양상을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가족을 주목하고자 했다. 가족 개념이 없는 외계인 도민준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다양한 가족 제도와 상면하면서 그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제도의 희생양으로 설정된 여성 주체의 변화 양상 또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과 여성의 변화 양상은 문화적 혼종성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었고,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피는 현실적인 안목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57), 한국학연구소, 2016, 5~37면; 왕권·서상호,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동기 연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3),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89~114면; 이유정, 「중국 연구자는 K-드라마를 어떻게 읽는가?-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로 보는 중국의 K-드라마 연구 담론」, 『통일인문학』 (4-2), 한국미술치료학회, 2023, 119~153면.

2. 가족 구도의 다양성과 가족 제도의 혼종성

1) 구심적 구성, 세 집안의 인연

<별에서 온 그대>는 미모의 인기 여배우 천송이와 뛰어난 능력의 남성 도민준이 인연을 맺고 사랑을 하는 멜로드라마이지만, 그들의 만남과 인연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그들의 사회적 환경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배경이 가족 혹은 집안이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의 각성과 내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가족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송이의 가족은 천송이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천송이의 가족 구조가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구조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별에서 온 그대>는 유사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여타의 가족 구도를 배치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별에서 온 그대>는 세 동창과 한 남자의 구도로 주요 인물을 설정했다. 작품 속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에 등극한 천송이와, 어릴 적부터 천송이의 조연 배우로 활동하다가 천송이를 대신하여 정상에 오른 유세미,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천송이를 사랑했고 유세미에게 사랑을 받아 온 이휘경이 세 명의 동창에 해당한다. 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과거부터 친분과 우의를 다져 온 사이이며 현재에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며 각자에게 친구 이상의 관계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 명의 친구는 각각의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 가족 역시 <별에서 온 그대>의 인물 구도에 폭넓게 포함된다. 우선, 휘경의 형은 E&C 그룹의 후계자인 재경이었고, 세미의 오빠는 한유라 사건을 담당한 검사 유석이었다. 재경이 한유라(숨겨진 애인)를 제거하였고 유석이 죽은 한유라 사건을 타살로 의심한다는 점에서, 재경과 유석은 상대로 만나 서로 맞서는 형국의 구도를 형성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휘경과 재경, 세미와 유석은 집안으로 연결된 셈이다.

천송이는 어릴 적부터 휘경 회사의 모델로 발탁되어 있었고, 재경과도 교분을 쌓고 있었다. 또한 천송이 어머니 미연과 세미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고,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송이와 재벌 S&C 그룹은 일과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천송이와 세미 집안은 라이벌 구도로 연계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물/가족 구도에 도민준이 포함되면서, 천송이와 휘경 사이에 도민준이 틈입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악인이었던 재경의 본모습이 드러나면서 유석과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미와 천송이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천송이가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경쟁·틈입·연대·갈등은 이 세 집안과 한 외부인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상호 반목과 유대를 통해서 표현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서로 다른 가족 구도가 바탕을 이루어야 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세 집안과 한 외부인의 만남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내부 구조를 취해야 했던 셈이다.

인물	도민준	천송이 집안	이휘경 집안	윤세미 집안
형제	—	윤재(남동생)	형 이재경 상무(악인)	오빠 유석(검사)
모친	—	모친(매니저)	모친	모친(매니저)
부친(대리)	장 변호사(부친 가정)	부친(일용직)	부친 S&C(회장)	

<별에서 온 그대> 제16회를 보면, 천송이가 도민준의 가족에 대해 묻는 대목이 삽입되어 있다. 천송이는 도민준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로 인해 지구에 가족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했는데, 그것은 400년 동안 도민준이 홀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자, 천송이는 도민준을 처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때마침 자신이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 없이 살았던 도민준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다.

이러한 설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민준 역시 자신에 대한 우려에 동참한다는 점이다. 도민준의 별에는 가족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유무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새 지구와 인간의 삶에 익숙해진 그는 가족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가족이 없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대거 상실한 상태였다. 그가 지구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천송이와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도민준의 정서 변화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강조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종용한다. 결국 가족 없는 상태에서의 삶이 무의하다는 깨달음과 가족을 갖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의식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도적의식 구조로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2) 다양한 가족, 가족 개념의 우발적 다원성

<별에서 온 그대>에서 가족의 개념과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우선, 주인공 천송이의 가족을 보자. 과거 천송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자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모종의 이유로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의 경제적 기반은 딸의 연예계 활동으로 모아졌다. 부모의 결별 과정에서도 천송이의 경제력은 주요한 다툼 요건으로 작용했다. 천송이의 부모는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천송이를 키우는 문제로 다투었고, 그 다툼을 목격한 천송이는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12년 전 이 다툼 이후 가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천송이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는 경제적 주체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천송이 모친은 천송이를 ‘등쳐 먹’ 여인으로 연예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모친은 천송이 수익으로 사업을 하고, 쇼핑을 하고, 사치를 일삼았다. 천송이가 성장에 필요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 모친은 보호자의 자리에 없었지만, 모친이 돈이 필요할 때 천송이는 부양자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에, 천송이의 동생 천윤재는 천송이의 돈으로 유지되는 가족 구성 방식에 저항하고, 자식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친의 행태에 반항하여, 가정 내 거주를 거부하고 가출을 선택하곤 했다. 천윤재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이 경제적 주체로 올라서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심지어 누나 천송이에게는 가족(집안)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가족 관계(아버지의 가출 이후 천송이의 가족 관계)는 ‘소비지향적 가족 관계’에 해당한다. 가족 내 혹은 가족 간의 구성 질서가 ‘상품 소비 관계’로 대체되면서, 가족 구성의 자율성은 상실되고 가족은 ‘상품 문화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품 소비의 행태와 목적이 가족 구성의 근간으로 작동하는 셈인데, 가족 내/간에 존재해야 할 ‘서정적 상호 작용’이 파괴되어 가족애에 근거한 가족 개념이 붕괴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다.⁷⁾

천송이 가족 관계가 부양과 소비의 책임 여부로 결정되는 바람에, 가족 부양자로서 천송이의 고통은 강화된다. 천송이는 일종의 소녀 가장으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주체적인 관점하에 수행하지 못하고, 모친과 동생이라는 가족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천송이의 경제적 몰락(추문에 따른 인기 하락)은 가족 내 위기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가족의 위기는 천송이를 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천송이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의는 그녀를 짝사랑하는 이휘경의 제안이었다. 이휘경은 재벌 2세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재벌 S&C의 차남(실제로는 삼남)으로 설정된 인물이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답게 경제적·사회적·심리적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천송이 모친의 환심을 샀고, 한 때 천송이의 마음을 흔들 뻔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휘경의 등장은 그의 배경으로서 한 가정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장경섭은 '재벌의 가족 중심적 소유·경영 형태'를 예를 들면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가족 의존적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이러한 도구적 가족주의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가족 단위의 극심한 반공동체적 이기주의 행태'의 팽배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

이러한 반공동체 이기주의의 대표적 인물이 휘경의 형 재경이다. 재경은 자신의 야망과 사업 성취(경영권 장악)에 방해되는 인물은 그 누구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황의경 이사를 제거했고, 땅을 팔지 않겠다는 상대를 제거했으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연인 한유라를 제거했다. 심지어는 재경은 형인 한경을 제거했으며, 동생 휘경과 휘경의 친구 천송이까지 주저 없이 제거하려는 시도를 자행했다. 그가 냉혹한 살인자가 된 까닭은 자신과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을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재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왜곡된 가치관(가족관) 때문이었다.

7) 장경섭,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체」,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59~61면 참조.

8) 장경섭,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69~171면 참조.

그(들)의 아버지의 인정대로라면, 재경의 왜곡된 가치관은 돈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고, 재벌가라는 명분으로 특권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회 질서(가족 질서)의 왜곡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탄생했다. 어릴 적 재경은 친구의 눈을 멀게 하고도 재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 타인에게 행한 거의 모든 잘못을 후계자라는 권리로 사면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그에게 가족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천송이의 가족이 천송이에게 가족 부양의 책무를 전가하고 그녀로부터 획득된 소득을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가족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휘경의 가족은 재경에게 후계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사회의 규칙과 법률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안위와 성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족 관계를 일깨우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천송이는 가족에 대한 부양과 책임감으로 인해 스스로 소진되고 경제적으로 소모되는 길을 걸어야 했고, 이재경을 무작정 감싸는 바람에 이휘경의 가족은 가족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위기를 감당해야 했다. 한쪽은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책무를 지웠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보호를 일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만 셈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압축적 근대성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지향적 가족 관계를 낳고 말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 지향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말았다.⁹⁾ 두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이 지나치게 희생해야만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거나, 가족 구성원이 과도하게 희생함으로써 한 구성원의 권리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별에서 온 그대>에는 전통적 가족 제도로서 유교적 가족 이념도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면서 서이화와 천송이가 환생의 시각으로 엮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적 가족 이념은 현대적 가족 이념과 함께 공존하는 형국으로 텔레비전드라마 내에 등장할 수 있었다.¹⁰⁾ 그 이

9)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가족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제도가 혼재되기에 이르렀으며 가족 이기주의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김경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86), 민족문화연구원, 2020, 407~410면 참조).

념은 서이화가 살았고 도민준이 불시착했던 400년 전 세상에서 만났었던 이념으로, 그 이념이 만났었던 세상은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가족 이념이 존재했던 세상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가족 이념에서는 가정 내 절대적 권위자로서 가부장이 인정되고 있었고, 여성의 주인이자 지배자로서 남편과 아버지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었다.¹¹⁾ 서이화는 죽은 남편을 위해 평생을 수절해야 할 의무를 수용해야 했다. 이를 어기고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하고 죽음마저 언도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러한 가법은 여성에게 가혹했는데, 심지어는 국법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법률이 사회의 법률이라는 더 확대된 차원의 구속력이 발행하기도 했다.

한 여성으로서 권리와 행복이 무시되고 강제적으로 언도된 수절 명령에 결국 서이화는 굴복하고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이화는 추적해 온 군사들에 의해 당대 규범에 의해 처벌되는데, 그 이유는 열녀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와 외간 남자와의 수상한 동행 때문이었다. 결국 삼강오륜에서 요구하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의 욕망에 솔직했던 선택과 그 행위는, 죽어 마땅한 죄가 되어 그녀를 덮친 것이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그녀가 속한 사회나 국가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야 했다.

훗날 천송이는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화가 치솟는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여성의 인권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소멸된 시대에 대한 울분과 그 표출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울분은 유교적 가족 이념이 그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가족 이념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울분이기도 했다.

천송이의 가족과 서이화의 가족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 여성에게 가족 전체의 압력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서이화는 유교적 질서로 인해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제약당해야 했고 여성으로서 삶과

10) 이현지, 「유교적 가족관계관의 탈현대적 의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3, 1~11면 참조.

11) 조은,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조선전기 재산상속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2), 한국여성학회, 2000, 5~34면 참조.

선택 권리를 목살당해야 했다. 서이화는 가족(친정과 시대 모두)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희생양으로서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¹²⁾ 그녀는 명문 귀족 가문의 법도와 영광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현재의 천송이 역시 가족 전체로 받는 압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천송이에게 경제적 부양권을 떠넘기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천송이 역시 이러한 가족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 지난날의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도한 부담은 천송이의 몰락과 함께 천송이 가족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두 가족 제도와 이념은 현재와 과거로, 2000년대와 조선 시대로 분리되어 있지만, 천송이(서이화)라는 문제적 여성에게 향하는 압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 대한 천송이의 태도는 이질적이다. 서이화가 그 압력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죽음으로써 굴복하고 말았다면, 천송이는 그 압력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차단하고자 한다. 천송이가 조선 시대를 증오했고 비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변화된 여성으로서 주체적 자아를 건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하겠다.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와 그 이념을 근대적 압축성을 경험한 이후 탄생한 동시대의 가족 제도와 그에 따른 이념과 비교하여 보여 주고자 했다. 장경섭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이념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거시적 차원의 급격한 사회, 문화, 경제 변동”을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내부에 생성되는 가족 이념이 매우 우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accidental plurslism).¹³⁾

<별에서 온 그대>에서 환생의 서사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여성 구성원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가족 내 질서의 엄중함을 논하는 가족 구도는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가족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12) 르네 지라르, 김진석 역, 『희생양』, 문학과지성사, 1998, 44~73면 참조.

13) 장경섭,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65면 참조.

주체의 성장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의 가족 제도가 과거의 유교적 질서라는 거대 명분에서 어느 정도 헤어나와 다원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가족 내 관계가 도구적 관계로 변모하거나 극심한 반공동체적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문제를 내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다. 천송이의 가족과 재경의 가족 그리고 그 옛날 서이화의 가족은 공통으로 가족 내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압적 가족 제도로 인해 가족 내 특정 구성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탈자의 위치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3) 개인을 넘어, 가족에 이르러

불완전하지만 천송이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유세미에게도 단란한 가족이 있었으며, 휘경에게도 불행하지만 역시 가족은 있었다. 하지만 도민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와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하고 현재에는 아버지 같은 인상을 남기는 장 변호사가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장 변호사는 가족이 될 수 없었다. 비밀을 공유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미래를 준비하지만, 함께 늙어갈 수도 없었고 함께 살 수도 없었다. 심지어 밥을 같이 먹거나 같은 집에 살 수도 없었다. 도민준은 장 변호사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보내야 했다. 장 변호사가 100년을 겨우 사는 인간인데 비해, 도민준은 400년을 견뎌야 하는 외계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¹⁴⁾

<별에서 온 그대>에서 도민준은 가족의 소중함을 점차 깨닫기 시작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들거나 많은 시간을 나눈다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의 고향 행성에 가족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도민준이 지구에서 살면서 생긴 변화 중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려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행성으로 돌아가야 할

14) 이러한 도민준의 상황은 2000년대 이후 증폭되는 1인 가족(가구)에 비견될 수 있다(우민희·이명진·최선헌,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5, 201~231면 참조).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시행된 도민준의 강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민준에게 가족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행해지는 교미를 강의하면서 사랑과의 차이점을 무시하던 그의 발언은,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의 감화를 받으면서 점차 한정된 시간의 가치와 안온한 가족(사랑)의 의미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바뀌었다. 냉정하고 차갑고 그래서 인정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의 언행과 행실도 점차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감정적인 선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400년을 살면서도 지구인이 되지 못했던 도민준이, 연인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인간과 같아졌다고 볼 수 있다.

도민준에게 이러한 의식 변화는 그 자체로 선물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의 귀환은 방해를 받는다. 가족이 없는 행성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졌지만, 가족 곁에 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의 고민은 결국 가족과 생존 사이의 선택으로 압축되기에 이르렀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이러한 고민은 동시대 사회의 주요한 고민을 옮겨놓은 상징적 차원에서의 고민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도민준과 같은 경계인으로 가족 제도와 기존 이념의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최초에는 휘경의 가족 같은 든든한 가족을 원하지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가족의 안온함을 선물할 수 없다. 세미의 가족은 단란하지만 경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냉혹함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천송이의 가족은 본래의 생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지만, 누적된 반목과 갈등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별에서 온 그대>의 어느 한 가족도 지치고 힘든 개인의 보금자리가 되기에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인간과 외계인,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인이자 예외적 존재인 도민준에게만 허용된 상황은 아니다. 많은 인간 구성원들이 이미 이러한 경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가족 질서에 대한 회의감과 거부감이 팽배한 상태이다. <별에서 온 그대>는 이러한 가족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준과 천송이가 걸어갈 가족의 구도를 미리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단위에서 벗어나 타인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되, 가족 자체의 위력으로 그 내부의 개인을 억누르지 않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천송이의 엄마가 돈으로 가족의 화합을 파괴했고, 휘경의 부친이 잘못된 철학으로 아들의 타락을 방관했으며, 조선 시대 서이화의 가족이 왜곡된 이념으로 자식의 행복을 방해한 결과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천송이에게는 그 옛날 아버지가 대신하여 지금 세상에서는 함께 걸어갈 반려자가 필요했고 도민준에게도 홀로 지내는 술한 시간이 아닌 함께 지내는 소중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가 절충되면서 가족이 되고, 개인의 행복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족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그러한 가족의 요건을 이방인인 도민준과 기존 가족 제도의 희생자였던 천송이가 새롭게 구상하는 2인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도민준은 한국 사회와 대중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이질적인 존재였고, 천송이는 뛰어난 인기로 인해 특정인과 개인적인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지만, 두 사람은 자신만의 가정과 사랑을 꾸리기로 결정한다.

<별에서 온 그대>는 겉으로는 그 과정을 로맨틱한 사랑의 결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기존의 도구적 가족주의나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노출한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족 형태가 그려져 있다. 가족 질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1인 가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결혼과 가족 구성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강요하는 기존 이데올로기가 그 효력을 멈추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새로운 가족 구성 논리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3. 여인의 자각, 동등한 가치 : 남성의 변화, 가치의 변화

1) 가식과 위선을 벗은 여성 : 자기 시간을 되찾으려는 여인

전술한 대로 <별에서 온 그대>에서 두 주인공의 변모 과정은 주목되는데, 특히 천송이 특성은 더욱 주목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그녀는 청순한 여배우로 설정되었지만, 털

털한 성격으로 인해 위선과 가식이 제거된 여성으로 등장한다. 최고의 인기 여배우이고 국민여신으로 불렸지만, 감정에 솔직하고 음식에 솔직하며 남자 취향에 솔직하다. 개불을 먹고 치맥을 좋아하며 삼류 만화를 읽고 거침없이 상대를 끌어안고 먼저 입을 맞추어 줄 안다.

크루즈에서 그녀가 도민준을 놓아주지 않고 과감하게 키스를 할 때, 그녀는 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혼을 바라는 수동적인 여성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후 그녀는 남자와 사랑에 대한 솔직한 자기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가령 12년 전 자신을 구한 남자-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막상 그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12년 전 남자가 아니라, 자신 옆집에 사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사랑 고백에도 적극적이었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발휘한다. 그녀는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은데도 돈 많고 뽕 좋은 남자를 무작정 고르지도 않는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재력(돈)이 아니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캐릭터는 멜로드라마 혹은 로맨틱코미디의 수줍은 많고 다소곳한 여성 캐릭터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녀의 캐릭터는 남성에게 기대어 그들의 보호를 갈구하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캐릭터와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별에서 온 그대>의 많은 회차에서 그녀는 크고 작은 위기에 처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적지 않게 맞이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도민준 혹은 이휘경 등 남성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넘기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녀는 로맨틱코미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호 받아야 하는 여성 혹은 연약한 여배우의 여성상을 본받은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체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상대에 대한 의존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인물이고자 했다. 이휘경이라는 든든한 후원군을 거부하고, 처음 데뷔 때처럼 혼자서 자신의 연기 세계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국민여신’에서 ‘국민 밍상’으로 전략한 이후에도, 기획사의 힘과 여배우의 특권에서 벗어나 연기와 삶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여인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무엇보다 천송이가 자율적인 측면은 애정관에서 확인된다. 그녀는 여배우이고 젊은 여성임에도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 남자의 프로포즈와 유치한 이벤트를 바라기도 하지만, 삶과 애정에서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의지로 내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줄도 아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손해를 갚을 줄도 알고,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한 줄도 알며, 상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고 상대가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할 줄도 안다. 그러한 천송이는 멜로드라마에서 비련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애정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전사의 이미지에 가깝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작품 속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축하고 남자들의 영역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체적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는, 이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중요한 목표이자 합의된 대의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들은 남성에게 기대는 삶에서 벗어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협력하여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을 내장하고 있거나 장악하고자 한다. 그녀들에게 세상은 남성들의 보호망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새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가마와 인습에 갇힌 여성 : 벼랑 끝 시간에 몰린 여인

천송이의 전생 격인 서이화는 어린 나이에 '마당과부'가 된 여인이다. 1609년 9월 25일 도민준이 UFO를 타고 지구로 오던 날, 그녀는 강릉에서 시집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사스러워야 하는 그녀의 행렬은 훌쩍거리는 울음소리만 동반하고 있었고, 가마 안에 갇힌 어린 여인도 눈물이 그렇그런한 얼굴로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할 남자가 죽는 바람에 평생을 죽은 남편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마당과부가 되어 있었다.

마당과부는 '마당'과 '과부'가 결합한 말로, "신부집 안마당에서 치르는 초례나 겨우 올리고 이내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를 일컫는다. 17세기 조선의 예

법으로는 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 배우자를 잃은 여성은 남편을 위해 수절해야 했다. 신부 개인의 의사나 욕망은 무시되었고, 한 남자의 소유물로 일생을 마쳐야 하는 기구한 신세가 된 것이다.

한 남자와 시대의 소유물에 불가했기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녀는 시댁으로 향해야 했다.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도 쉽지 않았을 시집살이인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겪는 고초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의 여인은 그렇게 죽은 남편과 시댁의 영광과 양반의 법도에 따라 죽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마당과부가 된 서이화에게 갑자기 나타난 도민준은 은인이었다. 비단 도민준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도민준과 해로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따뜻한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나타난 도민준이 서이화에게는 인습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 줄 선물이었다.

도민준은 최초 서이화를 구할 때 시간을 멈춘다. 훗날 그의 고백을 근거로 든다면, 그는 1분 정도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서이화의 가마를 붙잡는데, 한시적 시간인 만큼 그녀를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1분은 서이화의 삶 전체를 살려내지는 못한다.

멈춰진 시간은 초능력이지만, 그 자체로 상징이기도 하다. 인간의 시간을 흐름 속에서 특별한 어떤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순간은 때로 가혹한 시간의 폭력 앞에서 한 개인을 숨 쉬게 하는 순간일 수 있다. 조선이라는 전근대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을 잠시나마 되돌릴 수 있는 순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순간은 여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도민준의 선물 같은 도움은 그녀-서이화를 숨 쉬게 하고 잠시 안도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시간 전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시간의 벼랑에 다시 내몰려야 했고, 폭주하는 그 시대의 압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천송이는 다른 선택을 감행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시대의 가마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여배우라는 그녀의 직업에도 그녀는 내숭을 숨기고

본래의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고 거칠게 따지고 강력하게 자신을 피력했다. 그렇게 그녀는 서이화가 간헐했던 여성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이화이든 아니든 간에, 12년 전에 도민준의 구원을 받은 어린 소녀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살지 않으려 했다. 도미준에게 다가가는 여인은 서이화도, 서이화를 닮은 여인도 아닌 천송이임을 명확하게 하려 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녀는 분명 남성의 끊임없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천송이가 서이화의 환생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인 이유이다.

따지고 보면, 서이화도 그 시대의 압력에 호락호락 굴복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열녀의 일화를 무작정 존중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고, 자신이 사모하는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용기도 지니고 있었다. 천송이의 사랑 고백이 낯설지 않은 까닭도 서이화의 대담하고 솔직한 고백을 이미 들은 후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이화의 가마를 구하는 사건은 현재에서 천송이의 차를 멈추는 사건과 연계된다. 하지만 도민준은 천송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뿐, 그녀의 삶을 살리는 것은 천송이의 몫이어야 했다. 하기 싫은 역을 수락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삶은 추락하는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천송이는 그 길을 감내했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추락했던 그녀의 인생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유난히 가혹하고 차별적이었던 시간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 서이화에서 천송이로 : 인습에서 풀려나 자신을 찾는 여정

전 세계의 많은 여성이 아직도 인습과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다. 한류가 붐을 이루는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며, 전통적인 사고가 더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뿌리는 완고하기까지 하다. 물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최고의

드라마로 찬사를 받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성의 구원과 능력이 여성의 삶을 좌우하는 세계 속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자율성과 주체성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의 제한된 자기 인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천송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자립적인 여성이었다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공감과 수긍의 폭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천송이는 처음부터 강력한 자기 주도적 여성이 아니었으며, 가식은 없지만 허영은 있었고, 위선을 거부했지만 사치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 선 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도 심한 편이었다. 그런 여인은 달라졌다. 자신의 본바탕에 있는 선함과 순수를 불러낼 수 있어야 했고, 자신의 힘을 올라온 자의 자율성과 주체성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락이 필요했다. 불필요하게 올라선 자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했고, 그 거리를 통해 자신을 다시 되새길 시간도 필요했다. 그 거리와 시간을 벌여줄 수 있는 것은 교만하고 허영기 있고 사치스러웠던 자신이 겸손해지고 차분해지고 가난해지는 일이었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추락이었다.

추락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로 그녀는 도민준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도민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도민준 역시 천송이가 지닌 장점을 직시할 수 있었다. 휘경의 말대로 위기에 몰린 천송이는 그 옛날의 서이화처럼 순수함을 되찾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힘도 되찾았다. 추락이라는 선물 덕에 자신이라는 내면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서 ‘압축적 근대성’

한국 사회는 20세기 직전 근대화의 격랑을 마주해야 했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서구화의 흐름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20세기 전반 일제의 강제 점령으로 일본화된 서구 문화를 수용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기반이 전통적인 문화 양식과 혼재되면서 조선에서 한국으로 이행되는 문화적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서구화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일제 강점기 이전과 이후의 삶과 문화적 양상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 한국 사회는 주로 일제 강점기 이후의 삶과 문화적 양상에 더 근접한 형태로 나아갔다. <별에서 온 그대>는 고정 관념을 전복하고 조선 시대 생활 양상과 현대 문화적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400여 년 전 조선에 불시착해서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양상을 수용한 한 외계 행성 이주자로 인해 가능했다. 그는 400년을 살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사고를 지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1960년대 이후 현대화된 한국 사회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가령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폭탄주가 아니라 조선 시대 유행했던 혼돈주를 거론한다거나, 이조백자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현대 장식품에 뒤지지 않는 수려함을 보여 준다거나, 전래의 그림이 가진 가치를 은근히 피력하는 시각이 그러하다.

특히 서이화가 건넨 서화는 혼재된 시간과 문화적 융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다. 서이화는 필묵으로 화선지에 UFO를 그렸는데, 과거의 그림 속에 담긴 비행선의 모습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변하여 상호 조응하는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UFO 서화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문화와 사고가 한 자리에서 만나 형성되는 문화의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을 상징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나타난 외계인 혹은 미확인 물체는 그 자체로 서로 다른 사유 체계 혹은 이질적 문화의 접변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별에서 온 그대>의 미학적 지향점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오프닝 타이틀을 빼놓을 수 없다. <별에서 온 그대>의 오프닝 타이틀은 풀이 무성한 별판에서 시작된다. 카메라가 패닝하면 그 별판에 덩성덩성 초가가 생기고, 그 사이로 기와집이 지어지고, 어느새 근대식 건물이 늘어나더니, 문화 주택과 빌딩이 솟아오르고, 그 옆으로 고가와 현대식 고층 빌딩이 들어서며, 야경이 근사한 서울 한복판이 재현되었다.

속도감 있게 시간의 흐름과 가옥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 주는 이 오프닝 타이틀은, 들판에서 4대문 한양으로, 근대의 경성으로, 그리고 현재의 서울로

변모하는 정경을 압축하고 있다. 그 속도와 변모 양상은 몇백 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압착하여 급속하게 추적하는 한국의 시대상을 대변한다.

시간상으로 전통과 근대와 그 이후의 탈근대가 압축되어 한 공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는 풍경인데, 이러한 풍경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을 다시 압축하여 보여 주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압축적 근대성이란 비단 근대화의 급속한 전개(‘근대화의 급속성’) 과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이질적인 문명원리’들이 공존하고 상호 작용을 하여 새로운 체제와 제도, 집단과 관계 그리고 이념을 형성하는 복합적 과정을 내포하는 개념이다.¹⁵⁾

400년 전 한양의 사대문이 확장되고, 지상의 삶이 더 높은 곳으로 솟구치는 변화가 강조된 것이다. 확장되고 상승하는 변화상은 한국이 걸어온 근대화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지닌다.¹⁶⁾

이러한 상징성이 성립하는 까닭은 전통, 근대, 탈근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힌 한국(서울)의 역사와 근대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즉 서울의 변화하는 풍경 내부에는 유교주의로 대표되는 조선의 시간과, 근대의 시작과 그 궤를 함께했던 변화의 시간,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 풍경으로 대표되는 탈근대의 시간이 함께 용해되어 있다.

이러한 이질적 시간(대)은 <별에서 온 그대> 각 회차에서 조직적으로 교차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민준·천송이의 현재 서사와 도민준의 과거 서사가 한 회차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 그 유사성으로 겹치고 있으며, 지난 시대의 풍경과 현실 속 풍경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간·공간·사물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탈)근대, 기억과 현실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을 묶어 상호 조응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15) 장경섭, 「청소년기의 사회각축장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과 청소년」, 『가족과 문화』 (18-4), 한국가족학회, 2006, 95~97면 참조.

16) 김윤미, 「한류드라마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3), 한국드라마학회, 2017, 89~90면.

17) 전통, 근대, 탈근대의 정경이 함께 드러나는 사회의 모습과 세계관의 풍경은 문화적 차원에서 혼종적 근대성을 바라보는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곽영신·류용재, 「K-컬처에 드러난 혼종적 근대성: 글로벌 한류의 비동시적 문화정치와 그 정경들」, 『언론과 사회』 (32-2),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4, 18~21면 참조).

사실 이러한 정경은 그 자체로 한국적이다. 한국인들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한복을 입곤 하고, 과거의 산수화를 즐기고 도자기를 재현하면서도 서양식 소파와 침대를 거부하지 않는다. 도민준의 침실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고, 서재에는 과거의 서책까지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혼재는 한국인의 일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송이가 파손한 도자기는 허균의 필적이 들어간 귀한 것이지만, 설령 그러한 고가의 보물이 아니더라도 이천에서 생활용품으로 파는 도자기는 일상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물건과 일상의 풍경으로만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동시성의 동시성(simultaneity of nonsimultaneity)은 문화적 혼종(성)의 흔적으로 인물의 사고와 가치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혼종성은 가족 제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5. 결론을 검하여: 문화적 혼종 현상으로서 가족과 여성의 풍경

출신은 비록 지구 바깥 외계인이지만 조선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에서 생존했던 도민준은 유교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불필요하게 떠들고 소란스럽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는 은인자중하는 선비의 성품을 실천하고 있으며,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돌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자기중심적인 천송이는 그 자체로 이질적 문화 현상과 다르지 않다. 그녀가 택한 배우라는 직업도 도민준에게 탐탁하지 않은 직업이다. 노출이 심하거나 신체적 접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포괄하고 있다. 도민준은 구시대의 가치관으로서 유교적 삶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쩌면 더욱 우위에 두고 이를 고수하는 인물이었다.

문제는 도민준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천송이를 만나면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저 뼈빠 정도로만 만족하며 조금하게 다른 이들과 통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도민준은 천송이의 제안으로 휴대전화를 마련하기까지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그가 그때까지 고수하고 있던 조용하고 은자적인 삶에서 한 걸음 나와, 근대를 넘어 탈근대 사회의 초입으로 진입할 가능성

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도민준은 천송이라는 동시대의 사유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전근대적 사고에 집착하던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도민준의 기존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천송이의 등장은 새로운 문화의 접촉이자 자아 바깥의 기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준의 입장 변화는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근대화 도정을 상기시킨다. 도성 한양에 집이 늘어나고 그 집이 현대식으로 바뀌는 풍경처럼,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도자기와 서화와 비녀와 가마로 대표되는 전통적 삶의 양식이 천체 망원경과 대형 사진과 하이힐과 자동차로 상징화되는 근대적 라이프 스타일로 변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이러한 삶과 일상은 서구가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근 100년 이내에 추진하고 성공하면서, 전통과 근대의 삶이 교묘하게 삼투되어 현실과 일상의 영역에서 압축된 일종의 문화적 단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면이 전체 서사 내로 삽입된 <별에서 온 그대>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식 근대화의 물결 속에 있는 후발 국가들의 공감과 동조 그리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끈 주요 요인은 이러한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삶의 한 지점에서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별에서 온 그대>의 문화적 혼종성은 궁극적으로 토착 문화와 외래문화가 뒤섞여 하나의 문화적 용광로로 들끓고 있는 시대적 풍조를 감안할 때, 보편적 특성으로 용인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용광로서 혼종성은 문화적 설득력을 강하게 견지한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용광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용해되어 혼합되고 있는 제도가 가족 제도와 그 가족 제도 내 여성의 역할이었다. 유교주의적 가족 제도 내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하여 무참하게 사라져야 했던 서이화는 400년 이후 천송이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천송이로 환신한 그녀는 과거 서이화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그녀와 별개로 간주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인연의 서사로 그녀의 삶을 서이화의 전생과 연결하려는 텔레비전드라마 전략은 동일성과 함께 그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서이화의 후신이었고, 그녀가 속한 가족과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금제와 제약을 안겨주었지만, 천송이가 되기로 한 그녀는 서이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 가족이 주는 압박을 이겨냈고 집단이 한 여성에게 가하는 압력 역시 자신만의 신념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이러한 차별적 여성상의 등장은 가족 제도의 모순 혹은 그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 이 작품 속에는 과거 서이화의 삶을 제약했던 유교적 가족 제도와 함께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실현된 몇 가지 가족 제도가 대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성원의 특권을 인정하는 재벌가 중심의 가족 제도나,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적 가족 제도, 혹은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일체로서의 가족 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개인 특권형 가족 제도와 개인 희생형 가족 제도는 과거의 유교적 가족 제도의 일부 특성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권이 강화된 가족 제도의 특성은 특정 개인의 강력한 권한과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뒷받침되는 가족 제도의 근간이 되었고,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고 남성 중심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교적 가족 제도의 특성은 여전히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가족 제도로 변모되어 있었다. 재정의 가족 구도와 천송이의 가족 제도는 그 개별적인 결과물이자 옛 가족 제도의 부정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이러한 두 가족 제도의 실상을 노출하고 있으며, 가족 제도 한계와 폐해를 통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도민준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형태의 1인 가족 제도의 문제점도 결부된다.

결국 천송이와 도민준의 로맨틱한 결합에는 기존 가족 제도의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천송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신/구 가족 제도의 모순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고, 도민준은 1인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문제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로맨틱한 사랑의 완성이고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지만, 심층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회의 가족 제도가 지닌 모순과 문제를 뚫고 성사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족 제도일 수도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그러한 이유로 인

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 대안이자 희망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별에서 온 그대>가 단순한 로맨틱코미디에 그치지 않고 압축적 근대화 이후 현대적 잔여물로서의 가족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다소 특별한 이유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별에서 온 드라마·K팝, 중국인의 일상이 되다」, 『동아일보』, 2014년 3월 24일.
- 「역시 김수현…<별그대> 중서 20억부 돌파」, 『동아일보』, 2014년 4월 9일.
- 「중국 치맥 열풍, 신(新) 한류 문화 … “이게 다 <별 그대> 덕분!”」, 『동아일보』, 2014년 3월 3일.
- 「중국 팬만 62만명!…<별그대> 김수현 한류 신흥강자」, 『동아일보』, 2014년 1월 8일.
- 강필임·이귀옥·손승혜, 「중국의 한국드라마 연구와 수용-<별에서 온 그대> 관련 중국학술논문 내용분석」, 『중국학보』(74), 한국중국학회, 2015, 205~227면.
- 곽영신·류용재, 「‘K-컬처’에 드러난 혼종적 근대성: 글로벌 한류의 비동시적 문화정치와 그 정경들」, 『언론과 사회』(32-2),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4, 18~21면.
- 김경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86), 민족문화연구원, 2020, 407~410면.
- 김국숙,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난 중국 애정서사의 원형(原型)과 변용」, 『한국학연구』(57), 한국학연구소, 2016, 5~37면.
- 김윤미, 「한류드라마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53), 한국드라마학회, 2017, 71~98면.
- 김현희, 「한류드라마로 이어진 고전 캐릭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을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9),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41~71면.
- 송성욱, 「고전소설의 이원적 구조와 TV드라마 -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3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99~327면.
- 왕권·서상호,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동기 연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53),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89~114면.
- 우민희·이명진·최셋별,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16-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5, 201~231면.
- 이유정, 「중국 연구자는 K-드라마를 어떻게 읽는가? -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로 보는 중국의 K-드라마 연구 담론」, 『통일인문학』(4-2), 한국미술치료학회, 2023, 119~153면.

- 이현지, 「유교적 가족관계관의 탈현대적 의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3, 1~11면.
- 장경섭,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학』 (2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69~171면.
- 장경섭,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체」,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59~61면.
- 장경섭, 「청소년기의 사회각축장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과 청소년」, 『가족과 문화』 (18-4), 한국가족학회, 2006, 95~97면.
- 조 은,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조선전기 재산상속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2), 한국여성학회, 2000, 5~34면.
- 최상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전기성(傳奇性) 연구」, 『동아인문학』 (65), 동아인문학회, 2023, 237~266면.
- 르네 지라르, 김진석 역, 『희생양』, 문학과지성사, 1998, 44~73면.

| Abstract |

A study on the hybridity of the family system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emale subject reflected
in *My Love from the Star*

Kim, Namseok

The reality of various family systems is exposed and the problems are revealed through the limitations and damages of the family system in *My Love from the Star*. The central characters of this work are set as victims of the coexisting family system at the same time, and Do Min-joon is assumed to be a victim of the one-person famil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etting of this family system and its contradictions in order to deeply understand *My Love from the Star* and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 who transforms from a victim to a female subject. This phenomenon of family system hybridiz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female subjectivity correspond to the aftermath of compressed modernity. *My Love from the Star* narratively accepted the coexistence of pre-modern, modern, and post-modern times experienced by various East Asian countries over a 400-year time period, and delved into the aspects of family and women that appeared in this coexistence. As a result, *My Love from the Star* was able to secure emotional sympathy and popula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This is because viewers from countries experiencing the same cultural, temporal, and social changes were able to broadly gain sympathy through *My Love from the Star*.

Key Words : family system, female subjectivity, cultural hybridity, compressed modernity, victimhood

畢柳鶯의 『斷食善終』에 나타난 타이완의 단식 존엄사 논의

김의*

목 차

-
1. 머리말	3. 단식 존엄사의 법률적·윤리적 쟁점
2. 비류잉의 『단식 존엄사』 분석	4. 나오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비류잉의 저서 『단식 존엄사』를 중심으로 타이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식 존엄사(VSED :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의 현실과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고찰한다. 단식 존엄사는 환자가 자율적으로 섭식과 수분 섭취를 중단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죽음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타이완은 안락원화의료조례와 환자자주권리법을 통해 존엄사를 실현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고 오히려 존엄사 선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타이완의 존엄사 논의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고령층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주제어 : 단식 존엄사, 존엄사, VSED, 비류잉, 안락사

* 충남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斷食善終』는 타이완에서 소뇌실조증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은 저자의 어머니가 증상이 악화되면서 단식 존엄사를 결정한 과정을 다룬 책이다. 저자인 비류잉(畢柳鶯)은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종합병원 교수로, 어머니의 임종 순간까지 곁에서 함께하며 이를 기록했다.¹⁾

소뇌실조증은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는 희귀 유전병으로, 말기에는 걷지 못하고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며, 사지구축(contracture)으로 인해 비위관 삽입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이 병을 앓으면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되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저자의 외삼촌과 외사촌 또한 와상(臥床) 생활에 대한 비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바 있다. 결국 이 책은 가족이 겪었던 처참한 고통을 지켜보며, 유전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자신 역시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죽음보다 못한 삶의 괴로움을 직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타이완에서는 기존 안락사(Euthanasia)의 담론을 넘어 단식 존엄사(VSED: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타이완에서 통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 죽음을 유도한다. 여기서 단식 존엄사는 환자가 섭식을 스스로 중단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존의 안락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죽음의 선택방식으로 평가된다.²⁾

1) 畢柳鶯, 『斷食善終－送母遠行, 學習面對死亡的生命課題』, 麥田, 2022.는 2024년 7월 『단식 존엄사: 의사 딸이 동행한 엄마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 번역 출간되었다. 이하에서는 원제 대신 『단식 존엄사』로 표기한다. 이에 각주 또한 국내 번역본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2) 국내의 경우 2022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이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안

타이완 통계청(內政部統計處)에 따르면, 2022년 타이완의 평균수명은 79.84세로, 남성은 76.63세, 여성은 83.28세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로, 타이완보다 평균 약 2년가량 길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 또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 자체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동아시아 특유의 정서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타이완보다 앞선 2019년 『장수 지옥(長生き地獄)』이라는 책을 통하여 노년층의 ‘사망 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는 여명’이 평균 8년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³⁾ 일본의 최장수 국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실정이다. 오히려 단식 존엄사 논의에서 타이완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논의의 진지함과 전개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류잉 교수의 저서 『단식 존엄사』를 중심으로, 타이완에서 단식 존엄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긍정적 요소와 이면의 모습까지 살펴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비류잉의 『단식 존엄사』 분석

『단식 존엄사』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유전병의 진행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단식 존엄사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임종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호스피스 돌봄을 다룬다. 또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공

락사, ‘존엄사’ 등 혼재되어 무분별하게 남용해온 각종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의 용어 설정에 관한 고민이 있었으나, 비류잉의 저서를 주요 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상, 해당 저서의 국내 번역본 표기를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3) 책 『장수지옥』은 우리나라에 원제 그대로 출간되었다가 2년 후에 『50부터 준비하는 우아한 엔딩』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타이틀로 바뀌 재출간된 바 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는 정서가 여실히 드러난다. 마쓰바라 준코 『50부터 준비하는 우아한 엔딩』, 동아엠앤비, 2021.

포와 이를 극복하며 존엄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담담하게 적고 있다. 더불어 단식 존엄사를 둘러싼 윤리적·법률적 논의와 그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1) 이 책의 저술배경⁴⁾

비류잉은 21세기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질병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인간의 수명도 크게 연장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한 이후 삶의 질이 낮아지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수많은 말기 환자가 자택에서 평온히 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의사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의 욕심으로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치료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다.

또한 80세를 넘는 타이완의 평균수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이나 그와 유사한 간병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지적한다.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인종을 불문하고 기피되는 주제이지만,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분석한다. 사람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죽음을 도외시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존엄하지 못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가족이 이를 용인하지 못해 무의미한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지적한다. 병원에서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했음에도 가족의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 간병으로 인해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고 처벌받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를 비류잉은 가히 ‘인간 지옥’이라 표현한다.

또한, 『단식 존엄사』는 무의미한 치료 과정에 의료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4) 비류잉, 『단식 존엄사』, 글항아리, 2024, 5~15면 참조

2) 존엄사를 선택한 이유

비류잉은 타이완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을 전공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중증 장애인들을 자주 접했다. 그들의 고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임을 목도했다.

이후, 그녀는 미국의 죽음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생의 수레바퀴』를 통해 호스피스 개념을 처음 접하며, 임종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었다. 또한 달라이 라마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죽음 역시 삶의 일부이며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다. 비류잉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 이를 이해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특히 친구의 어머니가 수영 강습을 나간 첫날에 익사한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시아버지와 시숙이 각각 12년 이상 치매로 와병 생활을 하여, 비교적 활기 있던 칠십대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긴 간병을 끝마쳤을 때 여든을 훌쩍 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모습을 지켜본 경험도 비류잉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⁶⁾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남겨진 가족의 삶이라는 관점에 대한 비류잉의 사상은 은연중에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류잉의 모친 역시 자신의 오빠와 조카들이 소뇌실조증으로 고통 받으며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그 후 비류잉에게 안락사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비류잉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외가 친척들처럼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러한 결심에 대한 반발이 적었던 것은, 그들 또한 외가 친척들의 치참했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⁷⁾ 더불어, 비류잉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그녀와 마찬가지로 의사였으며, 남동생 또한 미국에서 오랜 유학을 거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존엄사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5) 비류잉, 같은 책, 2024, 25~29면 참조

6) 비류잉, 같은 책, 2024, 130~131면 참조

7) 陳玲鈞, 「照護一位年輕型小腦中風男性病患之護理經驗」, 『志為護理-慈濟護理雜誌』, 4期 2016, pp.106~115.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존엄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생사관(生死觀) 또한 존엄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해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관습이 있다. 이러한 관행을 “종말기퇴원(終末期退院)”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여정(最後一程)” 또는 “마지막 숨을 쉬는 것(留一口氣)”이라고 표현한다.⁸⁾ 이는 자신의 집과 침대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류잉의 모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친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생전 비류잉의 부친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고, 그 결과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자평한다. 만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로 불필요한 수액을 맞거나 채혈을 하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아버지가 자신의 침대에서 아무런 의료장치나 상처 없이 평온하게 영면에 들었다고 회상했다.⁹⁾

3) 단식 존엄사의 과정

비류잉의 모친은 자신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빠른 시일 내에 존엄사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타이완에서 ‘조력 존엄사’가 불법이기에 스위스 등 해외로 떠나지 않는 이상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비류잉은 모친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권했다.¹⁰⁾ 이 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양하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단식을 통해 몇 주 안에 기력을 잃어 죽음에 이르는 방법, 즉 단식 존엄사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 후 모친은 단식으로 생을 마감하겠다

8) 鍾宜鈺, 「最後の旅－台湾における死を見つめて」, 立命館大学生存学研究所, 2014.

9) 비류잉, 같은 책, 2024, 96~97면 참조

10) 中村仁一の 책 『大往生したけりゃ医療とかかわるな 自然死のすすめ』 참조. 국내 번역서로는 나카무라 진이치,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 위즈덤스타일, 2012, 참조.

고 결심했으며, 그 시기를 이듬해 자신의 생일 이후로 정했다.¹¹⁾ 비류잉의 모친이 충동적으로 존엄사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의 유전병이 발현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점차 강직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가족들도 비류잉 모녀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비류잉은 회고한다.¹²⁾

단식 존엄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비류잉은 호스피스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고, 변비 예방을 위해 오일 섭취를 권장한다. 입안을 면봉으로 깨끗이 하고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하며, 말기에는 욕창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원활한 배변을 위해 압박배뇨와 손으로 변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임종 시에는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청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¹³⁾

비류잉이 모친에게 시행한 단식 존엄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식에 의한 존엄사라 하더라도 곧바로 곡기를 끊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두 끼로 줄이며, 단백질 섭취를 중단하고 미음을 통해 약간의 탄수화물과 과일을 섭취하는 식단으로 전환한다. 하루 물 섭취량은 세 컵으로 제한한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자연히 배변 횟수도 줄어들어 변비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단식은 정신을 맑게 해주며, 당사자로 하여금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¹⁴⁾

비류잉의 모친은 단식 11일째부터 모든 식사를 중단하고, 오일 한 스푼과 연근 다린 물 한 컵만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잠깐의 TV 시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에 빠져 있었다. 단식 13일째에는 연근 다린 물조차 끊고 면봉으로 입술을 적시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5일째에는 구취(口臭)가 나기 시작했으며 낮잠 시간이 늘어났다. 16일째부터는 배변 장애가 두드러졌으며, 17일째에는 ‘생전 장례식’을 거행했

11) 비류잉, 같은 책, 2024, 114~119면 참조.

12) 비류잉, 같은 책, 2024, 136면 참조.

13) 비류잉, 같은 책, 2024, 139면 참조.

14) 비류잉, 같은 책, 2024, 141~142면 참조.

다.¹⁵⁾ 18일째에는 재택의료센터 의사와 호스피스 간호사가 방문했다. 이후 19일째부터는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21일째 새벽에 부정맥과 함께 호흡이 약해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¹⁶⁾

3. 단식 존엄사의 법률적·윤리적 쟁점

1) 자기결정권과 실정법

존엄사는 말 그대로 고통이 없는 좋은 죽음(a good death)를 뜻하지만 타이완의 의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타이완의 병원에서는 말기 환자나 응급 처치로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어도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환자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한다. 이는 타이완의 의료법, 의사법, 간호사법 등이 긴급구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환경에서 비류잉을 포함한 타이완 의료인들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료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 더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가 노년기의 존엄사 선택을 가로막고, 효과 없는 의료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타이완에 호스피스 개념의 도입은 1980년대 소수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단수이(淡水)지역에 타이완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안녕완화의료조례(安寧緩和醫療條

15) 비류잉은 이미 죽은 뒤에 치러지는 장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삶이 끝나기 전에 생전 장례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번 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죽음을 앞둔 후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전 장례식은 남겨진 사람들과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심을 덜고 평온한 상태에서 먼 길을 떠날 수 있다고 본다.

16) 비류잉, 같은 책, 2024, 156~163면 참조.

17) 中華民國醫療法第60條第一款, 中華民國醫師法第21條, 中華民國護理人員法第26條 참조. 다만, 환자가 사전에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DNR)’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즉시 의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例)’가 공포·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시한부 환자에 대하여 전문 의료인 2인이 상태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환자는 호스피스 처치, 심폐소생술(DNR) 거부,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¹⁸⁾

입법 초기에는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09년 치매, 뇌질환, 심장질환, 신부전 등 8가지 중증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조례 시행 20년이 지난 2019년 당시에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0.03%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9년 1월, 환자자주권리법(病人自主權利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기존의 ‘말기 환자’ 외에도 ‘비가역적 혼수상태’, ‘지속 식물상태’, ‘중증 치매 환자’로 확대되었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다계통위축(Multiple System Atrophy),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 11종이 추가되었다.¹⁹⁾ 환자자주권리법과 안락사화의료조례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가능한 질병의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대여명 제한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로 확장하여 적용 대상을 넓힌 점이다. 비류잉의 모친은 사전의료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비위관 삽입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당시는 법 제정 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후의 순간, 폐렴이나 욕창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를 거부하며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환자자주권리법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따라서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행위능력을 상실한 20세 미만의 환자는 여전히 말기에 이르러 안락사화의료조례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한계를 가진다.²¹⁾ 이로 인해 수많은 와상 환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추후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18) 蔡兆勳；黃倩茹；黃靜宜，「人生最後一程如何好好走？『斷食善終』與安寧緩和醫療有什麼不同？」，『好健康』，67期，2024，pp.34~37.

19) 구체적인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는 타이완 보건복지부(衛生福利部) 고시 참조. 衛福部發布11類疾病擴大適用病主法之臨床條件 <https://www.mohw.gov.tw/cp-16-50877-1.html>

20)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 認識病人自主權利法, <https://nckuh.hosp.ncku.edu.tw/p/405-1000-258798.c30095.php> 國立成功大學醫學院附設醫院 참조.

21) 吳書鈺，「病人醫療自主權與病主法政策施行之研究」，『國立臺北大學：公共行政暨政策學系』，學術論文 2022，pp.30~178.

생명 유지 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류잉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²⁾

광의의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ying 또는 physician-assisted suicide),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²³⁾ 타이완의 입법 수준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며, 『단식 존엄사』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안락사는 후자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사망은 의료진이 대상자의 안락사 적합성을 판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이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미국의 오리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일부 주가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대개 대상자가 불치병 환자이며,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인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희망해야 하며, 이를 전문가와 윤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캐나다, 스페인 등 총 6개국이다. 이 중 가장 개방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신청자의 약 절반 정도가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완의 존엄사법 초안은 의사조력사망과 적극적 안락사를 모두 포함했으나, 2019년 12월 입법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처럼 의사조력사망을 비롯한 적극적 안락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²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비롯해 의사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현행법이

22) 비류잉, 같은 책, 2024, 204면 참조.

23) 의사조력사망의 경우 입장에 따라 단어 선택을 두고 (조력 '사망' dying과 조력자살 suicide)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24) Wesley J. Smith, "Legalizing 'Medical Aid in Dying' Normalizes Suicide," discovery.org, Feb 25, 2022.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나 이를 조력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비류잉 역시 자신의 모친 사례에서 단식 존엄이라는 ‘편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입법의 향방은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상의 생명권과 관련해 타이완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지막 집행은 2020년 4월이었다.²⁵⁾ 여론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의 사형제 찬성률은 85%에 달하는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는, 타이완 국민의 보편적 인식은 역설적으로 적극적 존엄사 법제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⁶⁾ 물론 형사 피고인과 중증 환자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생명권이라는 본질적 가치 앞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분석이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단식 존엄사』에서 비류잉은 자기 어머니를 조력했다. 앞서 언급한 ‘의사조력사망’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비류잉 모친은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었으며, 불치의 병으로 인해 수인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한 당사자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딸과 사위 등 가족들은 모두 전문 의료인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또 다른 형태의 ‘의사조력사망’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이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류잉과 연관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이완 형법의 자살방조죄(중화민국 형법 제275조)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 존속살인죄(중화민국 형법 제272조) 또는 살인죄의 방조범(중화민국 형법 제271조 및 동법 제30조)에 저촉될 수 있다.²⁷⁾ 비류잉은 타이완 각지에서 답지해온 유사 사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 바 있으며, 그 당사자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러한 행위(중화민국 형법 제275조 제2항, 제3항) 자체로 역시

25) 2024년 9월, 타이완 사법부는 사형제에 대하여 또다시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26) 瞿海源, 「廢除死刑正反意見：台灣實證」, 『台灣廢除死刑推動聯盟』, 2019, pp.1~44.

27) 中華民國刑法 第275條

1 受他人囑託或得其承諾而殺之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2 教唆或幫助他人使之自殺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3 前二項之未遂犯罰之。

4 謀為同死而犯前三項之罪者，得免除其刑。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비류잉의 모친이 식사를 원치 않는 상태에서, 보호와 부조 의무가 있는 자녀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기죄(중화민국 형법 제294조) 또는 모친이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존속에 대한 범죄이므로 정해진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될 것이다. 이는 가족이 아닌 의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다만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가중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된다.²⁸⁾

비류잉이 환자 보호자에게 했던 잘못된 조언 중 대표적으로 제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있다.²⁹⁾ 이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한 행위가 공문서 위조(중화민국 형법 제211조) 또는 서명 도용(동법 제217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행사할 경우, 국립병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사립병원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³⁰⁾

위와 같은 사례는 비류잉이 『단식 존엄사』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힌 행위에만 한정해 검토한 결과이다. 그러나 개별법이나 하위 법령을 추가로 검토할 경우, 비류잉은 더 많은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³¹⁾

28) 中華民國刑法 第294條

- 1 對於無自救力之人，依法令或契約應扶助、養育或保護而遺棄之，或不為其生存所必要之扶助、養育或保護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 2 因而致人於死者，處無期徒刑或七年以上有期徒刑；致重傷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中華民國刑法 第295條

對於直系血親尊親屬犯第二百九十四條之罪者，加重其刑至二分之一。

- 29) 제한적으로, 안녕환화의료조례의 경우 말기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계존비속이 대리 서명할 수 있다.

30) 中華民國刑法 第211條

偽造、變造公文書，足以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中華民國刑法 第217條

- 1 偽造印章、印文或署押，足以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 2 盜用印章、印文或署押，足以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亦同。

- 31) 타이완 검찰은 단식 존엄사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건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촉구한바있다.

2) 윤리 및 종교 문제

비류잉은 의사 단체에서 제기하는 안락사 반대 목소리에 주목한다. 그녀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료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언급하는 한편, 의사에게 안락사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의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³²⁾ 누구나 의사의 생명 윤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 존엄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밖에 안락사 반대 이론인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 논증은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사회적 약자가 가족과 사회에 끼칠 부담 때문에 죽음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약자에게 안락사 선택을 강제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³³⁾

이에 대해 비류잉은 네덜란드와 미국의 통계를 근거로 미끄러운 비탈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³⁴⁾ 또한 타이완의 현실을 예로 들며, 외상 환자를 둔 가정에서 쉽게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근거로 제시한다.³⁵⁾ 이어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고통을 굳이 연장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의사의 행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를 돕는 행위로서 의사의 직업적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라

32) 비류잉, 같은 책, 2024, 215면 참조.

33) Emily A. Meier, et al., “Defining a Good Death (Successful Dying): Literature Review and a Call for Research and Public Dialogu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ncbi.nlm.nih.gov, Apr. 2016; John Stonestreet and Shane Morris, “Doctor Assisted Suicide is No Slippery Slope, It’s a Moral Cliff,” *breakpoint.org*, Feb. 9, 2022.

34) 하지만 원서와 번역본 모두 구체적인 통계 수치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역자의 경우 ‘slippery slope argument’를 ‘산사태 효과’로 번역하고 있지만, 본고에선 국내 학계 일반에서 통용되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으로 기재한다.

35)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안락사가 자연사를 앞당기는 선택이 되는 경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비적 안락사’라는 명분으로 ‘도태적 안락사’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반대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 도출 또한 필요하다.

고 항변한다. 마지막으로, 안락사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금전적 이유로 인한 남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와 해외 사례의 철저한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³⁶⁾

비류잉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타이완 의료계의 주된 반응은 ‘단식 존엄사’가 완화된 형태의 안락사에 불과하며, 이는 입법 미비의 틈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것이다.³⁷⁾ 더불어 의료계는 단식 존엄사가 보편화될 경우, 그보다 단순하고 간편한 방식의 ‘의사조력사망’이 결국 합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³⁸⁾ 현재 의학계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망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는 타이완호스피스완화의학회(台灣安寧緩和醫學學會)이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락사와 의사조력사살은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고통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더욱 강경한 입장은 의료계 차원에서 단식 존엄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양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동조하는 의료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타이완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화이수웨이(華藝數位股份有限公司)’의 경우 ‘단식 존엄사(斷食善終)’를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관련 학술 논문이 채 열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⁴⁰⁾

한편, 비류잉은 모친의 단식 존엄사를 시작하면서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과 ‘낙양 33소관음영장남경첩’을 준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어머니에게 읽어드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친의 장례 기간인 7재와 49재 동안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금강경(金剛經), 반야심경(般若心經),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등을 독송했으며, 평소에도 경전을 읽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필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¹⁾ 이를 통해 비류잉이 불교

36) 비류잉, 같은 책, 2024, 216~217면 참조.

37) 宋映璇, 「末期病人斷食善終之倫理議題探討」, 『台灣醫學』, 27期, 2023, pp.493~501.

38) 釋照量, 「斷食善終該不該推廣」, 『鵝湖月刊』, 581期, 2023, pp.4~6.

39) 『安樂死及醫師協助自殺』立場聲明書, Position Statement on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참조.

40) 華藝數位股份有限公司 Airiti Inc.(www-airitilibrary-com)에서 ‘斷食善終’으로 2024년 11월 11일 검색.

41) 비류잉, 같은 책, 2024, 174면 및 215면 참조.

신자이며 상당히 독실한 신앙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비류잉은 종교계에 안락사를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신자는 그 교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안락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자격은 없다고 한다. 타이완 불교계의 경우, 대표적 교단 중 하나인 불광사(佛光山大乘佛教教團)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연명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⁴²⁾ 구체적으로 불교의 교리 중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生死一如)’라는 가르침에 따라, 현생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미 뇌사 판정으로 죽음이 확정된 환자에게 인위적인 연명장치를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불교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일 역시 본인의 권리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현대 의학의 발전은 난치병의 치료와 동시에 죽음을 원해도 생명을 강제로 유지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했다. 이는 타이완 불교계 전반이 최소한 연명의료중단에 따른 존엄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³⁾ 이에 기존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비류잉의 존엄사에 관한 주장이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나 불교의 교리와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나오며

이상으로 비류잉의 『단식 존엄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타이완에서 논의 중인 단식 존엄사를 둘러싼 현실과 법률적, 윤리적 문제 등을 고찰해보았다. 『단식 존엄사』는 환자 자신의 의사(意思)에 따라 단식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 의학의 발전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무의미한

42) 釋照量, 「以佛法的視角探討斷食與善終: Exploring Fasting and a Good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法印學報』, 14期, 2023, pp.33~53.

43) 釋照澄, 「佛教無罣礙的生死觀」, 『應用倫理評論』, 59期, 2015, pp.83~85.

생명 연장의 문제를 직시한다. 특히 비류잉의 경험은 타이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와 이를 둘러싸고 혼재돼 있는 여러 가치를 확인하게 해준다.

타이완에서는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자주권리법을 통해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온전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의료계의 관성, 가족의 정서적 갈등,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은 여전히 존엄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단식 존엄사』의 출현 역시 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이완의 사례는 존엄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심화될수록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식 존엄사를 둘러싼 논박을 통해 이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생명권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이완의 단식 존엄사 논의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존엄사에 대한 공론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요 가능성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타이완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도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中華民國 醫療法.

中華民國 醫師法.

中華民國 護理人員法.

中華民國 刑法.

中華民國 安寧緩和醫療條例.

中華民國 病人自主權利法

台灣安寧緩和醫學學會, 『安樂死及醫師協助自殺』, 立場聲明書.

畢柳鶯, 『斷食善終 — 送母遠行, 學習面對死亡的生命課題』, 麥田, 2022.

畢柳鶯, 『有一種愛是放手 — 斷食善終』 2, 從第一手個案經驗, 觀念迷思到法規醫療協同, 拿回生命自主權, 有尊嚴, 無懼無憾的安詳離世』, 麥田, 2023.

畢柳鶯, 『如何好好告別生命: 一百九十個台灣個案接觸經驗, 斷食自然往生的執行步驟與觀念釐清, 臨終者最需要的善終指引』, 麥田, 2024.

비류잉, 『단식 존엄사』, 글항아리, 2024.

마쓰바라 준코, 『50부터 준비하는 우아한 엔딩』, 동아엠앤비, 2021.

나가무라 진이치,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 위즈덤스타일, 2012.

鍾宜錚, 「最後の旅 — 台湾における死を見つめて」, 立命館大学生存学研究所, 2014.

Emily A. Meier, et al., "Defining a Good Death (Successful Dying): Literature Review and a Call for Research and Public Dialogu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ncbi.nlm.nih.gov, Apr. 2016.

John Stonestreet and Shane Morris, "Doctor Assisted Suicide is No Slippery Slope, It's a Moral Cliff," *breakpoint.org*, Feb. 9, 2022.

Wesley J. Smith, "Legalizing 'Medical Aid in Dying' Normalizes Suicide," *discovery.org*, Feb 25, 2022.

瞿海源, 「廢除死刑正反意見: 台灣實證」, 『台灣廢除死刑推動聯盟』, 2019, pp.1~44.

曾健祐, 「檢察官: 斷食善終 遊走灰色地帶」, 聯合報, 2024.

釋照量, 「以佛法的視角探討斷食與善終: Exploring Fasting and a Good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法印學報』, 14期, 2023, pp.33~53.

宋映璇, 「末期病人斷食善終之倫理議題探討」, 『台灣醫學』, 27期, 2023, pp.493~501.

吳書鈺, 「病人醫療自主權與病主法政策施行之研究」, 『國立臺北大學: 公共行政暨政

策學系』, 學術論文 2022, pp.30~178.

釋照量, 「斷食善終該不該推廣」, 『鵝湖月刊』, 581期, 2023, pp.4~6.

釋照澄, 「佛教無罣礙的生死觀」, 『應用倫理評論』, 59期, 2015, pp.83~85.

陳玲鈞, 「照護一位年輕型小腦中風男性病患之護理經驗」, 『志為護理-慈濟護理雜誌』, 4期, 2016, pp.106~115.

蔡兆勳; 黃倩茹; 黃靜宜, 「人生最後一程如何好好走? 「斷食善終」與安寧緩和醫療有什麼不同?」, 『好健康』, 67期, 2024, pp.34~37.

| Abstract |

The Discourse on VSED in Taiwan: A Study Based
on Liu-ying Bi's "*Fasting Death with Dignity*"

Kim, Euy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the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 (VSED) being discussed in Taiwan, focusing on Bi Liuying's book, "*Fasting Death with Dignity*" and its medical, ethical, and legal issues. VSED is a method in which patients voluntarily stop eating and drinking to die, and it is gaining attention as a form of death that emphasize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aiwan has established a leg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euthanasia through the Palliative Care Ordinance and the Patient Autonomy Act,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shortcomings and it actually acts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choice of euthanasia. Accordingly, the discussion of euthanasia in Taiwan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Korea, which has entered a super-aging society, will move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elderly.

Key Words: VSED,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Liu-ying Bi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 D대학을 중심으로 —

박영민 **

목 차

1. 머리말	3.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2. 이론적 배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육에서 가족 서사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성교육의 변천 과정과 필요성, 한국의 전통사상과 가족 윤리,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 제재로서 가족 서사 텍스트의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는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양 수업에서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족 서사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가족 서사, 공동체, 인성교육, 읽기, 자기 이해

* 이 논문은 2023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동양대학교 현암교양교육원 조교수.

1. 머리말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였지만, 그동안 학업과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문화에서 현재 개인의 행복 수준(행복감)은 다소 저조한 상태이거나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물질과 출세가 최고의 선(善)으로 치부되고, 합리적 사고를 상실하여 ‘사회적 병리현상(病理現象)’이 발생하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이 우리의 일상에 만연하고 있다. 또한, 서구적 물질문명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전통적 미풍양속(美風良俗)과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다소 거칠어진 사회적 기풍의 폐해는 최근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폐해가 날로 증폭됨에 따라 인간 소외와 인간관계의 파편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대한민국이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인성, 도덕성, 리더십(leadership) 실종’으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서로 분노하는 연쇄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¹⁾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적 접근이다.²⁾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 인성교육의 주요 토대는 인문학이었다. 서구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본래 인문학 교육이었으며,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도 인성교육은 동양적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³⁾ 인간교육(人間教育)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

1) 최익용, 『대한민국 운명: 국민이 나서서 세계의 등불 코리아 G3 만들기』,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21, 391면 참조.

2)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279면 참조.

3) 요컨대 『시경(詩經)』, 「소아(小雅)」를 살펴보면, “아버지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었네. 쓰다듬고 돌보아 주시며, 키워 주시고 길러주셨네. 돌아보시고 돌아보시며 오며 가며 품어주셨다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라고 하였다. 『효경(孝經)』에도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道)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고 하였다.

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론이다. 교육은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덕을 기르는 것이 인격의 토대를 견고히 하는 일이다.

셀리그만(Seligman)에 따르면, 충만한 삶(full life)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즐기면서 만족을 얻는 삶이다. 즉, 충만한 삶은 개인의 강점을 계발하여 일상에서 활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긍정적 성품을 발견하여 계발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⁴⁾이다. 우리 사회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배우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의 ‘참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는 소중한 울타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우리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 감정 및 정서교육을 하고, 언행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미래 세대가 단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양 교과목(문학과 영화) 수업에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예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의 의미가 약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서사(narrative)⁵⁾를 활용하여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족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구성되는 데에는 많은 현상과 가치들이 작용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며, 가족은 인간의 등장과 함께 존재했으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회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⁶⁾ 특히, 가족 서사(가족 이야기)는 어느 시

4)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Atria Books, 2002, p.166.

5) 서사는 인간의 다양한 유형을 그려내고 복합적인 사건을 다루며,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를 맺는다. 타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타자를 인식해야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며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6) 정옥분·정순화·홍계옥,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10면 참조.

대애나 존재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며,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가족주의’ 또는 ‘가족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란 개인 혹은 다른 집단보다 ‘가족 집단’을 중시하고 이 집단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힘쓰며, 더 넓은 사회의 질서로 확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⁷⁾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자 현재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끌어 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서사’와 ‘자기 이해’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인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태도(공감·배려·소통·존중·포용 등)를 형성하고자 한다.

가족 서사 작품 속 인물들의 경험을 토대로 개별 학습자의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 서사를 인성교육 제재로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별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인접해 있는 가족 서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가족 서사의 내용은 단순히 과거 전통사회의 모습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 및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에 대해 재고(再考)해 볼 수 있는 현대 문학 작품, 드라마, 영화 작품을 교수·학습 과정 중 적재적소에 적용할 것이다. 가족 서사 감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과정인 ‘역지사지(易地思之) 소통하기’ 활동,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며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단서를 찾아가는 ‘반성적 사고 확장하기’ 등을 교수·학습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인성교육 텍스트로 활용하는 ‘가족 서사(family narrative)’는 고전문학과 근현대 문학, 영화 등 장르 전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초 소양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 서사를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을 예시하는 것이다.

7)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소설 형식과 가족의 운명』, 민음사, 1993, 14면 참조.

2. 이론적 배경

1) 인성교육의 변천 과정과 필요성

우리나라 ‘인성교육’은 삼국시대(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통사회의 인성교육의 장(場)을 간략히 살펴보면,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화랑, 고려와 조선의 서당이 있다.⁸⁾ 인성교육은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에 따라 그 강조점이 일부 다르지만, 그동안 가정·학교·사회에서 인간교육(人間教育)이나 전인교육(全人教育)의 일환으로 지속되어 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된 주요 역사적 배경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⁹⁾ 및 2015년 제정·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人性教育振興法)’이다.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인 ‘인성(人性)’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개 ‘인성’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모두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품성(品性)’과 ‘역량(力量)’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성역량(人性力量)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인간의 성품 계발과 관련되며, 미래 사회를 유토피아로 조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인성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는 ‘인문학적 감성역량과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의미한다. 미래 사회는 창의·융합형의 지적 역량뿐만 자기 이해력, 회복 탄력성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 포용, 협력 등의 인성역량을 갖춘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다.¹⁰⁾

전통적으로 휴머니즘(humanism)의 이념을 배경으로 발생한 인문학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인간교육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다. 2009년 한국국학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¹¹⁾은 현대적 인성교육의 한 방식으로 부활시

8) 조벽, 『인성이 실력이다』, 해냄, 2017, 8면 참조.

9)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5.

1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22.

11) 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현들의 미담과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 할머니들이 관련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들려주는 교육 사업이다.

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 할머니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미래 성장 세대인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토요일, 기념일: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지정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할머니·할아버지들 간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물질화되고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진 오늘날 부모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운동을 추진한 것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¹²⁾,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¹³⁾ 등이 있다. 교육부는 ‘미래 한국의 문화자본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인문학 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가·사회·가정의 응집력 제고, 우리 고유 가치의 재발견 및 소개, 새롭고 다양한 관점 제시를 전략 목표로 수립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핵심 목표는 ‘인간 존엄’과 ‘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삶을 위한 풍요로운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면서, 품격을 갖춘 시민의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인문학이 인간다운 삶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라면, 인성교육은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곧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장 세대가 인간다움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은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적 측면으로는 ‘좋은 삶(a good life)’을 가늠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성과 시민적 자질을 제고하는 실천 학문이 되어야 한다.

2) 한국의 전통사상과 가족 윤리

유교(儒敎)의 선비정신에 기초한 우리는 우수한 인성교육의 내용과 장(場)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인성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천

12) 교육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1.

13)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1.

년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그 가치를 전수하는 인성교육 방식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는 기능 위주가 아닌 인간성 전체를 조화롭게 기르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전통이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 사상에 인간과 자연은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관계이자 인간을 자연 속에 융화된 귀중한 일부로 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인간 주체를 상실한 물질 위주의 이기주의로 타락하고 고립된 개인 본위로 왜곡된 오늘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천애인(敬天愛人), 인(仁) 사상,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 등의 현대적 재조명이 필요하다.¹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 곧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회 속에서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양면성을 표출하고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간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맺어진 유대(紐帶)는 ‘타자와 사회’를 나와 연결된 공동의 몸, 곧 ‘공동체(共同體)’로 인식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道理)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의 윤리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관계는 사회적인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을 설명하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가족주의(家族主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족 내의 인간관계·생활 태도·의식 등을 가족 집단에서만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가족주의 사고방식을 근거로 정책·제도 또는 관습을 세우려 하는 총칭”¹⁵⁾을 말한다. 이는 가문 전체의 이익이 가족의 성원 각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였으며, 개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가문(家門)으로서의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 가족주의의 근본정신이다.¹⁶⁾ 이처럼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 각자가 각각 독립된 주체로서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가문 전체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온 가족이 협동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서 벗어나, 가족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

14) 엄주정, 『현대사회와 인성』, 가산출판사, 1999, 121면 참조.

1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유종호 외, 「가족사 소설」, 『문학비평 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89면.

16) 엄주정, 상계서, 79면 참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인간에게 공동체로 어떠한 기능과 형태를 띠게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현재 대학생들이 위치한 복잡다단한 가족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家庭)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이면서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장소이다. 한 개인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타자성(他者性)이라 할 때, 이러한 주체적 자아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근원은 거주 공간인 ‘가정’이다.¹⁷⁾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되고 성장하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아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장다운 근엄한 모습,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위한 희생이 기본인 현모양처(賢母良妻)의 모습,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을 당연하게 삼아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사회에서 소집단 사회인 가정은 ‘혈연적(血緣的) 공동사회’로서 인간의 성장 과정에 있어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3)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국문학사에서 ‘한 가족의 운명’은 고전(古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작품의 소재가 되어 왔고, 문학은 사회적 가치를 가족은 사회의 변화상¹⁹⁾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족 서사’는 사회적 가치관과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왔으며, 시대별 작품마다 당시의 가족을 형상화한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가정은 개인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시대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가족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전통 가정교육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문자²⁰⁾는 우리 전통교육과 종가(宗家)의 옷어론에 대한

17)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주체와 타자 사이』, 그린비, 2012, 86면 참조.

18) 엄주정, 전제서, 151면 참조.

19) 가족의 갈등과 화합, 비극, 역사 등을 중심 소재로 다루는 작품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게 나타나며, 특히 가족 서사 작품은 시대의 상황과 당대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며 한국 문학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배려, 예절, 손님 접대 등 몸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심성을 함양했듯이 체험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 중심 교육의 강화, 가족 스토리(story) 만들기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너무 쉽게 무너져 가는 현실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재고(再考)하는 방안을 탐색한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 정약용의 시에 나타난 가족애 분석²¹⁾과 관련된 연구, 고산 윤선도의 유배시에 나타난 가족애 분석²²⁾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고전문학과 관련된 윤미연²³⁾의 연구는 상생의 한국 구비 설화에 포함된 가족 서사를 고찰하여 오늘날 부모, 학생, 교육자의 소통과 긍정적 강점 모색 및 변화에 대한 효용성을 규명하였다.

오늘날의 가족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현대적 가족제도(핵가족화·고령화·다문화 가정·재혼 가정의 증가 등)가 혼재되는 양상을 지닌다.²⁴⁾ 현대 문화를 활용한 가족 서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 소설의 가족 서사 내용을 분석한 김윤정²⁵⁾의 연구와 현대 소설 작품 속 가족 해체 서사 내용을 분석한 남효정²⁶⁾의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다양한 이유로 해체된 가족의 양상과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 관련 작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특성을

20) 이문자, 「한국 종가 가정교육의 형식과 내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21) 손혜정, 「다산 시에 나타난 '가족애' 연구 - 내면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2) 정은숙, 「고산 윤선도의 유배시 연구 - 가족애를 중심으로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2.

23) 윤미연, 「상생의 가족서사와 그 효용성 연구 - 한국 구비 설화를 바탕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4) 김종두·서은숙·박균열, 「효의 현대적 의미와 가족 윤리의 시사점」, 『민족사상』 제13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9, 150면 참조.

25) 김윤정, 「한국 다문화소설의 가족서사 교육내용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26) 남효정, 「가족해체 서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 김애란의 소설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소설 속에 형상화된 가족 서사를 활용하여 개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접 경험이 가능한 가족 서사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족 이야기 즉, 가정소설에 대해 규명한 최시한은 한국 문화의 의미체계를 이루는데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이라고 밝혔고, 가족과 관련된 관념, 규범, 제도 등이 여전히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거니와, 개인이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틀”²⁷⁾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의 과정 중 하나로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경험과 지평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습자들의 길지 않은 역사 속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직접 고민할 수 있도록 스스로와 주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 서사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족 공동체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의 다양한 존재를 깨닫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타자 이해’, ‘공동체 화합’,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적 가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의의가 “삶의 총체적 체험에 의한 가치의 내면화”²⁸⁾에 있기에 독자는 작품의 힘을 빌려 자연과 타자가 개인을 구성하는 데 본질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 즉 ‘나’의 정체성이 형성됨을 이해하여 가족 등 타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가족 서사 관련 작품을 활용해야 한다. 가족 서사의 의의는 전통 시대와 현대의 가족 문제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족의 문제는 과거 전통사회부터 현대사회까지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며, 가족 서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그 문제의식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27) 최시한, 전거서, 21면.

28) 선주원, 「사회 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학교육의 지향」, 『문학교육학』 제2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62면.

3.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1)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계

이 프로그램의 설계 목적은 개별 학습자가 자신이 겪어온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일상을 간접 경험하여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제재로서 가족 서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가족 서사는 고전문학과 근현대 문학, 영화 등 장르 전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텍스트 선정을 위하여, 대학생의 연령대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가족 서사 텍스트 읽기 과정 모델은 핵심 인성 덕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가족 서사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기 전(the pre-reading phase), 읽기 중(the during reading phase), 읽기 후(post-reading)' 등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²⁹⁾ '읽기 전 단계'는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읽을 텍스트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읽기 전에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연계를 증진하여 '사전 지식의 정서적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는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자기 점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동안 텍스트와의 연계 및 관련을 맺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읽기 후 단계'에서 개별 학습자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명료화·정교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진다. 이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포용성을 함양하여,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경쟁을 통한 생존보다는 함께 살아가며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아는 인성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인성역량이 바로 '공동체 역량'³⁰⁾과 '인문학적 감성역량'이다. 교과 수업에서

29) 선주원, 『청소년 문학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8, 118-122면.

30)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 타인과 공감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이루어 내고, 타인의 의견을 편견 없이 존중해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 중심 수업에서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여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도와주는 ‘수업의 안내자·수업의 협력자(조력자: 학습의 친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³¹⁾ 이러한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을 적용하였다. 다음 <표 1>은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단계별 주요 활동 및 인성역량을 종합한 것이다.

<표 1>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단계별 주요 활동 및 인성역량

구분	주요 활동 및 방법	(핵심) 인성역량
맥락	• 이야기를 선정하여 ‘함께 읽기(共讀)’³²⁾ • 읽으면서 질문거리 만들기	• 인문학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반응	• 작품 속에서 ‘삶’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치 찾아보기(역지사지 소통하기)	• 공동체 역량(공감, 소통, 포용성, 협력) • 인문학적 감성 역량(심미적 감성, 자아 성찰)
나의 맥락 만들기	• 가계도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 자신의 삶(경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기 •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판단하기 • 맥락과 관련되는 사회·문화적 현상 떠올려 보기(반성적 사고 확장하기)	• 공동체 역량(공감, 소통, 포용성, 협력) • 인문학적 감성 역량(비판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자아 성찰)
텍스트로 표현하기	•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글쓰기)³³⁾ • 내면의 변화를 글로 표현하여 명료화하기, 자기 성찰	• 인문학적 감성 역량(심미적 감성, 자아 성찰, 회복 탄력성)
공유 및 내면화	• 우리 가족의 역사,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 족보로 알아가는 뿌리 찾기 •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실천 • 발표와 토론³⁴⁾을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사고를 이해하며, 핵심 가치와 인성 덕목 체화하기	• 공동체 역량(공감, 소통, 포용성, 협력) • 인문학적 감성 역량(비판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자아 성찰, 회복 탄력성)

주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31) 박상준, 『거꾸로 교실을 넘어 거꾸로 학습으로』, 교육과학사, 2016, 41면.

32) 텍스트 분석(함께 읽기)을 통해 개별 학습자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구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서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텍스트의 분석(읽기)과 표현(글쓰기, 토론 및 발표) 등이다. 읽기는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문화적인 상황 맥락을 갖는 참여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 구성주의적 이론에 바탕을 둔 ‘문화와 영화’ 수업에서, 개별 학습자는 다양한 작가들의 텍스트를 읽거나, 독서 일기를 쓰거나, 영화를 감상한 후, 모둠 토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공유하게 된다. 개별 학습자는 토론 과정에서 사고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참여자로서 토론 과정에서 따뜻한 인간적 감성과 인성으로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³⁵⁾하며 원만하게 ‘소통’³⁶⁾할 수 있는 민주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 역량과 ‘바르고 지혜로운 인생’³⁷⁾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가족 서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단계, ‘나의 맥락 만들기’ 단계의 ‘가계도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텍스트로 표현하기’ 단계의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공유 및 내면화’ 단계에서는 ‘우리 가족의 역사,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 족보로 알아가는 뿌리 찾기’ 등의 학습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가치, 사회적

33) 글쓰기는 개별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을 연결하고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탐구하고,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돕기 위한 읽기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34) 토론과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사례 조사 및 분석, 사회적 사건과 연관 짓기이다. 토론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산출하는 필수조건이며,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의 문제를 깨닫도록 자극하고 문제의 확인을 도와주고 제대로 탐구하여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35) ‘배려’는 소집단 활동에서 개별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화, 토론 시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거나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의견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다.

36) ‘소통’은 개별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능력으로 협력학습 과정에서 ‘배려’, ‘소통’, ‘존중’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집단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이다.

37) ‘바르고 지혜로운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타주의(利他主義)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박애주의(博愛主義)로 사는 것이며, 개인적인 삶의 행복을 넘어 정의와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참다운 삶을 의미한다.

배경, 전통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가족의 역사와 문화, 유산을 전하는 매개체이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 자기의 조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각 세대가 이어온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족의 근본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2)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가족 서사는 개별 학습자의 “자아의 통합력”³⁸⁾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가족 서사들이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양 교과목 ‘문학과 영화’에 적용하였다.³⁹⁾ 다음 <표 2>는 가족 서사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 차별 주요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이해하기(요약 및 정리, 분석) → 탐구하기(발표, 토의) → 공감·소통하기(발표형, 토론형, 논술형, 모둠 활동)’로 이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人格體)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학습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의사소통은 동료 학습자 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별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의 연속성 속에서 ‘인성역량-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소통, 존중, 책임, 포용, 협력), 인문학적 감성 역량(비판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

38) 박아청, 『아이덴티티 論』, 교육과학사, 1986, 27면.

39) 해당 교과목은 D대학의 교양 이수 체계, 균형 교양의 ‘문화와 예술’ 영역 「문학과 영화」에서 2023학년도 2학기에 15주간, 매주 3시간 편성·진행하였다. 전체 수강생 60명(1학년: 21명, 2학년: 14명, 3학년: 11명, 4학년: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생 대부분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수강생 일부는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강생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 27명(45%), 여 33명(55%)이며, 학부·학과 소속 현황은 ‘게임학부, 공연영상학부, 공공인재학부, 디자인학부,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웹툰애니메이션학과’ 총 6개 학부·학과 소속의 수강생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 역량(자기 이해, 자아 성찰, 회복 탄력성: 유연성, 적응력) 등을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별 학습자가 성장 서사와 관련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아 성찰과 타자 및 세계에 대한 이해 즉, '자기 이해'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표 2〉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 차별 주요 내용

주차	주제 및 학습자료(학습활동)	방법	인성역량·핵심역량
1	• '학습 두레(소집단)' 구성,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강의, 토론	• 공동체 역량(소통, 협력), 의사소통역량
2	• 주제: 조선 육아일기와 '할매·할배의 날' -활용 자료: ① 이문진, 『양아록(養兒錄)』 ⁴⁰⁾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이야기 공감, 토의·토론, 협력 중심, 우리 가족의 행복한 스토리, 우리 가족의 역사,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 족보로 알아가는 뿌리 찾기	강의, 토론,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존중, 책임),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 역량(자아 성찰)
3 ~ 4	• 주제: 가족 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와 용서 -활용 자료: ① 김애란, 「사랑의 인사」, 『달려라 아비』, ⁴¹⁾ ② 김려령, 『완득이』, ⁴²⁾ ③ 이한, 영화 「완득이」 ⁴³⁾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이야기 공감, 성찰적 글쓰기, 독서 일기 및 서평 쓰기	강의,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배려, 존중, 책임, 포용),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회복 탄력성)
5 ~ 7	• 주제: 숭고한 삶, 아버지 삶의 무게 -활용 자료: ① 박종채, 『과정록(過庭錄)』, ⁴⁴⁾ ② 정민, 박동욱, 『아버지의 편지』, ⁴⁵⁾ ③ 김정현, 『아버지』, ⁴⁶⁾ ④ 윤제균, 영화 「국제시장」 ⁴⁷⁾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이야기 공감, 발표, 협력 중심, '아버지'라는 자리, 나의 아버지	강의, 발표,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소통, 존중, 책임, 협력),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자아 성찰)
8	중간 평가(개인별 성과 발표 및 나눔)		
9 ~ 10	• 주제: 가족애의 재조명, 조선시대 서간문과 인간 읽기 -활용 자료: ① 정약용, 「하피첩(霞帔帖)」 ⁴⁸⁾ , ② 박석현, 『다산의 마지막 편지』, ⁴⁹⁾ ③ 임세권, 『원이엄마: 편지』 ⁵⁰⁾ 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강의, 발표,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존중, 책임), 인문학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자아 성찰, 회복 탄력성)

주차	주제 및 학습자료(학습활동)	방법	인성역량·핵심역량
9 ~ 10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책 읽기를 통한 도덕적 성찰 학습, 인물 학습, 발표, 가계도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모습에 대한 마인드맵(mind map)		
11 ~ 12	- 주제: 조선시대 대표 모자(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조선 선비의 나눔과 자녀 교육 -활용 자료: ① 이이, 「선비행장(先妣行狀)」, 『율곡전서(栗谷全書)』,⁵¹⁾ ② 이동기, 『퇴계의 인성 교육』,⁵²⁾ ③ 정민, 박동욱, 『아버지의 편지』⁵³⁾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이야기 공감, 인물 학습, 글쓰기, 새롭게 발견하는 ‘나’,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 미래의 자녀 교육을 위해 쓰는 서간문	강의, 협력 학습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소통, 존중, 책임),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자아 성찰)
13 ~ 14	- 주제: 가족 사랑을 담은 문학과 영화 -활용 자료: ① 余华(yúhuá), 『허삼관매혈기(许三观卖血记)』,⁵⁴⁾ ② 하정우, 영화 「허삼관」⁵⁵⁾ -수업 유형 및 주요 활동: 이야기 공감, 토의·토론, 협력 중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새로운 가족 형태,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실천 우리 가족 행복 나들이	강의, 토론, 협력 학습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존중, 책임, 포용),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자기 이해, 자아 성찰, 회복 탄력성)
15	기말 평가(학습 두레별 성과 발표와 총평)		

40) 이문진, 이상주 역주, 『양아록(養兒錄)』, 태학사, 1997.

41) 김애란, 「사랑의 인사」,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42)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14.

43) 이한, 「완득이」, 유비유필름, 어나더무비스, 2011.

44) 박종채, 김윤조 역주, 『과정록(過庭錄)』, 태학사, 1997.

45) 정민·박동욱, 『아버지의 편지』, 김영사, 2008. 연암 박지원의 서간을 발췌하여 활용함.

46) 김정현, 『아버지』, 황금물고기, 2013.

47) 윤제균, 「국제시장」, JK필름, 2014.

48) 국립민속박물관,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 국립민속박물관, 2016. 국가유산 채널, 관련 영상: KBS 천상의 컬렉션(12회) - 『하피첩(霞帔帖)』, (<https://www.k-heritage.tv/ko/M000000267/media/view?pstNo=13807>).

49) 박석현, 『다산의 마지막 편지』, 모모박스, 2023.

50) 임세권, 『원이엄마-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국가유산 채널, 관련 영상: KBS 천상의 컬렉션(18회) - 『원이엄마 편지』,

수업에서 활용한 편지 속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달랐다. 박지원의 초상화를 보면 장대한 기골에 범상을 한 무서운 표정이지만, 그가 경상도 안의에서 땀을 흘리며 고추장을 직접 담고 ‘소고기 볶음’을 만드는 모습, 병든 아내와 허약한 며느리에 대한 걱정, 손자 얼굴 생김새에 대한 궁금증 등도 자주 등장한다. 이황의 편지에는 멀리 떨어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들(稿)의 과거 시험 준비 및 공부 방법을 찬찬히 알려주는 애뜻한 아버지의 정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보낸 편지는 손자인 안도(安道)를 보살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예의범절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의 세심한 가르침이 언급되고 있다. 정약용의 『하피첩(霞帔帖)』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치마에 자식들에게 평생 교훈이 될만한 글을 적어 남긴 글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이의 「선비행장(先妣行狀)」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아들의 진솔한 마음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손자 숙길을 양육하면서 육아의 목적을 올바른 인격의 형성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려령의 『완득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실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 문제, 가족 공동체 형태의 다양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 공동체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 간 사랑의 깊이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 주고, 가족 공동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에 형태만 다를 뿐 동질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애란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족해체와 가족의 형태를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김애란의 「사랑의 인사」에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가족(다문화 가

(<https://www.k-heritage.tv/ko/M000000267/media/view?pstNo=13807>).

- 51) 이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선비행장(先妣行狀)」, 『울곡전서(栗谷全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 52) 이동기, 『퇴계의 인성교육』,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 53) 정민, 박동욱, 전계서, 퇴계 이황의 서간을 발췌하여 활용함.
- 54) 余华, 최용만 역, 『허삼관매혈기(许三观卖血记)』, 푸른숲, 2013.
- 55) 하정우, 「허삼관」, 두타연, 2015.

족, 미혼모,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비혈연 가족 등)이 있는가”⁵⁶⁾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김애란의 작품은 가족해체를 겪은 인물들을 연민·동정·불안 등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또는 ‘정상 가족’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가족 해체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가는 가족의 모습을 연민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나’와 가족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요컨대,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 차별 주요 학습활동 및 방법으로 소개된 가계도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역사,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 족보로 알아가는 뿌리 찾기’ 활동을 통해, 개별 학습자는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가족의 역사적 사건, 이주 경로,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가족의 역사, 족보의 중요성과 현대적 활용’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어, 가족의 연속성과 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처럼 ‘가계도와 족보를 통해 만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실천 방안(우리 가족 행복 나들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개별 학습자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서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학습자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배우며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삶의 태도·가족 형태가 있음을 수용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좋은 인성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는 ‘사람됨’을 모두 갖춘 성숙한 인격체이다. 결국 인간

56) 김애란, 전거서, 153면.

은 언제나 “~로서”⁵⁷⁾ 세상과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자기 이해’는 ‘~로서’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타인과 세상을 ‘이해’함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형성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해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 세계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자기’를 구성한다. 참다운 인간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도덕과 윤리는 인간존재 질서의 행동강령, 즉 단위의 규범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에 내재 된 이론과 사례를 통한 ‘가족 서사’ 교육은 ‘정신적 아노미(anomie)’ 상태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이론적 기초로서 인성교육의 변천 과정과 필요성, 한국의 전통 사상과 가족 윤리,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업방안으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 제재로서 가족 서사 텍스트의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는 교수·학습과정을 설계·개발·예시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 서사를 통한 공동체 통합과 이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핵심 인성역량은 ‘공동체 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다. 가족 서사 텍스트와 관련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는 ‘공감, 배려, 소통, 책임, 포용, 협력’을 포함한다. 가족 서사의 내용은 단순히 과거 전통사회의 모습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

57) 최고원, 『가다머 vs 하버마스』, 세창출판사, 2021, 22쪽.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재고(再考)해 볼 수 있는 현대 문학 작품, 드라마, 영화 작품 등을 교수·학습 과정 중 적재적소에 적용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양 교과목 ‘문학과 영화’ 수업에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가족 서사 텍스트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 활동에 도입·적용하면 대학생들의 인성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해 온 삶이 누적되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고유한 시각이 만들어진다. 개별 학습자는 가족 서사를 감상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가족과 타인의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공동체의 이해에 다가갈 수 있었다.

강의 만족도(강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3-4주차의 ‘가족 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와 용서’, 9-10주차의 ‘가족애의 재조명, 조선시대 서간문과 인간 읽기’, 13-14주차의 ‘가족 사랑을 담은 문학과 영화’ 등의 주제로 진행된 수업(글쓰기, 읽기, 학습 두레별 발표와 토의·토론 활동)에서 흥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억에 남는 주요 학습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및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모습에 대한 마인드맵(mind map) 그리기 활동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탐색 및 성찰은 다음과 같다. 한 학기 간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작품(문학, 영화) 수는 총 16편이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고등학교 시기에 접해 본 경험에 있는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작품이었다. 수업에서 활용한 작품은 사전 읽기 요약본과 영상이 제공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전 읽기 요약본과 영상이 제공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대부분의 수강생이 어려운 작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별 학습자가 수업 전 자발적으로 읽어야 할 몫으로 남겨진다. 특히, 고전 자료의 경우 번역본과 함께 제공하였지만, 개별 학습자가 사전에 읽기 자료를 읽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경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습활동에서의 참여도 역시 소극적이었다. 수업에서 활용된 작품 중

김정현의 『아버지』는 장편소설 작품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별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편소설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설 단계별 요약본 등을 기초 학습 자료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교양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는 예시자료로 활용되어, 대학 교양교육에서 연구를 위한 지침과 현장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연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은 성장 세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 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형성하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전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인문계, 특성화계 등)과 고등교육(대학교: 전공 계열별) 간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과목과 연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업의 효과성 검증(수업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詩經』

『孝經』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5.

교육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1.

_____,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22.

국립민속박물관,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국역서)』, 국립민속박물관, 2016.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14.

김애란, 「사랑의 인사」,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주체와 타자 사이』, 그린비, 2012.

김윤정, 「한국 다문화소설의 가족서사 교육내용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김정현, 『아버지』, 황금물고기, 2013.

김종두·서은숙·박균열, 「효의 현대적 의미와 가족 윤리의 시사점」, 『민족사상』 제13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9, 149~193면.

김희엽 외, 『교육심리학』, 정민사, 2019.

남효정, 「가족해체 서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김애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1.

박상준, 『거꾸로 교실을 넘어 거꾸로 학습으로』, 교육과학사, 2016.

박석현, 『다산의 마지막 편지』, 모모박스, 2023.

박아청, 『아이덴티티論』, 교육과학사, 1986.

박종채, 김윤조 역주, 『과정록(過庭錄)』, 태학사, 1997.

선주원, 「사회 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학교육의 지향」, 『문학교육학』 제2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55~182쪽.

_____, 『청소년 문학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8.

손혜정, 「다산 시에 나타난 ‘가족애’ 연구 -내면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엄주정, 『현대사회와 인성』, 가산출판사, 1999.

- 윤미연, 「상생의 가족서사와 그 효용성 연구 -한국 구비 설화를 바탕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윤제균, 「국제시장」, JK필름, 2014.
- 이동기, 『퇴계의 인성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15.
- 이문진, 이상주 역주, 『양아록(養兒錄)』, 태학사, 1997.
- 이문자, 「한국 중가 가정교육의 형식과 내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이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선비행장(先妣行狀)」, 『울곡전서(栗谷全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 이한, 「완득이」, 유비유필름, 어나더무비스, 2011.
- 임세권,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 정민·박동욱, 『아버지의 편지』, 김영사, 2008.
- 정옥분·정순화·홍계옥,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 정은숙, 「고산 윤선도의 유배시 연구 -가족애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2.
- 조 벽, 『인성이 실력이다』, 해냄, 2017.
- 최고원, 『가다머 vs 하버마스』, 세창출판사, 2021.
-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소설 형식과 가족의 운명』, 민음사, 1993.
- 최익용, 『대한민국 운명: 국민이 나서서 세계의 등불 코리아 G3 만들기』,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21.
- 하정우, 「허삼관」, 두타연, 201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유중호 외, 「가족사 소설」, 『문학비평 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余华, 최용만 역, 『허삼관매혈기(许三观卖血记)』, 푸른숲, 2013.
-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Atria Books, 2002.

| Abstract |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Family Narrative: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Park, Yo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family narratives in school education.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tudy, we focused on the transition process and necessity of personality education, Korean traditional thoughts, family ethics,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family narrativ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was designed and developed to guide the possibility of using family narrative text as a sanction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oretically examining the method and necessity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family narratives, the possibility of its use in class was confirmed. Second,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family narratives to strengthen the personalit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in liberal arts classes was exemplified. Consequently, it is judged that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using family narrative texts has a positive effect on cultivating the personalit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s a follow-up study,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linking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was proposed.

Key Words: Family Narrative,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Reading, Self-Understanding

만화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연결 요인 —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 —

박주희*

목 차

1. 들어가는 말	4. 게임과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요인
2. 트랜스미디어의 스토리텔링	5. 마음교육의 필요성과 연계 분석
3. 시네마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6. 나가는 말

■ 국문초록

디지털 게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 수억 명의 게이머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 시네마틱이 게임 유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접점에 대해 고찰한다. 잘 짜여진 스토리는 게임의 매력을 배가시키며, 플레이어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본 연구의 목표는 게임 커뮤니티가 이러한 스토리텔링 경험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 스토리와 관련된 토론을 펼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게임 스토리텔링이 게임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 스토리텔링, 게임, 커뮤니티, 마음교육, 상호작용

* 남서울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말

디지털 게임 산업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게임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오락의 경계를 넘어,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몰입감과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 내에서 잘 구성된 스토리는 플레이어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게임의 전체적인 매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게임 커뮤니티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경험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¹⁾, 스트리밍 플랫폼²⁾ 등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은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게임 스토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만화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작용에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연결 요인이 마음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잘 짜여진 게임 스토리와 커뮤니티 활동이 플레이어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적,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며, 마음교육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게임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게임을 양산해오던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어 양질에 콘텐츠를 양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에 인문학 전반, 철

-
- 1)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는 Facebook, Twitter, Instagram, TikTok, YouTube 등이 있다.
 - 2) 스트리밍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YouTube, Twitch, Netflix, Spotify 등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즉시 재생하여 즐길 수 있다.

학이나 문학 등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자산들이 이제 디지털화된 구조하에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철학적인 내용과 사유 방식이 각종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교육은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해 고안된 교육 방법으로, 자아존중감, 공감, 감정 조절 등과 같은 핵심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마음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마음교육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게임을 활용한 마음교육이다. 잘 설계된 게임 스토리텔링과 게임 내 커뮤니티 활동은 플레이어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고, 감정적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경험이 마음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디지털 게임을 통한 마음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트랜스미디어의 스토리텔링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³⁾은 서로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확장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다. 트랜스미디어는 하나의 미디어로 담아낼 수 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각기 다른 미디어에 담아내는 것으로,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다양한 미디어 특성에 맞게 여러 형태로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3)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에 의해 주로 정의되었으며, 젠킨스는 이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펼쳐지는 서사가 각각의 매체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각각의 매체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서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링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단일한 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사세계 아래 이루어진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창조하는 전략이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매체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하나의 서사를 다각도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청중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게임에 적용될 경우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야기를 읽거나 보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게임 이용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 가고 결말에 이르는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이다.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확장을 목표로 하며, 각각의 미디어 플랫폼은 독립적인 서사 단위로 기능하면서도 전체 서사를 완성한다. 이용자로 하여금 영화나 소설이 구축한 서사 세계 속에 직접 들어가 이야기의 배경과 사건을 체험하게 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현재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개념적 영역을 넘어 방법론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원작의 구성요소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원작을 서술하여 기존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있던 세계를 확장시키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플롯과 캐릭터, 세계관 등 원작 스토리 세계를 본질적으로 재설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 팬픽션, 커뮤니티 포럼 등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확장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마블⁴⁾, 만화

4) 마블(Marvel)은 미국의 만화 출판사이자 미디어 프랜차이즈로, 슈퍼히어로 캐릭터와 스토리로 잘 알려져 있다. 마블은 특히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로 유명하며,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수많은 인기 있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MCU)는 마블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영화와 TV 시리즈를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연결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MCU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높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마블 스튜디오(Marvel Studios)는 이러한 영화와 시리즈를 제작하는 회사다. 마블은 단순한 만화를 넘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산업의 영향력을 통해 마블만의 독특한 슈퍼히어로 문화를 형성했고 그것을 토대로 IP 확장을 시작해 큰 성공⁵⁾을 이루었다. 마블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시대의 발전과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단일 만화 핵심의 발전 체계로부터 대담하게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만화 시장으로부터 영화 시장으로 전향한 특별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디즈니와 마블에 나타난 <트랜스미디어 확장, 강화, 소통, 융화, 매체전이> 등의 특성은 만화 산업 핵심 발전 이념, 내용 핵심주의 성공산업, IP 관련산업의 경제적 이익, 지속발전의 산업 구조, 영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창조, 마블 평행우주 세계관, 이야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객의 상호작용, 주동적 관객들의 표현>과 같은 9가지 방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블의 만화 핵심 산업에서 영화 핵심 산업의 전의 과정을 분석하여 생성된 마블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은 주도면밀한 계획의 산물이며 초기의 만화 핵심주의에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영화, TV드라마, 게임, 장난감, 2차 상품 등 완전한 산업구조를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원소스멀티유즈⁶⁾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IP 외에 디즈니와 마블은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2014년 상영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Guardians of the Galaxy,

-
- 왔다. 이를 통해 마블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 5) 과거 게임 마케팅 방식은 검색 포털 메인 화면 상단에 게임 광고를 올리거나 게임 소개 영상 등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이후에는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이른바 ‘스타 마케팅’이 유행했다. 게임 속 캐릭터로 변한 스타들이 검과 마법으로 몬스터를 사냥하고, 스타의 목소리가 인게임에서 흘러나오는 식이다. 그러나 스타 마케팅은 게임사들로 하여금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을 떠안게 했으며, 그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일종의 감성 마케팅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블리자드다. 블리자드는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 발매 시절부터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6) 원소스 멀티유즈(OSMU)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영화를 원작으로 만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전개하는 것이 원소스 멀티유즈의 좋은 예시다. 이를 통해 원본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2014)가 대박 흥행을 거두면서 2015년 디즈니 XD(디즈니 텔레비전의 자회사인 ABC 케이블 네트워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 케이블 및 위성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방영하였고, 2014년 “빅히어로”(Big Hero 6, 2014)는 마블과 디즈니가 영화 분야에서 처음으로 합작한 작품이다.

디즈니는 이것을 계기로 디즈니가 3D애니메이션 분야를 선택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컨셉 변형과 만화 배경의 리셋을 완성했는데, 이 시기부터 마블은 점차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반을 세우기 시작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체화하고 유통하는데,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사용자 자체이다. 즉,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허구적인 세계 구축과 캐릭터 제시를 통해 대중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도록 단서나 주제를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략은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법에 그치지 않고, 해당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해결하도록 할 뿐 아니라, 관객들이 주동적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내용을 접하고 스토리 이해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해 디즈니 마블의 다른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스토리와 캐릭터에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팬덤 문화가 형성되면서 디즈니 마블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게임의 사례이다. 라이엇 K/DA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K/DA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⁷⁾ 게임 안에서 존재하는 캐릭터 아리, 아칼리, 카이사, 이블린을 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가 걸그룹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7) 리그 오브 레전드(Legacy of Legends)는 Riot Games에서 개발한 팀 기반의 실시간 전략 게임이다. 이 게임은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이름의 가상 세계에서 플레이어들이 챔피언을 선택하여 팀을 이루어 상대팀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40명 이상의 다양한 챔피언을 제공하며, 각 챔피언은 고유한 능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게임은 5:5 팀 전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가 요구된다.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e스포츠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리드보컬, 리드댄서, 래퍼 등 한국 아이돌 그룹 특유의 멤버 구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각 멤버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K/DA를 만든 토아 던(Toa Dunn) 라이엇 뮤직 그룹 총괄, 자넬 지메네즈(Janelle Jimenez) K/DA 스킨 리드, 패트릭 모랄레스(Patrick Morales) 뮤직비디오 크리에이티브 리드에게 소감과 제작 과정, 향후 활용 방안 등의 인터뷰⁸⁾를 통해 알 수 있다.

게임 관련 전문가들은 오버워치의 흥행과 관련해, 뛰어난 게임성 뿐만 아니라 게임속에 적절히 녹아든 스토리도 큰 몫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게임계 관계자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감성 마케팅의 한 종류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며 “게임 출시전 스토리를 이미 접한 유저들은 게임속에서 더 큰 몰입감을 느끼게 되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적을 처치해 그 횟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이 팀원들과 협동해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시네마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기존의 미션 수행과 보상의 반복이었던 FPS 게임에 길들여져 있던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들의 감성을 자극해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게임과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K/DA(케이디에이)가 히트곡 ‘POP/STARS’로 폭발적인 사랑을 얻고 있다.

-
- 8) 아래는 한 인터뷰의 내용이다. ‘K/DA-POP/STARS’의 콘셉트를 소개해달라. (지메네즈) “K/DA는 게임 내 스코어 표시 방식인 킬(Kills·직접 상대를 처치한 횟수), 데스(Deaths·처치 당한 횟수), 어시스트(Assists·상대 처치에 도움을 준 횟수)의 줄임말이다. 플레이어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고민하다 지었다. 또 K/DA 멤버들이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사냥하는 챔피언이라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패트릭) “K/DA의 핵심은 ‘현실과 허구의 만남’이다. 롤 세계관에서 차용해온 비현실적 요소를 현실 세계에 음악과 함께 내놓는 것이 목표다. 뮤비가 진행할수록 현실에서 허구로 이동한다. 뮤비에서 케이팝 춤과 노래는 현실을, 챔피언들이 재현하는 게임 내 화려한 기술과 초능력은 허구를 상징한다. 각 챔피언이 특성을 발휘하면서 바뀌는 배경도 가상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팬들마저 속이는 트레이드마크인 꼬리부터 스튜디오의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팬들은 K/DA의 파격적인 감각에 열광하고 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아리의 말처럼 K/DA는 월드 투어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음악을 선보이고자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평행 세계관이자 챔피언 스킨 시리즈. 한국에서 개최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월드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인 K-POP을 스킨으로 내기 위해 라이엇에서 선보인 가상의 K-POP 걸그룹이다. 게임업계에서 캐릭터를 활용해 아이돌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20년이 넘게 이어진 전통적인 마케팅이다. 하지만 K/DA처럼 실제 유명 가수를 기용한 다국적 프로젝트는 최초다.

K/DA 열풍 이 후 등장한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신인 그룹의 데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음악평론가 차우진 씨는 가상 아이돌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그는 가상 아이돌이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게임 산업과 음악 산업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우진 씨는 한국의 롤(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와 롤 문화, 롤 커뮤니티가 전 세계 유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세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BTS(방탄소년단)를 통해 외국 유저들이 케이팝에 익숙해진 이 시점에서 게임 회사에 계 이러한 시도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은 미래 세상은 셀러브리티와 A.I.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앞서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CU(SM Culture Universe)를 언급한 바 있는데,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열게 될 SMCU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룹 aespa(에스파)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aespa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해가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현실 세계’의 멤버들과 ‘가상 세계’의 아바타 멤버들, 그들의 곁에서 서

포트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가상세계’ 속의 신비로운 존재들이 그룹의 멤버로서, 현실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신 개념 그룹이다. ‘현실 세계’ 멤버들과 ‘가상 세계’ 멤버들이 서로 다른 유기체로서 AI 브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조력도 해 주고, 친구가 되어 주고, 각자 세계의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세계를 오가는 등 새로운 개념의 스토리텔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마블을 예로 들면, 핵심 발전 이념부터 내용 핵심주의 성공산업과 만화 산업으로부터 영화 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 IP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마블의 완전한 산업 구조를 이루기 위한 지속발전의 산업 사슬과 핵심 산업을 만화로부터 영화로 전향한 이후의 영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창조 다중산업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근본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세계관 통일과 영화 스토리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1) 확장성과 탐구성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작품은 일정한 공유성 뿐만 아니라 일명 ‘바이러스’ 특징도 겸비해야 한다. 관객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해 토론하고 탐구하고 사고하게 하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 2) 연속성과 다양성이다. 전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한 미디어의 단일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에 연관적이고 합리적인 성질과 매체에서 이야기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3) 몰입성이다.

관객들은 단 시간내에 쉽고 빠르게 스토리와 그 세계에 빠질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 함께 체험하는 듯한 진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확장 가능한 완전한 세계관 세계관은 단일 스토리의 핵심이 되진 않지만, 각각 스토리들은 완전한 세계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5) 시리즈이다. 이야기는 단일 미디어에서만 아닌 매체에서도 전개되어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해야 한다. 6) 주관성이다. 스토리 배경, 인물 배경, 캐릭터의 동기 혹은 새로운 등장인물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시각을 볼 수 있다. 7) 참여성이다. 스토리는 관객을 끌어들여 참여하게 하고, 공동 창작을 하며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이 작품의 재창작에 참여하게 한다.

이 같은 특징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유대감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커뮤니티의 속성과 유사하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자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하여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따라서 게임 커뮤니티는 플레이어들이 특정 게임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게임은 커뮤니티 내에서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과 협을 만들어낸다.

5. 마음교육의 필요성과 연계 분석

만화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의 특징은 마음교육과의 연계하여 더욱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마음교육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음교육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감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 마음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음교육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마음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개인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음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며,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마음교육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

대사회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예: 비교 문화, 성과 압박 등)에 맞서, 마음교육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음교육은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단 시간 내에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와 세계는 마음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학습자는 즉각적인 몰입과 감정적 연결이 중요하다. 빠르게 스토리와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게임과 교육 콘텐츠는 학습자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더 깊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감정적 참여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확장 가능한 완전한 세계관: 마음교육에서도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깊이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각각의 학습 모듈은 전체적인 교육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리즈화된 콘텐츠: 시리즈 형태의 교육 콘텐츠는 지속적인 학습과 반복적인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음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리즈화된 접근 방식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 더 오래 참여하고, 더 깊이 몰입하게 한다.

주관적인 시각 제공: 마음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토리의 주관성은 학습자가 캐릭터의 동기와 감정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적인 스토리텔링: 마음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참여적 스토리텔링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공동 창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학습자가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나가는 말

팬데믹 이후 이전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견고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서 타인에 공감하고 흥미로운 직접경험에 대한 갈증을 온라인 세상에서 해소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만화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며, 이는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 정교하게 구성된 스토리는 플레이어의 게임 내 세계관과 캐릭터와 깊이 공감하도록 유도하여, 감정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한다.

둘째,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게임 커뮤니티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게임 내 스토리를 보완하는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는 커뮤니티 내 활발한 상호작용과 참여를 유도하며, 게임 스토리의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풍부하게 만든다.

셋째,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은 플레이어의 스토리텔링 경험을 더욱 심화시킨다. 플레이어들은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팬 아트, 팬픽션 등을 통해 자신의 해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심화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때에 고전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는 한다.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는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구시대의 진리를 발전하는 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게임과 k-pop, 그 외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활용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가장 큰 요인은 ‘몰입’도에 있다. 시네마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유저에게 보다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게임 플레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VR을 비롯한 사실적인 3D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는 요즘, 모션 캡처나 물리 엔진을 사용한 기법들이 상용화되면서 허구의 세계

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한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가상현실은 나날이 발전하고 사회의 결속은 약화되는 지금, 콘텐츠 제작자의 역할은 가상과 현실의 윤리관이 주객전도 되지 않도록 인간성과 공감능력을 꾸준히 긍정적으로 자극시키는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및 유통시키는 일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분석은 더욱 연구되고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 커뮤니티와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로,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텔링은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몰입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로, 게임 커뮤니티는 플레이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을 제공한다. 게임 내에서 형성된 관계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적 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로,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은 현대 사회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 스토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커뮤니티와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게임 커뮤니티와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창작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만화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게임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트랜스 미디어 접근 방식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속성

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게임 개발자와 마케터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게임 디자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잘 구성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활동은 플레이어들에게 감정적 연결을 제공하고, 공감과 협력의 경험을 통해 마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특정 게임과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 연구에 집중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과 더 넓은 범위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분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음교육에 대한 대안적 분석 역시 각 계층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https://arkonet.tistory.com/274>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소비자평가(<http://www.iconsumer.or.kr>)
- Smith, J. & Jones, A. (2018). Digital Storytelling and Game-Bas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5(2), 123~145.
- Brown, K. (2019). Transmedia Storytelling and Community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52(3), 89~110.
- Park, S. & Lee, J. (2020). Impact of Game Storytelling on Player Emotions and Social Interactions. *Game Studies Review*, 34(1), 56~78.
- Kim, H. (2021). The Role of Game Communities in Enhancing Social Connectivity. *Social Media & Society*, 17(4), 67~92.
- Robinson, T. (2022). Empathy and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Interactive Media.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28(2), 112~136.
- Lee, M. & Chang, S. (2023). Integrating Emotional Education into Digital Games.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41(3), 88~105.

| Abstract |

Cartoon Game Storytelling and Community Connections

— Analysis of the connection with mind education —

Park, Joohee

The digital gaming industry is growing rapidly, with hundreds of millions of gamers around the world playing on a variety of platforms.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game cinematics on the people and communities who encounter the content by providing a low barrier to easy access to cont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even for non-game users. In addition, the interface between games and animation will be examined. A well-crafted story multiplies the appeal of the game and elicits an emotional response from the player.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gaming commun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se storytelling experiences. In a variety of community spaces, including online forums, social media, and streaming platforms, players can discuss in-game stories, share experiences, and bond based on shared interests. This course examines how game storytelling affects the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game community, and furth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connection with mind education as an alternative.

Key Words: Storytelling, games, community, mind Education, interaction

| 서평 |

서보경,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반비, 2023.

공동성과 취약성 위에서 ‘감염’을 사유하기

강소희*

1. 한국의 HIV/AIDS에 대한 ‘상황적 지식’의 판본

1980년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은 근대과학적 지식이 휘장처럼 두르고 있는 ‘보편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기 해러웨어도 「상황적 지식들: 페미니즘에서의 과학의 부분적 시각의 특권」을 발표하며, 논쟁의 장에 뛰어든다. 해러웨이는 이제까지 근대과학이 초월적이고 무한한 관점을 상정해왔으며, 다양한 시각화 기술을 통해 그 관점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보증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근대과학이 상정한 관점은 사실상 환상이며, “신적인 요술”(해러웨이, 2023, 342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 위치한 ‘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현적(embodied)’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 시점의 개입 없이, 그 시점의 번역과 해석 없이 주어지는 투명한 지식은 없다. 따라서 지식은 체현적이며 부분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제까지 근대과학이 주장했던 보편성과 객관성 또한 “특이하고 특수한 체현에 관한 것”(해러웨이, 2023, 343면)이며, 특히 ‘서구-백인-중산층 지식인-남성’이라는 부분적 관점에 의해 번역·해석된 상황적 지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체현을 초월하려는 근대과학의 오만에 맞서 해러웨이가 도입한 ‘상황적’이

* 전남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

라는 수식어는 페미니스트의 객관적 지식이 출현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의 객관성은 한정된 위치와 상황적 지식에 관한 것이지, 주체와 대상의 초월과 분열에 관한 것이 아니다.”(해러웨이, 2023, 343면) 주체로부터 대상을 떼어내고 초월적 시점으로 대상을 소외시키며 도출하는 객관성이 아니라, 한정된 상황에 붙박인 몸을 통과한 지식, 다양한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체현의 부분성을 상호번역함으로써 얻어지는 객관성이 바로 페미니스트의 지식이다.

따라서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은 객관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객관적이라 인정된 과학적 지식에는 사실상 그 시대의 한계가,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작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 역설적으로 보편에 저항하며 체현의 부분성을 인정하는 지식만이 객관적이라는 사실, 나아가 연결과 얹힘의 혼탁한 관계망에 대한 상호번역만이 우리가 보는 것들에 책임질 수 있는 지식생산의 방법이라는 성찰이 ‘상황적 지식’이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한국의 HIV/AIDS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인 서보경의 『휘말린 날들』은 해러웨이가 페미니스트의 객관성이라 명명했던 ‘상황적 지식’의 한 판본으로 다가온다. 특히 다음의 세 지점에서 그러한데, 먼저 미국과 한국의 에이즈에 대한 초창기 역사를 다시 쓰면서 당대의 과학적 지식이라 여겨지던 의학 및 공중보건 담론이 만들어낸 낙인과 차별의 폭력을 치밀하게 읽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 책은 HIV/AIDS를 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경험과 이들의 연결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HIV/AIDS에 대한 상황적 지식을 가시화한다. 기존의 역사에서 지워진 환자들의 목소리, 옆에서 돌보며 지탱했던 사람들, 인권의 언어로 함께 투쟁했던 순간들을 그러모아 체현된 객관성으로 HIV/AIDS의 계보를 다시 그린다. 마지막으로 ‘감염과 면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 HIV/AIDS를 말할 때 상정하는 인식의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감염과 질병을 ‘공동성과 취약성’의 존재론적 지반 위에서 사고함으로써 HIV/AIDS와 함께하는 미래의 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세 부분과 관련된 『휘말린 날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훑아보자.

2.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처벌의 역사

1981년 6월 5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간하는 <질병과 사망 주간 보고서>에 20~30대 남성 다섯 명에게 폐포자충 폐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것이 에이즈 유행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보도로, 다섯 명 모두 성적으로 활발한 '호모섹슈얼'임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해 7월 3일자 <뉴욕타임즈>의 <41명의 호모섹슈얼에게 희귀암 발생>이라는 기사로 이어졌고, 이후 에이즈는 '게이가 걸리는 암'이며 비정상적이고 문란한 성행위의 결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주지하듯이 이어지는 작업은 동성애와 에이즈를 하나로 묶고, 이에 대한 공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의과학 전문가들은 에이즈를 동성애자가 걸리는 특정 집단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HIV 감염자는 걸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존재로 특정되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를 '성적 괴물'로 그려내는 일련의 서사들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자행하는 동성애자, 복수심에 불타 무차별적 테러를 가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서사는 "동성애자를 병리적 인간 유형의 하나로 본질화하려는 근대적 의학 권력의 실천"(49면)과 만나, 동성애 자체를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추적관찰이 필요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한편 에이즈에 관한 보도가 한국 사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2년 7월 20일 <조선일보>의 <움직이는 세계>라는 지면을 통해서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미지의 괴질이 크게 번지고 있다'는 해외 토픽 성격의 이 기사는 이후 <공포의 에이즈, 약 없는 죽음의 병>과 같이 공포를 확산시키는 보도들로 이어졌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 실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와 혐오의 풍문을 통해 에이즈를 마주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조성된 위기감은 오염된 국제사회와 청정한 한국사회를 나누는 '적과 야'의 날선 감각을 발동시켰고, 이는 혹시 내부에 있을지 모를 오염인자의 색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저자가 특히 문제시하는 부분은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행

정기관이 발병가능성이 높으리라 예측되는 특정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 검사, 격리 치료, 추적 관리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위험한 집단으로 특정된 것은 주한 미군이었다. 이들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특수한 체류 조건을 가진 자들이다. 가장 큰 전파 가능성이 예측되면서도 직접적인 방역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리물로 ‘기지촌 여성들’이 지정된다. 1985년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검사가 점차 확대되어 1987년에는 1만 명의 기지촌 여성 모두가 HIV 정기 검사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HIV/AIDS 관련 위험집단으로 특정되는 순간부터 ‘균의 거소’라는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한다. 즉, 생각과 감정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살균과 소독이 필요한 사물이자 장소’(103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HIV 정기 검진을 ‘토발’이라고 불렀다. 적을 무력으로 제압하듯, 경찰과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피를 뽑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신상을 모두 기록해야 했으며,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의 수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HIV 감염자로 확인되는 순간 이들은 직장을 잃고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주거 제한을 강요받았다. 피검자의 동의 없이 가족과 주변인에게 감염 사실이 통보되었고, 이들에 대한 채혈 및 조사가 강제되는 과정에서 결국 기지촌 여성은 집과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사라졌다.

에이즈 예방책으로 시행된 기지촌 여성에 대한 가혹한 통제는 당대의 보수주의적 시민사회 운동과 결을 같이한다. 이들은 성매매와 동성애를 정상적인 가족 규범을 벗어난 일탈적 성으로 문제시하고, 에이즈를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한 징벌이자 무절제한 성문화의 저주받은 산물로 규정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랑에 기반한 남녀 간의 섹스, 결혼한 부부의 성관계만을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주의적 시민사회 운동의 논리였다. 이 같은 담론 아래 한국에이즈연맹은 1995년부터 ‘새순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감염인이 자신의 죄와 타락을 고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국을 순회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HIV 감염인을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감시와 처벌의 대상인 ‘죄인’으로 다루어 왔음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특히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은 HIV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행위 주체의 개별적 판단과 관계없이 반드시 콘돔을 사용”(293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HIV 감염을 AIDS 발병으로 인식하던 1987년에 제정된 이 법은 현재까지 골격을 유지한 채 수많은 성매개 감염병 중에서 오직 HIV 감염만을 특정해 이들의 성행위를 금지·처벌해왔다. 그러나 콘돔 없는 성행위를 하더라도 HIV 전파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대규모로 시행된 관찰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커플 간의 직접적인 HIV 전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존재 근거는 실재하는 감염의 위험이 아니다. 이 법이 기대고 있는 것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당연시해왔던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이다.

3. 휘말린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그리는 HIV/AIDS의 계보

“에이즈의 초창기 역사를 그의 경험에서부터 다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62면) 저자는 에이즈에 대한 기존의 역사에는 정작 중요한 당사자의 자리, 질병을 몸으로 겪어낸 이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첫 환자로 지목된 이들의 경험을 소환해 에이즈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첫 환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전에 없던 질병을 앓게 된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1번이라는 번호가 부여되는 순간 그는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표적이 되고, 유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신만 없었다면’이라는 비난과 원망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에이즈 유행의 첫 환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당시 승무원으로 일하던 게이 남성 개탕 뒤가였다. 미국 기자 랜디 실츠는 『그래도 밴드는 계속 연주한다』에서 처음으로 에이즈를 퍼뜨린 사람으로 뒤가를 지목하고, 그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지속하며 의도적으로 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꾸며냈

다. 이후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 뒤가는 ‘에이즈 괴물’ 서사의 원형이 되었으며, 곧이어 HIV/AIDS 전파를 범죄화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저자는 이 이야기 옆에 뒤가의 파트너였던 레이 레이퍼드의 회고록과 역사학자 리처드 맥케이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재구성해 병치시킨다. 서술된 내용은 상세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이즈 관련 전문성이나 공신력이 전혀 없는 ‘기자’가 선택한 사람, 꾸며낸 그의 이야기가 당시 미국 사회에 온전한 사실로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에이즈 유행 초기 조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뒤가가 첫 환자로 선택되었고,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상세히 기억해 제공했던 정보들이 그를 에이즈 괴물로 만들었다.

한국인으로 처음 HIV 감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1985년 말경 중동 노무자가 파견 국가에서 시행한 검진에 걸려 강제 귀국 조치를 받고 돌아온”(95면) 20대 청년이다. 중동에서 일하던 그는 다친 동료들 위해 헌혈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HIV 감염이 확인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온 것은 2009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은 맞아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보도자료를 통해서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지만, 현재 매우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24년의 공백 이후 도착한 첫 환자의 전언은 HIV/AIDS에 대한 지배적인 세 가지 오인을 다시 상기시킨다. 첫째,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이 아니다. HIV는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관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다. 둘째, HIV 감염과 AIDS 질병은 같은 것이 아니다. HIV 감염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을 통칭해 AIDS라고 부른다. 셋째 AIDS는 걸리면 죽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임상의학의 발전과 치료제의 획기적인 개발로 이제 AIDS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HIV/AIDS 만성질환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HIV 감염인이나 AIDS 질환자가 없다.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이 뒤따른다.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자는 동료들과 함께 HIV/AIDS 감염인과 가족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기록했던 작업을 바탕으로, “HIV의 만성질환화라는 멀리서 보기에는 아주 평

탄할 것만 같은 지형이 어떤 깊은 굴곡을 숨기고 있는지를”(161면) 그러낸다. 저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이들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강제 검사 과정에서 HIV 감염이 확인된 세 명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이즈로 진단할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되었고, 이후 성매매 관련 업종에 취업을 금지당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한국 에이즈 역사에서 HIV 바이러스에 처음으로 휘말린 세 명의 여성, 저자는 그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다음으로 인터뷰 연구 과정에서 만난 두 사람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에게서 유사한 삶의 궤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살았다는 것, ‘호모 새끼’라는 딱지가 붙은 채 성적 정체성의 애매한 경계에서 방황하며 청년기를 보냈다는 점, HIV에 감염된 후 그의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붙여지고 결국 가족과 직장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 빈곤이라는 계급적 조건 아래 요양시설에 갇혀 긴 시간을 보내며 사회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공통된 경험이 비단 두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HIV에 감염된 이들에게 강요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계급에 기반한 박탈과 성적 차이에 기반한 차별이 얹혀 들어갈 때, 여기에 질병에 대한 낙인과 손상 입은 신체에 대한 시설화의 폭력이 혼합될 때 강제되는 생의 형식이다.”(181면)

이러한 생의 형식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주체와 장소의 폭력성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2013년 8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 남자가 사망했다.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수술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여러 차례 이송을 요청했으나 결국 거절당해 세상을 떠났다. 2020년 8월 생산직 종사자인 한 남성의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HIV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고, 평생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HIV 치료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낙인과 차별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저자의 가열찬 비판이 향하는 곳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장화이다.

요양병원은 ‘에이즈 환자 장기 요양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소수의 병원만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거주를 허용하는 장소가 단 하나로 특정될 때, 그곳은 감옥이 된다. 특히 환자나 파트너의 자발적인 입·퇴원 의사를 무시하고 법적 가족의 동의만을 인정하는 지금의 제도는 병원을 감옥으로 전환하고, 병상에 오른 이들의 몸을 생명 자본으로 착취하는 시설화의 폭력이 기대고 있는 장치다. “요양병원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 의지하는 피난소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시켜 결국은 돌아갈 집을 영영 잃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261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요양병원은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잃은 자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다. 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비정상이라 규정된 사람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들을 ‘가족’으로부터 안전하게 떼어내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 요양의 시설화 및 시장화는 현재의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구성적 외부이며, HIV/AIDS 만성질환자들의 고달픈 삶은 이성애 중심주의 아래 ‘정상 가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실천들을 통해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4. HIV 감염인들의 ‘친족 만들기’와 연대의 기획

HIV에 감염된 사람들 다수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하는 길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 자체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입원이나 거주가 허락된 시설로 들어가 자신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저자는 HIV 감염인을 ‘삶과 죽음의 가운데땅점으로 뭉쳐진’ 존재들이라 명명한다. 인간다운 실존을 박탈당한 채, “살아있으나 동시에 죽은 상태”(208면)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자는 HIV 감염인을 옆에서 돌보며 지탱하는 자들 또한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돌보며 죽음에 지지 않으려 분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친족 만들기’는 혈연과 결혼에 기반한 가족 제도를 이월하는 능력

과 실천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저자의 마지막 작업은 '감염'을 '시키다' 혹은 '당하다'와 같은 능동이나 수동이 아닌 중동의 양태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기존의 사고 체계를 깨고자 하는 시도이다. 저자는 HIV 감염이 야기하는 변화를 '휘말림'이라는 단어와 연결한다. 능동형인 '휘다'와 피동형인 '말다'의 합성어인 '휘말리다'는 행하면서 당하는 일, 즉 동사가 야기하는 과정 안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맡겨지는 '중동태'의 단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염에 휘말리다'라는 표현은 감염을 타자로부터 당하거나 타자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명체의 형식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하고, 변형되는 과정" (348면)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특히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능동과 수동의 표현이 자아와 타자, 정상과 비정상,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등의 이분법 위에서, '감염'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의 신체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동거하는 서식처"(365면)라는 점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건강함 또한 그 무엇에도 감염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감염에 휘말린 상태를, 내 몸에 연루된 타자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연관된다.

감염은 개인이라는 독립된 존재를 상정하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감염은 언제나 수많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취약성과 공동성의 존재론적 지반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사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저자의 전환적 사유에는 HIV/AIDS에 대한 새로운 연대의 기획이 자리한다. 단절과 고립, 차별과 배제의 폭력적 대응을 멈추고, "서로 이어져 있기에 서로 응답하는 감염의 정치적 윤리"(29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HIV/AIDS 연대의 틀어질 수 없는 방향이다.

■ 참고문헌

- 도나 J. 해러웨이, 황희선·임옥희 옮김,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아르테, 2023.
_____,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 서보경, 「감염과 오명, 보복하지 않는 정의에 대하여」, 『마르크스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2021, 29~46면.
- 황임경, 「자기 방어와 사회 안전을 넘어서: 에스포지토, 데리다, 해러웨이를 중심으로 본 번역의 사회·정치·철학」, 『의철학 연구』 제16권, 2013, 115~143면.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과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

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

- 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04. 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김청우(부경대), 김형주(전남대) 박미선(전남대), 신선혜(호남대), 이현재(서울시립대), 정미선(전남대), 최대희(전남대), 한우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하현정(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설배환(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양순자(전남대), 김태완(전남대), 김성훈(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 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종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의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항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9.)

특별기고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중구 | 경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맛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3.)

일반논문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 (2016)에 대하여

김종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종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

위민호·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

홍성호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최영진 | 일반계고등학교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가족과 커뮤니티』 8집 (2023. 7.)

기획특집: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정란 |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홍양희 |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반논문

진서금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정천구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양소영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김덕삼·이경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서평

정미선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9집 (2024. 1.)

민무숙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김병인 |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해중에 대한 재평가
류명옥 |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유해인 |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황지현 |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김주원·강의혁 |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김란영·주승선·염운정·류도향 |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김나경·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 포토토품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최마티·신지원 |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김덕삼·이경자 |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 Issue

황민호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평

한우리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10집 (2024. 7.)

기획특집: 미래 커뮤니티를 그리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커뮤니티의 진화

- 박미선·신형수 |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가족 담론의 변화: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대현·이유나 | 비(이성애)혼 게이커뮤니티의 명암
김순남·나영정 |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
최대희 |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류도향 | 초개인화시대,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방안 연구

일반논문

- 정천구 |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적 특성과 효선 재해석
김동연 |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공간 인식과 여행 인식
최은주 |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
김종수 | 유(儒醫) 석봉(石峰) 김병태(金柄泰) 가문의 대택(大宅) 정영
김동규 |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 『전체성과 무한』 4부 C “번식성” 및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한 가지 해석
우양호 |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윤선숙·조유영 |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숙경 |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정책의 전환: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을 위하여

서평

김재민 | '잃어버린' 모성과 상실의 트라우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
- 박미선 외, [연구총서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 Elsa Dolin 외, [연구총서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 Uma Krishnan 외, [연구총서4], 가족커뮤니티와 다성적주체론, 한국문화사, 2024. 2. 23.
-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고광아·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한의승 외, [국가전략총서4] 가족커뮤니티 윤리와 가족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 31.
- 류도향 외, [국가전략총서5]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8. 30.
- 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6] 귀어한 가족커뮤니티에 대한 상상과 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8. 30.
-

2. 번역총서

-
- Tony Blacksha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Lodger Pries 지음, 최대희·장영숙 옮김, [번역총서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4] 기억의 윤리, 한국문화사, 2023. 6. 19.

岡野八代 지음, 이수진·박경희 옮김, [번역총서5] 가족 — 새로운 「친밀권」을 찾아서, 한국문화사, 2023. 9. 27.

许琪 지음, 장복동·최만원 옮김, [번역총서6] 계승과 변천-현대 중국 가정의 구조와 가정 양로, 한국문화사, 2024. 11. 13.

3. 시민문화총서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4.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3]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2. 28.

가족과 커뮤니티 (제11집) FAMILY AND COMMUNITY

발 행 일: 2025년 1월 31일

발 행 인: 정미라

발 행 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인 쇄 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062-530-0571~5

팩 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t.co.kr>

E-mail: cnut0571@hanmail.net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